

# 모택동선집

3





**전 세계 노동자들은 단결하라 !**

# 毛泽东选集

## 第三卷

一九六七年·北京

# 모택동선집

## 3

1967년·북경



## 목 차

### 항일 전쟁 시기(하)

《농촌 조사》의 서언과 발문(1941년 3월, 4월)·····	1147
서 언·····	1147
발 문·····	1151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1941년 5월)·····	1155
극동 문해 음모를 폭로하자(1941년 5월 25일)·····	1169
반파쇼 국제 통일 전선에 관하여(1941년 6월 23일)·····	1171
섬감녕 번구 참의회에서 한 연설(1941년 11월 21일)·····	1173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1942년 2월 1일)·····	1179
당팔교를 반대하자(1942년 2월 8일)·····	1207
연안 문예 좌담회에서의 강화(1942년 5월)·····	1233
머 리' 말·····	1233
결 론·····	1242
극히 중요한 정책(1942년 9월 7일)·····	1281
제 2 차 세계 대전의 전환점(1942년 10월 12일)·····	1287
10월 혁명 25 주년을 경축하여(1942년 11월 6일)·····	1297
항일 시기의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1942년 12월)·····	1299

지도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1943년 6월 1일)·····	1309
국민당에 질문한다(1943년 7월 12일)·····	1319
근거지에서의 소작료 인하와 생산 및 용정 애민 운동을 전개하자(1943년 10월 1일)·····	1331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와 국민 참정회 제 3 기 제 2 차 회의를 평함 (1943년 10월 5일)·····	1339
조직하라(1943년 11월 29일)·····	1361
학습과 시국(1944년 4월 12일)·····	1375
부록: 약간의 력사 문제에 관한 결정(1945년 4월 20일)···	1395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1944년 9월 8일)·····	1465
장 개석의 쌍10절 연설을 평함(1944년 10월 11일)·····	1469
문화 사업에 있어서의 통일 전선(1944년 10월 30일)···	1477
경제 사업을 배워야 한다(1945년 1월 10일)·····	1481
유격구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다(1945년 1월 31일)···	1493
중국의 두 운명(1945년 4월 23일)·····	1499
련합 정부에 대하여(1945년 4월 24일)·····	1505
1. 중국 인민의 기본적 요구·····	1505
2.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1507
3. 항일 전쟁에서의 두 로선·····	1510
중국 문제의 판건·····	1510
우여 곡절의 길을 걸어 온 력사·····	1512



인민 전쟁.....	1518
두 전장.....	1523
중국 해방구.....	1526
국민당 통치구.....	1528
대 비.....	1531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자는 누구인가?.....	1533
소위 《정령, 군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	1535
내전의 위험성.....	1536
담 판.....	1537
두 가지 전도.....	1538
4. 중국 공산당의 정책.....	1540
우리의 일반적 강령.....	1542
우리의 구체적 강령.....	1553
중국 국민당 통치구에서의 임무.....	1589
중국 피점령구에서의 임무.....	1591
중국 해방구에서의 임무.....	1593
5. 전 당은 단결하여 당의 임무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자.....	1597
우공이 산을 옮겼다(1945년 6월 11일).....	1607
군대에서의 생산 자급에 대하여서와 정풍 및 생산 2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1945년 4월 27일).....	1613

---

헐리와 장 개석의 맞장구는 이미 파산되었다 (1945년 7월 10일).....	1621
헐리 정책의 위험성에 대하여(1945년 7월 12일).....	1627
포스터 동지에게 보내는 전보(1945년 7월 29일).....	1631
일본 침략자에 대한 최후의 일전(1945년 8월 9일).....	1633

# 항일 전쟁 시기 (하)



## «농촌 조사»의 서언과 발문

(1941년 3월, 4월)

### 서 언

(1941년 3월 17일)

지금 당의 농촌 정책은 10년 내전 시기와 같은 토지 혁명의 정책이 아니라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정책이다. 전당은 중앙 위원회의 1940년 7월 7일 부 지시와 12월 25일 부 지시<sup>[1]</sup>를 집행하여야 하며 곧 열리게 되는 제 7 차 대회의 지시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자료를 출판하는 목적은 동지들이 문제의 연구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깊이 파고 들어 가지 않고 거칠게 해 치우는 작풍이 아직 남아 있으며 심지어는 하부의 실정을 전혀 모르면서 지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현상이다. 중국 사회 각 계급의 실정에 대한 진정한 구체적인 료해가 없다면 진정으로 훌륭한 지도를 할 수 없다.

정황을 료해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사회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며 사회 각 계급의 생동한 정황을 조사하는 것이

다. 지도 사업을 맡고 있는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계획적으로 몇 개의 도시, 몇 개의 농촌을 선택하여 맑스주의의 기본적인 관점, 즉 계급 분석의 방법으로 세밀한 조사를 몇 번 진행하는 것이 정확을 료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중국 사회 문제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머리를 쳐들고 우만 올려다 볼 것이 아니라 우선 눈을 아래로 돌려야 한다. 눈을 아래로 돌릴 흥미와 결심이 없다면 평생 가도 중국의 실정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조사회를 열어야 한다. 여기 저기를 두리번 두리번 살피거나 오가는 말이나 주어 들어서는 결코 아무런 완전한 지식도 얻을 수 없다. 내가 조사회를 여는 방법으로 얻은 자료들 가운데서 호남에 관한 몇 가지와 정강산에 관한 몇 가지는 잃어 버렸다. 지금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주로 《홍국의 조사》와 《장강항의 조사》 및 《재계항의 조사》이다. 조사회를 여는 것은 가장 간편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또 가장 확실하고 믿음직한 방법이다. 나는 이 방법으로 뛰어난 효과를 보았다. 이것은 그 어떤 대학보다도 더 훌륭한 학교이다.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경험이 있는 중급 및 하급 간부거나 백성들이어야 한다. 내가 호남성의 5개 현의 조사와 정강산의 2개 현의 조사에서 택한 사람들은 각 현의 중급 책임 간부들이었으며 심오의 조사에서 택한 사람들은 일부의 중급 간부, 일부의 하급 간부, 가난한 수재 한

사람, 이미 파산된 상인 협회 회장 한 사람, 현청에서 세금 관리를 하다가 실업 당한 하급 관리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들어 보지도 못 하던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호남성 형산현에서 조사하고 있을 때 나는 그 현의 한 하급 옥리한테서 처음으로 중국 감옥의 온갖 부패한 진상을 알게 되었다. 흥국현에서의 조사 및 장강항과 재계항에서의 조사 때에 택한 사람은 향급 일'군들과 일반 농민들이었다. 이러한 간부, 농민, 수재, 옥리, 상인과 세금 관리는 나의 존경하여야 할 선생들이었다. 나는 그들의 학생으로서 공손하고 부지런하고 또 동지적인 태도로 그들에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나를 상대하지 않으며 아는 것도 말하지 않으며 또 말한다 하여도 다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사회를 여는 데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3~4 명 내지 7~8 명이면 된다. 그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고 조사 강목이 있어야 하며 또 직접 자기가 묻고 자기 손으로 기록하여야 하는 동시에 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끊어 넘치는 열정, 눈을 아래로 돌리려는 결심과 지식을 탐구하려는 갈망이 없고 더러운 틀을 버리고 소학생이 되려는 정신이 없으면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으며 또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은 진정한 영웅이며 우리 자신은 흔히 유지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점을 알지 못 하면 최저 한도의 지식조차 얻을 수 없다.

이 참고 자료를 출판하는 주요한 목적은 동지들에게 그

구체적 자료와 그 결론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부의 정황을 여하히 료해할 것인가 하는 방법을 지적하는 데 있다는 점을 나는 거듭 말하여 둔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나 어린 부르조아지는 구라파나 아메리카나 일본의 부르조아지와는 달라서 사회 정황에 관한 비교적 완비한 자료, 지어는 최저 한도의 자료조차 우리에게 미처 준비하여 주지 못 하였으며 또 영원히 준비하여 줄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이 자료 수집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수적으로 말하면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일'군들은 변화하고 있는 정황을 수시로 알아야 한다. 이것은 어떤 나라의 공산당이든지 다른 사람이 준비하여 주려니 하고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일'군들은 반드시 하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리론만 알고 실제 정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조사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리론과 실제를 련계시킬 수 없다. 《조사가 없이는 발언권이 없다》는 이 말은 《협애한 경험론》이라고 조소 당한 적이 있었으나 나는 지금도 이 말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는 조사가 없이는 발언권이 없다는 것을 여전히 전지한다. 많은 사람들은 《도입하자마자》 떠들썩하게 문의하면서 의견을 제기하며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나무라는데 실상 이런 사람은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실패하고 만다. 왜냐 하면 이러한 문의 혹은 비판은 주밀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무지한 망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이 이런 소위 《어사》로 인하여 입은 손실은 이루



다 해야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어사》는 많기도 하여 거의 어디나 다 있다. 《리론이 혁명적 실천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용 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라고 한 쓰말린의 말은 옳으며 또 《실천이 혁명적 리론으로써 자기의 길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것으로 될 것이다.》<sup>[2]</sup>라고 한 그의 말도 물론 옳다. 맹목적이고 전망이 없고 원대한 예견성이 없는 실천가를 제외하고는 《협애한 경험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중국 사정과 국제 사정을 주밀히 연구할 필요성을 통절히 느낀다. 이것은 나 자신이 중국 사정과 국제 사정에 대하여 아직도 잘 알지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결코 나는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이 아니다. 전 당의 동지들과 함께 대중에게서 배우며 계속 소학생이 되려는 것이 곧 나의 소원이다.

## 발 문

(1941년 4월 19일)

10년 내전 시기의 경험은 지금의 항일 시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가장 가까운 참고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전술 로선 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하히 대중과 련계를 맺으며 대중을 동원하여 적을 반대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말하는 것이다. 당의 전술 로선은 지금에 있어서 과거와 원칙적인 구

별이 있다. 과거에 있어서는 지주와 반혁명적 부르주아지를 반대하는 것이었고 현재에 있어서는 항일을 반대하지 않는 일체 지주와 부르주아지를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10년 내전의 후기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력 침공을 감행하는 반동적 정부 및 정당에 대하여서와 우리 정권의 관할 하에 있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띤 일체 사회 계층들에 대하여 상이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고 반동적 정부와 정당 내의 각이한 파벌들에 대하여서도 각이한 정책을 취하지 않은 것은 역시 옳지 못 하였던 것이다. 당시 농민과 도시의 하층 소부르주아지를 제외한 기타의 일체 사회 요소들에 대하여 소위 《일체는 투쟁》이라는 정책을 집행하였다. 이 정책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잘못이었다. 토지 정책 면에 있어서 10년 내전의 전기와 중기에 취한, 지주에게도 농민과 같이 한 몫의 토지를 분여하여 농사를 짓게 함으로써 정치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산에 들어 가 도적이 되어 사회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정확한 정책을 부정한 것도 잘못이었다<sup>[3]</sup>. 지금의 당 정책은 이와 달라야 한다. 《일체는 투쟁이고 연합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일체는 연합이고 투쟁을 부인하는 것》(1927년의 진독수주의와 같은)도 아니며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사회 계층과 연합하여 그들과 통일 전선을 결성하되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적에게 투항하며 공산당과 인민을 반대하려는 동요성과 반동성에 대하여는 또 그 각이한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각이한 형태로 그들과 투쟁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의 정책은 《연합》과 《투쟁》을 합한 이중성을 띤 정

책이다. 노동 정책 면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적당히 개선하며 자본주의 경제의 정당한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이중성을 띤 정책이다. 토지 정책 면에 있어서는 소작료와 리자의 인하를 지주에게 요구하고 또 농민이 부분적 소작료와 리자를 지주에게 바치도록 규정한 이중성을 띤 정책이다. 정치적 권리 면에 있어서는 항일하는 모든 지주, 자본가에게 노동자, 농민과 동등한 인신권과 정치 권리 및 재산권을 부여하되 또 있을 수 있는 그들의 반혁명적 행동을 방지하는 이중성을 띤 정책이다. 국영 경제와 합작사 경제는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하 농촌 근거지에 있어서의 주되는 경제 요소는 국영 경제가 아니라 개인 경영의 경제이다. 따라서 자유 자본주의 경제에 발전할 기회를 줌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와 반봉건 제도를 반대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하 중국에 있어서의 가장 혁명적인 정책이다. 이 정책의 실행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것은 두 말 할 것도 없이 잘못이다. 공산당원의 공산주의적 순결성을 엄숙히, 건결히 보전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에 있어서의 유익한 자본주의적 요소를 보호하고 또 그것이 적당히 발전되도록 하는 것은 항일과 민주 공화국 창건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불가결의 과업이다. 이 시기에 있어서 일부 공산당원이 부르쥬아지에 의하여 부패해지며 당원들 중에서 자본주의적 사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반드시 당내의 이런 부패한 사상과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내에서의 자본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그릇되게 사회 경제 면에 옮겨다가 자본주의적 경제 요소를 반대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계선을 명확히 갈라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 사업하고 있으므로 매개 당원, 특히 간부들은 맑스주의적 전술을 아는 투사로 되도록 자신을 단련하여야 한다. 문제를 일면적으로 단순하게 관찰하여서는 혁명을 승리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다.

## 주 해

[1] 중앙 위원회의 1940년 7월 7일 부 지시란 당시에 발표한 《현 정책과 당 정책에 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중앙 위원회의 1940년 12월 25일 부 지시란 곧 본 선집 제 2 권에 수록된 《정책에 대하여》이다.

[2] 쓰딸린의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의 제 3 부분 《리론》에서 인용한 것이다.

[3] 여기에서 말하는 10년 내전의 전기란 1927년 말부터 1928년 말까지의 시기, 즉 보통 말하는 정강산 시기를 가리키며 중기란 1929년 초부터 1931년 가을까지의 시기, 즉 중앙 홍색 근거지의 창설로부터 제 3 차 반《포위 토벌》전쟁의 승리적 종결까지의 시기를 가리키며 후기란 1931년 말부터 1934년 말까지의 시기, 즉 제 3 차 반《포위 토벌》전쟁의 승리적 종결 이후부터 당 중앙이 귀주성 준의에서 진행된 정치국 확대 회의까지의 시기를 가리킨다. 1935년 1월의 준의 회의는 1931년부터 1934년까지의 당내에서의 《좌》경 기회주의 로선의 지배를 종결 짓고 당을 정확한 로선으로 돌아 오게 하였다. 본 선집에 수록된 《학습과 시국》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 제 3 부분을 참조하라.

# 우리의 학습을 개조하자\*

(1941년 5월)

나는 우리 전 당의 학습 방법과 학습 제도를 고칠 것을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중국 공산당의 20 년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이 날로 더 결합되어 온 20 년이다. 회상하여 보면 우리 당의 유년 시기에 우리의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인식과 중국 혁명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천박하였으며 얼마나 빈약하였던가, 그러나 지금은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훨씬 심각하여졌으며 훨씬 풍부하여졌다. 거듭되는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 간부 회의에서 한 보고이다. 이 보고와 《당의 작풍을 바로잡자》, 《당팔고를 반대하자》란 두 글은 정풍 운동에 관한 모택동 동지의 기본적 저작들이다. 모택동 동지는 이 저작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상적 문제로부터 과거 당내에 존재하였던 모신 상의 의견 상이물 종화하였으며 당내에 광범히 존재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로 가장한 소부르주아 사상 작품, 주로는 주관주의적 경향, 종파주의적 경향 및 이 두 경향의 표현 형태인 당팔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전 당'적 범위의 맑스-레

재난에 시달리는 중화 민족은 지난 100년 동안에 자기 민족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그 뒤를 이으면서 희생적 투쟁으로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진리를 더듬어 왔다. 이것은 실로 비장하고도 눈물겨운 일이다. 그러나 제 1차 세계 대전과 로씨야 10월 혁명 후에 이르러서야 맑스-레닌주의라는 이 가장 훌륭한 진리를 찾아냈으며 그것을 우리 민족의 해방을 위한 가장 좋은 무기로 삼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이 무기를 잡는 데 있어서의 창도자이며 선전자이며 조직자였다.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가 일단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합되자 그것은 중국 혁명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항일 전쟁 이래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에 령각하여 항일 전쟁의 구체적 실천을 연구하며 오늘의 중국과 세계를 연구하는 면에서 일보 전진하였으며 중국 역사에 대한 연구도 일부 시작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좋은 현상들이다.

## 2

그러나 우리에게도 아직도 결합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닌주의 교양 운동 즉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원칙에 의하여 작풍을 바로잡는 운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모택동 동지의 이 호소는 즉시 당내 및 당외에서 프로메타리아 사상과 소부트코야 사상 간의 대론권을 일으켰으며 당내 및 당외에 있어서의 프로메타리아 사상의 진지를 공고히 하았으며 광범한 간부들을 사상적으로 크게 한 걸음 제고시켰으며 당의 권력 없는 단결을 이룩하였다.

커다란 결합이 있다. 만일 이러한 결합들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업을 한 걸음 더 추진시킬 수 없을 것이며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권을 결합시키는 위대한 사업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선 현 상태의 연구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우리 당과 같은 큰 당으로서 비록 국내 및 국제의 현 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약간의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지만 국내 국제의 여러 면에서, 즉 국내 및 국제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어느 한 면에서나 우리가 이미 수집한 자료는 아직 단편적이며 우리의 연구 사업은 아직 체계적이 못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난 20년 동안에 상술한 여러 면들에 대하여 우리는 자료를 계통적이고도 주밀하게 수집하고 연구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객관 실정을 조사 연구하는 농후한 분위기가 결여하였다. 《눈을 감고 참새를 잡는》, 《장님이 물'고기를 잡는》, 매사에 거칠은, 큰소리만 치는, 알 등 말 등 한 지식에 만족하는 등 이런 극히 나쁜 작품이, 맑스-레닌주의의 근본 정신에 완전히 배치되는 이런 나쁜 작품이 아직도 우리 당의 많은 동지들에게 그냥 존재하고 있다.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은 우리에게 정황을 진지하게 연구하며 주관적인 념원으로 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객관 실정으로 부터 출발하라고 교시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이 진리를 직접 위반하고 있다.

다음으로 력사의 연구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소수의 당

원과 소수의 당의 동정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 일은 있으나 조직적으로 진행한 적은 없다. 최근 100년 간의 중국사도, 고대의 중국사도 많은 당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캄캄하다. 많은 맑스-레닌주의 학자들도 입만 벌리면 회랍을 운운하면서도 자기의 조상에 대하여서는 최소한 일이지만 잊어 버리고 있다. 현 상태를 진지하게 연구하려는 분위기가 농후하지 못하며 역사를 진지하게 연구하려는 분위기도 역시 농후하지 못하다.

그 다음으로 국제적 혁명 경험의 학습,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의 학습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많은 동지들은 혁명적 실천의 수요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단순히 학습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읽기는 하여도 소화하지 못 한다.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개별적인 문구를 일면적으로 인용할 줄만 알고 그들의 령장과 관점 및 방법을 적용하여 중국의 현 상태와 중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중국 혁명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 해결할 줄은 모른다.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아주 해로운 것이며, 특히 중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있어서는 그 해독이 더욱 크다.

우에서 나는 세 개 면의 정형, 즉 현 상태의 연구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역사의 연구를 중요시하지 않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적용을 중요시하지 않는 데 대하여 말하였다. 이러한 것은 다 극히 나쁜 작풍이다. 이러한 작풍이 전파되면 우리의 많은 동지들을 해친다.



확실히 그렇다. 사실 지금 우리 대열 내에는 이러한 작품으로 하여 잘못된 동지들이 많다. 국내외, 성내외, 현내외, 구내외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계통적인 주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려 하지 않고 근근히 알 듯 말 듯한 지식과 《의례 그러려니》하는 생각에 근거하여 명령과 지시를 내리는 이런 주관주의적 작품이 아직도 많은 동지들에게 존재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들의 력사에 대하여 조금도 알지 못하거나 조금 밖에 알지 못 하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엄중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력사와 아편전쟁 이래의 중국의 최근 100년 간의 력사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적은 그것이다. 최근 100년 간의 경제사, 최근 100년 간의 정치사, 최근 100년 간의 군사사, 최근 100년 간의 문화사를 진지하게 연구하기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것은 전혀 모르고 안다는 것은 온통 회랍과 외국의 이야기 뿐이며 그것마저 가련하게도 외국의 수치'더미 속에서 두루두루 주어 온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류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폐단이 있었다. 구라과, 아메리카 또는 일본으로부터 돌아 온 그들은 통째로 삼켜 온 외국의 것을 그대로 외울 줄 밖에 모른다. 그들은 새 사물을 인식하며 새 사물을 창조하여야 할 자기들의 책임은 망각하고 축음기의 역할을 놓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공산당에까지도 전파되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맑스주의이지만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맑스주의를 배우는 방법은 직접 맑스주의에 배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이 간곡히 교시한, 이론과 실제의 통일이라는 이 기본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 원칙을 위반한 만큼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와 상반되는 원칙, 즉 이론과 실제의 분리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나 재직 간부 교육에 있어서나 물론하고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중국 혁명의 논리를 연구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지 않으며,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중국 경제의 특성을 연구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지 않으며, 정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중국 혁명의 전술을 연구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지 않으며, 군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중국의 특성에 적합한 전략 전술을 연구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지 않는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그릇된 것이 전파되어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다. 연안에서 배운 것이 부현(1)에 가면 그만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경제학 교수가 변구 화폐와 법폐(2)를 해석하지 못 하는 만큼 학생들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 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리 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반상적인 심리가 조성되어 중국 문제에 대하여는 흥미를 느끼지 않고 당의 지시에 대하여는 중시하지 않고 도리어 선생에게서 배운 소위 만고 불변의 교조에 모든 정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우에서 내가 말한 것은 우리 당내의 극히 나쁜 전형을 두고 말한 것이고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형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수효가 상당히 많고 그 해독이 상당히 크므로 동한시킬 수 없는 것이다.

### 3

이 뜻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나는 서로 대립되고 있는 두 가지 태도를 대조하여 가며 말하여 한다.

첫째는 주관주의적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 하에서는 주위의 환경에 대하여 계통적인 주밀한 연구를 하지 않고 주관적인 열정에만 의하여 사엽하게 되며 중국의 오늘의 면모에 대하여 알듯 말듯 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 하에서는 역사를 단절하게 되며 회랍만 알고 중국을 모르며 중국의 어제와 그저께에 대하여는 캄캄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 하에서는 추상적으로 목적 없이 맑스-레닌주의 이론을 연구하게 된다. 중국 혁명의 이론 문제, 전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에게서 럽장, 관점,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론을 배우기 위하여 이론을 배운다. 목표를 겨누고 활을 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없이 활을 쏜다.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은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제 사물로부더 출발하여 그 가운데서 법칙을 찾아 내어 우리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는 맑스가 말한 바와 같이 상세하게 자료를 소유하고 과학적인 분석 및 종합적 연구를 가하여야 한다[3].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

게 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로 하고 있다. 그 중의 많은 사람들은 연구 사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오늘의 중국과 어제의 중국을 연구하는 일에는 도무지 흥미를 느끼지 않고 실제를 떠난, 내용이 텅 빈 《리론》의 연구에만 흥미를 느낀다. 많은 사람들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역시 객관적 정황을 연구하는 데 주의를 돌리지 않고 흔히 열정에만 의지하며 감상으로 정책을 대체한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주관에만 의지하고 객관적 실제 사물의 존재를 홀시한다. 강연을 하게 되면 가, 나, 다, 라, 1, 2, 3, 4 식으로 한바탕 늘어 놓으며 글을 쓰게 되면 한바탕 장편 대론을 늘어 놓는다. 실사 구시의 정신이 없고 대중을 속여 환심을 사려는 야심이 있다. 허울은 좋으나 실'속이 없고 산뜻하나 튼튼하지 못하다. 스스로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천하에 제일이라고 뽐내며 도처에서 《어사》 행세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렬 내의 일부 동지들의 작풍이다. 이러한 작풍으로 자신을 대하면 자신을 해치게 되며 남을 가르치면 남을 해치게 되며 혁명을 지도하면 혁명을 해치게 된다. 요컨대 이러한 반과학적이고 반맑스-레닌주의적인 주관주의적 방법은 공산당의 대적이며 로동 계급의 대적이며 인민의 대적이며 민족의 대적이며 당성이 순결하지 못한 표현의 하나이다. 대적이 앞에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주관주의를 타도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 진리가 머리를 쳐들 수 있으며 당성이 공고하여질 수 있으며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 과학적 태도가 없는 것, 즉 맑스-레닌주의적 리론과 실천과의 통일적 태

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당성이 없는 것 또는 당성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주련이 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담장 우에 자란 갈'대는

머리는 무거우나 대는 약하고 뿌리가 얁다.

산간에서 자란 죽순은

끝이 뾰족하고 접질은 두꺼우나 속이 텅 비었다.

과학적 태도가 없는 사람들,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의 저작에 있는 약간의 문구를 암송할 줄 밖에 모르는 사람들, 허명만 있고 실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이것과 비슷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자기의 결함을 고치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이 주련을 베껴 두거나 좀더 용기를 내어 이것을 자기 방 벽에다 붙여 둘 것을 권고한다. 맑스-레닌주의는 과학이다. 과학이란 진실한 학문이므로 조금이라도 찌를 부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좀더 진실하여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맑스-레닌주의적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 하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을 적용하여 주위 환경에 대한 계통적이고도 주밀한 조사와 연구를 하게 된다. 단순히 설정만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쓰딸린이 말한 바와 같이 혁명적 전개력과 실무성을 결합시킨다(4). 이러한 태도 하에서는 역사를 단절하지 않게 된다. 즉 단순히 회랍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국까지 알며 외국 혁명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국 혁명사도 알며 중국의 오늘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어제와 그제께도 알게 된다. 이러한 태도 하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연구하게 되며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중국 혁명의 실제 운동을 결합시키게 되며 중국 혁명의 리론 문제와 전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기에서 입장을 찾고 관점을 찾고 방법을 찾게 된다. 이러한 태도가 목표를 겨누고 활을 쓰는 태도이다. 《목표》란 즉 중국 혁명이며 《화살》이란 즉 맑스-레닌주의이다. 우리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이 《화살》을 구하는 것은 중국 혁명과 동방 혁명이라는 이 《목표》를 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실사 구시의 태도이다. 《실사》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일체의 사물이며 《시(是)》란 객관적 사물의 내재적 연관성 즉 합법칙성이며 《구(求)》란 연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내외, 성내외, 현내외, 구내외의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가운데서 억측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에 고유한 합법칙성 즉 주위의 사건들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찾아 내어 그것을 우리의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주관적인 상상에 의존하거나 일시적인 열정에 의존하거나 죽은 서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에 의거하여 자료들을 상세히 소유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의 지도 하에서 이러한 자료들로부터 정확한 결론을 얻어 내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가, 나, 다, 라 식의 현상 라렬도 아니고 한바탕 불어 대는 장황한 문장도 아니고 과학적인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실사 구시의 정신이 들어 있으며 대중을 속여 환심을 사려는

야심이 없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당성의 표현이며 리론과 실제가 통일된 맑스-레닌주의적 작품이다. 이것은 공산당원으로서 최저 한도로 구비하여야 할 태도이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머리는 무거우나 내는 약하고 뿌리가 얇》게 되지 않을 것이며 《끝이 뾰족하고 접질은 두꺼우나 속이 텅 비》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 4

상술한 의견들에 근거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제의한다.

(1) 주위의 환경을 계통적이고도 주밀하게 연구할 과업을 전 당에 제기한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방법에 의하여 적과 벗과 우리, 이 세 축의 경제, 재정, 정치, 군사, 문화, 당 사업 등 여러 면의 동태에 대하여 상세한 조사 연구 사업을 진행한 후에 당연한 그리고 필요한 결론을 얻어 내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동지들의 시선을 상술한 바와 같은 그런 실제 사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로 이끌어야 한다. 공산당 지도 기관의 기본 임무는 정황을 료해하고 정책을 장악하는 두 가지 큰 일에 있는 것으로서 전자는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세계를 개조한다는 것임을 동지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조사가 없이는 발언권이 없으며 그럴듯하게 한바탕 불어 대거나 1, 2, 3, 4 식으로 현상을 라렬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다는 것을 동지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케를 들면 선전 사업에 있어서 만일 적과 벗과 우리,

이 세 측의 선전 상황을 료해하지 못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전 정책을 정확히 결정할 수 없다. 그 어떤 부분의 사업이든지 우선 정황에 대한 료해가 있는 후에라야 훌륭한 처리가 있을 수 있다. 전 당'적으로 조사 연구 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당의 작품을 전변시키는 기본적인 고리이다.

(2) 최근 100 년 간의 중국사에 대하여는 인재들을 모아 분공하고 협조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여야 하며 무조직 상태를 극복하여야 한다. 먼저 경제사, 정치사, 군사사, 문화사 등 몇몇 부문을 분석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야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3) 재적 간부의 교육과 간부 학교에서의 교육에 있어서는 중국 혁명의 실제 문제의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방침을 확립하여야 하며 정치적으로, 고립적으로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하는 방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쏘련 공산당(불쉐위크) 역사 간략 독본》을 중심 자료로 삼아야 한다. 《쏘련 공산당(불쉐위크) 역사 간략 독본》은 지난 100 년 간의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최고의 종합이고 총화이며 이론과 실제와의 결합의 전형이며 전 세계적으로 아직 단 하나 뿐인 완전한 전형이다. 우리는 레닌과 스탈린이 맑스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쏘련 혁명의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결합시켰으며 따라서 맑스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켰는가를 알게 되면 중국에서 어떻게 사업하여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은 굽은 길을 걸었다. 그러나 그릇된 것은 흔히 정확한 것의 길잡이로 된다. 이처럼 약동적이고 풍부한 중국 혁명의 환경과 세계 혁명의 환경 속에서 진행하는 학습 문제에서의 우리의 이러한 개조는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 주 해

[1] 부원은 연안으로부터 남으로 약 70 키로 떨어진 곳에 있다.

[2] 《변구 화폐》란 설감녕 변구 정부의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권이다. 《법폐》란 1935년 이후 국민당 관료 자본의 4대 은행이 영, 미 제국주의의 지지 하에서 발행한 지폐이다. 모택동 동지가 이 글에서 말한 것은 당시의 변구 화폐와 법폐 사이에 일어 나는 환자 시세의 변화 문제이다.

[3] 맑스의 《〈자본론〉 제 1 권 제 2 판 발문》에 있다. 맑스는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구는 마땅히 세밀하게 자료에 정통해야 하며 자료의 각이한 발견 형태들을 분석해야 하며 그 형태들의 내부적 면관을 추적해 내야 한다. 이 사업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현실적 운동이 정당하게 묘사될 수 있다》.

[4] 쓰딸린의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의 제 9 부분 《사업 작풍》에 있다.



## 극동 문헌 음모를 폭로하자\*

(1941년 5월 25일)

(1) 일본과 미국이 타협하여 중국을 희생시키며 반공, 반소의 국면을 조성하려는 동방 문헌의 새로운 음모가 지금 일본, 미국 및 장 개석 사이에서 책동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폭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강압적으로 장 개석을 투항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인제의 군사적 진공은 지금 일단락을 고하였고 이 다음에 오게 될 것은 필연적으로 투항 권유 활동일 것이다. 이것은 한 번 치고는 끌어 당기고 또 한 번 치고는 끌어 당기는 적의 상투적인 정책의 재연이다. 우리는 그것을 폭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일본은 군사적 진공과 함께 소위 《팔로군은 국민당 중앙군과 협동 작전을 하기 싫어 한다》, 《팔로군은 기회를 타서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 로선을 개통시키고 있다》, 《따로 중앙 정부를 수립한다》는 등등의 요언에 의한 공세를 발동하였다. 이것은 국공 관계를 리간시켜 투항 권유에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당내 지시문이다.

유리하게 하려는 일본의 꾀계이다. 국민당 《중앙 통신사》와 국민당 신문들이 그것을 그대로 류포함으로써 서슴없이 일본의 반공 선전과 서로 호응하고 있는 이것은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것 역시 폭로,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신사군은 《배반하였다》는 선고를 받았지만, 그리고 팔로군은 탄알 한 알, 군비 한 톨 받지 못 하였지만 잠시도 적과의 투쟁을 중지한 적이 없다. 이 번 산서성 남부의 전역〔1〕에 있어서도 팔로군은 자진하여 국민당 군대와 배합하여 작전하였고 2 주일 이래 화북의 각 전선에서 전면적으로 출격하였으며 아직도 격전 중에 있다. 공산당이 령도하는 무장력과 민중은 이미 항일 전쟁에서의 튼튼한 기둥으로 되었다. 공산당에 대한 일체 중상의 목적은 항전을 실패로 돌아 가게 하여 투항에 유리하게 하려는 데 있다. 우리는 팔로군과 신사군의 전과를 확대하며 일체의 패배주의자와 투항주의자를 반대하여야 한다.

## 주 해

〔1〕 산서성 남부의 전역이란 즉 중조산 전역이다. 1941년 5월에 일본 침략자는 5만여 명의 병력으로 산서성 남부 황하 북안에 있는 중조산 지구들 진공하였다. 이 지구에 점거되어 있던 국민당 군대는 7 개 군이었고 이 밖에 그 동북쪽 고평 지구에 있던 4 개 군까지 넣으면 도합 25만 명이였다. 황하 이북에 있던 국민당 부대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을 그 주요 임무로 삼았고 일본 침략자에 대하여서는 종래로 작전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침략자가 진공하자 그 대부분은 싸움을 회피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팔로군이 이 전역에서 국민당 군대와 적극적으로 배합하여 일본 침략군을 타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군대는 여전히 전부 붕괴되었으며 3 주일 동안에 5만여 명의 병력을 상실하였고 그 나머지 부대도 황하를 건너 도망쳐 버렸다.

## 반파쇼 국제 통일 전선에 관하여\*

(1941년 6월 23일)

독일 파쇼 통치자들은 6월 22일에 소련을 진공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신적 침략 죄행은 소련을 반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다. 파시스트의 침략에 저항하는 소련의 성스러운 전쟁은 소련을 보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파쇼적 예속화를 반대하여 해방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보위하는 것이다.

전 세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자들의 당면한 과업은 각국 인민을 동원하여 국제적 통일 전선을 결성함으로써 파쇼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소련을 보위하고 중국을 보위하고 모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보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현시기에 있어서 모든 력량은 파쇼적 예속화를 반대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전 중국에 있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과업은 다음과 같다.

(1)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견지하며 국공 합작을 견지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당내 지시문이다.

하며 일제를 중국에서 몰아 내며 이로써 쓰련을 원조하는 것이다.

(2) 대부르조아지 내의 반동 분자들의 여하한 반쏘, 반공 활동에 대하여서든지 건결히 반항하여야 한다.

(3) 외교 상에 있어서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파쇼 통치자들을 반대하는 영국, 미국 및 기타 국가의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공동의 원수를 반대하는 것이다.

## 섬감녕 변구 참의회에서 한 연설

(1941년 11월 21일)

여러 참의원 선생님들, 여러 동지들! 오늘 열린 변구 참의회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의회의 목적은 단 하나 뿐이다.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신민주주의 중국을, 다시 말하면 혁명적 삼민주의 중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오늘의 중국에는 이 목적이 있을 뿐 다른 목적은 있을 수 없다. 왜냐 하면 오늘날 우리의 주요한 적은 국내의 적이 아니라 일본과 독일 및 이탈리아의 파쇼주의이기 때문이다. 지금 쓰련 붉은 군대는 쓰련과 전 인류의 운명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으며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아직도 침략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중국을 멸망시키려는 데 있다. 중국 공산당의 주장은 전국의 모든 항일력량을 단합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전국의 모든 항일 정당, 계급 및 민족들과 합작하여, 즉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면 모두 연합하여 공동으로 분투하자는 것이다. 공산당의 이러한 주장은 시종 일관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 이미 4년 이상이나 영용히 항전하였다. 이 항전은 국공 량당의 합작과 각 계급, 각 정당, 각 민족의 합작에 의하여 유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승리하지 못 하였다. 계속 분투하며 혁명적 삼민주의를 실시하여야만 승리를 전취할 수 있다.

우리는 왜 혁명적 삼민주의를 실시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 삼민주의가 아직도 전 중국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지금 사회주의의 실시를 요구하지 않는가? 사회주의는 물론 더욱 훌륭한 제도이며 이 제도는 쓰련에서 벌써 실시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의 중국에는 아직도 그것을 실시할 조건이 없다. 섬감녕 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혁명적 삼민주의이다. 우리는 어떠한 실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나 혁명적 삼민주의의 범위를 초월하지 않았다. 현시기를 두고 말한다면 혁명적 삼민주의 중의 민족주의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것이며 그 민권주의와 민생주의는 일부 사람들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항일하는 모든 인민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전국 인민에게는 다 인신 자유권과 참정권 및 재산 보호권이 있어야 한다. 전국 인민에게는 다 말할 기회가 있어야 하며 입을 것과 먹은 것이 있어야 하며 할 일과 공부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한 마더로 말한다면 매개인이 그 일어야 할 바를 다 얻게 되어야 한다. 중국 사회는 량쪽이 작고 중간이 큰 사회이다. 프로레타리아트와 지주, 대부르쵸아지는 다 소수를 차지할 뿐이며 가장 광범한 인민은 농민과 도시 소부르쵸아지 및 기타의 중간 계급이다. 어떠한 정당의 정책이든지 이러한 계급들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러



한 계급들의 사람들에게 그 일어야 할 바를 얻게 하지 못 한다면, 이러한 계급들의 사람들에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면 나라 일을 잘 할래야 잘 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제반 정책들은 모든 항일 인민을 단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모든 항일 계급을 돌보고 있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농민과 도시 소부르쵸아지 및 기타 중간 계급을 돌보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이 제기한, 각계 인민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며 할 일과 먹을 것이 있게 하는 정책은 진정한 혁명적 삼민주주의의 정책이다. 토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시켜 농민들에게 먹을 것이 있게 하는 한편 또 일부의 소작료와 리자를 바치게 하여 지주들도 살아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로자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노동자를 도와 그들에게 할 일이 있고 먹을 것이 있게 하는 한편 또 실업 발전의 정책을 실시하여 자본가에게도 리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전국 인민을 단합하여 힘을 합쳐 항일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우리는 신민주주의적 정책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늘날의 중국 실정에 꼭 알맞는 정책이다. 우리는 이 정책이 섬감녕 번구에서와 적후의 각 항일 근거지에서만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을 희망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 인민의 찬성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결함도 있다. 일부 공산당원들은 당의 인사들과의 민주주의적 합작을 잘 하지 못 하며 아직도 협애한 관문주의 또는 종파주의적 작풍을 가지고 있

다. 그들은 공산당원에게는 항일하는 당외 인사들과 합작할 의무가 있고 이런 당외 인사들을 배척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민 대중의 의견을 귀 담아 들어야 하고 인민 대중과 련계하여야 하며 인민 대중과 리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 하고 있다. 《섬감녕 변구 시정 강령》에는 공산당원은 당외 인사들과 민주주의적 합작을 하여야 하며 독단 독행하거나 혼자서 독판 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조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당의 정책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동지들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공산당원은 당외 인사들의 의견을 귀 담아 들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옳으면 우리는 그것을 환영하여야 하고 또 남의 장점을 따라 배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이 옳지 않다 하여도 그 사람이 할 말을 다 하게 한 후 천천히 해석하여 주어야 한다. 공산당원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거나 기세가 등등하여 남을 업신여기거나 자기는 무엇이나 다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무엇이나 다 나쁘다고 생각하여서는 절대 안 되며 좁은 방안에 들어 앉아서 큰소리만 치며 세상에 자기 밖에 없는 체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일본 침략자, 민족 반역자와 야합하고 항전과 단결을 파괴하는 반동적 완고파들은 물론 말할 자격이 없지만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 말할 자유가 있으며 실사 틀린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문 제인 것이다. 나라의 일은 일당 일파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공산당원에게는 당외 인사

들과 민주주의적 합작을 실행할 의무가 있을 뿐 남을 배척하거나 모든 것을 독단할 권리는 없다. 공산당은 민족과 인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당이며 그 자신이 따로 추구할 사리란 있을 수 없다. 공산당은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결코 인민의 의사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그의 당원은 민중 속에서야 하며 결코 민중 위에 올라 서서는 안 된다. 여러 대표선생들, 여러 동지들, 당외 인사들과 민주주의적 합작을 실행하는 공산당의 이 원칙은 확고 부동한 것이며 영원히 변함 없는 것이다. 사회에 당이 존재하는 한, 당에 가입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이고 당외의 사람이 언제나 다수이므로 당원은 언제나 당외 사람들과 합작하여야 한다. 지금 우리는 참의회 내에서 이것을 잘 실행하여야 한다. 나는 우리 공산당의 참의원들이 우리의 이러한 정책 하에 참의회 내에서 훌륭히 단련되어 자신의 관문주의와 종파주의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소종파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문을 열어 짓히고 당외 인사들과 민주주의적 합작을 실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문제를 잘 상의할 줄 알아야 한다. 오늘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과 합작하라고 한다면 그만 두겠다고 하는 그러한 공산당원들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람이 극히 적으리라고 믿는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 당의 전대 다수의 당원들이 우리 당 중앙의 모션을 꼭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한다. 동시에 당외의 여러 동지들이 우리의 주장을 이해하며 공산당은 사리 사욕만 도모하는 소

종파나 소그루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공산당은 그러한 정당이 아니라 성심 성의로 나라의 일을 잘 하려는 정당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함이 아직도 많다. 우리는 자신의 결함을 드러내 놓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결함을 고칠 것이다. 우리는 당내의 교양을 강화하여 이러한 결함을 없애 버리며 또 당의 인사들과의 민주주의적 합작을 통하여 이러한 결함을 없애 버리려 한다. 이와 같은 내외 협공에 의하여서만 우리의 결함을 고칠 수 있으며 나라의 일을 진정으로 잘 하여 나아갈 수 있다.

참의원 선생님들, 여러 분은 수고를 무릅쓰고 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이 성대한 모임을 축하하면서 이 성대한 모임의 성공을 축원한다.

## 당의 작품을 바로잡자\*

(1942년 2월 1일)

당 학교는 오늘 개교되었다. 나는 이 학교의 성공을 축하한다.

오늘 나는 우리 당의 작품 문제에 대하여 좀 말하려고 한다.

왜 혁명 정당이 있어야 하는가? 세계에는 인민을 압박하는 적이 존재하고 있고 인민은 적의 압박을 뒤집어 엎으려 하기 때문에 혁명 정당이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 시대와 제국주의 시대를 두고 말한다면 공산당과 같은 이러한 혁명 정당이 필요하다. 만일 공산당과 같은 이러한 혁명 정당이 없다면 인민들은 적의 압박을 도저히 뒤집어 엎을 수 없다. 우리는 공산당이다. 우리는 인민을 령도하여 적을 타도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렬이 정연하여야 하며 보조가 일치하여야 하며 군대가 정예하여야 하며 무기가 훌륭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구비되지 못 한다면 적은 우리에게 타도되지 않을 것이다.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당 학교 개교식에서 한 연설이다.

지금 우리 당에는 아직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당의 총로선은 정확하고 문제가 없으며 당의 사업도 성과가 있다. 당에는 수십만의 당원이 있으며 그들은 인민을 령도하여 적과 극히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 점은 여러 분이 알고 있는 바이며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당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아직도 문제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엄중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무슨 문제인가? 그것은 일부 동지들의 머리 속에 몇 가지 그다지 옳지 못 하고 그다지 바르지 못 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학풍에 아직 바르지 못 한 점들이 있고 우리의 당풍에 아직 바르지 못 한 점들이 있으며 우리의 문풍에도 역시 바르지 못 한 점들이 있다. 학풍에 바르지 못 한 점들이 있다는 것은 주관주의의 폐단이 있다는 것이고 당풍에 바르지 못 한 점들이 있다는 것은 종파주의의 폐단이 있다는 것이며 문풍에 바르지 못 한 점들이 있다는 것은 당판교[1]의 폐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풍들이 바르지 못 하기는 하지만 아직 겨울에 부는 북풍처럼 온 천지를 휩쓸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관주의, 종파주의, 당판교가 오늘에 와서는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풍이 아니다. 이것은 방공호에서 불어 나오는 역풍이며 악풍에 불과하다. (웃음소리) 그러나 우리 당내에 아직 이러한 풍이 있다는 것은 좋지 못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악풍이 생기는 구멍을 틀어

막아 버려야 한다. 우리 전 당은 모두 이 구멍을 틀어 막는 사업을 하여야 하며 우리 당 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하여야 한다. 주관주의, 종파주의, 당팔고 이 세 가지의 악풍은 자기의 역사적 근원이 있다. 지금 그것들이 전 당'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늘 말썽을 일으키고 있으며 아직도 우리를 습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반대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하고 분석하고 구명할 필요가 있다.

주관주의를 반대하여 학풍을 바로잡으며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당풍을 바로잡으며 당팔고를 반대하여 문풍을 바로잡는 이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우리가 적을 타도하는 임무를 완수하려면 당내의 작풍을 바로잡는 이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풍과 문풍도 다 당의 작풍이며 당풍이다. 우리 당의 작풍이 완전히 바르지만 하다면 전국 인민은 우리를 따라 배우게 될 것이다. 당외에 이런 좋지 못한 기풍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선량한 사람이기만 하다면 우리를 따라 배워 자기들의 과오를 시정하게 될 것이다. 이리 하여 전 민족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우리 공산당의 대렬이 정연하며 보조가 일치하며 군대가 정예하며 무기가 훌륭하기만 하다면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다 우리에게 타도될 것이다.

이제 주관주의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주관주의는 바르지 못한 학풍이다.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며 공산당과 량립할 수 없는 것이다. 우

리에게 필요한 것은 맑스-레닌주의적 학풍이다. 학풍이라는 것은 학교의 학풍 뿐만 아니라 전 당의 학풍도 말하는 것이다. 학풍 문제는 지도 기관, 전체 간부, 전체 당원의 사상 방법 문제이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문제이며 전체 당원 동지들의 사업 태도 문제이다. 이러하기에 학풍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첫째로 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일부 모호한 관념이 허다한 사람들 사이에 유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리론가란 무엇인가, 지식인이란 무엇인가, 리론과 실제와의 련계란 무엇인가 하는 등등의 문제에 관한 모호한 관념이 그것이다.

우리는 우선 우리 당의 리론 수준이 도대체 높은가 낮은가를 따져 보자. 근래에 와서 맑스-레닌주의 서적이 많이 번역되었고 읽는 사람도 많아졌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우리 당의 리론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리론 수준은 확실히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다. 그러나 중국 혁명 운동의 풍부한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리론 전선은 그것과 너무도 어울리지 않으며 량자를 대비한다면 리론 면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리론은 아직 혁명의 실천과 평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리론이 실천보다 앞서야 한다는 면에서는 더구나 말할 여지도 없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풍부한 실제물 그것에 상응한 리론 수준에까지 제고시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혁명적 실천의 모든 문제 또는 중대한 문제들을 고찰하여 그것을 리론적 단계에까지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



다. 보라,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 문화에 대하여 리론이라고 할 만 한 리론, 즉 조잡한 것이 아니라 주밀한, 과학적 형태라 할 수 있는 리론을 창조하여 낸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도대체 몇이나 되는가? 특히는 경제 리론 면에서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은 아편 전쟁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미 100 년이나 되었지만 중국 경제 발전의 실제에 부합되는 진정한 과학적인 리론 저서가 아직 한 권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데 중국 경제 문제 면에서 리론 수준이 이미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당에는 이미 그럴듯 한 경제 리론가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맑스-레닌주의의 서적을 많이 읽었다고 하여 리론가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맑스-레닌주의는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이 실제에 근거하여 창조하여 낸 리론이며 역사적 실제와 혁명적 실제 가운데서 추상하여 낸 총적 결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령 그들의 저작을 읽을 뿐이고 그들의 리론에 근거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의 역사적 실제와 혁명적 실제를 연구하지 않으며 리론적으로 중국의 혁명적 실천을 사고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제넘게 맑스주의 리론가로 자처할 수 없다. 중국 공산당원인 우리가 중국 문제에는 외면하고 맑스주의 서적에 있는 개별적인 결론과 개별적인 명제나 암송하는 데 그친다면 리론 전선에서의 우리의 성과는 그야 말로 한심할 것이다. 가령 맑스주의 경제학이나 철학을 제 1 장부터 제 10 장까지 찢찰 외울 줄은 알지만 적용할 줄은 전연 모른다면 그런 사

람을 맑스주의 이론가로 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론가로 칠 수 없다. 우리가 요구하는 이론가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의 립장, 관점 및 방법에 근거하여 력사 중에서와 혁명 중에서 발생된 실제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며,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 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과학적 해석을 주며 이론적 설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론가여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가이다. 이러한 이론가가 되려면 맑스-레닌주의의 실질을 진정하게 체득하며 맑스-레닌주의의 립장, 관점 및 방법을 진정하게 체득하며 식민지 혁명과 중국 혁명에 관한 레닌, 스탈린의 학설을 진정하게 체득하는 동시에 그것을 적용하여 중국의 실제 문제들을 심각하고도 과학적으로 분석하며 그 발전 법칙을 찾아 낼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사람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이론가이다.

지금 우리 당 중앙 위원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의 립장, 관점 및 방법을 적용하여 진지하게 중국의 력사를 연구하며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 및 문화를 연구하며 배개 문제를 상세한 자료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이론적인 결론을 끌어 내는 것을 배우도록 우리 동지들에게 호소하는 결정을 지었다. 이 책임은 우리에게 부과되었다.

우리 당 학교의 동지들은 맑스주의의 이론을 죽은 교조로 보아서 안 된다. 맑스주의의 이론에 정통하여야 하며 그것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정통하는 목적은 오로지 적용하려는 데 있다. 만일 맑스-레닌주의의 관점을 적용하여 한두

가지의 실제 문제를 설명한다면 그는 곧 칭찬을 받게 될 것이며 약간의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편적이면 보편적일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의 성과는 더욱 큰 것이다. 지금 우리 당 학교에서도 맑스-레닌주의를 배운 후에 중국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의하여, 즉 명확히 보는가 명확히 보지 못 하는가, 볼 줄 아는가 볼 줄 모르는가에 의하여 학생들의 우열과 호부를 구분하는 그런 규례를 정하여야 하겠다.

다음에는 소위 《지식인》 문제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우리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적 국가로서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식인을 특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에서는 2년 여 전에 지식인 문제에 관한 결정<sup>(2)</sup>을 짓고 지식인을 광범히 생취하기로 하였으며 오직 그들이 혁명적이고 항일에 참가하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일률로 환영하는 태도를 취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지식인을 존중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혁명적 지식인이 없이는 혁명이 승리할 수 없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많은 지식인들은 제 때에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는 자세를 크게 부리나 이런 자세가 나쁘고 해로운 것이며 자기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임을 알지 못 하고 있다. 그들은 지식인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비교적 제일 무식하고 로동자, 농민들이 때로는 그들보다 더 유식하다는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허! 당신은 말을 거꾸로 했소. 함부로 말하는군.》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웃음 소리) 그러나 동무, 바빠 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소 도리가 있는 것이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계급 사회가 존재하면서부터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지식이 있게 되었다. 그 하나는 생산 투쟁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계급 투쟁의 지식이다. 자연 과학, 사회 과학은 이 두 가지 지식의 결정이며 철학은 자연 지식과 사회 지식에 관한 개괄이며 총화이다. 이 밖에 또 무슨 지식이 있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일부 학생들을 보기로 하자. 사회의 실제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학교에서 나온 그런 학생들을 보기로 하자. 그들의 정형은 어떠한가? 어떤 사람이 그러한 소학교로부터 그러한 대학까지 공부하여 졸업을 하였다면 그에게 지식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단지 책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아직 아무런 실제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아직 자기가 배운 지식을 실생활의 어느 한 분야에도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람을 완전한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그의 지식이 아직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비교적 완전한 지식이란 어떠한 것인가? 일체의 비교적 완전한 지식은 모두 두 단계를 거쳐 구성된다. 즉 제 1 단계는 감성적 지식이고 제 2 단계는 이성적 지식이다. 이성적 지식은 감성적 지식의 높은 발전 단계이다. 학생들이 책에서 얻은 지식은 무슨 지식인가? 그들의 지식이 모두다 진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 자신이 직접적 체험에서 얻어 온 지식이 아니라 이전 사람들이 생산 투쟁과

계급 투쟁의 경험을 총화하여 써 놓은 리론인 것이다. 그들이 이러한 지식을 섭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러한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일면적인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는 증명되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증명되지 못 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들을 생활과 실제에 잘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책에서 얻은 지식만 있고 아직 실제에 접촉하여 보지 못한 사람들, 또는 실제 경험이 아직 적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결점을 알고 태도를 좀더 겸손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책에서 얻은 지식 밖에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명실이 부합되는 지식인으로 되게 하자면 무슨 방법이 있는가? 그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실제 사업에 참가시켜 실제 사업을 하는 일'군으로 되게 하는 것이며 리론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실제 문제를 연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처럼 해석한다면 맑스도 지식인이라 할 수 없겠소.》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맑스는 혁명의 실제 운동에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 리론을 창조하였다. 그는 가장 단순한 자본주의적 요소인 상품으로부터 시작하여 부르주아 사회의 경제 구조를 면밀하게 연구하였다. 상품이 라는 것은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것을 보고 또 그것을 사용하면서도 눈 여겨

보지 않았다. 오직 맑스만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였다. 맑스는 상품의 실제적 발전 과정에 대하여 거대한 연구 사업을 하여 그 보편적인 존재 가운데서 완전히 과학적인 이론을 찾아 내었다. 맑스는 자연을 연구하였으며 역사를 연구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연구하였으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및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이론을 창조하였다. 이리 하여 맑스는 인류의 최고 지혜를 대표하는 가장 완전한 지식인으로 되었다. 그는 책에서 얻은 지식 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맑스는 실제 투쟁 가운데서 상세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여러 가지 사물을 개괄하였으며 또 거기에서 얻은 결론을 다시 실제 투쟁에 옮겨다가 증명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이론 사업이라고 한다. 우리 당 내에는 이러한 사업을 할 줄 아는 동지들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당 내에는 지금 이러한 이론 연구 사업을 배울 수 있는 동지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대부분 총명하고 유망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방침이 옳아야 하며 과거에 범한 과오를 중복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교조주의를 버려야 하며 책에 쓰여진 문구에만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진정한 이론은 단 한 가지 밖에 없다. 그것은 객관적 실체로부터 추상되어 다시 객관적 실체에서 증명된 이론이다. 이 밖에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에서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쓰달린은 일찍 실권을 떠난 이론은 내용이 없는 이론이라고 말하였다[3]. 내용이 없는 이론은

쓸 데 없는 것이며 옳지 못한 것이며 버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없는 리론을 늘어 놓기 좋아 하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부끄럽지 않은가고 핀잔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객관적 실제로부터 산생되어 다시 객관적 실제에서 증명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과학적이며 가장 혁명적인 진리이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은 도리어 그것을 죽은 교조로 간주한다. 이리 하여 리론의 발전에 지장을 주며 자기 자신을 해치고 동지들까지 해친다.

다른 한 편 실제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동지들이 만일 자기들의 경험을 잘못 응용한다면 역시 폐단이 생기게 된다. 확실히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또 그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자기의 경험에만 만족한다면 그 역시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이 감성에 치우쳤거나 국부적인 것이고 리성적 지식과 보편적 지식, 다시 말하면 리론이 부족하다는 것, 따라서 자기들의 지식 역시 비교적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혁명 사업을 훌륭하게 수행하려면 비교적 완전한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불완전한 지식이 있다. 하나는 서적 상의 기성 지식이고 하나는 감성에 치우쳤거나 국부적인 지식이다. 이 량자는 모두 일면성을 띠고 있다. 오직 이 량자를 결합시켜야만 훌륭하고도 비교적 완전한 지식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로동자, 농민 출신의 간부들이 리론을 배우려면 우선 글부터 배워야 한다. 글을 모르고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배울 수 없다. 글을 배워 두면 어느 때라도 맑스-레닌주의를 배울 수 있다. 나는 어릴 때 맑스-레닌주의의 학교에 다니지 못 하였고 배운 것은 《공자 가라사대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이 아니 즐거울소냐!》(4) 하는 따위였다. 이러한 학습의 내용이 비록 낡아 빠진 것이기는 하지만 나에게 는 역시 도움이 있었다. 왜냐 하면 나는 여기에서 글'자를 배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은 공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어, 력사, 지리 및 자연 상식을 배우므로 이러한 글은 배워 두면 어느 면에서나 다 쓸모가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지금 로동자, 농민 출신의 간부들에게 글을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글을 배운 후이면 정치, 군사, 경제 등 그 어느 부문이나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로동자, 농민 출신의 간부들은 비록 풍부한 경험은 있지만 리론을 학습할 수 없다.

이로부터 볼 때 우리가 주관주의를 반대하려면 위에서 말한 두 부류의 사람을 각각 그들에게 결핍한 방면에서 발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두 부류의 사람을 결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책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 방면으로 발전하여야 책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며 교조주의의 파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리론 면을 학습하여야 하며 진지하게 독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경험에다 조리성과 종합성을 부여하여 그것



을 이론으로 제고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야만 국부적인 경험을 보편적 진리로 오인하지 않게 되고 경험주의의 파오를 범하지 않게 된다. 교조주의와 경험주의는 다 주관주의로서 같지 않은 양극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내의 주관주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조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경험주의이다. 양자는 다 일면만을 볼 뿐이고 전면은 보지 못 한다. 만일 이러한 일면성의 결합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그것을 알지 못 하며 그것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릇된 길로 나아가기 쉽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주관주의 중에서도 오늘 우리 당내에서는 교조주의가 더 위협하다. 왜냐 하면 교조주의는 헛사리 맑스주의의 면모로 가장하고 노동자, 농민 출신의 간부를 위협하며 그들을 포로하여 자기의 심부름'군으로 삼으나 노동자, 농민 출신의 간부들이 그것을 헛사리 간파하지 못 하기 때문이며 또 천진烂漫한 청년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포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교조주의를 극복한다면 서적 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이 경험 있는 간부들과 결합하려 하게 되고 실제 사물의 연구에 종사하려 하게 되어 이론과 경험을 결합한 훌륭한 일'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며 진정한 이론가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교조주의를 극복한다면 경험 있는 동지들이 훌륭한 선생을 얻게 되며 자기들의 경험을 이론으로 제고하여 경험주의의 파오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론가》와 《지식인》에 대하여 모호한 관념이 존재하고

있는 외에 또 날마다 외우고 있는 《리론과 실제의 련계》라는 말에 대하여서도 많은 동지들은 역시 모호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매일 《련계》를 운운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이 련계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지는 《격리》를 운운하고 있는 셈이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중국 혁명의 실제를 어떻게 련계시키겠는가? 통속적인 말로 한다면 《목표를 겨누고 활을 쏘아야》 하는 것이다. 《활을 쏜다》는 것은 화살을 쏜다는 것이며 《목표》란 과녁이며 활을 쏠 때는 과녁을 겨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와 중국 혁명의 관계는 화살과 과녁의 관계이다. 그러나 어떤 동지들은 《목표 없이 활을 쏘며》 맹탕 쏘아댄다. 이러한 사람들은 혁명을 망치기 쉽다. 또 어떤 동지들은 손으로 화살을 만지작거리면서 《좋은 화살이군! 좋은 화살이군!》하고 칭찬만 하고 도무지 그것을 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골동품 감상가로서 혁명과는 거의 아무런 인연도 없다. 맑스-레닌주의라는 화살은 중국 혁명이라는 과녁을 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 문제가 똑똑히 밝혀지지 않고서는 우리 당의 리론 수준이 도저히 제고될 수 없으며 중국 혁명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

우리 동지들은 우리가 맑스-레닌주의를 배우는 것은 차례를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또 그것이 무슨 신비한 것이기 때문인 것도 아니며 오직 그것이 프로레타리아 혁명 사업을 승리로 이끄는 과학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서적에 있는 몇몇 개별적 문구를 기성적인 선약으로 간주하면

서 마치 그것을 얻기만 하면 별로 힘을 들이지 않고도 만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유치한 사람들의 몽매성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계몽 운동을 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를 종교적 교조처럼 간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무지 몽매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대들의 교조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라고 솔직히 말하여 주어야 한다.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은 우리의 학설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라고 거듭 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이 말을 잊어 버리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두고 말하면 오직 그들이 맑스-레닌주의의 립장, 관점 및 방법과 중국 혁명에 관한 레닌, 쓰딸린의 학설을 훌륭히 적용하고 나아가서는 중국의 역사적 실제와 혁명적 실제에 대한 참다운 연구를 거쳐 각 방면에서 중국의 수요에 적합한 이론적 창조를 수행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이론과 실제를 련계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입으로만 련계를 부르짖고 행동 상에서는 련계시키지 않는다면 백년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 문제를 주관적으로 일면적으로 보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조주의의 주관성과 일면성을 격파하여야 한다.

주관주의를 반대함으로써 전 당의 학풍을 바로잡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오늘 이 만큼 말하겠다.

이제부터 종파주의 문제에 대하여 말하여 보자.

20년 간의 단련을 거친 결과 지금 우리 당내에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종파주의는 없어졌다. 그러나 종파주의의 잔재는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당내에 대한 종파주의의 잔재도 있고 당외에 대한 종파주의의 잔재도 있다. 대내적인 종파주의 경향은 내부적 호상 배척을 조성하여 당내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며 대외적인 종파주의 경향은 배타성을 조성하여 당의 전국 인민을 단합하는 사업을 방해한다. 이 두 개면의 화근을 제거하여야만 당은 전체 당원 동지들을 단합하며 전국 인민을 단합하는 위대한 사업을 거침 없이 순조롭게 수행할 수 있다.

당내의 종파주의적 잔재란 무엇인가? 그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가 있다.

첫째로는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부 동지들은 국부적 리익만 보고 전체적 리익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국부적 사업을 부적당하게 특별히 강조하며 언제나 전체적 리익을 자기들의 국부적 리익에 복종시키려고 한다. 그들은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알지 못하며 공산당에는 민주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 집권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며 국부는 전체에 복종하며 전 당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망각하고 있다. 장 국도는 당 중앙에 대하여 독립성을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당을 배반하고 특무가 되고 만았다. 지금 말하는 것은 비록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엄중한 종파주의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미연에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며

각종 불통일 현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큰 국면을 돌보도록 창도하여야 한다. 매개의 당원, 모든 국부적 사업, 모든 언론 또는 행동은 전 당'적 리익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이 원칙을 위반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러한 독립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개인 제일주의와 갈라 놓을 수 없다. 그들은 개인과 당과의 관계 문제를 흔히 부정확하게 대한다. 그들도 입으로는 당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도리어 개인을 제 1 위에 놓고 당을 제 2 위에 놓는다. 류 소기 동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즉 어떤 사람은 팔이 특별히 길어서 개인 타산은 썩 잘 하지만 다른 사람의 리익과 전 당'적 리익에 대하여서는 그다지 관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인 것이다. (큰 웃음 소리)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들은 명예를 추구하고 지위를 추구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 한다. 그들이 어느 한 부분의 사업을 맡아 하게 될 때에는 곧 독립성을 주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일부 사람들을 몰락하고 다른 일부 사람들을 배척하며 동지들 가운데서 불어 대고 치살리고 당기고 끄는 등 부르쥬아 당의 비속한 작품을 공산당 내에까지 끌어 들인다. 이런 사람들이 랑패를 보는 것은 성실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여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세상에서 어떤 보람 있는 일을 좀 하려면 성실한 태도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인가? 맑스, 엥겔스, 레닌, 쓰딸린이 성실한 사람들이며 과학

자들이 성실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한 사람인가? 트로츠키, 부하린, 진 독수, 장 국도는 아주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개인적 이익과 국부적 이익을 위하여 독립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일체의 교활한 사람, 과학적 태도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 댐에는 묘책인 것 같고 제 댐에는 아주 총명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좋은 결과를 보지 못 한다. 우리 당 학교의 학생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중앙 집권적이며 통일적인 당을 건설하여야 하며 온갖 무원칙한 파벌 투쟁을 깨끗이 숙청하여야 한다. 우리 전 당이 일치한 보조로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개인주의와 종파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외지에서 온 간부와 당지 간부는 단결하여야 하며 종파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야 한다. 많은 항일 근거지들은 팔로군, 신사군이 온 후에 창설된 것이며 또 많은 지방 사업들은 외지 간부가 온 후에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온 간부와 당지 간부들 간의 관계 문제에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오직 외지에서 온 간부와 당지 간부가 완전히 일치 단결해야만, 또 당지 간부가 대량적으로 육성, 동용되어야만 근거지가 공고히 될 수 있고 우리 당이 근거지에서 뿌리를 박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동지들은 알아야 한다. 외지에서 온 간부와 당지 간부들은 각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므로 서

로 장점을 따다가 단점을 보충하여야 진보할 수 있다. 외지에서 온 간부는 당지 간부에 비하여 정황에 대한 료해와 대중과 련계를 짓는 면에서 아무래도 좀 못하다. 나를 두고 말하더라도 바로 이리하다. 내가 섬서성 북부에 온 지는 벌써 5~6 년이 되지만 섬서성 북부의 정황을 료해하는 면에서와 섬서성 북부 인민과의 련계 면에서 섬서성 북부의 일부 동지들과 비교하여 보면 훨씬 못하다. 산서, 하북, 산둥 및 기타의 항일 근거지에 간 우리 동지들은 반드시 이 문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근거지 내에 있어서도 각 지역이 근거지로 발전된 시간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간부들 중에는 역시 외지에서 온 간부와 당지 간부의 구별이 있다. 비교적 앞선 지역의 간부가 비교적 뒤떨어진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방에 대하여서는 역시 외지에서 온 간부이므로 당지 간부를 돕는 문제에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반적 정형을 두고 말하면 외지에서 온 간부가 지도적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에서 만일 당지 간부들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 책임은 주로 외지에서 온 간부가 져야 한다. 주요한 지도적 책임을 맡고 있는 동지라면 그 책임이 한층 더 크다. 지금 각 지방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 주의가 매우 부족하다. 일부 사람들은 당지 간부를 경시하며 당지 간부를 조소하고 있다. 그들은 《본바닥 사람들이 알긴 뭘 알어, 촌뜨기들이!》 하고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지 간부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당지 간부의 장점도 모르거니와 자기의 단점도 모르며 부정확한 종과주의적 태도를 취한

다. 외지에서 온 일체 간부들은 반드시 당지 간부를 애호하며 항상 그들을 방조하여야 하며 그들을 조소하거나 그들에게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물론 당지 간부들도 외지에서 온 간부의 장점을 따라 배워야 하며 부적당한 힘에한 관점들을 버림으로써 외지에서 온 간부와 너 나를 가리지 않고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하며 종파주의적 경향을 피하여야 한다.

군대에서 사업하는 간부와 지방에서 사업하는 간부 간의 관계도 이렇하다. 량자는 완전히 일치 단결하여야 하며 종파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야 한다. 군대 간부는 지방 간부들도 도와 주어야 하며 지방 간부도 군대 간부들도 도와 주어야 한다. 만일 분규가 생기면 쌍방이 서로 량해하여야 하며 자기 자기에 대하여 정확한 자기 비판을 하여야 한다. 군대 간부가 사실 상 지도적 지위에 있는 지방에서 만일 지방 간부와 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일반적인 정형 하에서는 그 주요한 책임을 군대 간부가 져야 한다. 군대 간부로 하여금 먼저 자기의 책임을 알고 겸손한 태도로 지방 간부를 대하게 하여야만 근거지의 전쟁을 위한 사업과 건설 사업에 순조로운 조건을 지어 줄 수 있다.

몇몇 부분의 군대들 사이, 몇몇 지방들 사이, 몇몇 사업 부문들 사이의 관계도 이렇하다. 자기만 돌보고 남을 돌보지 않는 본위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의 곤난을 돌봐 주지 않으며 남이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간부를 요구하면 보내 주지 않거나 《홍수를 이웃에 뿔아 버리》듯이



좋지 못한 사람을 보내 주며 다른 부문, 다른 지방,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사람은 본위주의자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정신이 전혀 없는 것이다. 큰 국면을 돌보지 않으며 다른 부문, 다른 지방,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은 이런 본위주의자의 특징이다. 이러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교양을 강화하여 이것이 종파주의적 경향의 하나라는 것과 만일 이것이 그 대로 발전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로간부와 신간부와의 관계 문제이다. 항전 이래 우리 당은 광범하게 발전되어 많은 새 간부들이 배출되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쓰딸린 동지는 전 련맹 공산당 제 18 차 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러련한 간부는 항상 많지 않아서 요구되는 것보다 적은 것이며 우주의 자연 법칙에 의하여 이미 부분적으로 대오에서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여기서 간부 형편을 말하였고 또 자연 과학을 말하였다. 우리 당에 만일 광범한 신간부와 로간부들의 일치 협력이 없다면 우리의 사업은 중단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로간부들은 최대의 열정으로 신간부를 환영하여야 하며 신간부들에게 관심을 돌려야 한다. 확실히 신간부들에게는 결점이 있다. 그들은 혁명에 참가한 지 오래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며 그들 중의 일부 사람들은 또 불가피적으로 구사회의 좋지 못한 사상의 꼬리 즉 소부르쥬아적 개인주의 사상의 잔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점들은 교양 과정에서와 혁명의 시련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없애 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장점은 바로 쓰딸린이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사물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고도의 열정과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일부의 로간부들에게는 바로 이 점이 부족하다[5]. 신간부와 로간부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우며 서로 장점을 따다가 단점을 보충함으로써 일치 단결하여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종파주의적 경향을 방지하여야 한다. 로간부가 주요한 지도적 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에서 로간부와 신간부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일반적인 정형 하에서는 로간부가 그 주요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국부와 전체와의 관계, 개인과 당과의 관계, 외지에서 온 간부와 당지 간부와의 관계, 군대 간부와 지방 간부와의 관계, 군대와 군대, 지방과 지방, 이 사업 부문과 저 사업 부문과의 관계, 로간부와 신간부와의 관계는 모두가 당내에 있어서의 호상 관계이다. 이 모든 면에서 공산주의적 정신을 높이고 종파주의적 경향을 방지하여 우리당의 대렬을 정연하게 하며 보조를 일치하게 함으로써 전투에 유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당의 작풍을 바로잡으려면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종파주의는 조직 관계에서의 주관주의의 표현이다. 주관주의를 버리고 맑스-레닌주의적인 실사 구시의 정신을 발전시키려면 당내에서 종파주의의 잔재를 숙청하여야 하며 당'적 리익이 개인적 및 국부적 리익보다 높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당의 완전한 단결, 통일을 가져 와야 한다.

종파주의의 잔재는 당내의 관계에서만 청산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당외와의 관계에서도 청산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전체 당원 동지들을 단합하는 것만으로는 적을 타승할 수 없고 전국 인민을 단합하여야만 적을 타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전국 인민을 단합하는 사업에 있어서 지난 20년 동안에 간고하고도 위대한 사업을 하여 왔으며 항전이 시작된 후로는 이 사업의 성과가 한층 더 거대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모든 동지들이 인민 대중을 대하는 데 있어서 다 옳바른 작풍을 가졌고 종파주의적 경향이 다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일부 동지들 중에는 확실히 아직도 종파주의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엄중하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당외의 사람들에 대하여 턱 없이 자고자대하기를 좋아 하면서 업신여기고 멸시하며 그들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들의 장점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종파주의적 경향이다. 이런 동지들은 맑스주의 서적을 몇 권 읽고 나서는 더 겸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층 더 교만하여져서 언제나 남을 무능하다고 하며 실상 자기에게는 알 듯 말 듯 한 지식 밖에 없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 당외의 사람들에 비하면 공산당원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 진리를 우리 동지들은 알아야 한다. 100명 중에 공산당원이 1명씩 있다고 가정한다면 전 중국 4억 5,000만 명 중에는 450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게 된다. 가령 이처럼 많은 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공산당원은 1%를 차지할 뿐이

고 99%는 비당원들이다. 우리가 무슨 이유로 당외 사람들과  
 합작하지 않겠는가? 우리와 합작하려 하거나 또 우리와 합작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과 합작할 의  
 무가 있을 뿐 그들을 배척할 권리는 절대로 없다. 일부 당원  
 들은 오히려 이 리치를 모르고 우리와 합작하려 하는 사람들  
 을 업신여기며 심지어 그들을 배척한다. 이것은 아무런 근거  
 도 없는 것이다.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이 우리에게 이  
 러한 근거를 주었는가? 주지 않았다. 반대로 그들은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대중과 리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항상  
 우리들에게 간곡히 교시하였다.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우리에게 이러한 근거를 주었는가? 주지 않았다. 중앙 위원  
 회의 모든 결정서 중에는 대중과 리탈하고 고립되어도 좋다  
 고 한 그러한 결정서가 하나도 없다. 반대로 중앙 위원회는  
 항상 우리들더러 대중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대중과 리탈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중과 리탈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일부 동지들 자신  
 이 만들어 낸 종파주의 사상이 장난 치고 있는 데 불과한 것  
 이다. 이러한 종파주의가 일부 동지들 중에 아직 매우 엄중  
 하게 존재하며 당 로선의 실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당내에서 광범한 교양을 진행하여야 한  
 다. 우선 우리의 간부들로 하여금 이 문제의 엄중성을 진정  
 으로 알게 하여야 하며 또 공산당원이 만일 당외의 간부 및  
 당외의 사람들과 단결하지 않으면 결코 적을 타도할 수 없으  
 며 혁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일체의 종파주의 사상은 주관주의적인 것이며 혁명의 실제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 주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당팔고 문제에 관하여서는 오늘 말하지 않고 다른 회의에서 토론하려 한다. 당팔고는 매가 걸 대로 진 더러운 물건이며 주관주의와 종파주의의 일종 표현 형태이다.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것이며 혁명에 불리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숙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관주의를 반대하려면 유물론을 선전하여야 하며 변증법을 선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당내의 많은 동지들은 유물론의 선전을 중시하지 않으며 변증법의 선전도 중시하지 않고 있다. 일부 동지들은 남들이 주관주의를 선전하는 것을 보고서도 모르는 척 하고 내버려 둔다. 이러한 동지들은 제 댐에는 맑스주의를 신봉한다고 하지만 유물론의 선전에는 노력하지 않으며 주관주의적인 것을 듣거나 보고서도 생각해 보지 않으며 반박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는 공산당원의 태도가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많은 동지들로 하여금 주관주의적 사상의 해독을 받게 하였고 마비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내에서 계몽 운동을 일으켜 우리 동지들의 정신을 주관주의, 교조주의의 미혹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며 동지들에게 주관주의, 종파주의, 당팔고를 배격하도록 호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일본 상품과 같다. 오직 우리의 원수들만이 우리가 이러한 나쁜 물건을 보존하며 계

속 그것에 미혹 당하는 것을 좋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상품을 배격<sup>[6]</sup>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배격하도록 창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관주의, 종파주의, 당팔고의 잡동사니들을 배격하여 그것들이 시장에서 팔리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것들이 당내의 리론 수준이 낮은 것을 리용하여 자기들의 물건을 팔아 먹지 못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동지들은 후각이 예민하여야 하며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서든지 코로 냄새를 맡아 보고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한 후에 그것을 환영할 것인가 배격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산당원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든지 어째서 그런가를 한번 따져 보아야 하며 자기의 머리로써 주밀한 사고를 거쳐 그것이 실제에 맞는가 어떤가, 정말 도리에 맞는가 어떤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하며 맹종하거나 노예 근성을 창도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끝으로 우리가 주관주의, 종파주의, 당팔고를 반대함에 있어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게 하는 것》이며 둘째는,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지나 간 파오에 대하여서는 사정을 두지 말고 반드시 폭로하여야 하며 과학적 태도로 과거의 나쁜 점을 분석 비판하여 금후의 사업을 좀더 신중히 하며 좀더 잘 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게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파오를 폭로하고 결점을 비판하는 목적은 마치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이 오로지 사람을 구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사람을 죽이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 의사가 그 맹장을 잘라 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된다. 과오를 범한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오직 그가 병을 속이고 치료하기 싫어 하며 과오를 고집하여 구해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람이 아니고 성실하게 진정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며 시정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를 환영하여야 하며 그의 병을 고쳐 주어 좋은 동지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은 결코 속 시원하게 한바탕 해 치우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상 상의 결합과 정치 상의 결합에 대하여서는 결코 조잡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이것만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오늘 당 학교의 개교를 계기로 이렇게 많은 말을 하였는데 동지들이 생각하여 보기를 바란다. (열렬한 박수)

## 주 해

[1]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주해 37을 참조하라. 판고문이란 15~19 세기의 중국 봉건 왕조의 과거 제도에 규정된 특수한 문체로서 전혀 내용이 없고 형식만 차리는 문'자 유희이다. 이런 글은 매 단락을 고정한 틀에 맞추어야 하며 자'수까지도 일정한 제한이 있어 사람들은 다만 제목의 자의에 쫓아 부연하여 글을 지을 뿐이다. 《당팔고》라는 것은 혁명 대면 내의 일부 사람들이 쓴 글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런 글은 사물에 대하여 분석을 가하지 않고 되는 대로 혁명적인 명사와 슬어를 읊거다 놓을 뿐으로서 내용 없는 빈 말을 길게 늘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술한 팔고문과 마찬가지로 마산가지이다.

[2] 1930년 12월 지식인을 흡수할 때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결

정 즉 본 선집 제 2 권에 수록된 《지식인을 대량적으로 흡수하자》를 가리킨다.

[3] 쓰딸린의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의 제 3 부분 《리론》에 있다.

[4] 이것은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인 《론어》의 첫 구절이다.

[5] 쓰딸린의 《전 령명 공산당(불셰위크) 제 18 차 대회에서 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제 3 부분의 제 2 절에 있다.

[6] 일본 상품에 대한 배격이만 20 세기 전반기에 중국 인민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반대하는 때 있어서 합상 사용하던 투쟁 방법의 하나이다. 예를 들면 1919년 5. 4 애국 운동 시기에 있어서, 1931년 9. 18 사변 후에 있어서, 그리고 항일 전쟁 기간에 있어서 중국 인민은 일본 상품 배격 운동을 전개한 적이 있었다.



## 당팔고를 반대하자\*

(1942년 2월 8일)

방금 개풍 동지가 오늘 회의의 취지를 말하였다. 내가 이제 말하려는 것은 주관주의와 종파주의가 어떻게 당팔고를 자기의 선전 도구 또는 표현 형태로 삼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관주의와 종파주의를 반대할 때 만일 당팔고까지 함께 청산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숨을 곳이 있게 되어 피신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당팔고까지 타도하여 버린다면 그것은 주관주의와 종파주의에 대하여 마지막 《장군!》<sup>[1]</sup>을 하는 것으로 되며, 이 두 괴물의 원형이 완전히 드러나 《취가 큰길에 나서면 사람마다 잡으라고 웨친다》는 격으로 되어 이 두 괴물을 쉽사리 박멸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당팔고적인 글을 써서 만일 자기 혼자만 본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보인다면 벌써 인수가 배로 되므로 해독을 적지 않게 끼친 것으로 된다. 만일 그것을 벽에 붙인다고, 등사를 한다고, 신문에 실는다고, 책으로 출판한다고 한다면 문제는 더 커지며 많은 사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 간부 회의에서 한 강연이다.

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당팔고적인 글을 쓰는 사람들은 필경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폭로, 타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당팔고는 양팔고의 일종이다. 이 양팔고는 로신이 벌써 반대하였던 것이다[2]. 우리는 왜 그것을 또 당팔고라고 부르는가? 그 까닭은 그것에서 서양 냄새 뿐만 아니라 본바닥 냄새도 좀 나기 때문이다. 이것도 일종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아무런 창작도 없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창작이 아닌가! (큰 웃음 소리)

당팔고는 우리 당내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토지 혁명 시기에 한때 아주 엄중하였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팔고는 5.4 운동에 대한 반동이다. 5.4 운동 시기에 신인물들은 문언문을 반대하고 구어문을 창도하였으며 낡은 교조를 반대하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창도하였다. 이러한 것은 모두가 옳았던 것이다. 당시 이 운동은 약동적이고 전진적이며 혁명적이었다. 당시의 지배 계급은 모두 공자의 교리로써 학생을 가르쳤으며 공자의 말을 종교적 교조처럼 신봉할 것을 인민들에게 강요하였으며 글을 쓰는 사람들은 모두 문언문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당시의 지배 계급과 그 식객들의 문장과 교육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모두 팔고적이었으며 교조적이었다. 이것이 곧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이다. 이런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의 추태를 인민들 앞에 폭로하고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를 반대하도록 인민들을 불러 일으킨 것은 5.4 운동 시기의 크나 큰 공

적이다. 5.4 운동에는 이 밖에도 또 이와 련관된, 제국주의를 반대한 큰 공적이 있지만 낡은 팔고, 낡은 교조를 반대한 투쟁도 5.4 운동의 큰 공적의 하나이다. 그러나 후에 와서 양팔고와 양교조가 생겼다. 우리 당내에서 맑스주의를 위반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양팔고, 양교조를 주관주의, 종파주의 및 당팔고적인 것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로운 팔고, 새로운 교조이다. 이런 새로운 팔고, 새로운 교조가 우리의 많은 동지들의 머리 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그것을 개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큰 힘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5.4》 시기에 봉건주의적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를 반대한 약동적이고 전진적이며 혁명적이던 운동이 후에 와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와 반대되는 방면으로 발전되어 새로운 팔고, 새로운 교조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약동하는 것이 아니라 경화된 것이며 전진적인 것이 아니라 후퇴적인 것이며 혁명적인 것이 아니라 혁명을 저애하는 것이다. 이것은 양팔고 또는 당팔고가 5.4 운동의 본래의 성격에 대한 반동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5.4 운동 자체에도 결점이 있었다. 당시에 많은 지도 인물들은 아직 맑스주의적 비판적 정신을 가지지 못 하였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아직 부르주아적 방법 즉 형식주의적 방법이였다. 그들이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를 반대하고 과학과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은 전'적으로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현 상태에 대하여, 력사에 대하여, 외국의 사물에 대하여 력사적 유물론의 비판

적 정신이 없었으며 나쁘다면 절대적으로 나쁘고 모두가 나쁘며 좋다면 절대적으로 좋고 모두가 좋다는 것이었다. 형식주의적으로 문제를 보는 이런 방법은 이 운동의 그 후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5.4 운동의 발전은 두 개의 조류로 갈라졌다. 일부 사람들은 5.4 운동의 과학적, 민주주의적 정신을 계승하였고 맑스주의에 기초하여 그것을 개조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원들과 약간의 당외 맑스주의자들이 한 일이다. 다른 일부 사람들은 부르조아지의 길을 걸었다. 이것은 형식주의의 우(右)로의 발전이다. 그러나 공산당 내에서도 일치한 것은 아니었다. 그 중의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편향이 생기며 맑스주의를 튼튼히 장악하지 못 하고 형식주의적 오류를 범하였다. 이것이 곧 주관주의, 종파주의 및 당팔고이다. 이것은 형식주의의 《좌》로의 발전이다. 이렇게 볼 때 당팔고란 것은 한 편으로는 5.4 운동의 적극적인 요소에 대한 반동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5.4 운동의 소극적 요소에 대한 계승, 계속 또는 발전으로서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점을 알아 두는 것은 유익한 일이다. 만일 《5.4》 시기에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주의를 반대한 것이 혁명적이고 필요한 것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맑스주의로써 새로운 팔고와 새로운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것도 또한 혁명적이며 필요한 것이다. 《5.4》 시기에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주의를 반대하지 않았다면 중국 인민의 사상은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주의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었을 것이며 중국은 자유 독립의 희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5.4 운동

시기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그 첫 걸음을 내어 디딘 데 불과하였다. 전국 인민을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주의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 나게 하려면 아직도 매우 많은 힘을 들여야 하며 또한 그것은 금후의 혁명적 개조의 길에 있어서의 커다란 공사의 하나로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새로운 팔고와 새로운 교조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중국 인민의 사상은 또 다른 하나의 형식주의의 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당내의 일부(물론 일부 뿐이다) 동지들이 입은 당팔고의 해독과 그들이 범한 교조주의적 오류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약동하는 혁명적 정신이 계발될 수 없으며 옹지 못한 태도로 맑스주의에 대하는 나쁜 버릇이 숙청될 수 없으며 진정한 맑스주의가 광범히 전파되고 발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국 인민들 속에서의 낡은 팔고와 낡은 교조의 영향 및 전국 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의 양팔고와 양교조의 영향에 대하여서도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수 없으며 그것을 근절, 숙청할 수도 없을 것이다.

주관주의, 종파주의 및 당팔고, 이 세 가지는 다 반맑스주의적인 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착취 계급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 당내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은 소부르쥬아 사상의 반영이다. 중국은 소부르쥬아 요소가 극히 광범하게 존재하는 나라이며 우리 당은 이 광범한 계급의 포위 속에 처하여 있으며 또 이 계급 출신의 당원을 펍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길진 짧진 간에 소부르쥬아지의 꼬리를 끌고 당에 들어 오게 된다. 소부르쥬아 혁

명자의 열광성과 일면성을 억제하지 않고 개조하지 않는다면 주관주의, 종파주의가 산생되기 아주 쉽다. 양팔고 또는 당팔고는 바로 그 표현 형태의 하나이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숙청 사업과 제거 사업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사리를 잘 따져 주어야 한다. 사리를 잘 따져 주며 적절하게 따져 주기만 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사리를 따져 주는 첫째 방법은 환자들에게 《당신은 병에 걸렸소!》하고 고함을 질러 강한 자극을 줌으로써 깜짝 놀라 온 몸에 진땀이 나게 한 다음 치료를 잘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이제 당팔고의 나쁜 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독(毒)으로써 독을 치는 식으로 우리도 여기서 팔고 문장의 작법(3)을 본 받아 《팔고》로 나누어 그것을 8대 죄상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당팔고의 첫째 죄상은 내용 없는 빈 말을 길게 늘어 놓는 것이다.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글을 길게 쓰기 좋아 하나 거기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고 그야말로 《길고 고린내 나는 게으른 너편네의 발싸개》 격이다. 어쩌서 기어코 그렇게 길게 또 그렇게 내용 없이 쓰는가? 그것은 대중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결심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길고도 내용이 없어서 대중은 보기만 해도 머리를 내흔드는데 읽어볼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 유치한 사람들이나 속이여 그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며 나쁜 습관을 길러 줄 밖에 없다. 작년 6월 22일 쓰련에서 것처럼 규모가 큰 반침략 전쟁이 시작된

후 7월 3일에 쓰말린이 발표한 연설도 《해방 일보》 사설 한 편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의 나리님들이 썼더라면 그야말로 대단했을 것이다. 적어도 몇 만 자는 되었을 것이다. 지금은 전쟁 시기에 처하여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글을 좀더 간결하고도 내용 있게 쓸 것인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연안에는 아직 전투가 없으나 군대는 매일 전선에서 싸우고 있으며 후방에서도 일이 바쁘다고 웨치고 있는데 글이 너무 길어서야 누가 보겠는가? 일부 동지들은 전선에서도 긴 보고를 쓰기 좋아 한다. 그들이 수고스럽게 써서 보내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보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어디 감히 보겠는가? 길고도 내용 없는 것이 나쁘다면 짧고 내용 없는 것은 좋은가? 역시 나쁘다. 우리는 모든 빈 말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주요하고도 첫째로 가는 임무는 길고 고린내 나는 게으른 너편네의 발싸개를 빨리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론》은 매우 길지 않은가, 그것은 어떻게 하겠는가고 말할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읽어 내려 가면 되는 것이다. 속담에 《산에 가면 그 산에 맞는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있고 《반찬을 보아 가며 밥을 먹고 몸에 맞춰 옷을 마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편을 보아서 해야 한다.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는 데도 역시 그렇다. 우리는 내용 없는 빈 말을 길게 늘어 놓은 팔고식을 반대하는 것이지 무엇이냐 다 짧으면 좋다는 것은 아니다. 전쟁 시기에는 물론 짧은 글이 필요하나 내용 있는 글이 더우기 필요하다. 제일 좋지 못 하고 제일 반대하여

야 할 것은 내용 없는 글이다. 연설도 마찬가지이다. 내용 없는 빈 말을 길게 늘어 놓는 연설은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당팔고의 둘째 죄상은 허장성세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이다. 어떤 당팔고는 내용 없는 빈 말을 길게 늘어 놓을 뿐만 아니라 허장성세하여 고의로 사람을 위협하는데 이 속에는 아주 나쁜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 내용 없는 빈 말을 길게 늘어 놓는 것은 그래도 유치하다고나 할 수 있지만 허장성세로 사람을 위협하는 것은 유치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무퇴한의 짓이다. 로신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육설과 공같은 결코 전투가 아니다.》(4)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과학적인 것은 어느 때를 물론하고 남의 비판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과학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탄박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팔고식 문장과 연설에서 표현되는 주관주의적인 것과 종파주의적인 것은 남의 탄박을 두려워 하며 몹시 비겁한 것이다. 그래서 허장성세로 남을 위협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위협하면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되고 자기는 《승리하고 돌아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런 허장성세로서는 진리를 반영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진리를 방해하게 된다. 진리는 허장성세로 사람을 위협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말하며 성실하게 일할 따름이다. 과거 많은 동지들의 글과 연설에는 흔히 《잔혹한 투쟁》, 《무자비한 타격》이라는 두 마디 말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수단으로 적이나 적대적인 사상에 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하지만 자기의 동지들에 대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쏘련 공산당(불쉐위크) 력



사 간략 독본》 결론 네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당내에도 흔히 적과 적대적 사상이 섞여 들어 오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잔혹한 투쟁 또는 무자비한 타격의 수단을 취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수단으로 당에 대항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만일 그냥 그들을 관대하게 대한다면 나쁜 사람의 간계에 빠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일한 수단으로 우연히 과오를 범한 동지들에게 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동지들에 대하여서는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방법, 즉 《쏘련 공산당(분쇄워크) 력사 간략 독본》 결론 다섯째에 언급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과거 우리의 일부 동지들이 우연히 과오를 범한 그런 동지들에 대하여도 《잔혹한 투쟁》과 《무자비한 타격》을 강조한 것은 한 편으로는 대상을 분석하지 않은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허장성세로 사람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서나를 막론하고 허장성세로 위협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이런 위협 전술은 적에 대하여는 아무런 작용도 없고 동지들에 대하여는 해로울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위협 전술은 착취 계급 및 뿔뿔 프로레타리아의 상투적 수단으로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는 이러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예리하고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단 하나 뿐이다. 즉 엄숙한, 전투적인 과학적 태도가 그것이다. 공산당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살아 가는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의 진리에 의하여 살아 가며 실사 구시에 의하여 살아 가며 과학에

의하여 살아 간다. 허장성세로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는 것은 더욱 비렬한 생각이므로 더 말할 여지도 없다. 요컨대 어떤 기관이 결정을 채택하며 지시를 내릴 때에나 어떤 동지가 글을 쓰며 연설을 할 때에는 모두 맑스-레닌주의의 진리에 근거하여야 하며 필요성에 근거하여야 한다. 오직 이에 근거하여야만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으며 다른 것은 모두가 무익한 것이다.

당판고의 새책 죄상은 목표 없이 활을 쏘며 대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몇 해 전에 연안의 성벽에 《공인(로동자)과 농민은 연합하여 항일의 승리를 쟁취하자》란 표어가 쓰여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다. 이 표어의 뜻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인이라는 장인 공(工)자의 둘째 획을 바로 긋지 않고 두 굵이를 틀어 《互》자로 되게 하였다. 사람 인(人)자는 어떤가? 오른 쪽 획에 빠친 석삼을 덧붙여서 《彡》자로 되게 하였다. 이렇게 쓴 동무가 옛 문인 학사의 제자인 것만은 틀림 없다. 그러나 그가 항일 시기의 연안이란 이 지방의 성벽에다 그렇게 썼다는 것은 짐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마 그도 그것을 백성들이 알아 볼 수 없게 하려고 맹세한 것 같다. 이 외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 공산당원으로서 정말 선전을 하려고 한다면 대상을 보아야 할 것이며 자기의 글, 연설, 담화, 글씨를 누구에게 보이며 누구에게 들리려는 것인가를 잘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알아 보지도 못 하고 알아 듣지도 못 하도록 하려고 결심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쓴 것, 자기가 말한 것을 남들이 잘 알아 볼 수 있고 잘 알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가 쓴 글, 그가 한 말은 당팔고인데 남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소 귀에 경 읽기》란 이 말에는 상대자를 조소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뜻을 없애고 거기에다 상대자를 존중한다는 뜻을 집어 넣는다면 그 말에는 경을 읽는 사람을 조소하는 뜻 밖에 남지 않게 된다. 왜 상대자도 고려하지 않고 함부로 경을 읽는가? 더구나 그것은 당팔고여서 그야 말로 까마귀 우는 소리 같은 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인민 대중들 앞에서 까옥까옥하고 소리를 지르려 든다. 활을 쏘려면 과녁을 보아야 하고 경을 읽으려면 들을 사람을 보아야 하는데 글을 쓰고 연설을 할 때 독자와 청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좋단 말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과 벗으로 되든지 간에 만일 피차 마음을 모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모른다면 어떻게 지기의 벗으로 될 수 있겠는가? 선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선전 대상에 대하여 조사하지도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당팔고의 비제 최상은 베싼<sup>(5)</sup>처럼 말이 무미 건조한 것이다. 상해 사람들이 베싼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들은 아주 보기 흉하게 바짝 말라 비틀어진 몸이 우리가 말하는 당팔고와 매우 흡사하다. 만일 한 편의 글이나 어떤 연설에서 생기 있는 말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언제나 《학생투》로 몇 개의 명사만을 꼽씹는다면 그야 말로 말이 무미 건조하고 보기 흉한

끝이 베싼과 같을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일곱 살에 소학교에 들어 가고 열 몇 살에 중학교에 들어 가고 20여 세에 대학을 졸업하였고 인민 대중과는 접촉이 없어서 언어가 풍부하지 못 하고 극히 단순하다면 그것은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당이며 대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만일 대중의 언어를 배우지 않는다면 도저히 일을 잘 할 수 없다. 지금 선전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의 많은 동지들까지도 언어를 배우지 않고 있다. 때문에 그들의 선전은 아주 무미 건조하고 그들의 글은 즐겨 읽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그들의 연설도 즐겨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 왜 언어를 배워야 하며 또 큰 공력을 들여 배워야 하는가? 언어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애를 써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로, 인민 대중에게서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인민의 어휘는 매우 풍부하고 생동하며 실제 생활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언어를 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할 때면 생동하고 적절하고 힘 있는 말이라고는 몇 마디 나오지 않고 고정적인 딱딱한 말 뿐이어서 건강한 사람 같지 않고 베싼처럼 앙상하게 여윈 끝이 보기 흉하다. 둘째로, 외국어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를 흡수하여야 한다. 우리는 외국어를 기계적으로 옮겨 오거나 람용할 것이 아니라 외국어 중에서 좋은 것, 우리에게 맞는 것을 흡수하여야 한다. 중국의 고유한 어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어휘 중에는 외국어로부터 흡수한 것이 적 많다. 예를 들면 오늘

얼리고 있는 간부 대회의 《간부》란 이 말은 바로 외국에서 배워 온 것이다. 우리는 계속 외국의 신선한 것들을 더 많이 흡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진보적인 리론만을 흡수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선한 용어도 흡수하여야 한다. 세째로, 우리는 또 옛사람들의 언어 중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언어의 학습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의 언어 중에서 지금도 생기가 있는 많은 것들을 충분히 합리하게 리용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죽어 버린 어휘나 전고를 쓰는 것을 건결히 반대한다. 이것은 확정적인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 아적도 유용한 것은 여전히 계승하여야 한다. 지금 당팔고에 몹시 중독된 사람들은 민간의, 외국의, 옛사람의 언어 중의 유용한 것들을 배우기에 공력을 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그들의 무미 건조한 선전을 환영하지 않으며 우리도 그러한 소용 없는 절름발이 선전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선전가란 무엇인가? 교원이 선전가이며 신문 기자가 선전가이며 문예 작가가 선전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업 분야의 간부들도 다 선전가이다. 군사 지휘원을 예로 들면 그들이 대외적으로는 선언을 발표하지 않지만 병사들과 담화하여야 하며 인민들과 접촉하여야 한다. 이것이 선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과 말을 하기만 한다면 그는 선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병어리가 아닌 한 어쨌든 말을 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지들은 모두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당팔고의 다섯째 죄상은 한약국처럼 가, 나, 다, 라 식으로 라렬하는 것이다. 한약국에 가 보면 약장에는 많은 서랍들이 있는데 서랍마다 약 이름이 쓰여 있다. 당귀, 숙지황, 대황, 망초 등 있을 것은 다 있다. 이 방법도 우리 동지들이 모방하고 있다. 론설을 쓰거나 연설을 하거나 저술을 하거나 보고문을 쓰는 데 있어서 우선 갖은 자로 일, 이, 삼, 사(壹, 貳, 參, 肆), 그 다음에는 통용 글 '자로 일, 이, 삼, 사(一, 二, 三, 四), 세째로는 가, 나, 다, 라, 네째로는 ㄱ, ㄴ, ㄷ, ㄹ, 또 대문 '자로 A, B, C, D, 소문 '자로 a, b, c, d가 있는가 하면 또 아라비아 수 '자가 있는 등 무척 많기도 하다! 다행히도 옛사람과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처럼 많은 부호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약국을 차리는 데 조금도 힘이 들지 않게 되었다. 한 편의 글에 이런 부호들이 가득 찼을 뿐이고 아무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고 아무 문제도 분석되지 않았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한다는 것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은 한약국에 불과한 것으로서 아무런 절실한 내용도 없는 것이다. 나는 가, 나, 다, 라 등을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취급하는 방법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금 많은 동지들이 이 한약국을 차리는 방법에 흥미 진진해 하지만 실상 그것은 가장 저급적이고 가장 유치하며 가장 비속한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형식주의적인 방법으로서 사물을 내부적 면관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 표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단

지 사물의 외부적 표징에 따라 내부적 호상 연관성이 없는 개념들을 잔뜩 사용하여 글을 쓰고 연설을 하거나 보고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자는 그 자신이 개념의 유희에 빠지는 동시에 남들까지도 이런 유희에 이끌려 들이여 가, 나, 다, 라의 현상 라렬에 만족하고 문제를 고치거나 사물의 본질을 고려하는 데는 머리를 쓰지 않게 한다. 문제란 무엇인가? 문제란 사물의 모순이다. 해결되지 않은 모순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한 여하튼 어느 한 면을 찬성하고 다른 한 면을 반대하여야 하며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자면 우선 문제에 대한, 즉 모순의 두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대략적인 조사와 연구를 하여야 하며 그래야만 모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곧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대략적인 조사와 연구로는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아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계통적인 주밀한 조사사업과 연구 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분석의 과정이다.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도 분석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호하고 무질서한 많은 사물의 현상 가운데서 문제 즉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없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 과정은 계통적인 주밀한 분석 과정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흔히 문제는 제기되었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사물의 내부적 연관성을 아직 구명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며 이런 계통적인 주밀한 분석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면모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종합

을 할 수 없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도 없게 된다. 어떤 글, 또는 어떤 연설이 만일 지도성을 띤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이어서 분석을 가한 후 그것을 종합하여 문제의 성질을 밝히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자면 형식주의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유치하고, 저급적이고, 비속적이고, 머리를 쓰지 않는 형식주의적 방법이 우리 당내에서 매우 유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폭로, 분쇄하여야만 모두가 맑스주의적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관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으며 우리의 혁명 사업이 승리할 수 있다.

당판교의 여섯째 죄상은 무책임성으로 하여 도처에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그러한 것들은 한 편으로는 유치한 데로부터 온 것이고 다른 한 편으로는 책임감이 부족한 데로부터 온 것이다. 세수하는 데 비유한다면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세수를 한 후에는 또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어딘가 미진한 곳이 있거나 없을가 하여 한바탕 조사 연구를 한다. (큰 웃음 소리) 보라, 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가! 우리가 글을 쓰고 연설을 하는 데도 세수를 할 때처럼 책임을 진다면 괜찮을 것이다. 내놓을 형편이 못 되는 것은 내놓지 말아야 한다. 글이나 연설은 남들의 사상과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어찌다가 하루 이를 세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은 아니고 또



세수를 한 후에 얼굴에 검정기가 한두 군데 그냥 남아 있어도 물론 보기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별로 큰 위험성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글을 쓰고 연설을 하는 것은 이와 다르다. 그것은 전'적으로 남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지들은 그것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중을 전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연구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도 않으며 글을 쓴 후에는 또 세수한 후에 거울을 들여다 보듯이 여러 번 더 읽어 보려 하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하여 발표하여 버린다. 그 결과는 흔히 <붓만 들면 장편 대론을 늘어놓지만 주제와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지게 되어> 마치 재사(才士) 같아 보이지만 기실은 도처에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다. 책임감이 박약한 이런 나쁜 습관은 기어코 고쳐야 한다.

일곱째 죄상은 전 당에 해독을 끼치며 혁명을 방해하는 것이다. 여덟째 죄상은 전파되어 국가와 인민에게 화를 끼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죄상의 의의는 자명한 것으로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은 즉 당팔고를 개혁하지 않고 그대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결과가 엄중하며 아주 나쁜 지경에까지 이르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팔고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주관주의, 종파주의의 독소로서 이 독소가 전파되면 당을 해치고 나라를 해치게 된다.

이상의 8 개 조목은 당팔고를 성토하는 우리의 격문이다.

당팔고라는 이 형식은 혁명 정신을 표현하는 데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혁명 정신을 질식시키기 매우 쉽다. 혁명

정신을 발전시키려면 당팔고를 버리고 생동하고 신선하고 힘 있는 맑스-레닌주의적 문풍을 취하여야 한다. 이런 문풍은 벌써부터 존재하고는 있으나 아직 충실하지 못하고 보편적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양팔고와 당팔고를 숙청하고 난 후이면 새로운 문풍이 충실하여지고 보편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당의 혁명 사업도 한 걸음 추진될 것이다.

글과 연설에만 당팔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도 있다. 《1, 개회 2, 보고 3, 토론 4, 결론 5, 폐회》의 격식이 바로 그것이다. 가령 회의의 대소를 불문하고 어느 곳, 어느 회의에서나 이런 판에 박은듯 한 격식 대로만 한다면 이 역시 당팔고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회의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흔히 《1, 국제 2, 국내 3, 변구 4, 본 부문》 이러한 격식이며 회의는 흔히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걸리며 할 말이 없는 사람도 말하지 않으면 마치 미안한 것 같아서 한 번씩 말한다. 요컨대 실정을 돌보지 않고 고정 불변한 낡은 형식, 낡은 습관을 사수하는 이런 현상도 역시 개혁하여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민족화, 과학화, 대중화를 부르짖고 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화》란 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걸으로부터 속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약간》조차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동지들에게 우선 《약간》을 실행하고 나서 다시 《화》에 착

수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교조주의와 당팔고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눈은 높으나 힘이 부족하고 뜻은 크나 재주가 부족하여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 레를 들면 입으로는 대중화를 운운하면서 실상은 소중화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어느 날 대중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길에서 그를 만나 《선생님, 한 번 화해 보십시오.》 하고 말한다면 그는 난처하게 될 것이다. 입으로만 부르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대중화를 실행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실지로 대중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전히 《화》할 수 없게 된다. 일부의 사람들은 날마다 대중화를 웨치면서도 대중의 언어를 단 세 마디도 하지 못 한다. 여기에서도 그가 대중에게서 배우려는 결심을 한 적이 없으며 실상 그의 속마음은 여전히 소중화란 것을 알 수 있다.

오늘 회장에서 《선전 지남》이라는 소책자를 한 권씩 나누어 주었는데 거기에는 글 네 편이 수록되어 있다.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읽어 볼 것을 동지들에게 권고한다.

제 1 편은 《쏘련 공산당(볼셰위크) 역사 간략 독본》에서 발췌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레닌이 어떻게 선전하였는가를 말한 것이다. 거기에는 레닌이 삐라를 쓰던 정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써여 있다. 《레닌의 지도 하에서 베제르부르크의 〈로동 계급 해방 투쟁 동맹〉은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와 로동 운동의 결합을 실현하였다. 어떤 공장 내에 파업이 일어 났을 때 자기의 소조원을 통해서 공장 내의 사정

을 잘 알고 있는 <투쟁 동맹>은 곧 삐라와 사회주의적 격문을 뿌려서 파업에 호응하였다. 이러한 삐라에는 공장주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확대하는 사실을 폭로하였으며 노동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설명하며 또 노동자의 요구를 내걸었다. 삐라는 자본주의의 부관, 노동자의 궁핍, 매일 12 시간으로부터 14 시간 되는 혹독한 노동, 그들의 무권리한 처지, 이러한 진상을 모두 폭로하였다. 동시에 적절한 정치적 요구도 제출하였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하였으며 《모두 폭로하였다》고 하였다!

《1894년 말 레닌은 노동자 바브슈긴의 협력을 얻어서 삐페르부르그 세만니코브 공장의 파업 노동자에게 고하는 이러한 종류의 삐라와 격문을 처음으로 썼다》.

삐라 하나를 쓰려면 정확을 잘 알고 있는 동지와 상의하여야 한다. 레닌은 이러한 조사와 연구에 근거하여 글을 쓰고 사업을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삐라는 노동자들의 용기를 크게 북돋아 주었다. 노동자들은 사회주의자가 자기들을 돕고 자기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6]

우리는 레닌을 찬성하는 사람들인가? 만일 찬성한다면 레닌의 정신에 좇아서 사업하여야 할 것이다. 내용 없는 빈말을 길게 늘어 놓을 것이 아니라, 목표 없이 활을 쓰듯 대상을 보지 않을 것이 아니라, 또 잘 난 체 하면서 회머운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레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여야 할 것

이다.

제 2 편은 코민테른 제 7 차 대회에서 한 지미프로브의 보고에서 발췌한 것이다. 지미프로브는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책에 있는 공식으로가 아니라 대중의 사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투사들의 언어로 대중과 담화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러한 투사들의 말 한 마디, 생각 하나는 모두가 수천 수만 대중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대중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말을 배우지 않는다면 광범한 대중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대중이 잘 알고 이해하는 형상을 들어 가며 말하는 데 능란하게 되자면 아직도 벌었다. 우리는 아직도 잘 압기하고 있는 추상적인 공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사실 상 우리의 뼈라, 신문, 결정 및 제강을 보기만 하면 그러한 것들이 흔히 어려운 말과 어려운 뜻으로 섞여져 일반 노동자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우리 당의 간부들까지도 해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가? 이야 말로 우리의 병통을 따끔하게 찢어 주는 것이 아닌가? 당팔고가 중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 것을 보아 이것은 확실히 공통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웃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지미프로브 동지의 지시에 좇아 우리 자신의 병을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다.

《우리 매개인은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규칙을 철실히 리

해하고 그것을 정칙으로 삼아야 하며 불쉐위크의 정칙으로 삼아야 한다. 즉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매개 보통 로동자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당신의 호소를 신뢰하고 당신의 뒤를 따를 결심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글을 쓰며 누구에게 말하는가를 념두에 두어야 한다》.[7]

이것은 국제 공산당이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준 처방이며 우리가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규칙》이다!

제 3 편은 《로신 전집》에서 발췌한 것이다. 즉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북두 잡지사[8]의 문의에 대한 로신의 회답 편지이다. 로신은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그는 글 쓰는 규칙으로서 도합 여덟 개 조목을 열거하였다. 나는 이제 그 중에서 몇 개 조목을 들어서 말하여 보려 한다.

첫째 조목, 《여러 가지 일들에 류의하여 잘 관찰하여야 하며 조금 보고 즉시 붓을 들지 말아야 한다》.

그가 말한 것은 한 가지나 반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에 류의하라》는 것이고 대강대강 보라는 것이 아니라 《잘 관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가? 그와는 정반대로 조금 보고는 즉시 쓰려고 하지 않는가?

둘째 조목, 《되지 않을 때는 억지로 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가? 머리 속에는 분명히 아무 것도 없는데 억지로 대서 특서하려고 하지 않는가? 조사하지 않고 연구하지도 않고 붓을 들어 《억지로 쓰는》 이것은 무책임한 태도

이다.

네째 조목, 《다 쓴 후 적어도 두 번은 읽어 보아야 하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글'자, 문구, 단락은 조금도 아까와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삭제하여야 한다. 소설을 쓸 수 있는 재료를 소품으로 줄이기는 할지언정 결코 소품 재료를 늘여서 소설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공자는 《두 번 생각할 것》을 주장하였으며<sup>[9]</sup> 한 유도 《행은 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sup>[10]</sup>. 그것은 고대의 일이다. 지금의 일은 문제가 매우 복잡하여 어떤 일은 심지어 세 번 네 번 생각하여도 부족하다. 로신은 《적어도 두 번은 읽어 보라》고 하였다. 그런데 많으면 몇 번이겠는가? 이 점에 대하여 그는 말하지 않았다. 내가 보기에는 중요한 글은 십여 번 읽어 보고 잘 수정한 후에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글은 객관적 사물의 반영이며 사물은 꼭질이 있고 복잡한 것이므로 거듭되는 연구를 거쳐야만 옳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강대강 하여 버리는 것은 글을 쓰는 초보적 지식도 모르는 것이다.

여섯째 조목, 《자기 밖에는 아무도 모를 형용사 따위를 억지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억지로 만든》 것은 너무나 많으며 결국은 모두가 《아무도 모를》 것들이다. 어떤 구절은 40~50 자나 되게 길며 그 중에는 《아무도 모를 형용사 따위》가 가득 들어 있다. 말끝마다 로신을 지지한다고 떠드는 많은 사람들이 도리어 로신의 가르침을 위반하고 있다!

마지막 한 편의 글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선전의 민족화에 관한 보고이다.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6 차 전원 회의는 1938년에 열리었다. 우리는 그 때에 《중국의 특성을 떠나 맑스주의를 운운한다면 그것은 추상적인, 텅 빈 맑스주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즉 맑스주의에 대한 공담을 반대하여야 하며 중국에서 생활하는 공산당원은 중국 혁명의 실제에 편게시켜 맑스주의를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팔고는 폐지하여야 하며 공허하고 추상적인 소리는 작작 하여야 하며 교조주의는 없애 버려야 한다. 그리 하여 신선하고 활기 있고 중국의 백성들이 좋아 하고 즐기는 중국 작품과 중국 기풍으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국제주의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을 분리시키는 것은 국제주의를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량자를 긴밀히 결합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렬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일부의 엄중한 오류를 참답게 극복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양팔고를 폐지하라고 하였는데 일부 동지들은 실제에 있어서 아직도 그것을 제창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허하고 추상적인 소리를 작작 하라고 하였는데 일부 동지들은 기어이 그런 소리블 더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조주의를 없애 버리라고 하였는데 일부 동지들은 도리어 그것을 되살리고 있다. 요컨대 많은 사람들은 마치 고의로 대항이나 하려는듯이 중앙 위원회 제 6 차 전원 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를 마이동풍으로 대하고 있다.



지금 중앙 위원회에서는 당팔고와 교조주의 같은 것들을 어디까지나 철저히 청산하기로 결정하였다.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하였다. 내가 한 말을 생각하여 보고 분석하여 보는 동시에 각기 자신의 정형도 분석하여 보기를 동지들에게 바란다. 사람마다 자기에 대하여 잘 생각하여 보며 또 자기에게 명확하여진 것을 지기의 벗들과 상의하며 자기 주위에 있는 동지들과 상의함으로써 자기의 병'집을 착실히 고쳐야 할 것이다.

## 주 해

[1] 《장군》이라는 것은 장기의 용어이다. 장기는 중국의 오락 도구의 하나로서 팅군이 내치하고 싸우는 형식을 취하여 일방이 상대방의 궁에 쳐 들어가 《장군》(장수)을 잡는 편이 이기기로 되어 있다. 일방이 상대방을 난국에 처하게 하여 그 장군으로 하여금 끈 잡힐 위험에 처하게 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장군》을 부르는 것이다.

[2] 친구 팔고를 반대하는 것은 로신의 작풍에 일관되어 있는 정신이다. 로신은 《위자유서》라는 책의 《투저》라는 글에서 《팔고는 원래 바보들의 산물이다. 첫째로 시험관들—그들의 머리는 태반이 벽들장 같이 무디다—이 시끄러운 것을 귀찮아 하는 데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현들의 언문을 전술한다느니, 기승전결(起承轉結)이니, 문장의 기운(氣韻)이니 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일정한 표준이 없고 해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한 조목 한 조목씩 규정하여 격식으로 치고서 이 격식으로 <글을 속정>하면 그 경중을 대변에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둘째로는 응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면 힘이 덜 들고 덜 시끄럽다는 데서 온 것이다. 이러한 팔고는 친구를 막론하고 일소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양팔고는 5.4 운동 이후 일부의 천박한 부르주아 지식인과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발견시킨 것이고 또 그들에 의하여 전파되어 혁명적 문화 대명 내에 장기간 존재하여 왔다. 로신은 자기의 많은 글들에서 혁명적 문화 대명 내의 양팔고를 반대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러한 양팔

고를 비판하면서 《팔고는 신구물 막론하고 일소되어야 할 것 둘이다……. 예를 들면 <육설>, <몽갈> 심지어는 <관결>한 줄만 안고 과학에 의하여 얻어진 공식을 구체적으로 착실하게 적용하여 매일의 새로운 사실, 새로운 현상을 해명하려 하지 않고 다만 한 가지 공식을 베껴서 그것을 모든 사실에다 함부로 들어맞추는 이것도 역시 팔고의 하나다.》(《투저》부록 《축 수첩에게 보내는 답서》에서)라고 하였다.

[3]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주해 37을 참조하라.

[4] 이것은 로신의 《남강 북조집》에 수록된 글의 제목으로서 1932년 작이다. 《로신 전집》제 5 권에 수록되어 있다.

[5] 상해 사람들은 도시에서 정당한 직업이 없이 길식 또는 절도를 하여 살아 가는 몸체들을 벼싹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몹시 여위었다.

[6] 《쓰런 공산당(불레위크) 역사 간략 녹본》제 1 장 제 3 절에 있다.

[7] 지미트로브가 코민테른 제 7 차 대회에서 한 결론 《과소주의를 반대하는 노동 계급의 통일 전선을 위한 투쟁》의 제 6 부분 《정확한 로선만으로는 부족하다》에 있다.

[8] 《복두 잡지》는 중국 좌익 작가 런명이 1931~1932년에 출판한 월간 잡지이다. 《복두 잡지사의 문의에 대한 대답》은 《로신 전집》제 4 권 《이십집》에 수록되어 있다.

[9] 《몬어·공야 장 제 5》에 있다.

[10] 한 유는 기원 8~9 세기의 사람으로서 중국 당조 때의 저명한 대작가이다. 그는 《진학해》라는 글에서 《행(行)은 사(思)에서 이루어지고 수(隨)에서 허물어진다.》라고 하였다. 즉 일의 성공은 사고하는 데서 오고 실패는 사고를 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뜻이다.

## 연안 문예 좌담회에서의 강화

(1942년 5월)

### 머리'말

(1942년 5월 2일)

동지들! 오늘 여러 분을 이 자리에 청하여 좌담회를 여는 목적은 여러 분과 의견을 교환하며 문학 예술 사업과 일반 혁명 사업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혁명적 문학 예술의 정확한 발전을 기하며 혁명적 문학 예술이 기타의 혁명 사업들에 가일층의 협조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적을 타도하고 민족 해방의 과업을 완수하려는 데 있다.

중국 인민의 해방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는 여러 가지 전선이 있는데 그 중에는 문(文), 무(武) 두 전선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것은 즉 문화 전선과 군사 전선이다. 우리가 적을 타승하려면 우선 손에 총을 든 군대에 의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는 또 문화 군대가 있어야 한다. 이 군대는 우리 자신을 단합하고 적을 타승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군대이다. 《5. 4》 이후 이 문화 군대는 중국에서 형성되어 중국 혁명을 도왔으

며 중국의 봉건적 문화의 기반과 제국주의의 침략에 적응하는 매관적 문화의 기반을 점차 축소시키고 그 령량을 점차 약화시켰다. 그리 하여 지금에 와서는 중국의 반동파들은 소위 《량으로써 질에 대항한다》는 방법으로 신문화에 대항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반동파들은 좋은 것은 내어 놓을 수 없지만 돈이 많으니까 기를 쓰고 많이 내어 놓을 수 있다. 《5. 4》 이래의 문화 전선에 있어서 문학과 예술은 성과를 올린 중요한 부문이다. 혁명적 문학 예술 운동은 10년 내전 시기에 커다란 발전을 가져 왔다. 이 운동이 당시의 혁명 전쟁과 총적 방향에 있어서는 일치하였지만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서로 결합하지 못 하였다. 그것은 당시의 반동파들이 이 두 형제적 부대를 격리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항일 전쟁이 발발된 후 연안과 각 항일 근거지로 오는 혁명적 문예 일'군들이 많아졌는데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근거지에 왔다고 하여 이미 근거지의 인민 대중과 완전히 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혁명 사업을 추진시키려면 우리는 이 량자를 완전히 결합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의 이 모임은 문학 예술을 참으로 혁명이라는 큰 기계 중의 한 구성 부분으로 되게 하며 인민을 단합하고 인민을 교양하며 적을 타격하고 적을 소멸하는 강유력한 무기로 되게 함으로써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과 싸우도록 인민들을 방조하려는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은 어떠한 것인가?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 즉 문예 일'군들의 립장 문제, 태도 문제, 사업 대상 문제, 사업 문제

와 학습 문제 등이 있다고 생각한다.

립장 문제.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 대중의 립장에 서야 한다. 공산당원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당'적 립장에 서야 하며 당성 및 당 정책의 립장에 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우리 문예 일'군들 가운데 아직 그 인식이 부정확하거나 불명확한 사람은 없는가? 내가 보기에는 있다. 많은 동지들은 때때로 자기의 정확한 립장을 잃고 있다.

태도 문제. 립장 여하에 따라 각종 구체적 사물들에 대하여 취하는 구체적 태도가 생기게 된다. 베킨대 구가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폭로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바로 태도 문제이다. 대체 어느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나는 두 가지 태도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을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취하는가 하는 데 있다. 세 가지 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는 적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 전선 내의 동맹자이며 또 하나는 자기 편이다. 이 세째 류의 사람은 바로 인민 대중과 그 선봉대이다. 이 세 가지 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적에 대하여서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하여서와 인민의 온갖 적에 대하여서는 혁명적 문학 예술 일'군들의 임무는 적들의 잔인성과 기만성을 폭로하는 동시에 필연적으로 패배하게 될 그 추세를 지적함으로써 항일하는 군대와 인민들을 고무 격려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을 전멸히 타도하도록 하는 데 있다. 통일 전선 내의 각이한 동맹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태도는 연합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것이며 각이한 정도로 연합도 하고 각이한

정도로 비판도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이 항전하는 데 대하여 우리는 찬성하며 그들이 성과를 거두면 찬양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항전에 적극적으로 못 되면 우리는 비판하여야 한다. 만일 공산당과 인민을 반대하며 나날이 반동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인민 대중에 대하여, 인민들의 로동과 투쟁에 대하여, 인민의 군대, 인민의 정당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물론 찬양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민들에게도 결함이 있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 내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소부르조아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농민과 도시 소부르조아지도 락후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투쟁에 있어서의 그들의 짐으로 되고 있다. 우리들은 장기적으로 참을성 있게 그들을 교양하고 방조하여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보따리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결함, 파오와 투쟁하면서 대환보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투쟁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개조하였거나 개조하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그들의 이 개조 과정을 묘사하여야 한다. 그들이 자기의 파오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닌 한, 우리는 그들의 일면만 보고 옳지 못하게 그들을 비웃거나 지어 적대시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쓴 작품은 그들을 단결하게 하며 그들을 진보하게 하며 그들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앞으로 전진하게 하며 락후한 것을 버리고 혁명적인 것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결코 이와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 대상 문제, 즉 문예 작품을 누구에게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 섬감녕 변구나 화북, 화중의 각 항일 근거지들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국민당 통치구에서와는 달리 제기되며 항전 이전의 상해에서와는 더구나 달리 제기된다. 상해 시기에 있어서는 혁명적 문예 작품의 독자가 주로 일부의 학생, 사무원, 점원들이었다. 항전이 시작된 이후의 국민당 통치구에서는 그 범위가 약간 확대된 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이 주되는 독자이다. 그것은 국민당 정부가 노동자, 농민, 병사를 혁명적 문예와 격리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근거지에 있어서는 이와 전혀 다르다. 근거지에 있어서의 문예 작품의 독자는 노동자, 농민, 병사 및 혁명 간부들이다. 근거지에도 학생이 있지만 이런 학생은 구식 학생과 달라 지난날의 간부가 아니면 미래의 간부이다. 각종 간부, 부대의 전사, 공장의 노동자, 농촌의 농민들이 글을 알면 책과 신문을 볼 것이며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연극을 볼 것이고 그림을 볼 것이고 노래를 부를 것이고 음악을 들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문예 작품의 독자이다. 간부를 두고 말하더라도 그 수요가 적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수요는 국민당 통치구에서 책 한 권을 출판하였을 때의 독자보다 훨씬 많다. 거기에서는 책 한 권을 출판하는 데 보통 한 판에 2,000 부 밖에 안 되므로 3 판이라야 6,000 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거지의 간부를 두고 말하면 연안만 하여도 책을 볼 수 있는 간부가 만여 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 간부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오랜 단련을 거친 혁명가들이다. 그들은 전국 각 지방에서 왔으며 또 각 지방에

가서 사업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교양 사업을 하는 것은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의 문예 일'군들은 그들에 대한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문예 사업의 대상이 노동자, 농민, 병사 및 그 간부인 이상 그들을 료해하며 그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서게 된다. 그들을 료해하고 그들을 잘 알기 위하여서는, 당 기관 및 정부 기관에서, 농촌에서, 공장에서, 팔로군 및 신사군 내부에서 각종 사람들을 료해하고 잘 알며 각종 사실들을 료해하고 잘 알기 위하여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여야 한다. 우리의 문예 일'군들은 자기의 문예 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람을 료해하고 사람을 잘 아는 이 일이 첫째로 가는 일이다.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과거 우리의 문예 일'군들은 어떤 형편이었던가? 과거에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모르고 있었으며 그래서 영웅이 재능을 발휘할 곳이 없었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 잘 알지 못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대하여 잘 알지 못 한다는 것이다. 문예 일'군들은 자기가 묘사할 대상과 자기 작품의 독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거나 그야 말로 아주 생소하였다. 우리의 문예 일'군들은 노동자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농민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병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간부들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모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언어를 모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민 대중의 풍부하고도 생동한 언어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다. 많은 문예 일'군들은 대중과 리탈되어 있고 그 생활이 공허



하기 때문에 자연히 인민의 언어를 잘 알지 못 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작품은 언어가 무미 건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흔히 억지로 만들어 낸, 인민의 언어와는 대립되는, 알토당트 않은 그런 문구들이 섞이게 된다. 많은 동지들은 《대중화》라는 말을 하기 좋아 하는데 대중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즉 우리의 문예 일'군들의 사상 감정이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사상 감정과 한데 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데 융합되려면 대중의 언어를 참답게 배워야 한다. 대중의 언어조차 모를 것이 많다면 어떻게 문예 창작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영웅이 재능을 발휘할 곳이 없다는 것은 즉 그가 만들어 놓은 그 굉장한 것을 대중이 알아 주지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중 앞에서 대가인 체 하면 할수록, 《영웅》인 체 하면 할수록, 그 따위 것을 내흔들면 흔들수록 대중은 더욱더 그를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대중에게 자기를 료해시키려면, 대중과 융합되려면 장기적인,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거칠 결심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는 나 자신의 감정이 변화된 체험을 말하여 보겠다. 나는 학생 출신인데 학교에서 학생 버릇이 양성되었다. 즉 아무런 일도 할 줄 모르는 학생들 앞에서 자기의 행리를 쳐 나르는 일과 같은 약간의 로동을 좀 하여도 어쩐지 쑥스러웠다. 당시 나는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은 지식인 뿐이고 로동자, 농민은 어쨌든 좀 더럽다고 생각되었다. 지식인이 입던 옷이라면 다른 사람의 옷이라도 깨끗하다고 생각되었기에 입을 수 있었으나 로동자, 농민이 입던 옷이라면 더럽다고 생각되기에 입고 싶지

않았다. 혁명을 하게 되어 노동자, 농민 및 혁명군의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부터 나는 차차 그들을 잘 알게 되었으며 그들도 차차 나를 잘 알게 되었다. 이 때에야, 오직 이 때에 와서야 나는 부르쵸아 학교에서 가르쳐 준 부르쵸아적 감정과 소부르쵸아적 감정을 근본적으로 고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때에 와서 개조되지 않은 지식인을 노동자, 농민과 비교하여 볼 때 지식인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과 가장 깨끗한 것은 아무래도 노동자, 농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비록 그들의 손은 시꺼멓고 발에는 소똥이 묻었다 하더라도 부르쵸아 및 소부르쵸아 지식인들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 감정에 변화가 일어나 한 계급으로부터 다른 한 계급으로 변하였다고 한다. 지식인 출신인 우리의 문예 일'군들이 자기의 작품으로 하여금 대중의 환영을 받게 하려면 자기의 사상 감정을 변화시켜야 하며 개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이러한 개조가 없이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지 않으며 애로에 부딪치게 된다.

마지막 한 문제는 학습 문제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학습과 사회에 대한 학습이다. 맑스주의적 혁명 작가로 자처하는 사람 특히 당원 작가로서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일부 동지들에게는 맑스주의의 기본적 관점이 부족하다. 페컨대 맑스주의의 기본적 관점의 하나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것이며 계급 투쟁과 민족 투쟁의 객관적 현실이 우리의 사상 감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부 동지들은 도

리여 이 문제를 전도하여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느니 무엇이니 하고 말한다. 사랑을 두고 말한다면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오직 계급적인 사랑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동지들은 무슨 초계급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 나아가서는 추상적인 자유, 추상적인 진리, 추상적인 인간성 등등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것은 이러한 동지들이 부르조아지의 영향을 몹시 받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향을 철저히 청산하고 맑스-레닌주의를 허심히 학습하여야 한다. 문예 일'군들이 문예 창작을 학습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는 모든 혁명자들이 다 학습하여야 할 과학인 만큼 문예 일'군이라 하여 예외로 될 수는 없다. 문예 일'군들이 사회를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의 각 계급을 연구하여야 하며 그 계급들 호상간의 관계 및 각 계급의 정형을 연구하여야 하며 그 계급들의 면모와 심리를 연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명확히 하여야만 우리의 문학 예술이 풍부한 내용과 올바른 방향을 가지게 된다.

오늘은 머리'말로서 이 몇 가지 문제만을 제기하니 이러한 문제들과 이와 관련되는 기타의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들을 발표하여 주기 바란다.

## 결 론

(1942년 5월 23일)

동지들! 우리는 이 모임을 한 달 동안에 세 번 가지었다. 여러 분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하여 열렬한 논쟁을 전개하였고 수십 명의 당원 및 비당원 동지들이 토론하였으며 그리하여 문제가 전개되고 구체화되었다. 이것은 문학 예술 운동 전체에 대하여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문제를 토론함에 있어서 우리는 정의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가령 우리가 문학이란 무엇이며,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정의를 교과서에서 찾은 후에 거기에 쫓아서 오늘의 문학 예술 운동의 방침을 정하고 오늘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견해와 논쟁의 시비를 판정하려 한다면 그러한 방법은 옳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맑스주의자이다. 맑스주의는 우리들에게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추상적인 정의로부터 출발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분석하는 가운데서 방침, 정책, 방법을 찾아 낼 것을 교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문예 사업을 토론함에 있어서도 역시 이렇게 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실이란 어떠한 것들인가?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이미 5년 동안이나 진행하여 온 중국의 항일 전

쟁, 전 세계의 반파쇼 전쟁, 항일 전쟁 중에서의 중국 대지주와 대부르조아지의 동요 및 인민에 대한 그들의 고압 정책, 《5.4》 이래의 혁명적 문학 예술 운동——이 운동이 지난 23년 동안에 혁명에 준 위대한 공헌과 그의 허다한 결함들, 팔로군과 신사군의 항일 민주 근거지 및 이러한 근거지 내에서의 많은 문예 일'군들과 팔로군, 신사군 및 로동자, 농민들과의 결합, 근거지 내의 문예 일'군들과 국민당 통치구 내의 문예 일'군들의 환경 및 임무의 차이, 현하 연안 및 각 항일 근거지의 문예 사업에서 이미 발생된 론쟁 문제 등——이러한 것들은 실지로 존재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의 중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중을 위하여야 한다는 문제와 여하히 대중을 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두 개 문제를 해결하지 않거나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 하면 우리의 문예 일'군들은 자기의 환경과 임무에 적응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외부와 내부에서 일련의 문제들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나의 결론은 이 두 개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와 관련되는 기타 일부 문제들에도 언급하려 한다.

## 1

첫째 문제, 우리의 문학 예술은 누구를 위할 것인가?

이 문제는 본래 맑스주의자들, 특히 레닌에 의하여 벌써 해결된 문제이다. 레닌은 1905년에 벌써 우리의 문학 예술은 《수백만 수천만 근로자들에게 봉사》〔1〕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항일 근거지들에서 문학 예술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동지들은 이 문제를 아직 명확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서에 있어서, 작품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문예 방침 문제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 대중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실제 투쟁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정형이 많은 적든 발생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지금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과 함께 위대한 해방 투쟁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문화인, 문학가, 예술가 및 일반 문예 일'군들은, 비록 그 중에 일시적인 투기 분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절대 다수는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힘써 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지들에 의하여 우리의 전반 문학 사업, 연극 사업, 음악 사업, 미술 사업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문예 일'군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항전 이후부터 사업하기 시작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항전 이전에 벌써 다년간 혁명 사업에 종사하면서 허다한 간난 신고를 겪었으며 자기들의 사업과 작품을 통하여 광범한 대중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러한 동지들 중에도 문학 예술은 누구를 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 명확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게 되는가? 그래, 아직

도 혁명적 문학 예술은 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착취자, 압박자를 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물론 착취자, 압박자를 위한 문학 예술도 있다. 지주 계급을 위한 문학 예술은 봉건주의의 문학 예술이다. 중국 봉건 시대의 지배 계급의 문학 예술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문학 예술은 중국에서 자못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부르조아지를 위한 문학 예술은 부르조아 문학 예술이다. 로신이 비판한 량 실추[2]와 같은 자들은 입으로는 문학 예술의 초계급성이요 무엇이요 하고 있지만 실제 상으로는 부르조아 문학 예술을 주장하며 프로레타리아 문학 예술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를 위한 문학 예술은——주 작인, 장 자평[3] 같은 자들이 한 것처럼——민족 반역자의 문학 예술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학 예술은 위에서 말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일찍 말한 바와 같이 현 단계에 있어서 중국의 신문화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인민 대중의, 반제 반봉건적 문화이다. 진정으로 인민 대중의 것이라면 지금에 있어서는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것이어야 하며 부르조아지가 령도하는 것은 인민 대중의 것으로 될 수가 없다. 신문화 중의 신문학과 신예술도 물론 이렇다. 과거 시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중국과 외국의 풍부한 문학 예술의 유산과 우수한 문학 예술의 전통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계승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목적은 여전히 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다. 과거 시대의 문학 예술의 형식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결코 그것

을 리용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낡은 형식이 우리의 손에 들어 와서 개조되고 새로운 내용이 보태어지면 역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 대중이란 무엇인가? 가장 광범한 인민, 전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민은 로동자, 농민, 병사 및 도시 소부르쵸아지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학 예술은 첫째로, 로동자를 위하는 것이다. 그들은 혁명을 령도하는 계급이다. 둘째로, 농민을 위하는 것이다. 그들은 혁명에 있어서 가장 광범하고도 가장 견결한 동맹군이다. 셋째로, 무장한 로동자, 농민, 즉 팔로군, 신사군 및 기타의 인민 무장 부대를 위하는 것이다. 그들은 혁명 전쟁의 주력이다. 넷째로, 도시 소부르쵸아 근로 대중과 지식인을 위하는 것이다. 그들 역시 혁명의 동맹자로서 장기적으로 우리와 합작할 수 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중화 민족의 최대의 부분이며 가장 광범한 인민 대중이다.

우리의 문학 예술은 위에서 말한 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위하여 복무하려면 프롤레타리아트의 립장에 서야 하지 소부르쵸아지의 립장에 서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개인주의적인 소부르쵸아지의 립장을 견지하고 있는 작가들은 진정으로 혁명적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을 위하여 복무할 수 없으며 그들의 흥미는 주로 소수의 소부르쵸아 지식인들에게 쏠리고 있다. 지금 우리의 일부 동지들이 문학 예술은 누구를 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 하고 있는 기본 원인은 바로 여기



에 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리론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리론 면에서나 구두 상으로는 우리 대렬 내에서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을 소부르쵸아 지식인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나는 실제 면에서와 행동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실제 면에서와 행동 면에서 그들은 소부르쵸아 지식인을 로동자, 농민, 병사보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인정한다. 많은 동지들은 소부르쵸아 지식인을 보다 치중하여 연구하고 그들의 심리를 분석하며 치중하여 그들을 표현하며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 량해하고 변호하여 주지만 자기와 함께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에게 접근하며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실제 투쟁에 참가하며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을 표현하며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에게 교양을 주도록 그들을 인도하지는 않는다. 많은 동지들은 자기 자신이 소부르쵸아 출신이고 또 자기 자신이 지식인이기 때문에 지식인의 대렬 내에서만 자기의 벼슬 구하며 지식인을 연구하고 묘사하는 데 자기의 주의력을 돌리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의 립장에서 서서 이러한 연구와 묘사를 한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립장에서 서 있지 않거나 튼튼히 서 있지 않다. 그들은 소부르쵸아지의 립장에서 서 있으며 자기의 작품을 소부르쵸아지의 자아 표현으로서 창작하고 있다. 우리는 상당히 많은 문학 예술 작품들에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된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소부르쵸아 출신의 지식인들에게 만강의 동정을 보내며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서까지도 동정하며

지어는 그것을 고취한다. 그러나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에 대하여서는 접촉이 없고 료해가 없고 연구가 없고 친교가 없으며 그들을 묘사할 줄 모른다. 실령 묘사한다 하더라도 옷은 근로 인민이지만 얼굴은 소부르쵸아 지식인으로 되어 버린다. 그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로동자, 농민, 병사를 사랑하기도 하고 로동자, 농민, 병사 출신의 간부를 사랑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으며 어떤 점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의 감정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의 맹아 상태에 있는 문학 예술(벽보, 벽화, 민요, 민간 전설 등)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이 때로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호기심에서, 자기의 작품을 장식하기 위하여, 지어는 그 가운데의 락후한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때로는 로골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집어 던지고 소부르쵸아 지식인의 것, 나아가서는 부르쵸아지의 것을 편애한다. 이러한 동지들의 립각점은 소부르쵸아 지식인 편에 있으며 좀더 점잖은 말로 바꾸어 말하면 그들의 정신 심처에는 아직도 소부르쵸아 지식인의 왕국이 있다. 이리 하여 누구를 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거나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연안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전선에도 나가 보았고 근거지, 팔로군, 신사군에서 여러 해 동안 사업하여 온 사람들 중에도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려면 한 10년 잘 걸려야 할 것이다. 그러

나 시일이 아무리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며 명확하고도 철저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문예 일'군들은 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하며 자기의 럽각점을 반드시 옮겨 놓아야 한다. 즉 반드시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 속에 침투하며 실제 투쟁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맑스주의와 사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럽각점을 점차적으로 로동자, 농민, 병사 측으로 옮겨 놓아야 하며 프로레타리아트 측으로 옮겨 놓아야 한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로동자, 농민, 병사를 위한 문학 예술, 진정으로 프로레타리아적인 문학 예술이 있게 된다.

누구를 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원칙적인 문제이다. 과거 일부 동지들 사이의 논쟁, 의견 상이, 대립 및 부단결은 이 근본적 원칙적 문제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지어는 무원칙한 문제들에서 생긴 것이다. 오히려 이 원칙적 문제에 대하여서는 논쟁하는 쌍방 간에 아무런 의견 상이도 없었고 거의 일치한 것이었다. 즉 로동자, 농민, 병사를 경시하며 대중과 리탈하는 경향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아 이러한 동지들이 로동자, 농민, 병사를 경시하며 대중과 리탈하는 정도가 국민당이 로동자, 농민, 병사를 경시하며 대중과 리탈되어 있는 정도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경향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타의 허다한 문제들도 해결하기 힘들다. 문예계의 종파주의를 폐로 들어 볼 때 이 역시 원칙적

인 문제이다. 그러나 종파주의를 제거하려면 역시 《로동자, 농민을 위하여》, 《팔로군, 신사군을 위하여》, 《대중 속으로》라는 구호를 제기하고 그것을 철저히 실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종파주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로신은 《련합 전선은 공동의 목적을 필요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선이 통일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목적이 일치하지 못 하여 단지 작은 그루뭉살을 위하여나 나아가서는 실제 상 개인만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준다. 만일 모두가 로동자, 농민 대중을 위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전선은 물론 통일될 것이다.》<sup>(4)</sup>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문제는 당시 상태에 있었고 지금 중경에도 있다. 이러한 지방들에서는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왜냐 하면 이러한 지방의 지배층은 혁명적 문학 예술가들을 억압하며 그들에게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 속으로 들어 갈 자유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있는 이 곳은 정형이 전연 다르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 병사와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혁명적 문학 예술가들을 고무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대중 속으로 들어 갈 완전한 자유를 주고 있으며 진정한 혁명적 문학 예술을 창작할 완전한 자유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이 곳에서는 이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거의 해결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철저히 해결되었다는 것과는 다르다. 우리가 맑스주의와 사회를 학습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완전히, 철저히 해결하기 위하여서이다. 우리가 말하는 맑스주의는 구두 상의 맑스주

의가 아니라 대중의 생활과 대중의 투쟁 속에서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산 맑스주의이다. 구두 상의 맑스주의를 실생활 중의 맑스주의로 되게 하면 종파주의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종파주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기타 허다한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

## 2

누구를 위하여 복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으로 오는 문제는 어떻게 복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무들의 말을 빈다면 즉 제고에 힘 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급에 힘 쓸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 동지들은 과거에 보급을 상당히 또는 엄중한 정도로 경시하고 홀시하였으며 제고를 부적당하게 너무 강조하였다. 제고를 강조하는 것은 응당하지만 그것을 일면적으로, 교립적으로 강조하며 부적당한 정도로까지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위에서 말한, 누구를 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점에서도 표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보급과 제고는 정확한 표준이 없으며 따라서 량자 간의 정확한 관계는 더군다나 찾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문학 예술이 기본 상 로동자, 농민, 병사를 위한 것인 이상 보급이라는 것도 로동자, 농민, 병사들에 대한 보급이며 제고라는 것도 로동자, 농민, 병사

로부터 출발한 제고이다. 무엇을 그들에게 보급시킬 것인가? 봉건 지주 계급에게 필요하고 접수되기 쉬운 것을 보급시킬 것인가? 부르주아지에게 필요하고 접수되기 쉬운 것을 보급시킬 것인가?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에게 필요하고 접수되기 쉬운 것을 보급시킬 것인가? 그것은 다 안 된다. 오직 로동자, 농민, 병사 자신에게 필요하고 접수되기 쉬운 것을 보급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로동자, 농민, 병사에게 교양을 주는 임무에 앞서서 먼저 로동자, 농민, 병사에게서 배우는 임무가 제기된다. 제고 문제는 더구나 이렇하다. 제고하는 데는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이를 떼면 물 한 통을 땅에서 들어 올리지 않고 공중에서 들어 올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문학 예술을 제고하자면 어떤 기초에서 제고하여야 하는가? 봉건 계급의 기초에서인가? 부르주아지의 기초에서인가? 소부르주아 지식인의 기초에서인가? 모두 아니다. 오직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기초에서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로동자, 농민, 병사를 봉건 계급, 부르주아지 및 소부르주아 지식인의 《높이》에로 제고할 것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병사들 자신의 전진 방향에 따라 제고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진 방향에 따라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로동자, 농민, 병사에게서 배우는 임무가 제기된다. 로동자, 농민, 병사로부터 출발하여야만 보급과 제고에 대하여 올바른 리해를 가질 수 있으며 보급과 제고와의 올바른 관계도 찾아 낼 수 있다.

모든 종류의 문학 예술의 원천은 결국 어디에 있는가? 관념 형태로서의 문예 작품은 모두 일정한 사회 생활이 인간

의 두뇌에 반영되어 생긴 것이다. 혁명적 문학 예술은 인민의 생활이 혁명적 작가의 두뇌에 반영되어 생긴 것이다. 인민의 생활 가운데는 본래 문학 예술의 원료로 되는 자원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자연 형태의 것이고 조잡한 것이기는 하나 가장 생동하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말한다면 모든 문학 예술은 그것들에 비하여 손색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것들은 모든 문학 예술의 무궁 무진한 유일한 원천인 것이다. 그것을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러한 원천이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원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이미 서적으로 출판된 문예 작품과 고대 및 외국의 문예 작품도 원천이 아닌가고 말한다. 실제 상 과거의 문예 작품은 원천인 것이 아니라 흐름이며 옛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그 때 그 지방에서 얻은 인민 생활 중의 문학 예술의 원료들에 근거하여 창조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우수한 문학 예술의 유산들을 계승하며 그 중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섭취하여 우리가 이 때 이 지방에서 얻은 인민 생활 중의 문학 예술의 원료로써 작품을 창작할 때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이 거울이 있기와 없기가 다르다. 즉 세련되고 못 된 차이, 섬세하고 못 한 차이, 높고 낮은 차이, 빠르고 더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의 것을 비록 그것이 봉건 계급과 부르주아지의 것이라 하더라도 계승하며 거울로 삼을 것을 거부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유산을 계승하고 거울로 삼는다고 하여 그것으로 자기의 창조를 대체하

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 문학 예술에서 옛사람들과 외국인들의 것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적수입하거나 모방하는 것은 가장 무망하고 가장 해독적인 문학 상의 교조주의이며 예술 상의 교조주의이다. 중국의 혁명적 문학과 예술가, 유망한 문학과 예술가들은 대중 속에 들어 가야 하며 장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일심 정력으로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 속에, 불꽃 튀는 투쟁 속에, 가장 광범하고 가장 풍부한 이 유일한 원천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 모든 계급, 모든 군중, 모든 생동하는 생활 형태와 투쟁 형태, 모든 문학 예술의 소재를 관찰, 체험, 연구, 분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후에야 창작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로동은 대상이 없는 것으로 될 것이며 로신이 그의 유언에서 자기의 아들에게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신신 당부한 그런 속이 텅 빈 문학가나 예술가가 되고 말 것이다[5].

인간의 사회적 생활이 문학 예술의 유일한 원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문학 예술로서는 비할 수 없는 생동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민들은 전자에 만족하지 않고 후자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이 량자가 다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 문예 작품에 반영된 생활이 일반 실제 생활에 비하여 더욱 고상하며 더욱 강렬하며 더욱 집중적이며 더욱 전형적이며 더욱 리상적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며 따라서 더욱 보편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문학 예술은 실제 생활에 근거



하여 각양 각색의 인물들을 창조함으로써 역사의 전진을 주동하는 대중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 편에서는 사람들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고 압박을 받고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무심히 보고 있다. 문학 예술이 이러한 일상적인 현상을 집중하고 그 내부의 모순과 투쟁을 전형화하여 문학 작품 또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면 인민 대중을 각성시키고 분발시키며 그들을 단결과 투쟁으로, 자기들의 환경에 대한 개조에로 추동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문학 예술이 없다면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없거나 힘 있게 신속히 완수할 수 없다.

문예 사업에 있어서의 보급과 제고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임무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보급을 위한 것은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지금의 광범한 인민 대중에게 신속히 접수될 수 있다. 고급적인 작품은 비교적 섬세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가 보다 힘들 뿐만 아니라 왕왕 지금의 광범한 인민 대중 속에서 신속히 전파되기도 보다 힘들다. 지금 로동자, 농민, 병사들 앞에 놓인 문제는 적과 가렬한 류혈적 투쟁을 하고 있는 그들이 봉건 계급과 부르주아지의 장기간의 통치로 하여 글을 모르고 문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편적인 계몽 운동이 즉 자기들의 투쟁 의욕과 승리의 신심을 높이며 자기들의 단결을 강화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적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급히 요구되고도 접수하기 쉬운 문화 지식과 문학 예술 작품이 절

박히 요구되고 있는 그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아직 《비단에 수를 놓는 것》이 아니라 《업동 설한에 솟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조건 하에서는 보급 사업의 임무가 더욱 절박한 것으로 나서고 있다. 보급 사업을 경시하며 홀시하는 태도는 그릇된 것이다.

그러나 보급 사업과 제고 사업을 판연히 갈라 놓을 수는 없다. 약간의 우수한 작품이 지금 보급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광범한 대중의 문화 수준도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만일 보급 사업이 언제나 동일한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일 년이고 이태이고 삼 년이고 그냥 그 모양 그 대로라면, 언제나 《어린 목동》〔6〕, 언제나 《사람 인, 손 수, 입 구, 칼 도, 소 우, 양 양》〔7〕이라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게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한 보급 사업이 무슨 의의가 있겠는가? 인민들은 보급을 요구하지만 뒤따라 제고도 요구하며 해마다 달마다 제고되기를 요구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급은 인민에 대한 보급이며 제고도 역시 인민에 대한 제고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고는 허풍에서 제고하거나 문을 닫아 걸고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급의 기초 우에서의 제고이다. 이러한 제고는 보급에 의하여 결정되며 동시에 또 보급을 지도한다. 중국의 범위에서 말한다면 혁명과 혁명적 문화의 발전은 균형적인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반화되어 가는 것이다. 한 지방에서는 보급되었고 또 그 보급의 기초 우에서 제고되고 있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아직 보급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지방에서 보급을 통하여 제고를 가져 온 좋은 경험을 다른 지방에 적용하면 그 지방의 보급 사업과 제고 사업을 지도하게 되어 허다한 우여 곡절의 길을 덜 걸을 수 있다. 국제적 범위에서 말한다면 외국의 좋은 경험, 특히 쓰련의 경험 역시 우리에게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고는 보급의 기초 위에서 제고이며 우리의 보급은 제고의 지도 하에서의 보급이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보급 사업은 제고를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범위가 국한된 제고 사업에 기초를 닦아 주게 되고 또한 앞으로의 범위가 훨씬 넓은 제고 사업에도 필요한 조건을 준비하여 주게 된다.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고 이외에 또 대중에게 간접적으로 필요한 제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간부들에게 필요한 제고이다. 간부는 대중 속의 선진 분자이며 일반적으로 대중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았으므로 그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문학 예술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 점을 홀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간부를 위하는 것은 또한 전'적으로 대중을 위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오직 간부를 통하여서만 대중을 교양하며 대중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목적에 배치된다면, 만일 우리가 간부들에게 주는 것이 대중을 교양하고 대중을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제고 사업은 목표 없이 활을 쓰는 것으로 되며 인민 대중을 위한다는 근본적 원칙을 리탈하는 것으로 된다.

요컨대 인민 생활 중에 있는 문학 예술의 원료가 혁명적

작가들의 창조적 노력에 의하여 인민 대중을 위한, 관념 형태로서의 문학 예술로 형성된다. 이 가운데는 초급적인 문학 예술의 기초 위에서 발전된, 수준이 높아진 대중들에게 필요하거나 또는 무엇보다 먼저 대중 속의 간부들에게 필요한 고급적인 문학 예술도 있거니와 또 그 반면에 이러한 고급적인 문학 예술에 의하여 지도되는, 흔히 오늘날의 가장 광범한 대중에게 우선 필요한 초급적인 문학 예술도 있다. 고급적인 것이나 초급적인 것이나를 막론하고 우리의 문학 예술은 모두가 인민 대중을,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위한 것이며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위하여 창작되고 노동자, 농민, 병사들에게 리용되는 것이다.

우리가 제고와 보급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전문가와 보급 사업에 종사하는 일'군들 간의 관계 문제도 따라서 해결된다. 우리의 전문가는 간부를 위한 뿐만 아니라 주로는 역시 대중을 위하여야 한다. 우리의 문학 전문가들은 대중의 벽보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군대와 농촌의 보고 문학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의 연구 전문가들은 군대와 농촌의 소극단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의 음악 전문가들은 대중의 노래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의 미술 전문가들은 대중의 미술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이 모든 동지들은 대중 속에서 문학 예술을 보급시키고 있는 동지들과 긴밀한 련계를 맺고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지도하는 한 편 또 그들에게서 배우며 그들을 통하여 대중 속에서 오는 영양분을 섭취하여 자기를 충실히 하며 풍부히 함으로써 자기의 전문이 대중을 리탈한,

실제를 떠난, 내용이 조금도 없는, 활기가 조금도 없는 공중 무각으로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문가를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우리 사업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혁명적 문학과, 예술가는 오직 대중과 련계를 맺고 대중을 표현하며 대중의 충실한 대변인으로 되여야만 자기의 사업이 의의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오직 대중을 대표하여야만 대중을 교양할 수 있고 대중의 학생이 되여야만 대중의 선생으로 될 수 있다. 만일 자기를 대중의 주인으로 간주하거나 《하등 인간》의 머리 위에 올라 앉은 귀족으로 간주한다면 그들에게 아무리 큰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대중은 그들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사업은 전도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태도는 공리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유물론자는 공리주의 일반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봉건 계급, 부르주아지, 소부르주아지의 공리주의는 반대하며 입으로는 공리주의를 반대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리기적인, 가장 근시안적인 공리주의를 품고 있는 그러한 위선자를 반대한다. 세상에는 초공리주의라는 것이 없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이 계급의 공리주의가 아니면 저 계급의 공리주의인 것이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공리주의자로서 전체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광범한 대중의 당면 리익과 장래 리익과의 통일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부나 눈앞만 보는 협소한 공리주의자가 아니라 가장 광범한, 가장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혁명적 공리

주의자이다. 책을 들면 어떤 작품이 소수 사람의 환영을 받을 뿐이고 다수 사람에게는 필요되지 않으며 지어는 다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어이 세상에 내어 놓고 대중에게 선진함으로써 개인 또는 힘애한 그루빠의 공리를 추구하면서 도리어 대중의 공리주의를 비난한다면 그것은 대중을 모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무도 어리석은 것이다. 어떠한 것이든지 인민 대중에게 진실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만 좋은 것이다. 가령 그것이 《양춘백설》이라고 하자. 그것이 당분간은 소수 사람에게만 환영을 받고 있고 대중은 여전히 《하리파인》<sup>[8]</sup>을 부르고 있을 때 그것을 제고시키지는 않고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비난하여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지금의 문제는 《양춘백설》과 《하리파인》을 통일하는 문제이며 제고와 보급을 통일하는 문제이다. 통일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전문가들의 가장 고급적인 예술이라 하여도 그것은 제일 힘애한 공리주의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것도 칭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말하는 칭고이고 대중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로동자, 농민, 병사를 위한다는 그리고 로동자, 농민, 병사를 어떻게 위할 것인가 하는 기본 방침 문제가 해결되면 기타의 문제들, 폐컨대 광명을 묘사할 것이냐 암흑을 묘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단결 문제 등도 따라서 해결된다. 여러분이 이 기본 방침에 찬동한다면 우리의 문학 예술 일'군들, 우리의 문학 예술 학교, 문학 예술 간행물, 문학 예술 단체 및 모든 문학 예술 활동은 이 방침에 준해야 할 것이다. 이

방침을 떠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방침에 다소라도 부합되지 않는 것은 적당한 수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3

우리의 문학 예술이 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당내의 관계 문제 즉 당의 문예 사업과 당의 전반 사업과의 관계 문제 및 당외의 관계 문제 즉 당의 문예 사업과 당 외부의 문예 사업과의 관계 문제——문예계의 통일 전선 문제를 토론해야 할 것이다.

먼저 첫째 문제를 말하여 보기로 하자. 현 세계에 있어서 일체 문화 또는 문학 예술은 일정한 계급에 종속되어 있으며 일정한 정치 로선에 종속되어 있다. 예술을 위한 예술, 초기 급적 예술, 정치와 병행하거나 정치로부터 유리된 예술은 실제 상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레타리아 문학 예술은 프로레타리아 혁명 사업 전체의 일부분이며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혁명이라는 한 큰 기계의 《치륜과 나사못》<sup>[9]</sup>이다. 그러므로 당의 혁명 사업 전체에 있어서의 당의 문예 사업의 위치는 이미 확정되어 있고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당이 일정한 혁명 시기에 규정한 혁명 임무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정에 반대한다면 필연코 이원론 또는 다원론에 빠지게 될 것이며 실질에 있어서 그것은 트로츠키가 주장한 것과 같이 《정치는 맑스주의적이고 예술은 부르조아적》인 것이다. 우리는 문학 예술의 중요성을 그릇된 정도에까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문학 예술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는다. 문학 예술은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 반전하여 정치에 거대한 영향을 준다. 혁명적 문학 예술은 혁명 사업 전체의 일부분이며 치류파 나사못이다. 더 중요한 다른 부분과 비교한다면 물론 경중과 완급과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기계 전체를 두고 말하면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치류파 나사못이며 혁명 사업 전체를 두고 말하면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일부분인 것이다. 만일 가장 광의적이며 가장 일반적인 문학 예술조차 없다면 혁명 운동은 진행될 수 없으며 승리할 수도 없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우리가 문학 예술이 정치에 복종한다고 말할 때 그 정치는 소위 소수의 정치가들의 정치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의 정치, 대중의 정치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정치라는 것은 그것이 혁명적이든 반혁명적이든 간에 소수 사람들의 개인 행동인 것이 아니라 계급 대 계급의 투쟁인 것이다. 혁명적 사상 투쟁과 예술 투쟁은 정치적 투쟁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정치를 통하여야만 계급과 대중의 요구가 집중적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정치가들, 혁명적 정치 과학 또는 혁명적 정치 예술을 알고 있는 정치 전문가들은 독선적이며 총명한 체 하며 유아독존적인 그러한 귀족적 소위 《정치가》인 것이 아니라 수천 수백만의 대중 정치가들의 지도자일 따름이며 그들의 임무는 대중 정치가들의 의견을 집중하여 제련한 후 다시 그것을 대중 속으로 보내어 대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접



수하고 실천하게 하는 데 있다——이것은 프로레타리아 정치가가 부패한 부르주아 정치가와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학 예술의 정치성과 진실성이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와 정치를 비속화하는 것은 잘못이다.

다음으로 문예계의 통일 전선 문제를 말하여 보기로 하자. 문학 예술은 정치에 복종하는 것이고 오늘날 중국 정치의 첫째로 가는 근본적 문제는 항일이므로 당의 문예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항일이라는 이 점에서 당외의 일체 문화가, 예술가들(당의 동정자, 소부르주아지의 문학 예술가로부터 항일을 찬성하는 일체의 부르주아지, 지주 계급의 문학 예술가에 이르기까지)과 단결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민주주의라는 이 점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는 일부의 항일 문학 예술가들이 찬성하지 않으므로 단결의 범위가 다소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 다음으로는 문예계의 특수 문제——예술 방법, 예술 작품이라는 이 점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주장하지만 또 일부의 사람들이 이 점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결의 범위는 더한층 좁아지게 된다. 어느 한 문제에 있어서는 단결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한 문제에 있어서는 투쟁과 비판이 있게 된다. 개개의 문제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련계되어 있으므로 단결을 가져 오게 된 문제, 예를 들면 항일이란 문제에서도 동시에 투쟁과 비판이 있게 된다. 한 통일 전선 내에 있어서 단결만 있고 투쟁이 없거나 투쟁만 있고 단결이

없다면 즉 과거에 일부 동지들이 실시한 것과 같은 그런 우경적인 투항주의, 추미주의 또는 《좌》경적인 배타주의, 종파주의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그릇된 정책이다. 정치 상에서 이러하며 예술 상에서도 역시 이러하다.

문예계의 통일 전선 내의 여러 력량들 중에서 소부르조아 문학 예술가들이 중국에서는 중요한 력량의 하나이다. 그들의 사상과 작품에는 많은 결함들이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 혁명에 쫓리고 있으며 비교적 근로 인민들에게 접근되고 있다. 그러므로 결함을 극복하도록 그들을 도와 주며 근로 인민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전선으로 그들을 쟁취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 4

문예계의 주요한 투쟁 방법의 하나는 문예 비평이다. 문예 비평은 발전시켜야 하는데 과거 이 면에서 사업이 매우 부족하였다. 동지들이 이 점을 지적한 것은 옳은 것이다. 문예 비평은 복잡한 문제로서 많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나는 여기서 비평의 기본적인 표준 문제에 대하여서만 치중하여 말하려 한다. 이 밖에 일부 동지들이 제기한 약간의 개별적 문제와 부정확한 견해들에 대하여서도 나의 의견을 대강 말하기로 한다.

문예 비평에는 정치적 표준과 예술적 표준의 두 가지 표준이 있다. 정치적 표준을 두고 말한다면 항일과 단결에 리

로우며 대중을 고무 격려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되게 하며 퇴보를 반대하고 진보를 촉진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좋은 것이고 항일과 단결에 불리하며 대중의 불화와 반목을 선동하며 진보를 반대하고 사람을 퇴보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나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좋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결국 동기(주관적 념원)를 두고 하는 말인가, 그렇지 않으면 결과(사회적 실천)를 두고 하는 말인가? 관념론자는 동기를 강조하고 결과를 부인하며 기계적 유물론자는 결과를 강조하고 동기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량자와 반대로 우리는 동기와 결과의 통일을 주장하는 변증법적 유물론자이다. 대중을 위하는 동기와 대중에게 환영을 받는 결과는 갈라 놓을 수 없으며 량자를 동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 및 협소한 집단을 위하는 동기도 나쁘지만 대중을 위하는 동기라 하더라도 대중에게 환영을 받는, 대중에게 리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가 없다면 역시 나쁜 것이다. 한 작가의 주관적 념원 즉 그 동기의 정확 여부, 선량 여부는 그 작가의 말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사회 대중들 속에서 일으킨 그 행동(주로 작품)의 결과에 의하여 검증되는 것이다. 사회적 실천과 그 결과는 주관적 념원 또는 동기를 검증하는 기준이다. 우리의 문예 비평에 종파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단결하여 항일하는 큰 원칙 하에서 우리는 각양 각색의 정치적 태도를 가진 문예 작품의 존재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비평은 또 원칙, 입장을 전지하는 것으로서 반민족적, 반과학적, 반대중적, 반공산당적 관점을 포함한 모든 문예 작품에 대하여서는

엄격한 비판과 논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소위 이러한 문학 예술은 그 동기와 결과가 다 단결과 함일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술적 표준을 두고 말한다면 예술성이 비교적 높은 작품은 좋거나 비교적 좋은 것이며 예술성이 비교적 낮은 작품은 나쁘거나 비교적 나쁜 것이다. 이러한 구별도 물론 사회적 결과물 보아야 한다. 문예가치고 자기의 작품이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비평도 각양 각색의 예술품들의 자유 경쟁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술 과학의 표준에 비추어 올바른 비판을 가함으로써 보다 저급적인 예술을 점차 보다 고급적인 예술로 제고되게 하며 광범한 대중의 투쟁 요구에 적응되지 않는 예술을 광범한 대중의 투쟁 요구에 적응되는 예술로 개편되게 하는 것도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정치적 표준도 있고 예술적 표준도 있는데 이 양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정치가 결코 예술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 세계관이 예술 창작이나 예술 비평의 방법인 것도 아니다. 우리는 추상적인 절대 불변의 정치적 표준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절대 불변의 예술적 표준도 부인한다. 모든 계급 사회 내의 각 계급에게는 다 각이한 정치적 표준과 각이한 예술적 표준이 있다. 그러나 어떠한 계급 사회의 어떠한 계급이든지 다 정치적 표준을 제 1 위에 놓고 예술적 표준을 제 2 위에 놓는다. 부르주아지는 프로레타리아트의 문학 예술 작품에 대하여 그 예술적 성과가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배척한다. 프로레타리아트도 과거 시대의

문학 예술 작품들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그 작품들이 인민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는가, 력사 상에서 진보적 의의가 있었는가를 검토하여 본 다음에 각이한 태도로 대하여야 한다. 정치 상 근본적으로 반동적인 작품들도 어느 정도의 예술성이 있을 수 있다. 내용이 반동적인 작품일수록, 그것에 예술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민에 대한 해독도 더욱 크므로 더욱더 배격하여야 한다. 몰락기에 처한 일체 착취 계급의 문학 예술의 공통한 특성은 그 반동적인 정치적 내용과 그 예술적 형식 간에 존재하는 모순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와 예술의 통일, 내용과 형식의 통일, 혁명적인 정치적 내용과 가능한 한도로 완미한 예술적 형식과의 통일이다. 예술성이 결여한 예술품은 정치적으로 아무리 진보적인 것이라 하여도 무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치적 견해가 그릇된 예술품도 반대하거니와 정확한 정치적 견해만 있고 예술적 힘이 없는 소위 <표어나 구호식>의 경향도 반대한다. 우리는 문학 예술 문제에서 두 전선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경향은 우리의 많은 동지들의 사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많은 동지들에게는 예술적 면을 홀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술적 면의 제고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 더욱 문제로 되는 것은 그래도 정치적인 면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일부 동지들에게는 기본적인 정치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호한 관념들이 나오고 있다. 나는 연안의 몇 개 실례를 들어 보려 한다.

《인간성론.》 인간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러

나 구체적인 인간성이 있을 뿐이고 추상적인 인간성은 없다.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계급성을 띤 인간성이 있을 뿐이고 초계급적인 인간성은 없다. 우리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인간성, 인민 대중의 인간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지주 계급과 부르주아지는 지주 계급과 부르주아지의 인간성을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리어 유일한 인간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일부의 소부르주아 지식인들이 고취하고 있는 인간성도 역시 인민 대중과 리탈된 것이거나 인민 대중을 반대하는 것으로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인간성이란 본질적으로는 부르주아 개인주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인간성은 인간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연안의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문예 리론의 기초로서의 《인간성론》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서 그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문학 예술의 기본 출발점은 사랑이며 인류의 사랑이다.》 사랑이 출발점으로 될 수는 있지만 기본 출발점은 따로 있다. 사랑이란 관념적인 것으로서 객관적 실체의 산물이다. 우리는 절대로 관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실체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지식인 출신의 문예 일'군들이 프로레타리아트를 사랑하는 것은 사회가 그들로 하여금 프로레타리아트와 공통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한 결과이다.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를 미워 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를 압박한 결과이다. 세상에는 결코 까닭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또 까닭 없는 미움도 있을 수 없다. 소위

《인류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면 인류가 계급으로 분화된 이후부터는 이러한 통일적인 사랑이 있어 본 적이 없다. 과거의 모든 지배 계급은 이런 것을 부르짖기 좋아 하였고 또 많은 소위 성현들도 이런 것을 부르짖기 좋아 하였으나 그것을 진정으로 실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왜냐 하면 계급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실행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인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전 세계에서 계급이 소멸된 후의 일이다. 계급이 사회를 많은 대립물로 분화시켰으므로 계급이 소멸된 그 때에 가서는 전 인류의 사랑이 있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러한 것이 없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며 사회의 추악한 현상들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의 목적은 그러한 것들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상식인데 우리의 문예 일'군 가운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종래의 문예 작품은 모두가 광명과 암흑을 병중하여 절반 절반씩 묘사하였다.》 이 말에는 많은 모호한 관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문예 작품이 종래로 모두 이러하였던 것은 아니다. 많은 소부르조아 작가들은 광명을 찾아 낸 적이 없으며 그들의 작품은 암흑면을 폭로하였을 따름이므로 《폭로 문학》이라고 불리어 왔으며 또 그야 말로 전문적으로 비판과 엄세 사상만을 선전한 것도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있어서의 소련의 문학은 주로 광명을 묘사하고 있다. 그들도 사업 중의 결함을 묘사하고 부정적 인물을 묘사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묘사는 전반적 광명의 안받침으로

될 뿐이며 소위 《절반 절반색》인 것은 결코 아니다. 반동 시기의 부르주아 문예가들은 혁명 대중을 폭도로 묘사하고 그들 자신을 신성한 것으로 묘사하였다. 소위 광명과 암흑이 전도되어 있다. 오직 진정한 혁명적 문예가들만이 구가와 폭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있다. 인민 대중에게 해독을 끼치는 일체 암흑한 세력은 폭로하여야 하고 인민 대중의 일체 혁명 투쟁은 구가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 문예가들의 기본적 과업이다.

《종래로 문학 예술의 임무는 폭로에 있었다.》 이러한 문법은 위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 과학 지식이 결핍한 견해이다. 종래의 문학 예술이 결코 폭로에만 그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혁명적 문예가에게 있어서 폭로의 대상은 칙략자, 착취자, 압박자 및 인민 속에 끼친 그들의 나쁜 영향 뿐이고 인민 대중일 수는 없다. 인민 대중에게도 결합이 있지만 이러한 결합은 인민 내부의 비판과 자기 비판으로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판과 자기 비판을 진행하는 것도 문학 예술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인민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하여서는 안 된다. 인민들에 대하여서는 기본 상 교양하고 제고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반혁명적 문예가들만이 인민을 소위 《타고난 멍청이》로, 혁명 대중을 소위 《전제적 폭도》로 묘사한다.

《아직도 만필 시대이며 로신의 수법이 의연히 필요하다.》 로신은 암흑한 세력의 통치 하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랭소하고 풍자하는 만필의 형식으로써 싸웠던 것



이다. 로신은 전'적으로 옳았다. 우리도 파쇼주의나 중국의 반동파 그리고 인민에게 해독을 끼치는 일체 사물들을 날카롭게 조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혁명적 문예가들에게 충분한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반혁명 분자들에게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지 않는 섬감녕 변구와 적후의 각 항일 근거지에 있어서는 만필의 형식이 단순히 로신의 것과 같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민 대중이 알기 힘들게 이리저리 돌려서 말할 것 없이 큰소리로 부르짖을 수 있다. 인민의 원수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인민 자신에 대한 경우라면 《만필 시대》의 로신이라 하여도 혁명적 인민과 혁명적 정당을 조소하거나 공격한 적은 없었으며 만필을 쓰는 방법도 원수들에 대한 그것과는 전연 달랐다. 인민의 결함에 대하여 비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다. 그러나 이 비판은 진정 인민의 입장에 서서 인민을 보호하며 인민을 교양하는 만강의 열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동지를 원수로 대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원수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풍자를 폐지하는가? 그렇지 않다. 풍자는 영원히 필요하다. 그러나 풍자에는 적에 대한 풍자, 동맹자에 대한 풍자, 자기 대렬에 대한 풍자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태도도 각각 다르다. 우리는 풍자 일반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풍자의 람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나는 풍덕을 구가하지 않는다. 광명을 구가한 작품이라고 하여 그 작품이 반드시 위대한 것은 아니며 암흑을 묘사한 작품이라 하여 그 작품이 반드시 보잘 것 없는 것도 아니

다.》 만일 당신이 부르쵸아 문예가라면 프로레타리아트를 구가하지 않고 부르쵸아지를 구가할 것이며 만일 당신이 프로레타리아 문예가라면 부르쵸아지를 구가하지 않고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인민을 구가할 것이다. 이 둘 중에서 반드시 어느 하나에 속할 것이다. 부르쵸아지의 광명을 구가한 작품이라 하여 그 작품이 반드시 위대한 것은 아니고 부르쵸아지의 암흑면을 폭로한 작품이라 하여 그 작품이 반드시 보잘 것 없는 것도 아니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광명을 구가한 작품이라 하여 그 작품이 반드시 위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프로레타리아트의 소위 《암흑》을 묘사한 작품은 반드시 보잘 것 없는 것이다. 그래 이것이 문학 예술사 상의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인민에 대하여 즉 인류 세계 역사의 창조자에 대하여 어째서 구가하여서는 안 된단 말인가? 프로레타리아트, 공산당, 신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어째서 구가하여서는 안 된단 말인가? 또 다음과 같은 사람들도 있다. 즉 인민의 사업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정열도 없고 프로레타리아트 및 그 선봉대의 투쟁과 승리에 대하여서는 랭담한 방관적 태도를 취하지만 오직 그 자신이거나 나아가서는 그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그루빠 내의 몇몇 인간에 대하여서는 흥미 진진하여 쉴 새 없이 구가한다. 물론 이러한 소부르쵸아 개인주의자들은 혁명적 인민의 공덕을 구가하기 싫어 하며 혁명적 인민의 투지와 승리의 신심을 고무하기 싫어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혁명 대렬 내의 좀벌레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적 인민은 실상 이런 《가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립장 문제가 아니다. 립장은 옳고 의도도 좋고 의미도 알 만 하지만 단지 표현이 잘 되지 못한 결과 도리어 나쁜 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다.》 동기와 결과에 관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견해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면 결과 문제는 립장 문제가 아닌가? 어느 사람이 일을 할 때 동기만 고려하고 그 결과를 불문한다면 그것은 마치 의사가 처방을 낼 뿐이고 병자들이 그 약을 먹고 얼마나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또 그것은 어느 정당이 선언만 발표할 뿐이고 그 실행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 이러한 립장도 옳은 것이겠는가? 이러한 의도도 좋은 것이겠는가? 사전에 사후의 결과를 예견하는 데는 물론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나타난 사실들에 의하여 결과가 나쁘다는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그 대로 한다면 이러한 의도를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당이나 어느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의 실천을 보아야 하며 그의 결과를 보아야 한다. 어느 작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같이 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좋은 의도라면 결과를 고려하고 경험을 총화하며 방법(창작 상에서는 표현 수법이라 한다)을 연구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좋은 의도라면 자기 사업의 결함과 오류에 대하여 전'적으로 성의 있는 자기 비판이 있어야 하며 그 결함과 오류를 시정할 결심이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자의 자기 비판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취하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립장만이 옳은 립장이다. 동시에 또 이러한 엄숙하고도 책임 지는 실천 과정에

서만 옳은 입장이란 어떠한 것인가를 점차 알게 되며 옳은 입장을 점차 장악하게 된다. 만일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 단에는 옳다고만 생각한다면 《알았다》고 하여도 기실은 알지 못한 것이다.

《맑스주의에 대한 학습을 창도하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적 창작 방법의 오류를 반복하는 것으로서 창작 의욕에 해를 주는 것이다.》 맑스주의를 학습하라는 것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의 견해로 세계를 관찰하고 사회를 관찰하고 문학 예술을 관찰하라는 것이지 결코 문학 예술 작품에서 철학 강의를 쓰라는 것은 아니다. 맑스주의는 문예 창작에 있어서의 사실주의를 포괄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마치 맑스주의가 물리 과학에 있어서의 원자론, 전자론을 포괄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내용이 텅 비고 건조 무미한 교조적 공식은 창작 의욕을 파괴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창작 의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맑스주의를 파괴하게 된다. 교조주의적인 《맑스주의》는 결코 맑스주의가 아니라 반맑스주의인 것이다. 그렇다면 맑스주의는 창작 의욕을 파괴하지 않는가? 파괴한다. 맑스주의는 봉건적, 부르주아적, 소부르주아적,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허무주의적, 예술을 위한 예술적, 귀족적, 퇴폐적, 비관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의 비인민 대중적이고 비프로레타리아적인 창작 의욕을 결정적으로 파괴한다. 프로레타리아 문예가로서 이러한 의욕을 파괴하지 말아야 하겠는가? 나는 파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파괴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것들을 파괴하는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5

우리 연안의 문예계에 상술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것은 어떠한 사실을 설명하여 주는 것인가? 이것은 문예계에 작품 상 옳지 못한 것이 아직 엄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동지들 가운데 아직도 많은 관념론, 교조주의, 공상, 공담, 실천에 대한 경시, 대중과의 리탈 등등의 결합들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절실하고 엄숙한 정풍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프로레타리아트와 소부르쵸아지간의 구별을 아직 똑똑히 알지 못하고 있다. 많은 당원들은 조직적으로는 입당하였으나 사상적으로는 아직 완전하게 입당하지 않았거나 지어는 전연 입당하지 않고 있다. 사상적으로 입당하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의 머리 속에는 아직 착취계급의 더러운 것들이 잔뜩 들어 있고 무엇이 프로레타리아사상이고 무엇이 공산주의이며 무엇이 당인가를 근본적으로 모르고 있다. 그들은 프로레타리아 사상이라는 것도 그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지어 그들 중의 일부 사람들은 한평생 가도 공산당원의 기미를 가져 보지 못하고 결국 당에서 떠나가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 당,

우리 대렬은 그 대부분의 성원이 순결하지만 혁명 운동을 더욱 잘 발전하고 더욱 빨리 완성되도록 령도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면에서와 조직 면에서 한 번 철저히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직 면에서 정돈하려면 우선 사상 면에서 정돈하여야 하며 비프로레타리아 사상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사상의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연안의 문예계에서는 이미 사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소부르조아 출신의 사람들은 언제나 문학 예술의 방법까지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완강하게 그들 자신을 표현하고 그들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면서 소부르조아 지식인의 면모대로 당을 개조하고 세계를 개조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한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그들에게 큰소리로 《동지》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당신들에게 양보할 수 없다, 만일 당신들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그것은 실제 상 대지주, 대부르조아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당과 국가가 멸망 당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여 주는 것이다. 누구를 따라야만 되는가? 오직 프로레타리아 선봉대의 면모에 따라 당을 개조하고 세계를 개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문예계의 동지들이 이 대론전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배개 동지들을 진전해지게 하며 우리의 전체 대렬을 사상 면에서와 조직 면에서 진정으로 통일되게 하며 공고화되게 할 것을 희망한다.

사상 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혁명 근거지와 국민당 통치구를 잘 구별하

지 못 하며 따라서 허다한 오유들을 빚어 내고 있다. 동지들 중 많은 사람들은 상해의 골방<sup>[10]</sup>에서 왔는데 골방에서 혁명 근거지에 왔다는 것은 상이한 두 지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또 두 개의 역사적 시대를 거친 것이다. 하나는 대지주, 대부르쵸아지가 통치하는 반봉건, 반식민지적 사회이며 다른 하나는 프로레타리아트가 명도하는 혁명적 신민주주의적 사회이다. 혁명 근거지에 왔다는 것은 수천 년 래의 중국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인민 대중이 정권을 장악한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주위에 있는 인물, 우리의 선전 대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시대는 다시 돌아 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새로운 대중과 결합되어야 한다. 동지들이 새로운 대중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전번에 말한 바와 같이 《잘 알지 못 하며 모르며 그래서 영웅이 재능을 발휘할 곳이 없다》고 한다면 농촌에 가도 곤란할 것이고 농촌에 가지 않고 연안에 있어도 곤란할 것이다. 어떤 동지들은 《대후방》<sup>[11]</sup>에 대하여서는 잘 알기도 하려니와 또 대후방은 《전국적 의의》가 있으니까 《대후방》의 독자들을 위하여 글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전언 옳지 못한 것이다. 《대후방》도 변하는 것이다. 《대후방》의 독자들은 싫증이 나도록 듣던 그런 묵은 이야기를 혁명 근거지의 작가들에게서 들을 필요가 없으며 그들은 혁명 근거지의 작가들이 자기들에게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계를 알려 줄 것을 희망한다. 그러므로 혁명 근거지의 대중을 위하여 쓴 작품일수록 더욱 전국적 의의가 있게 된

다. 파제예브의 《괴멸》<sup>[12]</sup>은 작은 유격대를 묘사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낡은 세계의 독자들의 구미에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일으켰으며 적어도 중국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다. 중국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진을 병도하고 있는 것은 뒤'걸음질 치고 있는 그 어떤 탁후한 지방이 아니라 혁명 근거지이다. 동지들은 정풍 과정에서 우선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대중의 시대와 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상 개인과 대중과의 관계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맹혹한 태도로 천부의 손'가락질에 대하고 머리를 수그려 유자의 소가 되기를 즐긴다.》<sup>[13]</sup>고 한 로신의 이 두 구절의 시는 우리의 좌우명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천부》란 여기서는 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무리 흉악한 적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자》란 여기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 대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모든 공산당원, 모든 혁명가, 모든 혁명적 문예 일'군들은 다 로신의 본을 받아 프로레타리아트와 인민 대중의 《소》가 되어 죽을 때까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바쳐야 한다. 지식인이 대중과 결합하며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려면 호상 료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는 허다한 고통, 허다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또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심만 있다면 이러한 요구는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말한 것은 단지 우리 문예 운동에 있어서의



약간의 근본적 방향 문제에 불과하다. 이 외에 허다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금후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동지들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결심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나는 동지들이 정풍 과정에서, 금후의 장기적인 학습과 사업 과정에서 반드시 자기와 자기 작품의 모습을 개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인민 대중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는 우수한 작품을 많이 창작할 수 있으며 혁명 근거지의 문예 운동과 전 중국의 문예 운동을 반드시 빛나는 새 단계로 추진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 주 해

[1] 베닌의 《당 단체와 당'적 문학》에 있다. 베닌은 이 논문에서 프로베타리아 문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그것은 자유로운 문학일 것이다. 왜냐 하면 탐욕이나 출세가 아니라 사회주의 사상과 근로자들에 대한 동정이 그 대면에 더욱 새로운 령향을 뿜아 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문학일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배 부른 너주인공이나 생활에 권태를 느끼며 비탄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수만 명의 상층 계급>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꽃이며 그 힘이며 그 미래인 수천만 수천만 근로자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류의 혁명적 사상의 최선의 성과물 사회주의적 프로베타리아트의 경험과 산 활동으로써 풍부케 하며, 과거의 경험(그 현실적, 공상적 제 형태로부더의 사회주의의 발견을 완성한 과학적 사회주의)과 현재의 경험(로동자 동무들의 현재의 투쟁) 간의 부단한 호상 작용을 조성하는 자유로운 문학일 것이다》.

[2] 랑 실추는 반혁명적인 국가 사회당의 당원이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미국의 반동적 부르주아 문예 사상을 선전하면서 반혁명을 건지하였으며 혁명적 문학 예술을 저주하였다.

[3] 주 작인과 장 자평은 1937년에 일본이 북평과 상해를 점령한 후 선후로 일본 침략자에게 투항하였다.

[4] 《로신 전집》 제 4 권의 《이십집》에 수록된 《좌익 작가 면명에 대한 의견》에 있다.

[5] 《로신 전집》 제 6 권에 수록된 《차개정 만필 말편》 《부집》의 《죽음》에 있다.

[6] 《어린 목동》이란 널리 유행된 중국 소형 가무극이며 극 전반을 통하여 배우 두 사람이 등장한다. 남배우가 목동 역을 하고 녀배우가 농촌의 소녀 역을 하며 대창 형식으로 극의 내용을 표현한다. 항일 전쟁 초기에 일부 사람들은 이 가무극의 형식을 리용하여 그 본래의 대사들 고쳐 항일을 선전하였는데 한동안 매우 유행되었다.

[7] 《사람 인, 손 수, 입 구, 칼 도, 소 우, 양 양(人, 手, 口, 刀, 牛, 羊)》 등 글 '자'는 획수가 비교적 간단한 한 '자'이다. 과거 소학교 국어 독본에 시는 이 글 '자들을 제 1 권의 처음 몇 과목에 넣었다.

[8] 《양춘백설》과 《하리파인》은 기원 전 3 세기의 초나라 때의 가목이다. 《양춘백설》은 비교적 고급적인 음악에 속하고 《하리파인》은 비교적 저급적인 음악에 속하였다. 《문선》에 《송옥이 초 나라 왕의 물음에 대답하다》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사람이 초 나라 서울에서 노매를 부르는데 《양춘백설》을 부른즉 《따라 부르는 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하리파인》을 부른즉 《따라 부르는 자가 수천 명이었다》.

[9] 베닌의 《당 단체와 당 '적 문학》에 있다. 베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학 사업은 일반 프로테타리아 사업의 일부분으로 되어야 하며 전체 노동 계급의 전체 자각적인 권위대에 의하여 추진되는 한 개의 유일하고 거대한 사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계의 <치물과 나사못>으로 되어야 한다》.

[10] 끝방이란 상해의 중 '집들에 있는 작은 방이다. 이런 방은 집 안쪽 층층대 옆에 있으며 좁고 어둡기 때문에 집세가 비교적 헐하다. 가난한 문예 작가, 지식인, 기관의 하급 직원들은 태반이 이런 방을 세 내어 살았다.

[11] 항일 전쟁 시기에 항일 전선은 화북, 화동, 화중, 화남에 있었다. 사람들은 국민당이 동치하고 있는, 일본 침략군에게 점령되지 않은 중국의 서남, 서북부를 보통 《대후방》이라고 불렀다.

[12] 파체예브는 쓰련의 유명한 작가이다. 그가 창작한 소설 《피멸》은 1927년에 출판되었다. 그 내용은 쓰련 국내 전쟁 시기에 썬비리의 로동자, 농민 및 혁명적 지식인들로 조직된 한 유격대가 반혁명 비적들과 투쟁한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 로신이 그것을 한문으로 번역하였다.

[13] 《로신 전집》 제 7 권 《결의집》의 《자조》에 있다.

## 극히 중요한 정책\*

(1942년 9월 7일)

당 중앙에서 정병 간정이라는 정책을 제기한 이래 많은 항일 근거지의 당 조직들에서는 중앙의 지시 대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진기로예 변구의 지도 일'군들은 이 사업을 단단히 틀어 쥐으로써 정병 간정의 모범적 실행을 창조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근거지의 동지들은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지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 동지들은 아직 정병 간정과 현 정세 및 당의 제반 정책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 정병 간정을 극히 중요한 정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방 일보》는 수차 론평하였으나 이제 더 설명을 가하려 한다.

당의 모든 정책은 일본 침략자를 타승하기 위한 것이다. 항전의 다섯 번째 해 이후의 정세는 실로 승리를 쟁취하는 최후 단계에 처하여 있다. 이 단계는 항일의 첫해, 두 번째 해와 다를 뿐 아니라 항일의 세 번째 해와 네 번째 해와도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 《해방 일보》를 위하여 쓴 사실이다.

다르다. 항일의 다섯 번째 해와 여섯 번째 해는 다음과 같은 정형, 즉 승리에 접근하고 있으나 곤난이 극심한, 다시 말하면 이른바 《동 트기 전의 암흑》이라는 정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은 현 단계에 있어서 파쇼를 반대하는 모든 국가에 다 존재하며 전 중국에도 존재하는 것으로서 팔로군과 신사군의 각 근거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아군의 각 근거지에서 그것이 특히 첨예하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는 이 2년 동안에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2년 동안은 극히 곤난한 시기로서 항일의 첫 두 해나 중간의 두 해와는 현저히 다를 것이다. 혁명 정당과 혁명 군대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사전에 예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특성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 한다면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 가게 될 뿐으로서 비록 사업에 노력한다 하여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혁명 사업에 손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 적후에 있는 각 항일 근거지의 정세는 지금 과거보다 곤난이 몇 배 더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극도로 곤난한 것은 아니다. 만약 지금 정확한 정책이 없다면 앞으로 극도의 곤난이 닥쳐 올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과거와 당면의 정형에 미혹되어 앞으로 그저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들은 배가 항행 중에서 부닥치게 될 압초를 미리 알아 낼 능력이 없어 명석한 머리로써 배의 키를 잡고 압초를 에돌아 가지 못 한다. 항일이라는 배가 금후에 부닥치게 될 압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항전의 최후 단계에 있어서의 물질적 면의 극히 엄중한

곤난이다. 당 중앙은 이 곤난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이 압초를 에둘러 가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나 아직 일부 동지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제거하여야 할 장애물이다. 항전을 하자면 단결이 있어야 하고 단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곤난이 있다. 이 곤난은 정치적 면의 곤난으로서 과거에도 있었고 금후에도 있을 수 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 당은 최대의 힘을 기울여 이 곤난을 점차 극복하여 왔으며 단결을 강화하자는 것을 우리의 구호로 삼아 왔다. 금후에도 그것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또 하나의 곤난이 있다. 그것은 물질적 면의 곤난이다. 이 곤난은 금후 필연적으로 더욱더 심하여질 것이다. 지금 일부 동지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듯이 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동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각 항일 근거지의 전체 동지들은 금후의 물질적 곤난이 필연코 지금보다 더욱 심하리라는 것, 우리는 이 곤난을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 이것을 위한 우리의 중요한 대책의 하나는 바로 정병 간정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병 간정이 어째서 물질적 곤난을 극복하는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되는가? 지금의, 특히는 앞으로의 근거지의 전쟁 정형이 우리가 과거의 견해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허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우리의 방대한 전쟁 기구는 과거의 정형에는 적응되었었다. 당시의 정형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용허하였으며 또 그러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오늘

의 정형은 이와 다르다. 근거지가 이미 축소되었고 금후의 한 시기에 있어서 더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결코 과거와 같은 그러한 방대한 기구를 그냥 유지할 수 없다. 목하 전쟁 기구와 전쟁 정형 사이에는 이미 모순이 발생되었다. 우리는 이 모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의 방침은 우리의 이 모순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삼광》 정책(1)이다. 가령 우리가 방대한 기구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적의 간계에 빠지게 된다. 가령 우리가 자체의 기구를 축소시켜 군대를 정예화하고 행정을 간소화한다면 우리의 전쟁 기구는 그것이 작아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강유력한 것이다. 그리고 고기는 크고 물이 작은 모순을 극복하고 우리의 전쟁 기구를 전쟁 정황에 적응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강유력하여질 것이며 우리는 적에게 소멸되지 않고 종국적으로 적을 타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 중앙에서 제기한 정병 간정의 정책을 극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상태와 습관은 흔히 사람들의 머리를 단단히 축박하여 놓기 쉬운바 혁명자라 하여도 때로는 그것을 면하지 못한다. 방대한 기구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인데 그것을 또 자신의 손으로 축소하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였기 때문에 축소할 때에는 많은 무리와 곤란을 느끼게 된다. 적들은 방대한 기구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축소하여야 한단 말인가? 축소하게 되면 적을 대항하는데 있어서의 병력 부족을 느끼게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이 바로 현 상태와 습관에 속박 당한다는 것이다. 철이 바뀌어지면 옷도 따라서 갈아 입어야 하는 법이다. 매년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그리고 겨울과 봄의 환절기에는 한 차례씩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환절기》에 옷을 갈아 입을 줄 모르는 까닭에 탈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관습의 힘에서 온 것이다. 지금 근거지의 정형은 우리에게 겨울옷을 벗어 버리고 여름옷을 갈아 입고 경쾌한 몸으로 적과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뚱뚱하게 껴 입고 있으며 머리는 크고 다리가 약하여 전투하기에 매우 불편하다. 만약 어떻게 하면 적의 방대한 기구에 대항할 수 있는가고 묻는다면 거기에는 손 오공이 철선 공주에 대항한 실례가 있다. 철선 공주는 무서운 요마였으나 손 오공은 작은 벌레로 변하여 철선 공주의 심장에 뚫고 들어 가서 그를 이겼던 것이다(2). 류 종원이 묘사한 《귀주 당나귀의 재주》(3)라는 것도 훌륭한 교훈으로 된다. 허위대가 아주 큰 당나귀 한 마리가 귀주로 들어가자 귀주의 조그마한 범은 그 당나귀를 보고 펍 겁을 내었다. 그러나 후에 큰 당나귀는 조그마한 범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 우리 팔로군과 신사군은 손 오공과 조그마한 범으로서 일본 요마와 일본 당나귀에 대항할 대책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 목하 우리는 조화를 부려 우리의 몸을 보다 조그맣게 만들되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불패의 역량으로 될 것이다.

## 주 해

[1] 《삼황 정책》이란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해방구에 대하여 실시한, 모조리 불 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약탈하는 세 가지 정책을 가리킨다.

[2] 칠선 공주의 이름은 라찰이라고도 한다. 손 오공이 작은 벌레로 변하여 칠선 공주를 이겼다는 이야기는 중국의 신화 소설 《서유기》 제 59 회에 있다.

[3] 류 종원(기원 773~819년)은 중국 당조 때의 대작가의 한 사람이다. 그는 세 개의 우화가 들어 있는 《삼계》라는 글을 썼다. 그 중 《귀주의 당나귀》라는 제목의 우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귀주에는 당나귀가 없었다. 어느 호사가 당나귀를 배에다 싣고 귀주로 갔다. 그러나 거기서는 그것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산 밑에 풀이 놓았다. 범이 당나귀를 본즉 상당한 거품인지라 신인 줄로만 알고 숲 속에 숨어서 가만히 엿보고 있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 가 보았으나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당나귀가 우는 소리들 듣고 범은 깜짝 놀라 멀리 도망쳐 버렸다. 그리고 또 자기를 잡아 먹지나 않을까 하여 매우 겁을 내었다. 그러나 오가며 보아도 별다른 재주가 없는 것 같고 또 그 울음 소리도 차차 귀에 익게 되어 그 앞뒤로 더 접근하여 보게 되었다. 그러나 감히 달려 들지는 못 하였다. 좀더 가까이 가서 치근치근하게 건드려도 보고 질적거리기도 하였다. 그랬더니 당나귀는 생을 내며 범을 건어 왔다. 범은 기뻐 하며 <네 재주는 그것 뿐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리 하여 범은 당나귀에게 달려 들어 숨통을 물어 떼고 고기를 다 먹은 다음 가 버렸다》.



## 제 2 차 세계 대전의 전환점\*

(1942년 10월 12일)

영, 미의 신문들은 스탈린그라드 격전을 베르단의 전역에 비유하고 있으며 《붉은 베르단》이란 이름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고 있다. 이 비유는 적절하지 못하다. 오늘의 스탈린그라드 격전은 제 1 차 세계 대전 당시의 베르단의 전역과 비하면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 점만은 동일하다. 즉 허다한 사람들은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도 아직 독일의 공세에 미혹되어 독일이 그래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다. 제 1 차 세계 대전은 1918년 겨울에 종결되었는데 1916년에 독일 군대는 프랑스의 요새지인 베르단을 수차 공격하였다. 당시 이 전역에 있어서 독일군의 최고 지휘관은 독일의 황태자였으며 이 전투에 투입된 령량은 독일군의 최정에 부대였다. 당시의 전투는 결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독일군은 맹공격을 하였으나 그것을 함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반 독일-오지라-토이기-벨가리아 전역이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그 후부터는 곤란이 나날이 더 심하여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 《해방일보》를 위하여 쓴 사실이다.

지고 내부가 지리멸렬되고 철저히 와해되어 최후의 붕괴에 이르고 말았다. 그러나 당시 영국-미국-프랑스 진영 측은 이러한 정황을 간파하지 못 하고 독일군이 여전히 극히 강대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자기들의 승리가 이미 눈앞에 닥쳐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멸망하여 가는 반동 세력은 언제나 혁명 세력에 대하여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혁명자들도 흔히 걸은 강하여 보이거나 속이 텅 비어 있는 이러한 현상들에 일시적으로 미혹되어 적이 멀지 않아 소멸되고 자기가 멀지 않아 승리하게 될 그 실질을 간파하지 못 한다. 전체 파쇼 세력의 발흥 및 그들이 수년 동안 감행하여 온 침략 전쟁은 바로 이러한 최후 발악의 표현이다. 그리고 전쟁 행정에서는 그들 자신의 최후 발악이 쓰말린그라드에 대한 공격으로 표현되었다. 이 역사적 전환점을 눈앞에 두고도 전 세계 반파쇼 진영 내부의 많은 사람들은 파쇼의 흉악한 면모에 미혹 당하여 그 실질을 간파하지 못 하고 있다. 8월 23일 독일군의 전부가 돈강의 강'굽이를 건너서 쓰말린그라드에 대한 공격을 전면적으로 개시한 후부터 9월 15일에 독일군의 일부가 이 도시의 서북부에 있는 공업 지구에 쳐 들어 가고 10월 9일 쏘련 정보국에서 붉은 군대가 이 지구의 독일군의 포위선을 돌파하였다는 것을 선포한 때까지 도합 48 일 간에 걸쳐 인류 역사에서 그 류례를 볼 수 없는 미증유의 악전 고투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 전투는 마침내 승리로 끝 났다. 이 48 일 동안에 이 도시에서의 매일 매일의 승부를 알리는 소식은 수천 수억만

인민들의 호응과 밀접히 연결되어 그들을 근심도 시켰고 기쁘게도 하였다. 이 싸움은 쏘독 전쟁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번 세계 반파쇼 전쟁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의 전환점인 것이다. 이 48 일 동안 쓰딸린 그라드에 대한 세계 인민들의 주시는 작년 10월에 세계 인민들이 모스크바를 주시하던 것에 비하여 그 관심의 정도가 더하면 더하였지 못 하지는 않았다.

히틀러는 서부 전선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신중을 기하는 듯 하였다. 폴스까를 공격하고 노르웨이를 공격하고 화란, 벨지끄, 프랑스를 공격하고 발칸을 공격함에 있어서 그는 전력을 한 곳에다 집중하고 감히 다른 데다 손을 내지 못 하였다. 서부 전선에서 승리한 후 그는 승리에 도취하여 3 개월 내에 쏘련을 격멸하려고 시도하였다. 북으로는 무르만스크로부터 남으로는 크림에 이르기까지 이 방대하고 강유력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하여 전면적 진공을 감행하였으며 그리 하여 자기의 병력을 분산시켰다. 작년 10월의 모스크바에 대한 진공의 실패에서 쏘독 전쟁의 제 1 단계는 끝 났으며 히틀러의 첫 전략 계획은 파탄되었다. 붉은 군대가 독일군의 작년의 진공을 저지한 동시에 겨울에 전 전선에 걸쳐 반공격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쏘독 전쟁의 제 2 단계이며 히틀러는 퇴각과 방어의 지위에 전략하였다. 이 기간에 히틀러는 자기의 전선 총사령관인 브라우히치를 해임시키고 자기가 직접 총사령관으로 되어 전면적인 진공 계획을 포기하고 구라파의 전 력량을 굶어 모아 남부 전선에 대하여 국부적인 그러나 쏘련의 급소를 치

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최후적 진공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진공이 최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파쇼의 존망과 관계되고 있기 때문에 히틀러는 최대의 병력을 이곳에 집중하였으며 북아프리카에서 작전하고 있던 일부의 비행기, 탱크까지도 끌어 왔다. 금년 5월에 게르치 및 세와스도뿔을 공격한 때로부터 전쟁은 제 3 단계에 들어 섰다. 히틀러는 150만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고 거기에 비행기, 탱크 주력까지 배합시켜 쓰말린그라드와 잡카즈에 대하여 미증유의 격렬한 공격을 가하여 왔다. 그는 이 두 지점을 신속히 공략하여 불가강을 차단하며 바쿠를 탈취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후 북으로는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남으로는 페르샤만에 진출하려 기도하였으며 동시에 일본 파쇼로 하여금 병력을 만주에 집중시켰다가 쓰말린그라드가 함락된 후 씨비리를 진공하도록 하였다. 히틀러는 쓰련의 령량을 약화시킴으로써 뒤'걱정이 없이 독일군의 주력을 쓰련 전장으로부터 빼내어 서부 전선에 옮겨다가 영, 미의 진공에 대처하며 근동의 자원을 약탈하며 독일과 일본과의 련결을 지을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일본의 주력도 뒤'걱정이 없이 북방으로부터 빠져 나와 서부와 남부로 진출하여 우리 나라와 영, 미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파쇼 전선의 승리를 쟁취하려고 망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정형은 어떠하였던가? 히틀러는 그의 숨통을 끊는 쓰련의 전술에 봉착하였다. 쓰련은 먼저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인 다음에 완강히 저항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5 개월 동안의 전쟁을 통하여 독일군은 잡

까즈의 유전 지대에 쳐 들어 가지도 못 하였거니와 쓰말린그라드를 함락시키지도 못 하였다. 히틀러는 높은 산 밑과 튼튼히 방비되고 있는 도시 앞에서 자기의 군대를 진격시킬 수도 없고 퇴각시킬 수도 없게 되어 막대한 손실을 받았으며 난국에 빠지고 말았다. 지금은 이미 10월이며 겨울이 곧 닥쳐 온다. 전쟁은 제 3 단계가 멀지 않아 종결되고 제 4 단계가 곧 시작될 것이다. 쓰련을 공격하는 히틀러의 전략적 기도는 어느 하나 실패 당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기간에 히틀러는 작년 여름의 병력 분산으로 인한 실패에 비추어 자기의 병력을 남부 전선으로 집중시켰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동으로는 불가강을 차단하고 남으로는 깡까즈를 공략하여 일거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의 병력을 분산시켰다. 그는 아직까지도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기도 간의 불일치를 타산하지 못 하여 마침내 《펠》대의 량쪽 끝을 동여 매지 않아 량쪽 점이 다 떨어진다》는 격으로 지금의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쓰련은 싸우면 싸울수록 더욱 강대하여지고 있다. 쓰말린의 영명한 전략적 지휘는 완전히 주동적 지위에 처하여 있으며 도처에서 히틀러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 금년 겨울부터 시작되는 제 4 단계는 히틀러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단계로 될 것이다.

히틀러의 제 1 단계에서의 정형과 제 3 단계에서의 정형을 비교하여 본다면 히틀러가 종국적 실패의 문어귀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붉은 군대는 쓰말린그라드와 깡까즈의 두 방면에서 사실상 독일군의 진공을 중지시켰으며

히틀러는 이미 기진 맥진하게 되어 쓰말린그라드와 갭까즈 두 지점에 대한 그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다. 그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온 겨울 동안에 정비한 약간의 병력도 이미 다 소모되었다. 이제 한 달도 안 가서 쏘독 전선에 겨울이 닥쳐 오게 될 것이므로 그는 급속히 방어로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전체 돈강 이서와 이남 지대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지대이며 붉은 군대는 앞으로 이 일대에서 반공격으로 넘어 갈 것이다. 금년 겨울에 히틀러는 멸망의 위협에 몰리어 또 한 번 자기의 군대를 정비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의 얼마 안 되는 잔존 령량을 긁어 모아 새로운 사단을 몇 개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밖에 이탈리아와 로므니아 및 헝그리아 등 3 개국의 파쇼 추종자들에게 원조를 구하여 그들에게서 일부의 대포·밥을 강요함으로써 동서 양 전선의 위험한 국면에 대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동부 전선에서는 동기 작전에서 받을 막대한 소모에 대처하여야 하며 서부 전선에서는 제 2 전선에 대처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탈리아, 로므니아, 헝그리아 등 국가들은 히틀러의 대세는 기울어졌다는 그러한 비관적 분위기 속에서 하루 하루 그와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10월 9일 이후의 히틀러에게는 죽음의 길 밖에 남지 않았다.

48 일 동안에 걸친 붉은 군대의 쓰말린그라드 방위는 작년의 모스크바 방위와 어느 정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즉 히틀러의 금년 계획도 작년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돌아 가게 한 점이다. 그 상이점으로 말하면 모스크

바 방위전 이후 이어서 동기 반공을 하였지만 금년에 와서 또 독일군의 하기 공세에 봉착하였다. 이것은 첫째로, 독일 및 구라파의 그 추종자들에게 아직도 여력이 있었고 둘째로, 영, 미가 제 2 전선의 개척을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쓰딸린그라드 방위전 이후의 정세는 작년과 완전히 달라졌다. 일방으로 소련은 극히 대규모적인 제 2 차 동기 반공을 진행할 것이고 영, 미는 제 2 전선의 개척을 더는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며(구체적인 기일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구라파의 인민들도 봉기로 이에 호응하려 하고 있다. 타방으로 독일 및 구라파의 그 추종자들도 더는 대규모의 공세를 진행할 힘이 없게 되었으며 히틀러는 전반 방침을 전략적 방어에로 전입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히틀러를 전략적 방어에로 몰아 넣기만 한다면 파쇼의 운명은 끝장이 날 것이다. 왜냐 하면 히틀러와 같은 파쇼 국가의 정치적 및 군사적 생명은 생겨 난 첫날부터 진공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일단 진공이 끝 나면 그 생명도 끝 나게 되기 때문이다. 쓰딸린그라드의 일전은 파쇼의 진공을 중지시킬 것이므로 이 일전은 결정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 결정성은 전반 세계 전쟁에 관련되는 것이다.

히틀러가 당면하고 있는 3대 강적은 소련과 영, 미와 독일군 점령 지구의 인민들이다. 동부 전선에는 확호 부동하게 거연히 서 있는 붉은 군대의 철벽과 제 2 동기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그 뒤에도 계속될 붉은 군대의 반공격이 있다. 이것은 전반 전쟁과 인류의 운명에 대한 결정적 역량이다. 서

부 전선에 있어서는 영, 미가 그냥 방관시하는 정책과 지연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범이 거의 죽어 가게 되며 칠만 하게 될 때에는 결국 제 2 전선이 개척될 것이다. 히틀러에게는 또 내부 전선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즉 독일과 프랑스 및 구라파의 기타 부분들에서 준비되고 있는 위대한 인민 봉기이다. 소련의 전면적인 반공이 시작되고 제 2 전선의 포성이 울리기만 하면 그들은 제 3 전선으로 되어 이에 호응할 것이다. 이리 하여 세 전선이 히틀러를 협공하게 되는 것이 쓰딸린그라드 전역 이후에 있어서의 위대한 역사적 행정으로 될 것이다.

나폴레옹의 정치적 생명은 워털로에서 끝났으나 그 결정점은 모스크바에서의 실패였다(1). 오늘날 히틀러는 바로 나폴레옹이 걸은 길을 걷고 있다. 쓰딸린그라드의 일전은 그의 멸망의 결정점인 것이다.

이 정세는 그 영향이 직접 극동에까지 미칠 것이다. 태년도 일본 파쇼에게 있어서는 상서로운 해가 아닐 것이다. 일본 파쇼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물머리를 더 얕으면서 자기의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 갈 것이다.

세계 정세를 비판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를 고쳐야 한다.

## 주 해

[1] 1815년 6월에 나폴레옹은 영국-프로치야 연합군과 벨지오 남부에 있는 워털로에서 격전을 하였다. 나폴레옹은 이 싸움에서 패하여 네서양 남부에 있



는 쾨트베르나도에 가서 류형살이를 하다가 1821년에 그 섬에서 죽었다. 나뭇메웅은 자기의 일생에 구라파의 허다한 국가들을 정복하였으나 1812년 로쨌야를 공격하는 전쟁 중 모스크바에서 참패 당하고 그 정예 부대의 거의 전부를 소멸 당하였다. 나뭇메웅은 이 타격을 받은 후 다시는 일어 나지 못 하였다. 모스크바에서의 나뭇메웅의 실패에 대하여서는 본 선집 제 2 권의 《지구권에 대하여》 수해 23을 참조하라.



## 10월 혁명 25 주년을 경축하여

(1942년 11월 6일)

우리는 최대의 락관으로 금년의 10월 혁명 기념일을 경축한다. 금년의 10월 혁명 기념일은 쏘독 전쟁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파쇼 진영이 파쇼 진영을 타승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지난 시기에 있어서는 붉은 군대가 파쇼 독일 및 구라파의 그 추종자들을 단독적으로 저항하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그 때도 진공을 계속할 수 있었고 격멸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에 와서 소련의 력량은 전쟁 행정에서 강대하여졌으며 히틀러의 제 2 차 하기 공세는 이미 파탄되었다. 금후 전 세계 반파쇼 진영의 임무는 파쇼 진영에 대한 진공을 발동하여 파쇼를 종국적으로 격멸하는 것이다.

쓰말린그라드의 붉은 군대 전사들은 전 인류의 운명에 관련되는 영웅적인 위업을 수행하였다. 그들은 10월 혁명의 아들딸들이다. 10월 혁명의 기치는 불패의 기치이며 모든 파쇼 세력은 소멸되고야 말 것이다.

우리 중국 인민이 붉은 군대의 승리를 경축하는 것은 동시에 자기의 승리를 경축하는 것이다. 우리의 항일 전쟁은

이미 5년 이상이나 진행되었다. 우리의 앞길에는 아직도 난관이 있지만 승리의 서광은 이미 보이고 있다. 일본 파쇼를 타승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으로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도 멀지 않다.

모든 노력을 일본 파쇼를 타격하는 데 집중하는 것—— 이것이 중국 인민의 임무이다.

## 항일 시기의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

(1942년 12월)

경제를 발전시켜 공급을 보장한다——이것이 우리의 경제 사업과 재정 사업에 있어서의 총방침이다. 그러나 많은 동지들은 일면적으로 재정만을 중시하고 전반 경제의 중요성은 모르고 있다. 그들의 머리는 하루 종일 단순한 재정 수치 문제에서만 맴 돌고 있으므로 아무리 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낡은 보수적인 관점이 이러한 동지들의 머리 속에서 장난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정 정책의 적절 여부가 물론 경제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재정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경제적 기초가 없이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심감녕 변구 고급 간부 회의에서 한 보고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의 제 1 장으로서 원 제목은 《과거의 사업에 대한 기본적 총화》이다. 1941년과 1942년은 항일 전쟁 기간에 있어서 해방구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일본 침략자의 야만적 진공과 국민당의 포위, 봉쇄로 하여 해방구의 재정에는 극히 큰 곤란이 조성되었다. 모택동 동지는 당은 인민을 명도하여 농업 생산 및 기타의 생산 사업을 발전시키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인 동시에 해방구의 기관, 학교, 부대들에서는 재정 및 경제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급적으로 생산을 하여 자급할 것을 호소하였다. 모택동 동지의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 《근거지에서의 소작로 인하와 생산 및 용정 애민 운동을 전개하자》, 《조적하라》 등 모작은 당시 해방구의 생산 운동을 명도함에

재정난이 해결되는 일은 없으며 경제적 발전이 없이 재정이 유족하여지는 일은 없다. 섬감녕 변구의 재정 문제란 수만 명의 군대와 기관 일'군들의 생활비와 사업비의 공급 문제이다. 말하자면 함일 경비의 공급 문제이다. 이러한 경비는 모두 인민에게서 받는 세금과 수만 명의 군대 및 기관 일'군들 자신의 생산에 의하여 해결된다. 인민의 경제와 공영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품삯도 못 하게 될 것이다. 재정난은 오직 절실하고도 효과적인 경제 발전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 경제의 발전을 망각하고 재원의 개척을 망각하고 쓰지 않으면 안 될 재정 지출을 축소하여 재정난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보수적 관점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지난 5년 간에 우리는 몇 개의 단계를 거쳤다. 가장 곤란하던 시기는 1940년과 1941년이였다. 두 차례에 걸친 국민당의 반공 마찰은 다 이 시기에 있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거의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기름이 없고 종이와 소채가 없고 전사자들에게는 신발과 버선이 없고 기관 일'군들에게는 겨울

---

있어서의 당의 기본 강령이였다. 《경제 문제와 재정 문제》라는 이 로작에서 모택동 등지는 경제의 발전을 떠나 단순히 세정 수지 문제에만 머리를 쓰는 그릇된 사상 및 인민을 동원하며 인민을 도와 생산을 발전시킴으로써 곤란을 이겨내는 데는 주의를 돌리지 않고 인민들에게 물자를 요구하는 데만 주의를 돌리는 그릇된 작풍을 특히 비판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공급을 보장한다》는 당의 올바른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 방침 하에서 발전된 섬감녕 변구 및 적후 각 해방구의 생산 운동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 하여 해방구의 군대와 인민들이 함일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승리적으로 지나 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이 그 후의 경제 건설 사업을 명도하기 위한 풍부한 경험을 쌓게 되었다.

이 되어도 이불이 없는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국민당은 우리를 극도의 곤경에 빠뜨리려고 우리에게 대하여 경비 지출을 중지하고 경제 봉쇄를 실시하였다. 우리의 곤난은 참으로 막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곤난을 이겨 내었다. 이것은 변구의 인민들이 우리에게 먹을 식량을 공급하여 주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자신이 직접 생산에 참가할 결심을 내리고 자기의 공영 경제를 설립하였기 때문이었다. 변구 정부는 자급을 위한 허다한 공업을 경영하였으며 군대는 대규모적인 생산 운동을 전개하여 자급을 목표로 하는 농업, 공업, 상업을 발전시켰으며 기관과 학교의 수만 명의 일'군들도 마찬가지로 자급 경제를 발전시켰다. 군대와 기관, 학교들에서 발전시킨 이러한 자급 경제는 현하의 이런 특수한 조건 하에서의 특수한 산물이다. 다른 역사적 조건 하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합리하고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써 곤난을 싸워 이겼다.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만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 진리는 의심할 여지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는가? 지금 우리에게 아직 많은 곤난이 있으나 우리의 공영 경제의 기초는 이미 닦여졌다. 1943년 한 해만 더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기초는 더욱 튼튼하여질 것이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로선은 옳바른 로선이지만 그 발전이 모험적이고 무근거한 발전이어서는 안 된다. 일부 동지들은 그 당시 그 지방의 구체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 발

전 하고 헛소리만 친다. 껌을 들면 중공업의 건설을 요구하며 대업업 계획, 대군수 공업 계획을 제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실제에 맞지 않는 것이며 채납할 수 없는 것이다. 당의 로선은 정확하게 발전시키는 로선이다. 그것은 낡은 보수적 관점을 반대하는 한 편 실제에 맞지 않는 텅 빈 대계획도 반대한다. 이것이 바로 재정 경제 사업에 있어서의 당의 두 전선에서의 투쟁이다.

우리는 공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인민들의 원조의 중요성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인민은 우리에게 식량을 공급하였다. 1940년에는 2,700만 근, 1941년에는 6,000만 근, 1942년에는 4,800만 근을 공급하여<sup>[1]</sup> 군대와 기관 일'군들의 식량을 보장하였다. 1941년도까지도 우리의 공영 농업에서의 알곡 생산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우리는 식량 면에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금후에는 반드시 군대의 알곡 생산을 더 증가시켜야 하지만 당분간은 역시 주로 백성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섬감녕 변구는 직접적으로 전쟁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은 후방의 환경에 처하여 있지만 지역이 넓고 인구가 희소하여 겨우 150만 명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렇게 많은 식량을 공급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백성들은 우리에게 소금을 운반하여 주었거나 운비를 납부하였으며 1941년에는 또 500만 원의 공채를 구매하였는데 이 역시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항일과 건국의 수요를 위하여서는 인민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인민들은 이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극도의 곤난에 처하여



있을 때 인민들더러 좀더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필요한 것이며 인민들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민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 오는 한 편 또 인민의 경제가 장성, 보충되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인민의 농업, 목축업, 수공업, 염업 및 상업에 대하여 그 발전을 도와 주는 적절한 조치와 방책을 취하여 인민들로 하여금 잃는 것이 있는 동시에 얻는 것도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더 많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만 장기적 항일 전쟁을 지탱할 수 있다.

어떤 동지들은 전쟁의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정부가 《어진 정치》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왜냐 하면 항일 전쟁이 승리하지 못 한다면 이른바 《어진 정치》라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게 베풀어 주는 것에 불과하며 인민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인민의 부담이 일시 좀 많다 하더라도 정부와 군대가 봉착한 난관을 타개하고 항일 전쟁을 지탱하여 적을 타승하면 인민은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혁명 정부의 극진한 어진 정치인 것이다.

또 다른 한 가지 그릇된 견해는 인민의 곤난은 돌보지 않고 정부와 군대의 수요만을 고려하여 마치 늪을 말리며 고기를 잡듯이 인민에게서 무제한으로 짜 내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당의 사상인바 우리는 결코 그것을 본 딸 수 없다. 우리는 한동안 인민의 부담을 무겁게 하였지만 그 후 즉시 우리의 손으로 공영 경제를 건설하였다. 1941년과 1942년의 두

해 동안에 군대와 기관, 학교들에서 자체로 해결한 부분이 전체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중국 역사 상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기적이며 이것은 우리의 불패의 물질적 기초이다. 우리의 자급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인민에게 부과시키는 세금도 그 만큼 감소될 것이다. 1937년부터 1939년까지의 제 1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민에게서 받은 것은 매우 적었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인민들의 힘이 크게 회복되었다. 1940년부터 1942년까지는 제 2 단계로서 이 단계에 있어서 인민의 부담은 무거워졌다. 1943년 이후부터는 제 3 단계에 들어 서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의 공영 경제가 1943년과 1944년의 두 해에 계속 발전된다면, 만일 이 2년 동안에 섬감녕 변구의 우리 군대의 전부 혹은 대부분이 둔전을 부칠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2년 후에는 인민의 부담이 또 감소될 것이며 인민들의 힘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 추세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할 료량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편견들을 문박하고 우리 당의 옳바른 구호, 즉 《경제를 발전시켜 공급을 보장하자》는 구호를 제기하여야 한다. 공과 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과 사를 고루 돌본다》 혹은 《군대와 인민을 고루 돌본다》라는 구호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구호만이 옳바른 구호라고 인정한다. 공영 경제와 민영 경제를 실사 구시적으로 발전시켜야만 재정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 곤란한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는 세금 부과 of 한도에 주의를 돌려 부담이 무겁기는 하나

인민이 지킬 정도로는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대책이 강구된 후에는 인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어 인민들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야 한다.

국민당의 완고 분자들은 변구의 건설은 희망이 없으며 변구의 곤난은 극복할 수 없는 곤난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과 같이 변구가 《붕괴》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과 논쟁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우리가 《붕괴》되는 날을 영원히 보지 못 할 것이며 우리는 뚝성의 일로를 걸을 것이다. 그들은 공산당과 변구 혁명 정부의 령도 하에서는 인민 대중이 언제나 당과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당과 정부는 또 경제 면에서나 재정 면에서 아무리 엄중한 곤난이라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 낼 것이다. 우리의 지금의 곤난 중 어떤 것은 이미 이겨 냈으며 또 어떤 것은 곧 이겨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몇 배나 더한 곤난을 겪은 적이 있으며 그러한 곤난들도 우리는 이겨 냈던 것이다. 지금 화북, 화중 각 근거지의 곤난은 섬감녕 변구의 곤난보다 훨씬 더 크다. 그 곳에서는 가혹한 전쟁이 매일과 같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미 5년 반 동안이나 견지하여 왔으며 또 승리하는 날까지 반드시 계속 견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앞에는 비관이라는 것이 없으며 우리는 여하한 곤난도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번 섬감녕 변구 고급 간부 회의 이후에 우리는 《정병 간정》<sup>(2)</sup>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정병 간정은 어물어물하여 버리거나 미미하게 하거나 국부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엄

격히, 철저히, 보편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번 정병 간정에서는 간소화, 통일, 농물, 절약, 그리고 관료주의 반대 등 다섯 가지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다섯 가지는 우리의 경제 사업과 재정 사업에 대하여 극히 큰 관계가 있다. 간소화한 후에는 소비적인 지출이 감소되고 생산의 수입이 증가되어 재정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인민의 부담을 감소시켜 인민의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경제 및 재정 사업 기구들에 존재하는 통일되지 못 하고 독립성을 부리며 각기 제멋대로 하는 등 나쁜 현상들을 퇴치하고 통일적이며 지휘가 뜻 대로 되며 정책과 제도가 철저히 관철될 수 있는 사업 체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통일적 체계가 수립된 후에는 사업 능률이 제고될 것이다. 절약은 모든 사업 기관들에서 다 주의를 돌려야 하며 경제 및 재정 사업 기관에서는 더욱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절약을 실시한 결과에 불필요한, 낭비적인 지출을 다량적으로 덜게 될 것인바 그 액수는 수천만 원에 달하게 될 것이다. 경제 및 재정 사업에 종사하는 일'군들은 현존하고 있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직 엄중하게 존재하고 있는 관료주의, 폐를 들면 탐오 현상, 허식, 무익한 《정규화》, 문독주의 등등을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요구를 당, 정부, 군대의 각 계통에서 완전히 실시한다면 우리의 이번 정병 간정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곤난은 반드시 극복될 것이며 우리를 《붕괴》될 것이라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의 입도 막아

버리게 될 것이다.

## 주 해

[1] 모택동 동지가 여기서 든 식량 수'자는 1940년부터 1942년까지에 섬  
감녕 번구의 농민들이 납부한 농업세(즉 현물세)의 총수이다.

[2] 본 선집의 《구히 중요한 정책》을 참조하라.



## 지도 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1943년 6월 1일)

(1) 우리 공산당원들에게는 어떠한 사업에서나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일반과 개별을 결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도자와 대중을 결합하는 것이다.

(2) 어떠한 사업 임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호소가 없이는 광범한 대중을 행동으로 동원할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일반적인 호소에만 그치고 지도 일'군들이 자기가 호소한 사업을 약간의 조직들에서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깊이 들어가 실시하여 한 점을 돌파하고 경험을 얻은 후 그 경험을 리용하여 기타의 단위들을 지도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제기한 일반적 호소의 정확 여부를 검증할 수 없고 일반적 호소의 내용을 충실히 할 수도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일반적 호소가 수포로 돌아 갈 위험이 있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1942년의 각지의 정풍에서 일반적 호소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 방법을 쓴 데서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지도 방법에 관한 결정서이다.

방법을 쓰지 않은 데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1943년의 정풍에서 각 중앙국, 중앙 분국, 구당 위원회 및 지방 당 위원회에서는 일반적 호소(년간 정풍 계획)를 제기하는 외에 자기 기관에서와 부근에 있는 기관, 학교, 부대 중에서 2~3개 단위(많이 할 필요는 없다)를 선택하고 거기에 깊이 들어가 연구하며 이 단위들에서의 정풍 학습의 발전 과정을 상세히 료해하며 이 단위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몇(역시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일'군들의 정치적 경력과 사상적 특점 및 학습에서의 근태와 사업에서의 우열을 상세히 료해하는 동시에 또 이 단위들의 책임자들을 직접 지도하여 해당 각 단위의 실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여 줌으로써 경험을 얻어야 한다. 한 기관, 한 학교, 한 부대 내에도 몇 개의 단위가 있으므로 해당 기관과 학교 및 부대의 지도 일'군들도 역시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지도 일'군들이 지도와 학습을 결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어떠한 지도 일'군이든지 하급의 개별적 단위의 개별적 일'군 및 개별적 사건으로부터 구체적인 경험을 얻지 않는다면 도저히 모든 단위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도를 할 수 없다. 이 방법을 각급 지도 간부들이 다 배우도록 보편적으로 창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1942년의 정풍 경험은 또 매 단위에서 정풍 과정에 그 단위의 주요한 책임 일'군들을 핵심으로 하고 소수의 열성 분자들로 지도 골간을 구성하는 동시에 이 지도 골간과 학습에 참가한 광범한 군중을 밀접히 결합하여야만 정풍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지도 골간



의 적극성만 있고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을 거기에 결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소수 사람의 부질없는 헛수고로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광범한 대중의 적극성만 있고 대중의 적극성을 적절하게 조직하는 강유력한 지도 골간이 없다면 대중의 적극성은 오래 지속될 수도 없거니와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높은 수준에 제고될 수도 없다. 대중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대개 세 부분의 사람, 즉 비교적 적극적인 사람과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과 비교적 탁후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소수의 열성 분자들을 잘 단합하여 지도 골간으로 삼고 이러한 골간들에 의지하여 중간 분자를 제고하며 탁후 분자를 생취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으로 일치 단결되고 대중과 연결된 지도 골간은 대중적 투쟁 중에서 점차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대중적 투쟁과 떨어져서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한 위대한 투쟁 과정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초 단계, 중간 단계 및 최후 단계의 지도 골간이 완전히 동일한 사람들이어서는 안 되며 또 완전히 동일할 수도 없다.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열성 분자들을 부단히 선발하여 그들을 원래 있던 골간 중에서 손색이 있는 자 또는 부패한 자들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지방과 많은 기관의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기본 원인의 하나는 일치 단결되고 대중과 연결된, 언제나 건전한 그런 지도 골간의 결여에 있다. 인원 100 명이 되는 학교에 교원, 직원 및 학생들 속에서 실제에 의하여 형성된(억지로 모은 것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단정하고 가장 기민한 수명 내지 10여 명의 지도 골

간이 없다면 이 학교는 틀림 없이 잘 운영되지 못할 것이다. 쓰딸린이 당의 불쉐위크화에 대하여 말하면서 제기한 열두 가지 조건 중 그 아홉째 조건에 언급된 지도 핵심의 수립 문제[1]를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기관, 학교, 부대, 공장 및 농촌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런 지도 골간의 표준은 지미프르브가 간부 정책에 대하여 말하면서 열거한 네 개 조목의 간부 표준(무한한 충성심, 대중과의 연계, 독자적 사업 능력, 규율의 준수)[2]이어야 한다. 전쟁, 생산, 교육(정풍을 포함한) 등의 중심 과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사업 검열, 간부 심사 및 기타 어떤 사업을 수행하거나 일반적 호소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 방법을 취하는 외에 또 지도 골간과 광범한 군중을 결합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우리 당의 모든 실제 사업에 있어서 무릇 올바른 지도는 대중 속으로부터 나와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대중의 의견(분산적인, 체계 없는 의견)을 집중하고(연구를 거쳐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의견으로 되게 하여) 그것을 다시 대중 속에서 선전, 해석하여 대중의 의견으로 되게 하며 대중으로 하여금 그것을 견지하고 행동에 옮기게 하며 대중의 행동 중에서 이런 의견의 정확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 연후에 다시 대중 속에서 집중하고 그것을 또 대중 속에서 견지한다. 이와 같이 끝없이 순환함으로써 번마다 더 정확하여지고 더 생동하여지며 더 풍부하여지게 된다. 이것이 곧 맑스주의적 인식론이다.

(5) 지도 골간과 광범한 대중이 조직 내에서와 투쟁 행동

중에서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사상, 대중 속에서 집  
중되고 다시 대중 속에서 견지되는 것만이 올바른 지도 의견  
이라는 사상, 지도 의견을 실천에 옮길 때에는 일반적 호소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이번 정풍 운동에  
서 보편적으로 선전되어야 하며 이것을 통하여 이 문제에 있  
어서의 간부들의 그릇된 견해들을 시정하여야 한다. 많은  
동지들은 열성 분자들과 단결하여 지도 핵심을 구성하는 일을  
중시하지 않거나 잘 하지 못 하며 또 이러한 지도 핵심을 광  
범한 대중과 밀접히 결합하는 일을 중시하지 않거나 잘 하지  
못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지도를 대중과 리탈된 관료주  
의적 지도로 되어 버리게 한다. 많은 동지들은 대중적 투쟁  
의 경험을 총화하는 일을 중시하지 않거나 잘 하지 못 하며  
제 단에는 총명한 체 하면서 주관주의적으로 많은 의견을 발  
표하기 좋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의견을 실제에 맞  
지 않는 공론으로 되어 버리게 한다. 많은 동지들은 사업 임  
무에 대한 일반적 호소에만 만족하고 일반적 호소를 한 후  
즉시 그 뒤를 이어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지도를 하는 일을  
중시하지 않거나 잘 하지 못 한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의 호  
소를 말에만 그치거나 지상 또는 회의 석상에만 그치게 하여  
관료주의적 지도로 되어 버리게 한다. 이 번 정풍에서 이러  
한 결합들을 시정하여야 하며 정풍 학습, 사업 검열 및 간부  
심사 과정에서 지도자와 대중을 결합하는 방법 및 일반과 개  
별을 결합하는 방법을 배우고 금후 이러한 방법을 모든 사업  
에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대중 속에서 집중하고 그것을 다시 대중 속에서 견지함으로써 올바른 지도 의견을 형성하는 이것은 기본적인 지도 방법이다. 집중 및 견지 과정에서는 일반적 호소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앞에 말한 방법의 한 구성 부분이다. 많은 개별적 지도 과정에서 일반적인 의견(일반적 호소)을 형성하며 또 이 일반적인 의견을 많은 개별적 단위에 가져다 검증하며(자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도록 일러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 후 새로운 경험을 집중하고(즉 경험을 총화하여) 그것을 새로운 지시로 만들어 대중을 보편적으로 지도한다. 동지들은 이 번 정풍에서 이렇게 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업에서든지 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비교적 훌륭한 지도는 바로 이 집을 비교적 잘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7) 어떠한 사업 임무(혁명 전쟁, 생산, 교육 혹은 정풍 학습, 사업 검열, 간부 심사 혹은 선진 사업, 조직 사업, 간첩 숙청 공작 등등)를 하부에 전달할 때나 상급 지도 기관 및 그 개별적 부문들은 해당 사업에 관계되는 하급 기관의 주요한 책임자를 통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며 분공이 있으면서도 통일되도록(일원화) 하여야 한다. 상급의 개별적 부문이 하급의 개별적 부문과만 연계를 지어(례를 들면 상급의 조직부는 하급의 조직부와만 연계를 짓고 상급의 선전부는 하급의 선전부와만 연계를 짓고 상급의 간첩 숙청부는 하급의 간첩 숙청부와만 연계를 짓는 것 등) 하급

기관의 총책임자(레플 들면 서기, 주석, 주임, 교장 등)가 그것을 모르거나 책임을 지지 못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총책임자와 부서 별 책임자들이 모두 알며 모두 책임 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분공이 있으면서도 통일되는 일원화의 방법을 취한다면 무슨 일이나 총책임자를 거쳐 많은 간부들을, 때로는 심지어 전체 일'군들을 추동하여 수행하게 되는 만큼 각 개별적 부문에서의 간부 부족의 결함을 극복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해당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간부로 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지도자와 대중을 결합하는 일종 형식이다. 간부 심사를 레플 들더라도 만약 그것을 단지 조직부——지도 기관의 소수 사람들만이 고립적으로 한다면 결코 잘 될 수 없으며 만약 그것을 어느 기관 또는 어느 학교의 행정 책임자를 통하여 해당 기관이나 학교의 많은 인원과 많은 학생들을, 때로는 심지어 전체 인원과 전체 학생들을 추동하여 모두 심사에 참가하게 하고 상급 조직부의 지도 일'군들이 이 심사를 옹호하며 지도자와 대중을 결합하는 원칙을 실행한다면 간부 심사의 목적은 반드시 원만하게 달성될 수 있다.

(8) 어떠한 지구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중심 사업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일정한 기간 내에 있어서는 중심 사업이 단 한 가지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제 2, 제 3의 사업은 보조적 사업으로 된다. 그러므로 한 지구의 총책임자는 그 지구의 투쟁 력사와 투쟁 환경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각기 적당한 자리에 놓아야 하며 자기의 계획은 전연 없이 단

지 상급에서 지시하는족족 처리함으로써 술한 《중심 사업》을 형성하거나 무질서한 혼란 상태를 조성하여서는 안 된다. 상급 기관도 역시 경중 완급을 가리지 않고 중심이 없이 하급 기관에 많은 사업을 동시에 지시함으로써 하급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 절차 상 혼란을 일으키게 하여 확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없게 하여서는 안 된다. 지도 일'군들이 매개 구체적인 지구의 역사적 조건 및 환경 조건에 근거하여 전체 국면에 대한 통일적 계획을 세우고 매개 시기에 있어서의 사업 중점과 사업 절차를 정확히 결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는 이것은 지도 예술의 하나이다. 동시에 이것은 지도자와 대중을 결합하며 일반과 개별을 결합하는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지도 방법 문제이다.

(9) 지도 방법에서의 세부 문제에 대하여서는 여기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는다. 각 지방의 동지들은 여기에 언급된 원칙과 방침에 근거하여 잘 생각하여 보며 자기의 창발성을 발휘하기 바란다. 투쟁이 간고하면 할수록 공산당원들이 지도와 광범한 대중의 요구를 밀접히 결합할 것이 요구되며 공산당원들이 일반적 호소와 개별적 지도를 밀접히 결합할 것이 요구되며 주관주의적 및 관료주의적 지도 방법을 철저히 분쇄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당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언제나 맑스주의의 과학적 지도 방법으로 주관주의적, 관료주의적 지도 방법을 반대하며 전자로써 후자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관주의자와 관료주의자는 지도자와 대중을 결합하

는, 일반과 개별을 결합하는 원칙을 모르며 당 사업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 주관주의적, 관료주의적 지도 방법을 반대하기 위하여서는 맑스주의의 과학적 지도 방법을 광범히, 심각히 창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주 해

[1] 스탈린의 《독일 공산당의 전망과 불체위크화에 관하여》에 있다.

[2] 코민테른 제 7 차 대회에서 한 지미프로브의 결론 《로동 계급의 반파쓰 통일 전선을 위한 투쟁》의 제 7 부분 《간부 문제》에 있다.





## 국민당에 질문한다\*

(1943년 7월 12일)

최근 수개월 동안에 중국의 항일 진영 내부에는 아주 비정상적이며 아주 해괴한 사실이 발생되었다. 그것은 중국 국민당이 령도하고 있는 많은 당 기관, 정권 기관 및 군대 기관들이 단결과 항전을 파괴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실은 중화 민족을 반대하며 중국 인민을 반대하는 것이다.

우선 국민당 군대를 보기로 하자. 국민당이 령도하는 전국 군대 중에서 주력만 하여도 제 8 전구 부사령 장관 호종남의 지휘를 받고 있는 제 34, 제 37, 제 38 등 세 개 집단군이 서북 방면에 주둔하고 있다. 그 중 두 개 집단군은 섬감녕 번구에 대한 포위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만 한 개 집단군만이 의천에서 동관에 이르는 구간의 황하 연안의 수비에 사용되어 일본 침략군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4년 이상이나 지속되었으므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이에 습관되어 심상한 일로 여겨 왔다. 그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 《해방 일보》를 위하여 쓴 사실이다.

런데 뜻밖에도 최근에 와서 변화가 발생되었다. 즉 황하 연안의 수비를 담당하고 있던 제 1, 제 16, 제 90 등 세 개 군 중에서 두 개 군이 이동하여 제 1 군은 빈주, 순화 일대로 옮기고 제 90 군은 락천 일대로 옮겨서 번구에 대한 진공을 적극 준비하고 있으며 이리 하여 일본 침략군에 대처하는 황하 연안의 수비선은 그 대부분이 텅 비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런 국민당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떠한가?

많은 국민당 사람들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날마다 공산당이 《항전을 파괴한다》느니 《단결을 파괴한다》느니 하고 선전하고 있는데 그래 황하 연안 수비의 주력을 깡그리 철퇴시켜 버리는 것이 도리어 항전을 강화하는 것이란 말인가? 그래 번구를 진공하는 것이 도리어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란 말인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국민당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등을 일본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얼굴을 당신들에게 돌리고 있다. 만일 일본 사람들이 당신들의 등을 향하여 전진한다면 그 때에는 어떻게 할 작정인가?

당신들이 황하 연안의 광대한 수비 진지를 내버리고 돌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대안에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며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당신들의 뒤' 모습을 기뻐 날뛰는 심정으로 망원경을 들고 바라 보고만 있다면 그것은 대체 무슨 까닭인가? 어째서 일본 사람들은 그

렇게도 당신들의 뒤'모습을 좋아 하고 당신들은 또 황하 연안의 수비선을 내버리어 그 광대한 지역이 비어 있는데도 그렇게 마음이 놓이는가?

사유 재산 제도의 사회에서는 밤에 잠을 잘 때 언제나 문을 닫아 거는 법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쓸 데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금 당신들은 내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는데 도적이 들어 오는 것이 무섭지 않은가? 가령 대문을 활짝 열어 놓았는데도 도적이 들어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당신들의 논법에 의한다면 중국 경내에서 《항전을 파괴하는》 자는 공산당 뿐이고 당신들은 그야 말로 《민족 지상》인 듯 하다. 그렇다면 적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대체 무슨 지상인가?

당신들의 논법에 의한다면 《단결을 파괴하는》 자도 역시 공산당이고 당신들은 그야 말로 《성심으로 단결하자》는 주의자인 듯 하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3 개 집단군(1 개 군이 없는)의 대군에게 날창을 들려 가지고 중포까지 배합시켜 변구의 인민을 진공하게 하는 이것도 《성심으로 단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당신들의 다른 한 가지 논법에 의한다면 당신들은 단결이란 것은 좋아 하지 않고 《통일》이란 것을 대단히 좋아 하며 그런 까닭에 변구를 소탕하여 당신들이 말하는 《봉건적 할거》를 소멸하고 공산당을 모조리 박멸하려 하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좋다, 당신들은 어째서 일본 사람이 중화 민족을

《통일》하여 버리며 또 당신들까지 한데 걸어 넣어서 《통일》하여 버리는 것은 두려워 하지 않는가?

만일 사변을 일으킨 결과 당신들의 뜻 대로 되어서 번구를 《통일》하고 공산당을 평정하였을 뿐, 일본 사람은 당신들의 무슨 《마취약》에 마취되거나 어떤 《최면술》에 걸려서 움짱달짝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민족과 당신들이 그들에게 《통일》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친애하는 국민당 선생들이여, 당신들의 그러한 《마취약》이나 《최면술》을 우리에게 한두 가지라도 보여 줄 수 없겠는가?

만약 당신들에게 일본 사람에 대처할 《마취약》이거나 《최면술》이 없고 또 일본 사람과 밀약을 맺은 일도 없다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정식으로 알려 주겠다. 당신들은 번구를 진공할 것이 아니며 또 번구를 진공하여서는 안 된다. 《도요새와 조개가 다투면 어부가 리를 보고》, 《버마재비가 매미를 잡으려고 하면 피꼬리가 뒤에서 기다린다》는 두 우화는 일리가 있는 것이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일본이 점령한 지방을 통일시키고 원수들을 몰아 내야만 옳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 손'바닥 만 한 번구를 《통일》하려고 서두는가? 아름다운 강산이 원수들에게 강점 당한 데 대하여 당신들은 조급해 하지도 않고 급급해 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번구 진공에 조급해 하고 공산당 타도에 급급해 한다. 통탄할 일이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다음에는 국민당의 당 사업을 보기로 하자. 국민당은 공산당을 반대하기 위하여 수백 개의 특무 대대를 설치하고 별

의별 잡동사니들을 다 받아 들였다. 례를 들면 중화 민국 32년, 즉 기원 1943년의 7월 6일 항전 6주년 기념일 전야에 중국 국민당의 중앙 통신사는 다음과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즉 섬서성 서안 지방에서 《문화 단체》라는 것들이 회의를 열고 모택동에게 제 3 국제당이 해산된 이 기회에 중국 공산당까지 《해산》시킬 것과 또 하나는 《변구의 할거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전보를 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반드시 이것을 《새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이나 기실 이것은 묵은 소식인 것이다.

원래 이것은 수백 개 특무 대대 중의 한 개 대대에서 나온 것이다. 특무 총대 본부(즉 《국민 정부 군사 위원회 조사 통계국》과 《중국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조사 통계국》)의 지령을 받은 이 대대는 국민당이 돈을 내여 꾸리고 있는 민족 반역자의 간행물인 《항전과 문화》 지상에 공산당을 반대하는 글을 쓰기로 소문 난, 지금 서안 로동영 훈도처 처장으로 있는, 트로쯔끼파이며 민족 반역자인 장 척비를 시켜 6월 12일, 즉 중앙 통신사가 그 소식을 보도하기 25일 전에 아홉 사람을 모아 놓고 10분 동안 회의를 한 후 소위 전보문이라는 것을 한 장 《채택》하게 하였다.

연안에서는 그 전보문을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받지 못하였지만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다. 듣는 바에 의한다면 거기에는 제 3 국제당이 이미 해산되었으므로 중국 공산당도 《해산》되어야 한다느니 또 《맑스-레닌주의는 이미 파산되었다》느니 뭐니 하는 따위가 운운되어 있다고 한다.

이것도 바로 국민당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류(사물이란 류류상종하는 법이다)의 국민당 사람들의 입에서는 무슨 말이라도 다 튀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아나나 다를가 이번에 또 이러한 굉장한 소리가 튀어 나왔다!

지금 중국에는 당파가 매우 많다. 국민당만 하더라도 두 개나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왕가베 국민당으로서 남경 및 기타 각지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들도 역시 칭칭 백일기를 내걸고 있고 또 소위 중앙 집행 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특무 대대들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 파쇼당이 전체 피점령 지구에 널려 있다.

우리의 친애하는 국민당 선생들이여! 당신들은 제 3 국제당이 해산된 후 공산당을 《해산》시키려는 데만 눈코 뜰 사이 없이 바빠 들고 약간의 민족 반역자 당파 일본 당을 해산시키는 데는 도리어 조금도 힘을 쓰려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당신들이 장 척비를 시켜 전보문을 쓰게 할 때 어째서 공산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외에 민족 반역자 당파 일본 당도 해산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을 한 마디도 첨가하지 못 하였는가?

그래 당신들은 공산당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가? 전 중국 경내에 공산당은 하나 뿐이지만 국민당은 둘이나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많은가?

국민당 선생들이여, 당신들은 이런 일을 생각하여 본 적이 있는가? 어째서 당신들을 제한 의 일본 사람과 왕 정위도

한결같이 공산당을 한사코 타도하려고 하며 공산당에 대하여서만 너무 많다고 하면서 그것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하고 국민당에 대하여서는 언제나 많지 않다고 할뿐더러 도리어 적다고 생각하면서 도처에서 왕가네 국민당을 부식, 육성하고 있는가?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국민당 선생들이여, 우리는 시끄러움을 무릅쓰고 당신들에게 알려 주겠다. 일본 사람과 왕 정위가 국민당과 삼민주의를 특히 좋아 하는 까닭은 이 당과 이 주의에 그들이 리용할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당은 제 1 차 세계 대전 후에 오직 1924~1927년 시기에 있어서만 손 중산 선생에 의하여 재조직되고 공산당원들을 받아 들어서 국공 합작 형태의 민족련맹으로 형성됨으로써 비로소 모든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에게 극도의 미움을 받았으며 그들이 싫어 하고 극력 타도하려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 주의도 동일한 시기에 있어서만 손 중산 선생에 의하여 개조되어 《중국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 제기된 삼민주의, 즉 혁명적 삼민주의로 됨으로써 비로소 모든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에게 극도의 미움을 받았으며 그들이 감히 좋아 하지 못하고 극력 타도하려는 것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 당과 이 주의를 공산당을 배척하며 손 중산의 혁명 정신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모든 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 파쇼와 민족반역자 왕 정위까지도 그것을 사랑하며 마치 더 없는 보배나 얻은듯이 그것을 부식,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전에 왕

가네 국민당의 기에는 원 편 구석에 황색 표식이 있어 다른 것과 구별되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 아예 없애 버리고 모든 것을 똑 같이 만들어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였다. 그 사랑하는 정도가 과연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피점령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대후방에 있어서도 왕가네 국민당이 무수하다. 어떤 것은 비밀적인 것으로서 즉 적의 제 5 종대이다. 어떤 것은 공개적인 것으로서 즉 당을 밥통으로 삼고 특무를 업으로 삼으면서 항일은 조금도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공산당단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표면에는 왕가라는 간판을 걸지 않았지만 기실은 왕가네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도 적의 제 5 종대인데 단지 자기를 위장하고 남의 이목을 속이기 위하여 전자와 형식상으로 약간의 구별을 두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이르러 문제는 완전히 명백하여졌다. 당신들이 장척비를 시켜 전보문을 쓰게 할 때 공산당을 《해산》할 것을 요구하는 외에 또 일본 당과 민족 반역자 당도 해산하여야 할 것이라는 말을 절대 한 마디도 첨가하려 하지 않은 까닭은 사상 상에서나 정책 상에서나 조직 상에서나를 막론하고 당신들과 그들 사이에 많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공통한 사상은 공산당을 반대하며 인민을 반대하는 것이다.

국민당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이 있다. 세계에서 그리고 중국 경내에서 《파산》당한 것은 맑스-레닌주의



뿐이고 다른 것은 다 좋은 것들이란 말인가? 왕 정위의 삼민주의에 대하여서는 이미 앞에서 말하였다. 히틀러, 무솔리니, 도조 히데끼의 파쇼주의는 어떠한가? 장 척비의 트로츠키주의는 또 어떠한가? 장가네 것이거나 리가네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중국 경내에 있는 반혁명 특무 기관의 반혁명주의는 또 어떠한가?

우리의 친애하는 국민당 선생들이여! 당신들이 장 척비에게 전보문을 쓰라고 지시할 때 어째서 이처럼 많은 엄병 같은, 빈대 같은, 개똥 같은 소위 《주의》에 대하여서는 한마디의 부기나 단서도 하지 않았는가? 그래 당신들이 보기에 이 모든 반혁명적인 것들은 다 완전 무결하며 다 완전 완미한 것이고 오직 맑스-레닌주의만이 철저히 《파산》된 것이란 말인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당신들이 일본 당, 민족 반역자 당과 호상 결탁하고 있거나 않는가고 크게 의심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그들과 그렇게도 호흡이 맞으며 하는 말이나 하는 일들이 그렇게도 적이나 민족 반역자와 꼭 같고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신사군을 해산시키려고 하면 당신들은 신사군을 해산시켰고,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공산당을 해산시키려고 하면 당신들도 공산당을 해산시키려 하며,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변구를 없애려고 하면 당신들도 변구를 없애려고 하며,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당신들에게 황하 연안을 수비하지 않을 것을 희망하면 당신들은 황하 연안의 수비를 포

기하였고,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변구를 공격하면(지난 6년간 수덕-미지-가현-오보-청간 일선 대안의 적군은 팔로군이 수비하고 있는 황하 연안 진지를 끊임 없이 포격하였다) 당신들도 변구를 공격하려 하며,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공산당을 반대하면 당신들도 공산당을 반대하며,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악착스럽게 비난하면 당신들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악착스럽게 비난하며[1],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공산당원을 체포하여 그들에게 신문 지상을 통하여 자수할 것을 강요하면 당신들도 공산당원을 체포하여 그들에게 신문 지상을 통하여 자수할 것을 강요하며,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반혁명 특무 분자들을 비밀리에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내에 잠입시켜 파괴 활동을 진행하게 하면 당신들도 반혁명 특무 분자들을 비밀리에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내에 잠입시켜 파괴 활동을 진행하게 하고 있다. 어쩌면 이 지경으로 꼭 같고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조금도 차이가 없는가? 당신들의 이러한 많은 언론, 행동이 적과 민족 반역자들의 그러한 모든 언론, 행동들과 꼭 같고 조금도 다름이 없으며 조금도 차이가 없으니 어떻게 사람들이 당신들과 적 및 민족 반역자 간에 호상 결탁하였거나 또는 그 어떤 밀약을 맺고 있거나 않는가 하는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정식으로 중국 국민당 중앙에 항의를 제출한다. 황하 연안을 수비하던 대군을 철퇴시키고 변구를 공격하려 하며 내전을 도발하려 하는 것은 극도로 그릇된 행동으로서 용

허할 수 없는 것이다. 중앙 통신사가 7월 6일에 보도한, 단결을 파괴하며 공산당을 모욕하는 소식도 극도로 그릇된 언론으로서 역시 용허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파오는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이며, 적이나 민족 반역자의 언행과 하등의 다른 점이 없는바 당신들은 이러한 파오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정식으로 중국 국민당 총재 장 개석 선생에게 요구를 제출한다. 황하 연안 수비 진지에로 되돌아 가도록 호종남 군대에 명령을 내리기를 바라며 중앙 통신사를 취체하는 동시에 민족 반역자 장 척비를 단죄하기를 바란다.

황하 연안 수비 진지를 떠나 번구를 공격하기를 원치 않으며 또 공산당의 해산을 요구하기 싫어 하는 모든 진정한 애국적인 국민당 사람들에게 우리는 실제 행동으로써 이 내전의 위기를 제지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당신들과 끝까지 합작하여 공동으로 민족을 멸망의 위협에서 구원하려는 용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들이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 주 해

[1] 보 태동 동지는 여기서 장 개석이 발표한 《중국의 운명》이라는 책을 가리키고 있다. 장 개석은 그 책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망명된 주장을 몽땅연하게 제기하였다.



## 근거지에서의 소작료 인하와 생산 및 옹정 애민 운동을 전개하자\*

(1943년 10월 1일)

(1) 추수기가 닥쳐 왔다. 각 근거지의 지도 기관에서는 각급 당 기관과 정부 기관들을 시켜 소작료 인하 정책의 실시 정형을 검열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작료 인하가 참담하게 실시 되지 못한 지방들에서는 금년에 일률적으로 소작료를 인하시켜야 한다. 소작료의 인하를 실시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철저히 되지 못한 지방들에서는 금년에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당 위원회는 즉시 중앙의 토지 정책과 그 지방의 정형에 근거하여 지시를 내려야 하며 몇몇 농촌을 직접 검열하고 모범을 발견하여 그것으로써 다른 농촌을 추동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신문 지상에 소작료 인하에 관한 사실과 소작료 인하에서의 모범적 경험에 관한 기사를 발표하여야 한다. 소작료 인하는 농민의 균중 투쟁이다. 당의 지시와 정부의 법령은 이 균중 투쟁을 령도하며 돕기 위한 것이고 결코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대중의 적극성을 발동시키지 않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를 위하여 쓴 당내 지시문이다.

고 은혜를 베푸는 식으로 소작료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그 결과는 공고하지 못하게 된다. 소작료 인하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 농민 단체들을 조직하거나 그것을 개조하여야 한다. 정부는 소작료 인하 법령을 집행하며 지주와 소작인간의 이익을 조절하는 립장에 서야 한다. 지금 근거지는 축소되었다. 우리 당이 근거지에서 세심하고 진실하고 철저하게 대중을 쟁취하며 대중과 더불어 생사 존망을 같이 할 임무는 지난 6년 동안보다 더 절박한 의의를 띠고 있다. 만일 금년 가을에 소작료 인하 정책의 실시 정형을 검열하는 동시에 소작료 인하를 철저히 실시하기만 한다면 농민 대중의 적극성을 발양시켜 명년의 대적 투쟁을 강화할 수 있고 명년의 생산 운동을 추동할 수 있다.

(2) 적후에 있는 각 근거지의 간부들은 그 대다수가 아직 당 기관과 정부 기관의 일'군들, 군인 및 인민 대중(공무원과 사민, 군인과 주민, 남녀 로소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없이)을 추동하여 대규모적 생산을 진행할 줄 모르고 있다. 당 위원회, 정부 및 군대들에서는 금년 가을과 겨울에 만단의 준비를 하여 명년에는 전체 근거지에서 자기의 로력으로 곤난을 극복하는(섬감녕 변구를 제외하고는 의식을 풍족하게 하자는 구호를 당분간 제기하지 않는다) 대규모적 생산 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는 공영 및 사영의 농업, 공업, 수공업, 운수업, 목축업, 상업이 포함되며 그 중에서도 농업을 주체로 한다. 호별로 계획을 세우고 로동 호조(섬서성 북부에서는 변공대<sup>[1]</sup>)라고 부르고 있으며 과거 강서성 홍

색 지역에서는 경전대 또는 로동 호조사라고 불렀다)를 실시하며 로력 영용을 표창하며 생산 경쟁을 진행하며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합작사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 구급의 당 일'군과 정부 기관 일'군들은 재정 경제 문제에 있어서 농민을 도와 생산을 증가하게 하는 데 90%의 정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10%의 정력으로 농민에게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전자에 대하여 공력을 들여 놓으면 후자는 손쉽게 해결된다. 전쟁 조건 하에서 모든 기관, 학교, 부대는 되도록 소채를 심고 돼지를 기르고 뿔나무를 하고 숲을 굽고 수공업을 발전시키며 부분적으로 양무를 생산하여야 한다. 대소 각 단위들에서는 일률적으로 집단 생산을 발전시켜야 하는 외 일체의 개인이(군대를 제외하고) 사업 여가를 타서 소부분의 농업과 수공업 등 개인 생산을 하는 것도 동시에 장려하여야 하며(장사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 수입은 개인의 소유로 돌려야 한다. 각지에서는 7 일 내지 10 일 간을 기한으로 하는 소채 재배 강습반, 양돈 강습반 및 식사 개선을 위한 취사원 강습반을 개최하여야 한다. 모든 당 기관, 정부 기관, 군대 기관에서는 절약에 힘 쓰며 낭비를 반대하며 탐오를 금지하여야 한다. 각급 당 기관, 정부 기관, 군대 기관, 학교 등의 모든 지도 일'군들은 대중의 생산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기능을 습득하여야 한다. 생산을 잘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없다. 군인이나 공민으로서 생산을 관심하지 않고 먹기만 좋아 하고 일하기 싫어 하는 사람은 훌륭한 군인이라 할 수 없으며 훌륭한 공민이라 할 수 없다.

생산을 리탈하지 않은 모든 농촌 당원들은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군중의 모범으로 되는 조건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생산 운동 과정에서 경제의 발전에 주력하지 않고 단지 일면적으로 지출 문제에서만 수관을 놓는 보수적이고 단순한 재정 관점은 옳지 못한 것이다. 당 기관, 정부 기관과 군대와 인민 대중의 광범한 로력을 조직하여 군중적 생산 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중시를 돌리지 않고 단지 일면적으로 소수의 정부 기관 일'군들이 현물세와 세금을 징수하며 현금과 식량을 장만하기에만 바빠 서두는 그러한 관점도 옳지 못한 것이다. 있는 힘을 다하여 대중을 도와 생산을 발전시킬 줄은 모르고 단지 대중에게서 량곡을 요구하고 세금을 징수할 줄만 아는 그러한 관점(국민당의 관점)도 옳지 못한 것이다. 군중적 생산 운동을 전면적으로 전개하는 데 주의를 돌리지 않고 단지 일면적으로 소수의 경제 기관에서 소수인을 조직하여 생산에 종사하게 하는 데만 주의를 돌리는 그러한 관점도 옳지 못한 것이다. 공산당원이 가정 생활을 유지하며(농촌의 당원) 자기 생활을 개선(기관, 학교의 당원)함으로써 혁명 사업에 리롭게 하기 위하여 가정 생산과 사업 여가의 개인 생산을 하는 것을 영예롭지 못 하며 비도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도 옳지 못한 것이다. 근거지가 있는 조건 하에서 생산의 발전 및 생산을 발전시키는 조건 하에서의 물질적 생활의 개선을 위한 투쟁을 창도하지 않고 단지 일면적으로 간고 분투만을 창도하는 관점도 옳지 못한 것이다. 합작사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 단체로 보지 않고 소수



일'군들이 돈'벌이를 하며 이익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보거나 혹은 정부의 공영 상점으로 보는 관점도 옳지 못한 것이다. 섬감녕 번구의 농업 로력 영웅들의 모범적인 로동 방법(로동 호조를 실시하며 여러 번 갈고 여러 번 매며 거름을 많이 내는)을 각 지방에 보급시키려 하지 않고 이러한 방법을 일부 근거지에는 보급시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도 옳지 못한 것이다. 생산 운동 과정에서 지도 일'군이 책임을 지며 자신이 직접 참여하며 지도 골간과 광범한 대중을 결합시키며 일반적 호소와 개별적 지도를 결합시키며 조사 연구하며 경중 완급을 구별하며 남녀 로소와 롬펜들까지 일률로 생산에 참가시키며 간부를 육성하며 대중을 교양하지는 않고 단지 생산 임무를 건설청 청장, 공급부 부장, 총무처 처장에게 밀어 맡길 줄만 아는 그러한 관점도 옳지 못한 것이다. 현 조건 하에서 생산을 발전시키는 중심 고리는 로력을 조직하는 것이다. 매개 근거지에서 수만 명의 당 기관, 정부 기관, 군대 기관의 로력과 수십만 인민의 로력을 조직하여(호별 계획, 변공대, 운수대, 호조사, 합작사 등 형태를 취하여 자원성과 등가의 원칙 하에서 로력과 반로력을 조직한다) 생산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현하 전쟁 정형 하에서 가능한 일이며 전'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공산당원은 로력을 조직하는 모든 방침과 방법을 습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년에 모든 근거지들에서 일률적으로 소작료를 철저히 인하하는 것은 명년의 대규모적 생산 발전에 대하여 하나의 자극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명년에 당과 정부, 군대와 인민 그리고 남녀 로소를 불

문하고 전체가 일물적으로 위대한 생산 운동을 전개하여 식량과 일용품을 증가하며 재해와 투쟁할 준비를 하는 것은 항일 근거지를 계속 견지하는 물질적 토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막대한 곤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3) 당, 정부, 군대 및 인민이 한 덩어리가 됨으로써 명년의 대적 투쟁과 생산 운동의 전개에 리륙계 하기 위하여 각 근거지의 당 위원회 및 군대와 정부의 지도 기관들은 명년 음력 정월에 제외 없이 보편적으로 대규모의 옹정 애민 및 옹군 우항(2)의 군중 운동을 전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군대 측에서는 옹정 애민 공약을 다시금 선포하며 검토회를 열며 주민들을 청하여 련환회를 열며(당지의 당 기관, 정부 기관의 참석 하에) 대중의 리익에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배상하며 사과하여야 한다. 대중 측에서는 당지의 당 조직, 정부 기관 및 대중 단체의 령도 하에서 옹군 우항 공약을 다시금 선포하며 군대 위로 운동을 열렬히 전개하여야 한다. 옹정 애민과 옹군 우항 운동 가운데서 군대 측과 당 기관, 정부 기관 측은 1943년에 있어서의 각자의 결함과 오유를 철저히 검사하고 1944년에는 그것을 전걸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매년 정월마다 한 번씩 이 운동을 보편적으로 전개하여 옹정 애민 공약과 옹군 우항 공약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각 근거지에서 발생한, 군대가 당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나 인민들을 억누르며 당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나 인민이 군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등 결함과 오유에 대하여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자기 비판을 반복적으로 진행하

여(각기 자기 측만 비판하고 상대측은 비판하지 말 것) 그것을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 해

[1] 본 선집의 《조적하타》주해 4문 보라.

[2] 《용정 애민》이란 근거지 군대의 《정부를 옹호하고 인민을 애호하자》라는 구호의 약칭이다. 《용군 우항》이란 근거지의 당 기관 및 정부 기관, 대중단체의 일'군들과 인민 대중의 《군대를 옹호하고 항일 군인 가족을 우대하자》라는 구호의 약칭이다.



##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와 국민 참정회 제 3 기 제 2 차 회의를 평함\*

(1943년 10월 5일)

9월 6일부터 13일까지 국민당은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를 진행하였고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국민당 정부는 국민 참정회 제 3 기 제 2 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두 회의에 관한 자료가 전부 수집되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총평을 할 수가 있다.

국제 정세는 이미 대변화의 전야에 처하여 있다. 지금은 어느 측에서나를 물론하고 다 이 변화를 감축하고 있다. 구라파의 추축국은 이 변화를 감축하였으며 히틀러는 최후 발악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 변화는 주로 소련이 조성한 것이다. 소련은 바로 이 변화를 리용하고 있다. 즉 붉은 군대는 파죽지세로 이미 드네프르강까지 쳐 나아갔으며 또 한 차례의 동기 공세를 거치면 새 국경선까지 쳐 나아가지 못 한다 하더

---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연안 《해방 일보》를 위하여 쓴 사실이다.

라도 옛 국경선까지는 쳐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영국과 미국도 이 변화를 리용하고 있다. 즉 루즈벨트와 처칠은 히틀러가 거의 넘어 가게 될 때를 기다려 프랑스로 쳐 들어 가려 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독일 파쇼의 전쟁 기구는 오래지 않아 와해될 것이며 구라파의 반파쇼 전쟁 문제는 전면적 해결의 전야에 처하여 있다. 그런데 파쇼를 격멸함에 있어서의 주력군은 소련이다. 세계 반파쇼 전쟁 문제의 중심은 구라파에 있다. 구라파 문제가 해결되면 세계의 파쇼와 반파쇼 양대 진영의 운명이 결정된다. 일본 제국주의자는 자기들의 앞길이 막혔다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정책은 모든 력량을 집중하여 최후 발악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그들의 정책은 공산당은 《소탕》하고 국민당은 권유하여 투항시키려 하는 것이다.

국민당 사람들도 이 변화를 감촉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정세 앞에서 한 편으로는 기뻐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두려워 하고 있다. 그들이 기뻐 하는 것은 구라파 문제가 해결 되면 영, 미가 손을 뺄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본을 공격할 것이므로 그들은 힘을 들이지 않고 난경으로 돌아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두려워 하는 것은 세 파쇼 국가가 한꺼번에 쓰러지면 세계는 유사 이래 처음인 위대한 해방의 시대에 처하게 되어 국민당의 매관적, 봉건적 파쇼 독재 정치는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망망 대해 가운데서 외로운 작은 섬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의 당, 하나의 주의, 하나의 수명》이라는

파쇼주의에 멸망의 재난이 닥쳐 올가 봐 두려워 하는 것이다.

원래 국민당 사람들의 의도는 쓰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히틀러와 싸우게 하는 동시에 일본 침략자를 충동하여 쓰련을 진공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를 멸망시키거나 여지없이 만들며 영, 미로 하여금 구라파에서 제 2 전선이니 제 3 전선이니 하는 것을 개척하지 말고 그 전력을 동방에 가져다가 우선 일본을 거꾸러뜨리고 나서 중국 공산당을 타도하게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서는 다음에 다시 보자는 것이었다. 국민당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세아를 먼저, 구라파는 나중에》라고 크게 웨치다가 그 후에 《구라파와 아세아를 동시에》라고 웨치게 된 것은 바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목적을 위한 것이다. 금년 8월 큐베크 회의가 끝 날 무렵에 루즈벨트와 처칠이 국민당 정부의 외교부장 송 자문을 불러다가 몇 마디간 말을 한 일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국민당 사람들은 《루즈벨트와 처칠의 시선이 동방으로 옮겨졌다. 구라파를 먼저, 아세아는 나중에라는 계획이 변경되었다》느니, 《큐베크 회의는 영, 미, 중 3대 강국 회의였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또 한 번 자화 자찬하며 기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당 사람들의 최후 한 차례의 기쁨이었다. 그 후부터 그들의 기분에는 변화가 생기었다. 《아세아를 먼저, 구라파는 나중에》라느니, 《구라파와 아세아를 동시에》라느니 하는 것은 이 때부터 력사 박물관에 들여 보내고 그들은 다른 궁리를 하게 된 것 같다.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와 국민당이 조종하는 이번 참정회는 아마 이런 다른 궁

리의 출발점일 것이다.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는 《항전을 파괴하며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공산당을 중상하였으며 동시에 또 《정치적으로 해결하며》 《헌정을 실시하려 한다》고 선언하였다. 국민 참정회 제 3 기 제 2 차 회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당원의 조종 하에서 제 11 차 전원 회의에서와 대체로 같은, 공산당에 대처할 결의안을 통과하였다. 이 밖에 제 11 차 전원 회의는 장 개석을 국민당 정부 주석으로 《선출》하여 그 독재 기구를 강화하였다.

제 11 차 전원 회의 후에 국민당 사람들은 어떠한 궁리를 하고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음의 세 가지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이다. (1) 일본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 (2) 지금까지의 방식 대로 끌어 나가는 것, (3) 정치 방침을 변경하는 것.

《공산당에 대하여서는 공격하고 국민당에 대하여서는 유인한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요구에 적응하여 국민당 내부의 패배주의자들과 투항주의자들은 다 같이 투항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내전이 더지기만 하면 항일은 자연히 할 수 없게 되고 투항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언제나 반공적인 내전을 책동하고 있다. 국민당은 서북에 다 40만 내지 50만의 대군을 집결시켰으며 지금도 비밀리에 군대를 다른 전장으로부터 서북으로 계속 집결시키고 있다. 듣는 바에 의하면 장군들은 아주 담대하여 《연안을 공략하는 것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 문제이다.》라고 장담하고들 있



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에서 이른바 공산당 문제는 《하나의 정치 문제이므로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한 장 개석 선생의 연설을 들은 후에, 또 그 회의에서 장 개석이 말한 것과 대체로 같은 결정을 채택한 후에 한 말이다. 작년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0 차 전원 회의도 이와 동일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그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장군들은 벌써 명령에 의하여 변구를 소멸할 군사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금년 6월과 7월에는 군대를 이동시키고 장군들을 파견하여 변구에 대한 전격전을 준비하던 중 다만 국내외 여론의 반대로 하여 이 음모를 일시 중지하게 되었다. 이제 제 11 차 전원 회의의 결정이 채택되자마자 장군들의 호언 장담과 병력 이동이 또 시작되고 있다. 《연안을 공략하는 것쯤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에게 투항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안 공격》을 찬성하는 모든 국민당 사람들이 모두가 다 내심적으로 결심을 내린 투항주의자인 것은 아니다. 그들 중 일부 사람들은 일면으로는 공산당을 반대하면서 일면으로는 항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황포계의 많은 군인들<sup>[1]</sup>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선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묻고저 한다. 당신들은 10년 내전의 경험을 잊었는가? 일단 내전이 시작되면 결심을 내린 투항주의자들이 당신들을 계속 항일하라고 내버려 둘 줄 아는가? 일본 사람과 왕 정위가 당

신들을 계속 항일하라고 내버려 둘 줄 아는가? 당신들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재주가 있기에 대내, 대외 양면으로 작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들은 지금 300만의 병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상 사기가 극도로 저락되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군대를 한 구력의 계란에다 비유하면서 무엇에 든지 부딪치기만 하면 다 깨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고 있다. 중조산 전역, 태항산 전역, 절강-강서 전역, 호북성 서부 전역, 대별산 전역 등 어느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된 것은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반공하고》 《소극적으로 항일하는》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정책을 실시한 데서 온 것이다. 민족의 원수가 국토에 깊이 쳐 들어 온 이 때에 있어서 당신들이 반공에 적극적이고 항일에 소극적이 되면 될수록 당신들의 사기는 더욱더 저락된다. 외적에 대하여 그와 같이 무기력한 당신들이 공산당에 대하여서와 인민에 대하여서는 그래 갑자기 흥맹하여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럴 수 없다. 당신들이 일단 내전을 일으키기만 하면 당신들은 오직 일심정력으로 내전만 하게 될 뿐이고 《일면으로 항전한다》느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필연코 온 데 간 데 없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필연코 일본 제국주의와 무조건 항복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오직 《투항》이라는 방침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국민당 내에 있는, 진정으로 투항하기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여!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내전을 일으키거나 또는 거기에 참가하기만 한다면 당신들은 투항주의자로 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당신들이 투항과의 책

동에 넘어 가서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의 결정과 참정회의 결정을 여론 동원 및 반공적 내전 도발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결과는 필연코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설사 자기 자신은 본래 투항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항파의 책동에 넘어 가서 길을 잘못 걷는다면 결국은 오직 투항파를 따라 투항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 11 차 전원 회의 이후에 있어서 국민당이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첫째 방향으로서 이러한 위기는 극히 엄중한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 투항파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헌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것은 바로 내전을 준비하는, 즉 투항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눈가림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공산주의자들, 애국적 국민당 사람, 각 항일 정당과 모든 항일 동포들은 극히 엄중한 이 시국을 정신 차려 주시하여야 하며 투항파의 눈가림'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바로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 후에 내전의 위기가 전혀 없이 엄중하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의 결정과 참정회의 결정은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것은 즉 《당분간 끝다가 장래에 가서 치자》는 것이다. 이 방향은 투항파의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것은 표면 상으로는 항일의 국면을 그 대로 유지하려 하면서도 반공과 독재를 포기하기는 절대 싫어 하는 사람들의 방향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방향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그들이 국제 정세에

대변화가 생길 것은 불가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일제가 밀연코 실패 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전은 곧 투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내의 민심이 항일을 지지하고 내전을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민당이 대중으로부터 이탈되고 민심을 잃고 그 자신이 전혀 없이 고립된 지위에 처한 그런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내전을 일으키는 것을 미국, 영국, 소련이 일치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내전 도발의 음모를 지연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헌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빈말로써 그 지연의 도구로 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본래부더의 수단은 《축이기》를 잘 하고 《질질 끌기》를 잘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연안을 포락하며》, 《공산당을 소멸할》 생각을 꿈에도 잊지 않는다. 이 점에서 그들은 투항파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항일이라는 간판을 그냥 내걸어 두려 하며 국민당의 국제적 지위를 아직 상실하지 않으려 하며 때로는 국제적 및 국내적 여론의 견책을 그래도 고려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과 《헌정을 실시하려 한다》는 것을 간판으로 하고 질질 끌면서 장래의 유리한 조건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헌정을 실시하려》 하는 성의가 없으며 적어도 지금에는 그런 성의가 절대로 없다. 작년에 열린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0 차 전원 회의 전후에 공산당 중앙에서는 립 표 동지

를 중경에 파견하여 장 개석 선생과 회견하게 하였다. 중경에서 10 개월 동안이나 기다렸으나 장 개석 선생과 국민당 중앙은 하나의 구체 문제도 담판하려 하지 않았다. 금년 3월에 장 개석 선생은 《중국의 운명》이라는 책을 발표하여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반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10년 내전의 책임을 공산당에 덮어 씌웠으며 공산당과 팔로군 및 신사군을 《신식 군벌》, 《신식 할거》라고 중상하였으며 2 년 내에 기어코 공산당을 해결해 치우겠다고 암시하였다. 금년 6월 28일에 장 개석 선생은 주 은래, 립 표 등 동지가 연안으로 돌아 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때 황하 연안을 수비하던 군대에게 병력을 이동하여 변구어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제 3 국제당이 해산된 기회를 타서 《민중 단체》의 이름으로 중국 공산당의 해산을 요구하라고 전국 각지에 명령하였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국민당과 전국 인민들에게 내전을 제지할 것을 호소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국민당의 각종 음모의 내막을 폭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참을 대로 다 참았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다. 무한이 함락된 이래 화북, 화중에서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크고 작은 전투들이 계속 부절하였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된 지도 이미 2 년이 되었는데 국민당은 화중, 화북에서 이 2 년 동안에 공산당을 공격하였다. 본래부터 있던 국민당 군대 외에 또 왕 중령, 리 선주 등 두 집단군을 강소성, 산동성에 더 파견하여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다. 태항산에 있는 방 병

훈 집단군은 명령을 받고 전문적으로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으며 안휘성과 호북성에 있는 국민당 군대도 명령을 받고 공산당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과거 오래 동안 그 사실조차 공포하지 않았다. 국민당의 모든 대소 신문 출판물들은 잠시도 공산당을 중상하지 않은 때라고는 없었지만 우리는 장기간 이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답변하지 않았다. 국민당은 영웅적으로 항일을 하고 있는 신사군을 하등의 리유도 없이 해산시켰으며 안휘성 남부의 신사군 부대 9,000여 명을 섬멸하였으며 업 정을 체포하고 항 영을 살해하였으며 신사군 간부 수백 명을 감금하였다. 이것은 인민을 배반하고 민족을 배반하는 천인 공노할 죄행이다. 우리는 그래도 국민당에 대하여 항의와 선후 처리 조건을 제기하였을 뿐이고 여전히 국가를 위하여 참아 왔다. 섬감녕 변구로 말하면 1937년 6~7월 경에 공산당 대표 주 은래 동지가 려산에서 장 개석 선생과 회견하였을 때 장 선생은 변구를 승인하는 명령을 발표하고 관리를 위임하며 국민 정부 행정원의 직할 행정 구역으로 삼을 것을 승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장 개석 선생은 비단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40만~50만의 군대를 파견하여 변구를 포위하고 군사적 및 경제적 봉쇄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리 하여 변구 인민들과 팔로군 후방 류수 기관을 기어코 죽음의 지경에 몰아 넣고서야 마음 놓을 작정이다. 팔로군에 대한 공급을 단절하고 공산당을 《간당》이라고 부르며 신사군을 《반란군》이라고 부르며 팔로군을 《간군》이라고 부르는 등의 사실

은 더구나 세인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일들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국민당 사람들은 공산당을 원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이 볼 때 공산당은 일본 사람보다 십 배, 백 배로 더 미운 존재이다. 국민당은 최대의 증오를 공산당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일본 사람에 대하여서는 만일 증오하고 있다면 그것은 극히 미약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은 국공 량당에 대한 일본 파쇼의 상이한 태도와 일치한 것이다. 일본 파쇼는 자기들의 최대의 증오를 중국 공산당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국민당에 대하여서는 날로 온화하여지고 있다. 《반공》, 《멸당》이라는 두 구호 중에서 지금은 《반공》이란 구호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일본과 왕 정위의 모든 신문 출판물들도 《국민당을 타도하자》, 《장 개석을 타도하자》는 구호들을 더는 들고 나오지 않는다. 일본은 중국에 투입한 자기 병력의 58%로써 공산당을 내리누르고 있고 국민당에 대하여서는 단지 42%의 병력으로 감시하고 있을 뿐인데 최근에는 국민당을 투항으로 권유하는 데 리롭게 하기 위하여 절강성, 호북성에서 또 많은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그 감시 병력을 감소시켰다. 일본 제국주의는 공산당에 대하여서는 투항 권유의 말을 감히 입 밖에 내놓지도 못 하지만 국민당에 대하여서는 쉴 사이 없이 계속적으로 투항을 권유하고 있다. 국민당은 공산당과 인민들에 대하여서는 아직도 사납게 굴고 있으나 일제 앞에서는 조금도 사납게 굴지 못 한다. 비단 행동 면에 있어서만 항전으로부터 관전(觀戰)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언론 면에 있어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투항

권유와 온갖 모욕적인 언론에 대하여 좀 날카롭다고 할 정도의 문박은 전혀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장 개석의 저서 〈중국의 운명〉에 문술된 방향은 틀림 없다.》고 말하고 있다. 장 개석 선생과 그 당내의 사람들이 이러한 말에 대하여 어떠한 문박을 가한 적이 있는가? 없을 뿐 아니라 감히 그렇게 하지도 못 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장 선생과 국민당이 공산당에 대하여서만 소위 《군령, 정령》 및 《규률》을 내세우고 적에게 투항한 20 명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과 58 명의 국민당 장령들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군령, 정령 및 규률 문제도 내세우려 하지 않으며 감히 내세우지도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고서야 일본 제국주의가 어찌 국민당을 알아보지 않겠는가? 전국의 인민들과 전 세계의 우방들 앞에서 장 선생과 국민당은 신사군을 해산시키고 팔로군을 공격하며 변구를 포위하며 그들을 《간당》, 《간군》, 《신식 군벌》, 《신식 할거》라고 중상하며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고 중상하며 소위 《군령, 정령》 및 《규률》을 끊임 없이 계속 내세우고 있지만 적에게 투항한 20 명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과 58 명의 국민당 장령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군령, 정령도 집행하지 않으며 아무런 규률적 처벌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밖에 보여 주지 않고 있다. 이번 제 11 차 전원 회의와 국민 참정회에서도 여전히 공산당에 대처할 결정만을 채택하고 국가를 배반하고 적에게 투항한 국민당 자체의 많은 중앙 집행 위원과 많은 장령들에 대처할 결정은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니 전국의 인민들과 전



세계의 우방들이 국민당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제 11 차 전원 회의에서는 또 과연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느니 《헌정을 실시하려 한다》느니 뭐니 하는 말들이 나왔다. 참 좋은 말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다년래의 국민당의 일관적인 정치 로선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빈 말에 불과하며 기실은 내전을 준비하며 반인민적 독재 정치를 영원토록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생취하려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시국의 발전에는 제 3 방향이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일부 국민당원과 전국 인민 및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방향이다. 제 3 방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공평하고도 합리하게 정치적 방식으로 국공 량당 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이며 자유로운 헌정을 성의 있게 실시하며 《하나의 당, 하나의 주의, 하나의 수령》이란 파쇼적 독재 정치를 폐지하는 동시에 항전 기간 내에 인민의 의사에 의하여 선거된 진정한 국민 대회를 소집하는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시종 여일하게 이 방침을 주장하고 있다. 일부 국민당 사람들도 이 방침에 동의할 것이다. 우리는 장 개석 선생 및 그의 적계 국민당에 대하여도 과거 장기간 그들이 이 방침을 실시할 것을 희망하여 왔다. 그러나 수년 래의 실정에 비추어 보거나 당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장 선생과 정권을 잡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당 사람들에게서 그들이 이러한 방침을 실시할 것을 원한다

는 사실을 조금도 찾아 볼 수 없다.

이러한 방침의 실시를 위하여서는 많은 국제, 국내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현하의 국제적 조건(구라파의 파쇼가 총붕괴되는 전야)은 중국의 항일에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항파는 도리어 이 때에 내전을 책동함으로써 투항에 편리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 사람과 왕 정위는 도리어 이 때에 내전을 책동함으로써 투항 권유에 유리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왕 정위는 《가장 친근한 형제는 어디까지나 형제이다. 중경은 앞으로 반드시 우리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오직 우리는 그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희망하는 바이다.》라고 말하였다(10월 1일 발 동맹사 통신). 이 얼마나 친밀하며 긍정적이며 간절한 말인가! 그러므로 툰 시국은 좀 뜰게 되면 고작이고 돌연히 악화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제 3 방향의 조건은 아직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각당 각파의 애국자들과 전국 인민들이 각 방면으로 노력하여야 그것을 전취할 수 있다.

장 개석 선생은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에서 《중앙은 공산당에 대하여 별다른 요구가 없고 단지 무장 할거를 포기할 것과 과거부터 각지에서 국군을 습격하고 항전을 파괴하여 오던 행동을 중지할 것을 희망하는 동시에 민국 26년에 발표한 공동으로 국난을 타개하자는 그 선언을 실천하며 언약 가운데서 멀거한 네 가지 사항을 리행할 것을 희망할 뿐이라는 것을 언명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장 선생이 말한 소위 《국군을 습격하고 항전을 파괴하여 오던 행동》이란 것은 응당 국민당을 두고 말하여야 할 것인

데 유감스럽게도 그는 불공평하고도 악의적으로 공산당을 중상하였다. 무한이 함락된 후부터 국민당은 3 차나 반공 고조를 일으켰으며 이 3 차에 걸친 반공 고조 기간에 매번 국민당 군대가 공산당 군대를 습격한 사실들이 있다. 제 1 차는 1939년 겨울부터 1940년 봄까지였다. 당시 국민당 군대는 섬감녕 변구의 팔로군의 수비 구역인 순화, 순읍, 정녕, 녕현, 진원 등 다섯 개의 현 소재지를 습격 점령하였으며 비행기까지 사용하였다. 화북에 있어서는 주 회빙을 파견하여 태항 지구의 팔로군을 습격하였으며 팔로군은 자위를 위하여 싸웠을 따름이다. 제 2 차는 1941년 1월이었다. 먼저 하 응흥, 맥 승회가 주 덕, 팽 덕회, 엽 정, 항 영에게 《19일 부 전보》(1940년 10월 19일)를 보내어 황하 이남의 팔로군, 신사군을 1 개월 이내에 전부 황하 이북으로 이동시키라고 강압적으로 명령하였다. 우리는 안휘성 남부의 부대를 북으로 이동시킬 것을 응낙하였고 기타의 부대는 사실 상 이동시킬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역시 항전의 승리를 취득한 후에는 지정된 지점으로 이동시킬 것을 응낙하였다. 그런데 안휘성 남부의 부대 9,000여 명이 1월 5일에 명령에 의하여 이동하고 있을 때 뜻밖에도 장 선생은 벌써 《일망타진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6일부터 14일까지 안휘성 남부의 모든 국민당 군대는 과연 그 신사군 부대를 《일망타진》하였으며 동시에 장 선생은 17일에 신사군 전군을 해산시키며 엽 정을 재판에 회부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후부터 국민당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화중, 화북의 모든 항일 근거지 내의 팔로군,

신사군은 모두 국민당 군대의 습격을 받았으며 팔로군, 신사군은 오직 자위적 행동을 취하였을 뿐이다. 제 3 차는 금년 3월부더 현재에 이르기까지이다. 국민당 군대가 화중, 화북에서 계속 팔로군, 신사군을 습격하는 외에 또 장 선생은 반공, 반인민적인 《중국의 운명》이라는 책을 발표하였고 황하연안 수비 부대를 대량적으로 이동시켜 변구에 대한 전격전을 준비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소위 《민중 단체》를 발동시켜 공산당의 해산을 요구하게 하였다. 그리고 국민 참정회 내부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당 당원들을 동원하여 팔로군을 중상하는 하 응홍의 군사 보고를 접수하고 반공적인 결의안을 통과함으로써 단결 항일을 의미하는 국민 참정회를 반공 여론을 꾸며 내며 국내 전쟁을 준비하는 국민당 어용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으며 그 결과 공산당 참정원 동 필무동지는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퇴장을 성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상 3 차에 걸친 반공 고조는 모두 국민당이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항전을 파괴하여 오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민국 26년(1937년) 9월 22일에 공동으로 국난을 타개하자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적이 음모를 꾸밀 수 있는 구실을 없애기 위하여서와 선의적인 의심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해를 풀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민족 해방 사업에 대한 자기의 성의를 피력할 필요를 느낀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다시금 전국에 항하여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선언한다. 1. 손 중산 선생의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 2. 국민당 정권을 전복하는 일체의 폭동 정책과 폭력으로써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 정책을 중지한다. 3. 현재의 홍색 정부를 특구 민주 정부로 재조직하여 전국 정권의 통일을 기한다. 4. 홍군의 명칭 및 그 번호를 고쳐 국민 혁명군으로 재편성하고 국민 정부 군사위원회의 통솔을 받는 동시에 출동 명령을 기다려 항일 전선에 나가 자기의 직책을 맡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언약을 우리는 완전히 실천하였다. 장 개석 선생이나 어떠한 국민당 사람도 우리가 실천하지 않은 조항을 하나도 들 수 없을 것이다. 첫째, 섬감녕 변구와 적후의 각 항일 근거지에서 공산당이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정책은 전부가 손 중산의 삼민주의에 부합되는 것이며 어느 한 가지 정책도 손 중산의 삼민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절대 없다. 둘째, 국민당이 민족의 원수에게 투항하지 않으며 국공 합작을 파탄시키지 않으며 반공적 내전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 하에서 우리는 폭력 정책으로 국민당 정권을 전복하지 않으며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언제나 준수하여 왔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였고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장래에도 그렇게 할 작정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국민당이 적에게 투항하며 합작을 파탄시키며 내전을 일으키는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자신의 언약을 계속 실천할래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우리가 언약을 계속 실천할 가능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세째, 본래의 홍색 정권은 항전 첫해에 벌써 재조직되었으며 《3.3제》의 민주 정치도 벌써부터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섬감녕 변구를 승인하겠다는 자기의 언약을 실천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또 《봉건적 할거》를 하고 있다고 우리를 욕하고 있다. 장 개석 선생과 국민당 사람들은 섬감녕 변구와 각 항일 근거지가 국민당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와 당신들이 말하는 이런 소위 《할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자기의 언약을 리행하지 않고 원래 승인하겠다고 응낙한 이 구역을 승인하지 않고 이 민주 정치를 승인하지 않고 도리어 《할거》를 한다고 우리를 욕하고 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매일과 같이 당신들에게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당신들은 그냥 승인하지 않고 있는데 그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가? 장 개석 선생은 국민당의 총재이며 국민당 정부의 책임자란 신분으로서 자기의 저서 《중국의 운명》에서 역시 《할거》에 대하여 그렇게 함부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자기에게는 조금도 책임이 없는 체 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이제 장 선생이 제 11 차 전원 회의 석상에서 또 언약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우리는 장 선생에게 벌써부터 민권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섬감녕 변구를 법적 수속을 밟아 승인하는 동시에 적후의 각 항일 민주 근거지를 승인하겠다고 한 그 언약을 실천할 것을 요

구하는 바이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불승인주의를 취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우리더러 《할거》를 계속하라는 것이므로 그 책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없다. 네째, 《홍군의 명칭 및 번호》는 벌써 고쳤으며 벌써 《국민 혁명군으로 재편성》하였으며 《국민 정부 군사 위원회의 통솔을 받고》 있다. 이 언약은 벌써 실천되고 있다. 오직 국민 혁명군 신편 제 4 군만이 지금 국민 정부 군사 위원회의 통솔 하에 있지 않고 직접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통솔 하에 있다. 이것은 국민 정부 군사 위원회가 1941년 1월 17일에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반혁명적 명령을 공포하여 이 부대를 《반란군》이라 선포하고 《해산》시킨 동시에 매일과 같이 국민당 군대를 출동시켜 이 부대를 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대는 화중에서 시종 여일하게 항일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네 가지 언약 중 첫째로부터 세째에 이르기까지의 언약을 시종 여일하게 실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 정부 군사 위원회의 통솔》을 다시금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산 명령을 취소하고 그 부대의 번호를 회복시켜 그 부대에게 네째 언약을 실천할 가능성을 지어 주기를 장 선생에게 요구한다.

공산당 문제에 관한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의 문건에는 상술한 몇 가지 외에 또 《기타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본 회의가 이미 전쟁이 종결된 후 1 년 내에 국민 대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 반포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국민 대회에서 제출하여 토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기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국민당의 독재 정치를 취소하며 파쇼적 특무 기관을 취소하며 전국적으로 민주 정치를 실시하며 인민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제적 통제와 가렴 잡세를 폐지하며 전국적으로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하는 토지 정책 및 중소 공업을 부조하며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는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민국 26년 9월 22일에 우리 당은 공동으로 국난을 타개하자는 선언에서 《민권 정치를 실현하며 국민 대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구국 방침을 결정한다. 중국 인민의 행복스럽고 윤택한 생활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리재민을 절실히 구제하며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국방 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의 고통을 제거하며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장 개석 선생도 이 선언이 발표된 다음 날(9월 23일) 담화를 발표하여 이 선언의 전부를 승인한 이상 공산당에 대하여서만 이 선언에 있는 네 가지 언약을 실천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장 선생 자신과 국민당 및 국민당 정부에 대하여서도 상술한 조문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장 선생은 지금 국민당의 총재일 뿐만 아니라 또 국민당 정부(이 정부의 표면 상 명칭은 《국민 정부》이다)의 주석이므로 상술한 민주 및 민생에 관한 조문들과 장 선생 자신이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전국 인민들에게 응낙한 무수한 언약들을 진정으로 실천하여야 할 것이며 온갖 언약들은 온 데 간 데 없이 계속 억누르기만 하면서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공산주의자들과 전국 인민은 사실을 보려 하며 더



는 기만적인 빈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만일 사실을 보여 준다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실을 보여 주지 않는다면 빈 말만으로는 사람을 오래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끝까지 항전하며 투항 위험을 제지하며 합작을 계속하며 내전의 위기를 제지하며 변구 및 적후 각 항일 근거지에 있어서의 민주 정치를 승인하며 신사군을 회복시키며 반공 운동을 제지하며 섬감녕 변구를 포위하고 있는 40만~50만의 군대를 철수하며 국민 참정회를 다시는 반공적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국민당의 어용 기관으로 만들지 말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개방하며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며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시키며 로동자의 대우를 개선하며 중소 공업을 부조하며 특무 기관을 취소하며 특무 교육을 취소하며 민주주의적 교육을 실시할 것——이것이 장 선생과 국민당에 대한 우리의 요구이다. 그 중의 대부분은 바로 당신들 자신이 언약한 것이다. 당신들이 만일 이러한 요구와 언약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 자신의 언약을 계속 실천할 것을 담보한다. 장 선생과 국민당이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량당 간의 담판을 회복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국민당이 취할 수 있는 세 개 방향 중에서 첫째 방향, 즉 투항과 내전의 방향은 장 개석 선생과 국민당에게 있어서 죽음의 길이다. 둘째 방향, 즉 빈 말로 사람을 속이고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압암리에서는 파쇼 독재를 잠시도 잊지 못 하고 적극적으로 내전을 준비하는 방향도 역시 장 선생과 국민당에게 있어서 살'길이 못 된다. 오

직 세째 방향, 즉 파쇼 독재와 내전의 그릇된 로선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고 민주주의와 합작의 올바른 로선을 실시하는 것만이 장 선생과 국민당의 살'길인 것이다. 그러나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장 선생과 국민당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아무런 사실도 보여 주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아무도 그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전국 인민은 극히 엄중한 투항의 위협과 내전의 위협에 대하여 여전히 경계하여야 한다.

모든 애국적 국민당 사람들은 단결하여 국민당 당국을 첫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 하게 하고 둘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 하게 하여야 하며 세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모든 애국적 항일 정당과 항일 인민들은 단결하여 국민당 당국을 첫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 하게 하고 둘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지 못 하게 하여야 하며 세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전체 없는 세계 대변화의 국면이 멀지 않아 닥쳐 올 것이다. 우리는 장 개석 선생과 국민당 사람들이 이 위대한 시각에 처하여 선처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모든 애국적 정당과 애국적 인민들이 이 위대한 시각에 처하여 선처하기를 바란다.

## 주 해

[1] 황포계 군인이란 황포 군관 학교에서 교관 또는 학생으로 있었던 국민당 내의 장령과 군관들을 가리킨다. 황포계는 국민당 군대 내에서의 장 개석의 직계이다.

## 조 직 하 라\*

(1943년 11월 29일)

오늘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섬감녕 번구의 농민 대중 가운데서, 공장에서, 부대에서, 기관 및 학교들에서 선출된 남녀 로력 영웅들과 생산에서의 모범 일'군들을 초대하였다. 이 기회에 나는 중앙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마디 말하려고 한다. 내가 말하려는 내용을 한 마디로 개괄한다면 그것은 즉 《조직하라》는 것이다. 번구의 농민 대중과 부대, 기관, 학교, 공장 내의 군중들은 작년 겨울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서북국에서 소집한 고급 간부 회의의 결정에 근거하여 금년 1년 동안 생산 운동을 진행하였다. 이 1년 간의 생산은 각 방면에서 매우 큰 성과와 진보를 가져 왔으며 이로 인하여 번구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사실은 고급 간부 회의의 방침이 정확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고 있다. 고급 간부 회의의 방침의 요점은 대중을 조직하는 것으로서 모든 백성의 힘과 모든 부대, 기관, 학교의 힘, 모든 남녀 로소의 완로동력과 반로동력을, 동원 조직할 수 있는 것은 제외 없이 죄다

---

\* 이것은 모 백동 동지가 섬감녕 번구 로력 영웅 초대 대회에서 한 연설이다.

동원 조직하여 하나의 로력 대군으로 되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전쟁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로동하는 군대도 가지고 있다. 전쟁하는 군대로서 우리는 팔로군과 신사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군대도 전쟁을 하는 한편 생산을 하는 두 개의 부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두 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군대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군중 공작을 하는 기능까지 더 첨부한다면 우리는 곤난을 극복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다. 가령 변구에서의 작년까지의 생산 운동의 성과가 그다지 크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하여 이 점을 완전히 증명하여 주기에 부족하였다고 한다면 금년의 성과는 이 점을 완전히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직접 목도하고 있는 바이다.

변구의 군대는 금년에 들어 서서 토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전사 한 사람이 평균 18 무씩 경작하였으며 먹는 것으로는 채소와 육류와 기름, 입고 신는 것으로는 솜옷과 털내의와 신과 양말, 거처하는 곳으로는 움'집과 가옥, 집회 용으로는 크고 작은 강당들, 일상 쓰는 것으로는 책상과 걸'상과 지필묵, 때는 것으로는 화목과 숯과 석탄 등 거의 전부들 다 자기 손으로 만들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였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식을 풍족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였다. 매개 전사들은 1년 동안에 석 달 동안만 생산에 종사하면 되었고 그 나머지 9개월 동안은 훈련과 전투에 종사할 수 있었다. 우리의 군대는 국민당 정부의 급양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니와 변구 정부의 급양이거나 백성들의

급양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으며 완전히 자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기야 말로 우리의 민족 해방 사업에서 그 얼마나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가! 지난 6년 반 동안의 항일 전쟁 중에 적들은 각 항일 근거지에서 모조리 불 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약탈하는 《삼광》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섬감녕 변구는 국민당의 이중 삼중의 봉쇄로 하여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상히 곤란한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 만일 우리의 군대가 싸울 줄 밖에 모른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변구의 군대는 생산할 줄 알게 되었으며 전방에 있는 군대도 일부분은 그것을 배웠으며 기타의 부분도 지금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영용한 전체 팔로군과 신사군이 저마다 싸울 줄 알 뿐만 아니라 군중 공작을 할 줄 알고 또 생산도 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여하한 곤란도 두렵지 않을 것이며 맹자가 말한 바와 같이 《천하 무적》(1)으로 될 것이다. 우리의 기관과 학교들도 금년에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 오게 되어 정부로부터 타 가는 금액은 경비의 소부분을 차지할 뿐이고 자체의 생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절대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작년에는 소재를 자급한 것이 겨우 50%에 불과하였지만 금년에는 100%로 자급하고 있으며 돼지와 양을 길러서 육류를 현저히 증가시켰으며 또 많은 수공 공장들을 개설하여 일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부대와 기관과 학교들에서 물질 문제를 전부 또는 대부분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까닭에 세금 징수의 방법으로 백성들에게서 공급 받던 부분이 감소되어 생산물 중에서 백성들 자신에게 돌아 가는 부

분이 증가되었다. 군민 쌍방이 다 생산을 발전시켰으며 다 의식이 풍족하여졌으므로 다 기뻐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공장들에서는 생산을 발전시켰고 특무를 숙청하였으므로 생산 능률이 크게 제고되었다. 전 변구에서는 많은 농업 로력 영웅, 공업 로력 영웅, 기관 및 학교 로력 영웅들이 배출되었으며 군대에서도 많은 로력 영웅들이 나타났다. 변구의 생산은 궤도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중의 힘을 조직하는 방침을 실행한 결과이다.

대중의 힘을 조직한다는 이것은 하나의 방침이다. 그러면 이와 상반되는 방침도 있는가? 있다. 그것은 군중 관점이 결여하여 대중에 의지하지 않고 대중을 조직하지 않으며 재정 기관과 공급 기관 및 상업 기관의 소부분 사람들을 조직하는 데만 주의를 돌리고 농촌, 부대, 기관, 학교, 공장의 광범한 대중을 조직하는 데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이며, 경제 사업을 재정 부족을 미봉하는 임시적인 수단으로만 보고 그것을 광범한 운동으로, 광범한 전선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하나의 방침이며 그릇된 방침이다. 과거 섬감녕 변구에 이와 같은 방침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시정하여 온 결과, 특히는 작년의 고급 간부 회의와 금년의 군중 운동을 거쳐서 아마 지금은 이러한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졌을 것이다. 화북과 화중의 각 근거지들에서는 전쟁이 긴장하고 또 지도 기관의 주의가 부족한 탓으로 대중적 생산 운동이 아직 광범히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 위원회의 금년 10월 1일 부 지

시(2)가 있는 후 각 지방들에서는 역시 명년에 생산 운동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전방의 조건은 섬감녕 번구보다 더 곤난하다. 거기에는 가렬한 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지방에는 엄중한 재해까지 들었다. 그러나 전쟁을 지탱하고 적들의 《삼광》 정책에 대처하며 재해를 구제하기 위하여서는 전체 당 조직과 정부와 군대 및 인민을 동원하여 적에게 타격을 주는 한편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방에서의 생산은 과거 몇 해 동안의 약간의 경험이 있는 데다가 또 금년 겨울의 사상 면, 조직 면 및 물질 면에서의 준비를 가한다면 내년에는 광범한 운동을 일으킬 수 있으며 또한 광범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전쟁 환경에 처하여 있는 전방에서는 아직 《의식이 풍족한》 정도까지는 될 수 없지만 《자기의 로력으로 곤난을 극복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제 면에서 대중을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는 합작사이다. 우리의 부대와 기관 및 학교에서의 대중적 생산에 억지로 합작사란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통일적 지도 하에서 서로 방조하며 함께 로동하는 방법으로 각 부문과 각 단위 및 각 개인의 물질적 수요를 해결하는 이런 대중적 생산 활동은 합작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일종의 합작사이다.

농민 대중은 수천 년 동안 모두가 개인 경리에 종사하여 왔으며 가가호호가 한 개의 생산 단위로 되어 있다. 이러한 분산적인 개인적 생산은 바로 봉건 통치의 경제 토대로서 농

민들 자신을 영원한 빈궁과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점차적으로 집단화하는 것이며 집단화의 유일한 길은 레닌의 말에 의하면 합작사를 거치는 것이다[3]. 변구에서 우리는 이미 허다한 농민 합작사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초급 형태에 불과한 이런 합작사들은 약간의 발전 단계를 더 거쳐야 앞으로 집단 농장이라고 불리는 쓰런식의 그러한 합작사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의 경제는 신민주주의적 경제이며 우리의 합작사는 목전에 있어서 아직도 개인 경리의 기초 우에(사유 재산의 기초 우에) 세워진 집단적 로력 조직이다. 여기에는 또 몇 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변공대》, 《찰공대》와 같은 농업 로동 호조 조직[4]으로서 이전에 강서성의 홍색 지역에서는 그것을 로동 호조사라 불렀고 경전대[5]라고도 불렀다. 지금 전방의 일부 지방에서는 역시 호조사라고 부르고 있다. 그 명칭이야 무엇이든 간에, 한 단위의 인수가 수명이든 수십 내지 수백 명이든 간에, 또 완로동력으로만 조직되든 혹은 반로동력이 참가하든 간에, 또 호조를 실시하는 면이 인력이든 축력이든 도구이든 간에, 농번기에 있어서는 심지어 집단적으로 식사를 하고 합숙을 하든 간에, 그리고 또 립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간에 요컨대 대중이 자원적으로 참가하는(강박적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집단적 호조 조직이라면 좋은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호조의 방법은 군중들 자신이 발명한 것이다. 이전에 우리는 강서성에서 대중의 경험을 총화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섬서성 북부에서 이러한 경험을 총화하였다. 작년의



고급 간부 회의에서의 창도와 금년 1년 간의 실적을 통하여 번구에서의 로동 호조는 꽤 질서가 잡히었으며 더욱 발전되었다. 금년에 번구의 많은 변공대들은 발갈이, 제조, 주수를 집단적으로 하였는데 그들의 수확은 작년보다 배나 증가되었다. 대중이 이렇게 큰 실지적 성과를 눈으로 보았으므로 내년에는 반드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내년 1년 동안에 전 번구의 몇 십만이나 되는 완로동력과 반로동력 전부를 합작사에 망라할 수 있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수년 내에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녀성 대중도 전부 동원되어 일정한 정도의 생산에 참가하여야 한다. 진달들도 모두 개조되어야 하며 생산에 참가하여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화북, 화중의 각 항일 근거지들에서는 대중의 자원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러한 집단적 호조의 생산 합작사를 광범히 조직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단적 호조의 농업 생산 합작사 외에 또 세 가지 형태의 합작사가 있다. 그것은 연안 남구 합작사와 같이 생산 합작, 소비 합작, 운수 합작(소금 운반), 신용 합작을 포함한 종합적인 합작사와 운수 합작사(소금 운수대) 및 수공업 합작사이다.

우리는 인민 대중의 이러한 네 종류의 합작사를 가지고 있고 또 부대, 기관,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로동하는 합작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중의 력량을 하나의 로력 대군으로 조직할 수가 있다. 이것은 인민 대중이 해방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며 빈궁으로부터 부유에로 나아가기 위

하여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며 또 항전의 승리를 위하여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공산당원은 누구나 다 대중의 로력을 조직할 줄 알아야 한다. 지식인 출신의 당원들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 오직 결심만 있다면 반년이나 1년 동안이면 배울 수 있다. 그들은 대중을 도와 생산을 조직하며 경험을 총화할 수 있다. 우리의 동지들이 대중의 로력을 조직할 줄 알게 되고 농민을 도와 농가 별 생산 계획을 세울 줄 알게 되고 변공대, 소금 운수대, 종합적인 합작사를 조직할 줄 알게 되고 군대의 생산, 기관 및 학교의 생산, 공장의 생산을 조직할 줄 알게 되고 생산 경쟁을 조직하며 로력 영웅을 표창하며 생산 전람회들 조직하며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휘시킬 줄 알게 되고 거기에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기능까지 소유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 낼 수 있을 것이며 전국 인민과 협력하여 새 국가를 창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나 반드시 대중과 결합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 당원이 한평생 방안에 들어앉아서 밖에 나가지 않고 풍파의 시련을 겪지 않고 세상과 외면한다면 이러한 당원이 중국 인민에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조금도 소용이 없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당원으로 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공산당원은 풍파의 시련을 겪어야 하며 세상과 접촉하여야 한다. 이 풍파란 군중 투쟁의 대폭풍우이며 이 세상이란 군중 투쟁의 큰 세상이다. 《구투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 량보다 낫다》는 이것은 대중에게

위대한 창발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 인민들 속에는 그야말로 수천 수만의 《제갈 량》이 있으며 농촌마다, 거리마다에 그 지방의 《제갈 량》이 있다. 우리는 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경험을 총화하여 그것을 더욱 훌륭하고 체계 있는 도리와 방법으로 되게 한 후 다시 그것을 대중에게 알려 주고(선전)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대중에게 호소하며 대중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줌으로써 대중으로 하여금 해방과 행복을 얻게 하여야 한다. 지방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동지들이 대중과 리탈되고 대중의 심리를 모르며 대중을 도와 생산을 조직하여 주거나 생활을 개선시켜 주지 못 한다면, 우선 자기 정력의 90%를 기울여 대중을 도와 《구민 식량》 문제를 해결하여 준 다음에는 10%의 정력만으로도 구국 헌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단지 그들에게서 구국 헌물세를 받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국민당의 작풍에 물 든 것이며 관료주의의 때가 낀 것이다. 국민당은 백성에게서 받아 낼 줄만 알고 백성에게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 만일 우리 공산당원도 이렇다면 이러한 당원의 작풍은 국민당의 작풍이며 이러한 당원의 얼굴에는 관료주의의 때가 가득 끼여 있으므로 더운 물을 떠다가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한다. 어느 항일 근거지의 지방 사업 중에도 이러한 관료주의적 작풍이 존재하고 있으며 균중 관점이 결여하여 대중과 리탈된 일부 동지들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작풍을 전결히 극복하여야만 대중과 밀접히 결합될 수 있다.

이 밖에 우리의 군대 사업 가운데는 또한 군벌주의적 작품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국민당의 작품이다. 왜냐하면 국민당의 군대는 대중과 리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군대는 군대와 인민의 관계에 있어서, 군대와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군대와 당의 관계에 있어서, 군관과 병사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 공작과 정치 공작의 관계에 있어서, 간부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결코 군벌주의적 폐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은 병사를 사랑하여야 하고 무관심하여서는 안 되며 체형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군대는 인민을 애호하여야 하며 인민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군대는 정부를 존중하고 당을 존중하여야 하며 독립성을 주장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팔로군과 신사군은 인민의 군대로서 과거에도 훌륭하였고 현재도 역시 훌륭하며 전국의 군대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군대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확실히 일종의 군벌주의적 폐단이 자라 나고 있다. 군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일부 동지들은 교만심이 자라 나서 병사에 대하여, 인민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당에 대하여 략폭하며 지방 사업을 하고 있는 동지들만 책망하고 자기 자신은 책망하지 않으며 성과만 보고 결함은 보지 않으며 칭찬만 듣기 좋아 하고 비판은 듣기 싫어 한다. 예를 들면 섬감녕 변구에 바로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의 고급 간부 회의와 군정 간부 회의 그리고 또 금년 음력설의 웅정 애민 운동과 웅군 운동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극복되었으나 아직도 약간의 잔재가 남아 있으므로

계속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복과 화중의 각 근거지들에도 이러한 폐단이 있으므로 그 곳의 당 조직과 군대는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는 데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 사업에 존재하는 것이든 군대 사업에 존재하는 것이든, 관료주의적 경향이건 군벌주의적 경향이건 그 결합의 성질은 동일한 것으로서 그것은 대중과 리탈되는 것이다. 우리 동지들은 절대 다수가 좋은 동지들이다. 결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단 비판을 전개하고 오유를 폭로하기만 하면 그 결합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자기 비판을 전개하고 그릇된 경향을 똑바로 보며 진심으로 고쳐야 한다. 만일 지방 사업에 있어서 관료주의적 경향을 비판하지 않거나 군대 사업에 있어서 군벌주의적 경향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당의 작품을 유지하려는 것이며 관료주의의 때와 군벌주의의 때를 자기의 깨끗한 얼굴에 그냥 남겨 두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당원이 아니다. 우리가 지방 사업에 있어서 관료주의적 경향을 없애 버리고 군대 사업에 있어서 군벌주의적 경향을 없애 버린다면 모든 사업은 순조롭게 전개될 것이다. 생산 운동도 물론 이러한 것이다.

우리 변구의 생산은 농민 대중에게 있어서나, 기관과 학교에 있어서나, 군대에 있어서나, 공장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군대와 인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큰 진보를 가져 오게 되어 변구의 면모가 이전 보다 크게 달라졌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동지들이 군중 관점

이 강화되었고 대중과 가일층 밀접히 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자만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계속 자기 비판을 전개하여야 하며 계속 진보를 가져 와야 한다. 우리는 생산에서도 계속 발전을 가져 와야 한다. 우리는 낮에 때가 있는 한 매일 세수를 하여야 하며 방안에 먼지가 있는 한 매일 소제를 하여야 한다. 우리의 지방 사업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적 경향과 군대 사업에 있어서의 군벌주의적 경향이 이미 근본적으로 극복되기는 하였지만 이런 악렬한 경향들은 또다시 자라 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와 중국의 반동 세력의 첩첩한 포위 속에 처하여 있으며 우리는 또 산만한 소부르쵸아지의 포위 속에 처하여 있으므로 극히 더러운 관료주의의 먼지와 군벌주의의 먼지가 매일과 같이 우리의 얼굴에 많이 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과를 올렸다고 자만 자족하여서는 안 된다. 깨끗이 하기 위하여, 먼지를 털어 버리기 위하여 매일 세수를 하고 소제를 하듯이 우리는 자만심을 억제하고 시시로 자기의 결합을 비판하여야 한다.

로력 영웅과 모범 생산 일'군 여러 분, 당신들은 인민의 지도자이며 당신들의 사업은 큰 성과를 올리였다. 나는 당신들에게도 자만하지 말 것을 바란다. 나는 당신들이 자기 관중으로, 룡동으로, 삼변으로, 수덕으로, 연속 각 현으로, 그리고 기관, 학교, 부대, 공장에 돌아 가서 인민을 지도하고 군중을 지도하여 사업을 더욱 잘 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자원성의 원칙에 의하여 대중을 합작사예로 더욱 많이 더욱 잘 조

적하기 바란다. 당신들이 돌아 가서 이 점을 실행하고 이 점을 선전하여 매년에 로력 영웅 대회를 다시 열 때에는 우리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 주 해

[1] 《쟁자·공손 축상》에서 인용한 것이다.

[2] 즉 본 선집에 수록된 《근거지에서서의 소작토 인하와 생산 및 용정 애민 운동을 전개하자》이다.

[3] 메닌의 《힘동 조합에 대하여》에 있다.

[4] 《변공대》, 《살공대》는 다 설감녕 빈구의 농업 생산에 있어서의 집단적 호조의 로력 조직이었다. 《변공》이란 즉 품앗이로서 이것은 농민들이 호상간에 토력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사람의 품과 소의 품을 바꾸고 소의 품과 소의 품을 바꾸며 사람의 품과 소의 품을 바꾸는 등등이 있다. 변공대에 참가한 농민은 각각 자기의 로력 또는 축력을 가지고 문번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매개 농가의 땅을 경작하여 주며 결산할 때에 가서는 품 한 자투에 품 한 자투씩 엷셈하고 나서 로력 또는 축력을 더 많이 낸 사람은 적게 낸 사람에게서 더 낸 것 만큼 품'값을 받았다. 《살공대》란 일반적으로 토지가 부족한 농민들로 조직된 것이다. 살공대에 참가한 농민들은 호상간 품앗이로 호조하는 외에 주르는 로력이 필요한 집에 가서 집단적으로 품을 팔았다.

[5] 본 선집 제 1 권의 《우리의 경제 정책》 주해 2문 보라.





# 학습과 시국\*

(1944년 4월 12일)

## 1

작년 겨울부터 시작하여 우리 당의 고급 간부들은 당력사에서서의 두 개 로선 문제를 학습하였다. 이 빈 학습은 광범한 고급 간부들의 정치 수준을 현저히 제고하였다. 이 빈 학습 과정에서 동지들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중앙 위원회 정치국은 그 중의 몇 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렸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경험을 연구함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

---

• 중국 공산당의 중앙 지도 기관과 고급 간부들이 1942년부터 1944년까지에 걸쳐 진행한 당 역사, 특히 1931년 초부터 1934년 만에 이르는 시기의 당 역사에 대한 토론은 맑스-레닌주의적 기초 우에서의 당내의 사상적 통일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다. 1935년 1월에 당 중앙이 귀주성 준의에서 진행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1931년 초부터 1934년 말까지의 《좌》경적인 그릇된 로선을 시정하고 당 중앙 지도 기관의 성원을 바꾸고 모택동 동지들 수반으로 하는 지도 부를 확립하고 당의 로선을 맑스-레닌주의의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 세웠으나 당의 많은 간부들 가운데서는 과거의 그릇된 로선의 성질에 대하여 아직 철저한 청산을 가하지 못 하고 있었다. 당 간부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수준을 한 걸음 제고하기 위하여 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은 1942년부터 1943년까지의

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중앙은 당내의 력사 문제를 간부들에게 사상적으로 완전히 똑똑하게 리해시키는 동시에 력사 상 오류를 범한 동지들에 대하여 결론을 내릴 때에는 관대히 하는 방침을 취함으로써 일면으로는 우리 당의 력사적 경험을 철저히 리해하여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며 또 일면으로는 모든 동지들과 단결하여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 당의 력사에는 진 독수의 그릇된 로선과 리 립삼의 그릇된 로선을 반대하는 큰 투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투쟁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방법 상에는 결함이 있었다. 즉 일방으로는 간부들에게 그 당시의 오류의 원인, 환경 및 이러한 오류에 대한 상세한 시정 방법을 사상적으로 철저히 리해시키지 못한 데서 그 후에 또다시 같은 성질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게 된 점이며 타방으로는 개인의 책임 추구에 너무 치중하고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더 많은 사람들과 단결하지 못한 점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결함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력사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개별적 동지들의 책임 면

기간에 당 력사에 관한 토론을 여러 차례 진행하였으며 그 후 또 1943년부터 1944년까지의 기간에 전 당의 고급 간부들을 명도하여 동일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토론은 1945년에 열린 당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를 위한 중요한 준비 사업으로 되었으며 그리 하여 이 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전례 없는 사상적, 정치적 일치를 가져 오게 되었다. 《학습과 시국》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 고급 간부 회의에서 이 토론과 관련하여 한 연설이다. 1931년 초부터 1934년 말까지의 《좌》경 기회주의 로선의 오류에 대한 당 중앙 위원회의 상세한 결론에 관하여서는 이 글의 부록——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의 《약간의 력사 문제에 관한 결정》을 참조하라.

에다 그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당시의 환경의 분석, 당시의 오유의 내용, 당시의 오유의 사회적 근원, 역사적 근원, 사상적 근원에 중점을 두고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방침을 실시함으로써 사상을 구명하는 동시에 동지들과 단결한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에게 대한 처리에 있어서 어물어물하여 넘기지도 않거니와 동지를 해치지도 않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리 당의 통일 발전의 표식의 하나이다.

(2)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나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일체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제 4 차 전원회의(1)로부터 준의 회의(2)에 이르는 시기의 중앙의 경도로 선 문제에 대하여서는 두 개 면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즉 일면으로는 그 시기의 중앙 지도 기관이 취한 정치적 전술과 군사적 전술 및 간부 정책은 그 주요한 면에서 모두가 그릇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하며 다른 일면으로는 당시 오유를 범한 동지들이 장 개석을 반대하며 토지 혁명과 홍군의 투쟁을 주장하는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에서는 우리들과 아무런 논쟁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여야 한다. 전술 면에 있어서도 역시 분석을 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토지 문제에 있어서 당시의 오유는 지주에게는 토지를 분여하지 않고 부농에게는 나쁜 토지를 분여한 극좌적 정책을 실시한 데 있었다. 그러나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그것을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분여하는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와 일치한 것이었다. 케닌은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파

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 맑스주의의 산 정신》<sup>[3]</sup>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분석하는 정신이 부족한 까닭에 복잡한 사물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분석과 연구를 하려 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긍정하거나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간단한 결론을 내리기 좋아 한다. 우리의 신문 지상에 분석적인 글이 적은 것과 당내에 분석하는 습관이 아직 충분히 양성되지 못한 것은 이러한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상태를 개선하여야 한다.

(3) 당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 문헌의 토론에 관하여.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의 로선이 기본적으로 정확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대회에서 현시기의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격의 혁명이라는 것을 확정한 것, 당시의 정세는 혁명의 두 고조 사이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확정한 것, 기회주의와 맹동주의를 비판한 것, 10대 강령<sup>[4]</sup>을 발표한 것 등은 모두 옳았기 때문이다.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에는 결함도 있었다. 예를 들면 중국 혁명의 비상한 장기성 및 중국 혁명에 있어서의 농촌 근거지의 비상한 중요성을 지적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약간의 결함과 오류들이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는 우리 당의 력사 상에서 진보적 역할을 놀았다.

(4) 1931년 상해의 립시 중앙 및 그 후 이 립시 중앙이 소집한 제 5 차 전원 회의<sup>[5]</sup>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중앙은 그것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 선거 수속이 불완비하였다는 것과 그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5) 당내 역사 상의 종파 문제에 관하여. 우리 당의 역사 상에서 한때 존재하였으며 또 좋지 못한 작용을 일으킨 종파가 준의 회의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쳐 지금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이번 당내에서의 두 개 로선에 대한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종파가 역사 상에 한때 존재하였고 또 좋지 못한 작용을 일으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1935년 1월의 준의 회의, 1938년 10월의 당 중앙 위원회 제 6기 제 6 차 전원 회의, 1941년 9월의 정치국 확대 회의<sup>[6]</sup>, 1942년의 전 당'적 정풍과 1943년 겨울에 시작된 당내 역사 상에서의 두 개 로선의 투쟁에 대한 학습 등 이러한 여러 차례의 당내 투쟁에 의한 변화가 있는 후에도 본래의 그릇된 정치 강령과 조직 형태를 가진 그러한 종파가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지금에 와서 과거의 종파는 이미 없어졌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교조주의와 경험주의 사상 형태의 잔재일 따름이며 우리가 정풍 학습을 계속 심각하게 진행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퇴치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당내에 엄중하게 존재하며 거의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맹목성을 띤 산두주의적 경향<sup>[7]</sup>이다. 페를 들면 투쟁 역사가 다르고 사업하는 지역이 다르고(이 근거지와 저 근거지가 다르며 적 점령구와 국민당 통치구와 혁명 근거지가 다른 것) 사업 부문이 다른(이 부분의 군대와 저 부분의 군

대가 다르며 이러한 사업과 저러한 사업이 다른 것) 데서 산생된, 각 부분의 동지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 하고 존중하지 못 하고 단결하지 못 하는 현상은 일론 보기에는 심상한 것 같으나 사실인즉 엄중하게 당의 통일을 방해하며 당의 전투력의 강화를 방해하는 것이다. 산두주의의 사회적, 역사적 근원은 중국에 소부르조아지가 특히 많은 것과 농촌 근거지가 장기적으로 적에 의하여 분할되어 있는 데 있으며 당내 교양 사업의 부족은 그 주관적 원인으로 된다. 이러한 원인을 지적하고 동지들을 설복하여 맹목성을 버리고 자각성을 높이게 하며 동지들 간의 사상을 일치시키며 동지들 간의 호상 이해와 호상 존중을 창도하여 전 당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에서 말한 문제들에 대하여 전 당'적으로 명확한 리해를 가져 오게 된다면 이번 당내 학습의 성공을 꼭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혁명의 승리를 꼭 보장하게 될 것이다.

## 2

현 시국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반파쇼 진영의 강화와 파쇼 진영의 쇠퇴이고 다른 하나는 반파쇼 진영 내부에서의 인민 세력의 강화와 반인민 세력의 쇠퇴이다. 전자의 특징은 아주 명확하여 누구나 그것을 간파할 수 있다. 히틀러는 멀지 않아 타도될 것이고 일본 침략자도 패망 과정에 처하여 있다. 후자의 특징은 아직 그리 명확하지 못 하여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아직 간파하지 못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구라파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중국에서 날로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인민 세력의 강화는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항일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발전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37년부터 1940년까지가 제 1 단계이다. 이 단계의 첫 2년 동안, 즉 1937년과 1938년에 있어서 일본 군벌은 국민당을 중시하고 공산당을 경시하였기 때문에 그 주요한 전력으로 국민당 전선을 진공하면서 국민당에 대하여 군사적 타격을 주로 하고 정치적 투항 권유를 보조로 하는 정책을 썼고 공산당이 령도하는 항일 근거지에 대하여서는 소수의 공산당 사람들이 거기서 약간의 유격전을 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생각하여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38년 10월에 무한을 점령한 후부터 일본 제국주의자는 이 정책을 변경하여 공산당을 중시하고 국민당을 경시하기 시작하였으며 정치적 투항 권유를 주로 하고 군사적 타격을 보조로 하는 정책으로써 국민당에 대처하는 한 편 점차적으로 그 주력을 옮겨다가 공산당에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왜냐 하면 이 때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있어서 국민당은 이미 두려운 것이 아니고 공산당이 두려운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1937년과 1938년에 있어서 국민당은 항전에 비교적 노력하였고 우리 당과의 관계도 비교적 좋았으며 인민의 항일 운동에 대하여 많은 제한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그래도 비교적 많은 자유를 용허하였다. 그

러나 무한이 함락된 후부터 전쟁에서의 실패로 하여 그리고 공산당을 적대시하는 심리가 자라 나는 데서 국민당은 점차 반동으로 나아갔으며 반공 활동에는 점차 적극적으로 되고 대일 항전에는 점차 소극적이 되었다. 공산당은 내전 시기에 최절을 당한 결과로 1937년에는 겨우 4만 명 가량의 조직된 당원과 3만여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일본 군벌에게 경시 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40년에 와서는 당원이 80만으로 장성되고 군대는 근 50만으로 장성되었으며 근 거지의 인구는 한 편에만 량곡과 세금을 납부하는 지구와 량편에 다 량곡과 세금을 납부하는 지구(8)를 합하여 약 1억에 달하게 되었다. 수년 내에 우리 당은 광대한 해방구 전장을 개척하고 국민당 전장에 대한 일본 침략군 주력의 전략적 진공을 5년 반 동안이나 중지시킬 수 있는 정도로 일본군의 주력을 자기의 주위에 끌어 당겨 국민당 전장의 위기를 만회하였으며 장기적 항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의 일부 동지들은 일본 제국주의를 경시하며(이로 인하여 전쟁의 장기성 및 잔혹성에 주의를 돌리지 않고 대병단에 의한 운동진을 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유격 전쟁을 경시하였다) 국민당에 의존하며 명석한 두뇌와 독자적인 정책이 결여한(이로 인하여 국민당에 대한 투항주의가 발생되었으며 대담하게 대중을 발동시켜 적후에 항일 민주 근거지를 창설하고 우리 당이 령도하는 군대를 대량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정책에 대하여 동요가 발생되었다) 오유를 범하였다. 동시에 우리 당이 대량적인 신입 당원을 받아 들였는데 그들에



게는 아직 경험이 없었고 일체 적후 근거지도 모두 새로 창설된 것이어서 아직 공고화되지 못 하였다. 이 단계에 있어서 시국의 발전과 당 및 군대의 장성으로 하여 당내에는 또 교만심이 자라 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당내의 우경적 편향을 퇴치하고 독자적인 정책을 집행하여 일본 제국주의에게 타격을 주었고 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팔로군, 신사군을 장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또 국민당의 제 1 차 반공 고조를 격퇴하였다.

1941년과 1942년이 제 2 단계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는 영, 미를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한을 함락한 후부터 변경한 자기들의 방침, 즉 국민당을 주요 타격 대상으로 하던 데로부터 공산당을 주요 타격 대상으로 하는 데로 고친 방침을 한층 더 강조하면서 그 주력을 공산당이 령도하는 모든 근거지의 주위에 가일층 집중시켜 편속적인 《소탕》 전쟁과 잔인한 《삼광》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주로 우리 당을 타격하였으며 그리 하여 우리 당은 1941년과 1942년의 두 해 동안에 극도로 곤난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이 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은 근거지가 축소되고 인구가 5,000만 이하로 감소되었으며 팔로군도 30여만으로 축소되고 간부의 손실도 매우 많았으며 재정, 경제가 극도로 곤난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국민당은 또 손이 났다고 생각하여 백방으로 우리 당을 반대하면서 제 2 차 반공 고조를 일으키고 일제와 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렇

듯 곤란한 처지는 공산주의자들을 교양하였으며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였다. 우리는 적의 《소탕》 전쟁, 《잠식》 정책[9], 《치안 강화》 운동[10], 《삼광》 정책, 자수 정책을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를 배웠고 통일 전선 정권의 《3.3 제》 정책, 토지 정책, 삼광 정돈, 정병 간정, 통일적 령도, 용정 애민, 생산 발전 등 사업을 이미 배웠거나 또는 배우기 시작하여 허다한 결함들을 퇴치하였으며 또한 제 1 단계에 있어서 자신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교만심도 퇴치하여 버렸다. 이 단계에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보았으나 그래도 엄연히 버티고 서서 일본 침략자의 진공을 격퇴하는 한 편 또 국민당의 제 2 차 반공 고조를 격퇴하였다. 국민당이 공산당을 반대하고 우리 당이 국민당의 반공 정책에 대하여 부득이 자위적 투쟁을 진행하게 된 이런 정형으로 하여 당내에는 또 극좌적 편향이 자라 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국공 합작이 곧 결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주를 지나치게 타격하며 당외 인사들과의 단결에 주의를 돌리지 않은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극좌적 편향도 우리들에 의하여 극복되었다. 우리는 마찰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리유가 있고 리점이 있고 절도가 있게 한다는 원칙을 지적하고 통일 전선 내에서 단결도 하고 투쟁도 하며 투쟁으로써 단결을 도모할 필요성을 지적하여 국내 및 근거지 내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유지하였다.

1943년부터 지금까지가 제 3 단계이다. 우리의 제반 정책은 가일층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삼광 정돈과 생산 발전

이라는 이 두 가지 사업은 본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우리 당을 사상적 기초와 물질적 기초의 두 면에서 불패의 지반에 서게 하였다. 이 밖에 우리는 또 작년에 간부 심사와 특무반대에 관한 정책을 이미 습득하였거나 습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우리의 근거지의 면적은 다시 확대되었다. 근거지의 인구는 한 편에만 량곡과 세금을 납부하는 지구와 량편에 다 량곡과 세금을 납부하는 지구를 합하여 8,000여만으로 증가되었으며 군대는 다시 47만으로 증가되었고 민병은 227만이 있게 되었으며 당원은 90여만으로 장성되었다.

1943년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일본 군벌의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며 여전히 주로 공산당에 타격을 가하였다. 1941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3년 남짓한 동안 중국에 있는 일본군의 60% 이상은 우리 당이 령도하는 각 항일 근거지를 진공하고 있다. 적후에 남아 있던 국민당의 수십만 군대는 3년 남짓한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타격에 견디어 내지 못하여 약 반수는 적에게 투항하였고 약 반수는 적에게 소멸 당하였으며 남아 있는 것과 빠져 나간 수는 극히 적다. 적에게 투항한 이러한 국민당 군대가 되돌아 서서 우리 당을 진공하게 되어 우리 당은 또 90% 이상의 괴뢰군을 항격하게 되었다. 국민당은 단지 40%도 못 되는 일본군과 10%도 못 되는 괴뢰군을 항격하고 있을 뿐이다. 1938년 10월에 무한이 함락된 후부터 만 5년 반 동안 일본 군벌은 국민당 전장에 대하여 전략적 진공을 한 적이 없고 단지 몇 차례의 비교적 큰 전역적 행동(절강-강서, 장사, 호북성 서부, 하남성 남

부, 상덕)이 있었을 뿐이며 그것마저 당일에 출격하였다가 당일에 돌아 가는 정도였으며 그 주요한 주의력은 여전히 우리 당이 령도하는 항일 근거지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국민당은 적이 오면 산으로 도망 치는 정책과 관전 정책을 취하여 적이 오면 싸우는 체 하다가 말고 적이 물러 가면 수수 방관하였다. 1943년에 국민당의 국내 정책은 가일층 반동화되어 제 3 차 반공 고조를 일으켰으나 그것도 역시 우리들에게 격퇴 당하였다.

1943년부터 금년 봄에 이르러 일본 침략자는 태평양 전선에서 점차 실패하게 되고 미국의 반공격이 강화되었으며 서방의 히틀러는 쓰런 붉은 군대의 강력한 타격에 의하여 곧 쓰러질 형편에 처하여 있다. 일본 제국주의는 자기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목적으로 평한선과 월한선 전체를 소탕시키려는 계획을 생각해 내었으며 또 중경의 국민당에 대한 투항 권유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서 다시 한 번 타격을 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국민당 전선을 대대적으로 진공할 계획을 하고 있다. 하남 전역<sup>[11]</sup>은 벌써 1 개월 이상이나 계속되고 있다. 적들은 몇 개 사단에 불과한데 국민당은 수십만의 군대를 가지고도 싸우지 못하고 패주하였으며 단지 잡패군만이 그래도 좀 싸울 수 있는 편이다. 탕은 백 부대는 군관이 병사와 리탈되고 군대가 인민과 리탈되어 형편 없이 혼란하며 3 분의 2 이상을 손실 당하였다. 호종남이 하남성에 파전한 몇 개 사도 적과 접전하자 마자 괴멸 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정형은 완전히 지난 수년 간 국민당

이 반동 정책을 실시하여 온 결과이다. 무한이 함락되어서부터 5년 반 동안 공산당이 령도하는 해방구의 전장은 일본군과 괴뢰군의 주력을 항격하는 중임을 담당하여 왔다. 금후에 약간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변화도 단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것이다. 왜냐 하면 국민당은 5년 반 동안 항일에 소극적이고 반공에 적극적인 반동적 정책에 의하여 조성된 극도로 부패한 상태 하에서 금후 반드시 엄청난 실패를 당할 것이며 그 때에 가서는 적과 괴뢰군에 대한 우리 당의 항격 임무가 또 더 무거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당은 5년 반 동안의 수수 방관에서 전투력 상실의 결과를 가져 왔다. 공산당은 5년 반 동안의 악전 고투에서 전투력 강화의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런 정형은 금후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동지들이 보는 바와 같이 1937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7년 동안에 우리 당이 령도하는 인민 민주주의의 력량은 상승, 하강, 재상승의 세 단계를 거치었다. 우리 당은 일본 침략자의 가혹한 진공을 항격하였으며 광대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당과 군대를 크게 발전시켰으며 국민당의 3차에 걸친 대규모적 반공 고조를 격퇴하였으며 당내에 발생한 우적 및 《좌》적인 그릇된 사상을 극복하였으며 전당'적으로 많은 귀중한 경험들을 쌓았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7년간에 한 사업의 총화이다.

지금의 임무는 과거보다 더 중대한 책임을 짊어 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하한 정세 하에서나를 물론하고 일

본 침략자를 중국에서 몰아 낼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 우리 군대 및 우리의 근거지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가일층 공고화하여야 하며 대도시와 교통 요로에 대한 사업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도시 사업과 근거지 사업을 동등하게 중요한 자리에 올려 놓아야 한다.

근거지의 사업은 제 1 단계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으나 그것이 공고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 2 단계에 들어서 서서적의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자 그만 축소되어 버렸다. 제 2 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이 명도하는 모든 항일 근거지들은 다 준엄한 시련을 받아 제 1 단계보다 펍 나아졌으며 간부와 당원의 사상 수준과 정책 수준이 훨씬 제고되었으며 지금까지 알지 못 하던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러나 사상을 타개하고 정책을 학습함에 있어서 아직도 시간이 필요되며 우리에게서 아직도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다. 우리 당의 력량이 아직 그다지 강대하지 못 하고 당내가 그다지 통일되어 있지 못 하며 그다지 공고하지 못 하므로 지금보다 더 큰 책임을 담당해 낼 수 없다. 금후의 문제는 항전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우리 군대 및 우리의 근거지를 가일층 발전시키고 가일층 공고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거대한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첫째로 필요한 사상적 및 물질적 준비인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없이는 우리는 일본 침략자를 몰아 낼 수 없으며 전 중국을 해방할 수 없다.

대도시와 교통 요로에 대한 사업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하여 오지 못 하였다. 만일 우리가 지금에 와서도 대도시와 교통 요로에서 일제의 압박을 받고 있는 천백만 근로 대중과 시민 대중을 우리 당 주위에 묶어 세우지 않고 대중의 무장 봉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군대와 농촌 근거지는 도시의 배합을 얻지 못 하게 되어 여러 가지 곤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농촌에 있었으며 농촌을 료해할 것과 농촌 근거지를 건설할 것을 창도한 것은 필요한 것이었다. 당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결정한 도시 봉기를 준비한다는 과업은 이 10여 년 동안에 실시되지 않았으며 또 실시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달라졌다.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의 결정은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 이후에 실시하게 될 것이다. 우리 당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는 멀지 않아 열리게 될 것이며 이 대표 대회에서는 도시 사업을 강화하며 전국적 승리를 쟁취함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게 될 것이다.

이 며칠 동안 진행되고 있는 섬감녕 변구 공업 회의는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1937년 당시 변구에는 공장 노동자가 700 명 뿐이었으나 1942년에는 7,000 명으로, 지금에는 1만 2,000 명으로 늘었다. 결코 이러한 수'자를 경시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근거지에서 대도시의 상공업과 교통 기관을 여하히 관리할 것인가를 잘 배워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작 그 때에 가서는 어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도시와 교통 요로에서의 무장 봉기를 준비하는 것과 상공업의 관리 방법을 배우는 것은 두 번째로 필요한 사

상적 및 물질적 준비이다. 이러한 준비가 없어도 우리는 일본 침략자를 몰아 낼 수 없으며 전 중국을 해방할 수 없다.

### 3

새로운 승리를 전취하기 위하여 당 간부들에게 보따리를 벗어 던질 것과 기계를 돌릴 것을 창도하여야 한다. 보따리를 벗어 던진다는 것은 즉 우리에게 있는 많은 정신적 부담들을 없애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많은 것들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맹목적이 되거나 자각성이 부족하면 우리의 보따리로 될 수 있으며 부담으로 될 수 있다. 레를 들면 파오를 범한 사람은 여하튼 자기는 파오를 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위축 당할 수 있고 또 파오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는 파오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여 교만하여질 수 있다. 사업에 성과가 없는 사람은 비판 실망할 수 있고 사업에 성과가 있는 사람은 우쭐거릴 수 있다. 투쟁 력사가 짧은 사람은 투쟁 력사가 짧다 하여 무책임할 수 있고 투쟁 력사가 긴 사람은 투쟁 력사가 길다 하여 자기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동자, 농민 출신은 영광스러운 출신으로 하여 지식인들을 멸시할 수 있고 지식인은 또 이러저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여 노동자, 농민 출신을 멸시할 수 있다. 각종 실무에서의 특장은 모두 자고자대하고 남을 경시하는 밑천으로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연령까지도 교만의 도구로 될 수 있다. 즉 젊은 사람은 총명하고 재주가 있다 하여 나이 많은



사람을 알볼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여 젊은 사람을 알볼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각성이 없으면 그것들은 부담으로 되거나 보따리로 되는 것이다. 일부 동지들이 높이 올라 앉아서 대중을 리탈하며 파오를 자주 범하는 것은 이러한 보따리를 짊어 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자기가 지고 있는 보따리를 검사하여 보고 그것을 벗어 던짐으로써 자기의 정신을 해방시키는 것은 실로 대중과 련계를 맺으며 파오를 덜 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제 조건의 하나인 것이다. 우리 당의 역사에는 큰 교만성을 표현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때마다 손해를 보았던 것이다. 제 1 차는 1927년의 상반년이었다. 당시 북벌군이 무한에 이르게 되자 일부 동지들은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국민당이 우리를 습격하리라는 것을 잊어 버렸던 것이다. 그 결과 진 독수 로선의 오류를 범하여 혁명을 실패로 돌아 가게 하고 말았다. 제 2 차는 1930년이었다. 홍군이 장 개석과 풍 옥상, 염 석산 간에 대전이 벌어진<sup>[12]</sup> 조건을 리용하여 약간의 승전을 하게 되자 또 일부 동지들은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는 리 립삼 로선의 오류를 범하여 또 혁명 력량에 일부의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제 3 차는 1931년이었다. 홍군이 제 3 차 《포위 토벌》을 격파하고 이어서 전국 인민들이 일본의 침공을 반대하여 치렬한 항일 운동을 전개하게 되자 또 일부 동지들은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더욱 엄중한 로선적 오

유를 범하여 고생스럽게 모아 놓은 혁명 력량의 약 90%를 손실 당하게 되었다. 제 4 차는 1938년이였다. 항전이 시작되고 통일 전선이 결성되자 또 일부 동지들은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진 독수 로선과 유사한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 하여 이러한 동지들의 그릇된 사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방들의 혁명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전체 당원 동지들은 이 몇 차례의 교만과 몇 차례의 오류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자에 우리는 리 자성에 대하여 쓴 팽 말약의 글<sup>[13]</sup>을 출판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동지들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아 승리하였을 때 교만을 부리는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계를 돌려야 한다는 것은 즉 사유 기관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 사람들은 보따리도 없고 대충과 런계하는 우점도 가지고 있으나 잘 사색할 줄 모르고 머리를 써 가며 많이 그리고 애 써 생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역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 하게 된다. 또 일부 사람들은 보따리를 지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쓰려 하지 않으며 그들의 총명은 보따리에 눌리어 있다. 케닌과 쓰딸린은 항상 사람들에게 잘 사색하라고 권고하였는데 우리도 역시 그렇게 권고하는 바이다. 두뇌라는 이 기관의 기능은 전문적으로 사유하는 데 있다. 맹자는 《마음의 판능은 생각하는 것이다.》<sup>[14]</sup>라고 말한 일이 있다. 그는 두뇌의 기능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를 내렸다. 무슨 일이나 머리를 써서 잘

생각하여야 한다. 속담에 《람미간을 찌프리면 피가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즉 많이 생각하면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다. 우리 당내에 있는 농후한 맹목성을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사색할 것을 창도하여야 하며 사물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며 분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습관이 우리 당내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만일 보따리도 벗어 던졌고 기계도 돌리어 몸도 거뭇하여지고 사색도 할 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 주 해

[1] 제 4 차 전권 회의란 1931년 1월의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4 차 전권 회의물 가리킨다. 이 글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 제 3 부분을 보라.

[2] 이 글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 제 3 부분을 보라.

[3] 에닌의 《공산주의》에 있다.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 주해 10을 참조하라.

[4] 본 선집 제 1 권의 《일본 제국주의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 주해 29를 보라.

[5] 제 5 차 전권 회의란 1931년 1월의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5 차 전권 회의물 가리킨다. 이 글의 부록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정》 제 3 부분을 참조하라.

[6] 이 회의에서는 역사 상에서의, 특히 제 2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정치 로선 문제를 검토하였다.

[7] 산두주의적 경향이란 일종의 소그우파주의적 경향으로서 주로 장기적 유격 전쟁 행정에서, 농촌 혁명 근거지가 분산되고 호상간에 연계가 없는 정형 하에서 산생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지들은 처음에는 그 태반이 산악 지대에 창설되어 하나의 집단이 마치 하나의 산꼭대기라도 같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릇된 경향을 산두주의라고 불렀다.

[8] 여기서 말하는 한 편에만 양곡과 세금을 납부하는 지구라는 것은 근거지 중의 비교적 공고한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의 인민들은 항일 민주 정부에만 양곡과 세금을 납부하였다. 향편에 다 양곡과 세금을 납부하는 지구라는 것은 근거지의 변연 지구와 유격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에는 적이 항상 와서 교란하기 때문에 인민들은 항일 민주 정부에 양곡과 세금을 납부하는 외에 또 항상 적과 피뢰 정권에도 약간의 양곡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9]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항일 근거지에 대한 대규모적 진공에 실패한 후에 실시한 방법이다. 즉 신속히 단번에 《병탄》하는 방법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점차 《감식》하는 방법으로 고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튼튼히 뿌리를 박고 온당하게 쳐들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분할하는 조치를 취하여 항일 근거지를 축소시키고 자기들의 점령구를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10] 1941년 3월 경에 화북의 일본 침략자와 민족 반역자들은 소위 《치안 강화 운동》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치안 강화》라는 것은 즉 수색을 하며 보급 제도를 실시하며 호구 조사를 하며 피뢰군을 조직함으로써 항일 역량을 탄압하는 것이었다.

[11] 1944년 3월 일본 침략자는 5만~6만의 병력을 사용하여 하남 전역을 발동하였다. 국민당 군대의 장 쟁문, 탕 은백, 호 중남 등의 부대 40만 명은 일본 침략군 앞에서 여지 없이 붕괴되어 정주, 탁양 등 38 개 현이 면'이 합락되고 탕 은백 부대는 20만 명이나 손실 당하였다.

[12] 장 개석과 풍 옥상, 엄 석산 간의 대전이만 동해, 진포 두 철도 언선에서 일어난 장 개석과 풍 옥상, 엄 석산 간의 대규모적 군벌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다. 전쟁은 1930년 5월에 시작되어 10월에 끝났는데 이 반년 동안에 쌍방의 사상자가 30만 명이나 되었다.

[13] 1944년에 작 말약은 명조 말년에 리 자성이 명도한 농민 봉기의 승리 300 주년을 기념하여 《갑신 300년 제》라는 글을 썼다. 이 글에서는 1644년에 리 자성의 농민 봉기군이 북경에 쳐들어 간 후 일부 지도자들의 생활이 부패하여지고 종파 싸움이 발생되어 1645년에 실패 당하고 만 사실을 설명하였다. 이 글은 처음에 중경 《신화 일보》지에 발표되었고 그 후 인안과 각 해방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14] 《맹자·고자 상》에서 인용하였다.

## 부록: 약간의 력사 문제에 관한 결정

(1945년 4월 20일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에서 채택)

### ( 1 )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된 이래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의 결합을 자기의 모든 사업에서 지침으로 삼아 왔으며 중국 혁명에 관한 모택동 동지의 리론과 실천은 바로 이러한 결합의 대표적인 것이다. 우리 당이 창건되자 중국 혁명의 새로운 단계——모택동 동지가 지적한 신민주주의 혁명의 단계가 시작되었다. 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24년 간(1921년부터 1945년까지)의 투쟁 과정에서, 즉 제 1 차 대혁명, 토지 혁명, 항일 전쟁의 세 력사적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은 시종 일관 광범한 중국 인민을 령도하여 중국 인민의 원수——제국주의 및 봉건주의에 대하여 비할 데 없이 간고한 혁명 투쟁을 진행하여 위대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얻었다. 당은 투쟁 과정에서 자기의 수령——모택동 동지를 낳았다.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와 중국 인민을 대표하여 모택동 동지는 인류의 최고의 지혜인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 리론을 중국과 같은 이러한

나라에, 즉 농민을 그 주요 대중으로 하며 반제, 반봉건 투쟁을 직접적 임무로 하는,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정형이 극히 복잡하고 투쟁이 극히 곤란한 반봉건, 반식민지적인 큰 나라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식민지, 반식민지 문제에 관한 레닌, 스탈린의 학설과 중국 혁명 문제에 관한 스탈린의 학설을 찬란하게 발전시켰다. 올바른 맑스-레닌주의 로선을 견지하고 이에 배치되는 온갖 그릇된 사상들과 승리적인 투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당은 비로소 세 시기에 걸쳐 위대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이 사상, 정치, 조직적으로 전체 없이 강화, 통일되었으며 오늘 120여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고 1억에 가까운 인민과 100만에 가까운 군대를 가진 중국 해방구를 령도하고 있는 이러한 강대한 혁명 역량으로 발전되었으며 전국 인민의 항일 전쟁과 해방 사업의 위대한 중심으로 되었다.

## (2)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첫 시기에 있어서, 즉 1921년부터 1927년까지, 특히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중국 인민의 반제, 반봉건적 대혁명은 국제 공산당의 올바른 지도 하에서와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령도의 영향, 추동 및 조직 하에서 급속한 발전과 위대한 승리를 가져 왔다. 중국 공산당의 전체 동지들은 이 대혁명 가운데서 거세찬 혁명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전국의 로동 운동, 청년 운동 및 농민 운동을 발전시켰으며 국민당의 재조직과 국민 혁명군의 창건을 추동, 방조하

였으며 동정과 북벌의 정치적 골간으로 되었으며 전국의 위대한 반제, 반봉건적 투쟁을 령도하였으며 그리 하여 중국 혁명사에 극히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남겨 놓았다. 그러나 당시의 동맹자였던 국민당 내의 반동 집단이 1927년에 이 혁명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제국주의와 국민당 반동 집단의 연합 력량이 너무나 강대하였기 때문에, 특히는 이 혁명의 최후 한 시기(약 반년 동안)에 진 독수를 대표자로 하는 당내의 우경 사상이 투항주의적 로선으로 발전되고 당의 지도 기관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여 국제 공산당과 쓰달린 동지의 많은 영명한 지시들을 거부하고 모택동 동지 및 기타 동지들의 옳바른 의견을 접수하지 않은 결과 국민당이 혁명을 배반하고 인민을 돌연히 습격하였을 때 당과 인민이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이 혁명은 결국 실패로 돌아 가고 말았던 것이다.

1927년 혁명이 실패된 때로부터 1937년 항일 전쟁이 폭발되기까지의 10년 동안에 중국 공산당은, 또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반혁명의 극단적인 공포 통치 하에서 전 당이 일치 단결하여 반제, 반봉건의 큰 기치를 계속 추켜 들고 광범한 로동자, 농민, 병사, 혁명적 지식인 및 기타의 혁명적 대중을 령도하여 정치, 군사 및 사상 상에서의 위대한 전투를 진행하였다. 이 전투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은 홍군을 창건하였으며 로동자, 농민, 병사 대표 회의의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토지를 가난한 농민들에게 분여하였으며 당시의 국민당 반동 정부의 진공과 1931년 《9. 18》

이래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항격하였다. 이리 하여 중국 인민의 민족 해방과 사회 해방을 위한 신민주주의 위업은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전 당은 당을 분열시키며 당을 배반하려는 트로츠키-진 독수파[1]와 라 장룡[2], 장 국도[3] 등의 반혁명적 행위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일치 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총적 원칙 하에서의 당의 통일을 보장하였다. 이 10년 간에 있어서의 당의 이 총방침과 이 총방침을 실천하기 위한 영웅한 투쟁은 전'적으로 옳았으며 또 필요하였다. 무수한 당원들과 무수한 인민들 그리고 수 많은 당의 혁명가들은 당시 각 전선에서 거세찬 혁명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의 희생적 투쟁 정신, 불요불굴의 정신,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이어 서는 정신과 그 공적은 민족의 력사에서 길이 빛날 것이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함일 전쟁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며 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인민 전쟁의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중국 공산당을 그 골간으로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견지할 수 없을 것이며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의심할 것이 없다.

특히 우리가 경하하여야 할 것은 우리 당이 모택동 동지를 대표로 하여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혁명적 학설을 중국의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에서 10년 동안에 거대한 발전을 가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 당은 토지 혁명 전쟁의 최후 시기에 있어서 마침내 중앙 및 전 당에서의 모택동 동지의 령도를 확립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에 있



어서의 중국 공산당의 최대의 성과이며 중국 인민이 자기의 해방을 얻는 데 있어서의 최대의 담보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10년 동안에 우리 당이 위대한 성과만 거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있어서는 약간의 오유도 범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중에서도 1931년 1월의 당 중앙 위원회 제 6기 제 4차 전원 회의(제 6기 제 4차 전원 회의)로부터 1935년 1월의 중앙 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준의 회의)에 이르기까지의 시기에 범한 정치로선, 군사로선, 조직로선 상의 《좌》경적 오유가 가장 엄중하였다. 이 오유는 우리 당과 중국 혁명에 엄중한 손실을 주었던 것이다.

중국 혁명의 역사적 교훈을 학습함으로써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며》 《앞수레의 전복》을 《뒤수레의 거울》로 되게 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적 사상적 일치의 기초 위에서 전 당의 동지들을 하나의 화목한 가정처럼, 한 덩어리의 굳은 강철처럼 단합하여 항일 전쟁의 철저한 승리와 중국 인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10년 간에 있어서의 당내의 약간의 역사 문제, 특히는 제 6기 제 4차 전원 회의로부터 준의 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의 중앙의 평도로선 문제에 대하여 정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유익하고도 필요한 일이라고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기 제 7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제 6기 제 7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인정한다.

## (3)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당내에는 《좌》경적 및 우경적 편향들이 발생하였다.

진 독수를 대표자로 하는 소수의 제 1 차 대혁명 시기의 투항주의자들은 이 때 혁명의 전도에 비판 실망하여 차차 청산주의자로 전락되고 말았다. 반동적인 트로츠키주의의 럽장에 선 그들은 1927년 혁명 이후에 있어서 중국 부르조아지는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에 대하여 이미 승리를 전취하였고 인민에 대한 그들의 통치도 이미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중국 사회는 소위 자본주의가 우세를 차지하고 또 그것이 평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로 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이미 종결되었고 중국 프로레타리아트는 오직 장래에 가서 다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는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당시에 있어서는 소위 《국민 회의》라는 것을 중심 구호로 하는 합법적 운동이나 전개하고 혁명 운동은 포기하여야 한다고 독단적으로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이 진행하는 각종 혁명 투쟁을 반대하였으며 또 당시의 홍군 운동을 소위 《류구 운동》이라고 비방하였다. 그들은 비단 당의 의견을 접수하여 이러한 기회주의적이고 청산주의적인 반당적 견해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동적 트로츠키 분자들과 야합하여 반당적인 분파를 결성하였으며 그리 하여 출당을 당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어서 또 반혁명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다방으로 국민당의 학살 정책에 대한 적개심과 진 독수의 투항주의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 격화된 소부르쥬아지의 혁명 조급증도 당내에 반영되어 당내에서 《좌》경적 기분이 급속히 자라 나게 되었다. 이러한 《좌》경적 기분은 1927년 8월 7일에 열린 당 중앙의 긴급 회의(《8.7 회의》)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8.7 회의》는 당의 역사 상에서 공적이 있는 회의였다. 《8.7 회의》는 중국 혁명이 위급한 시각에 처하여 있을 때 진 독수의 투항주의를 단호히 시정하고 그것을 종결시켰으며 토지 혁명을 실시하며 국민당 반동파의 학살 정책을 무력으로 항거할 데 관한 총방침을 확정하였으며 당과 인민 대중에게 혁명적 전투를 계속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옳은 것으로서 이 회의의 주요한 측면이었다. 그러나 《8.7 회의》는 우경적 오류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도리어 《좌》경적 오류에 길을 열어 주었다. 《8.7 회의》는 정치 면에서 당시 각지의 상이한 정형에 근거하여 정확한 반공격 또는 전술 상에서의 필요한 퇴각을 조직함으로써 계획적으로 혁명 진지를 보전하며 혁명 력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도리어 모험주의적 및 명령주의적(특히는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강요한 것) 경향을 허용하고 조장하였다. 《8.7 회의》는 조직 면에서 종파주의적인 지나친 당내 투쟁을 개시하였으며 지도 일'군은 순수한 노동자 출신으로써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또는 부당하게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당내에 상당히 엄중한 극단 민주화 상태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좌》경적인 기분은 《8.7 회의》 이

후에 계속 자라 나 1927년 11월의 당 중앙의 확대 회의에 이르러서는 《좌》경적 맹동주의(즉 모험주의) 로선으로 형성되었으며 동시에 《좌》경적 로선이 처음으로 당 중앙의 지도 기관 내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하였다. 이 때의 맹동주의자들은 중국 혁명의 성격을 소위 《부단 혁명》이라고 인정하였고(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혼동하였다) 중국 혁명의 정세를 소위 《부단한 양양》(1927년 혁명의 실패를 부인하고)이라고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여전히 질서 정연한 퇴각을 조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적의 강대성과 혁명이 실패한 후에 있어서의 대중의 정형을 고려하지도 않고 소수의 당원과 소수의 군중에게 명령을 내려 전혀 승리할 가망이 없는 지방적 봉기를 전국적으로 조직하게 하였다. 이러한 정치 면에서의 모험주의와 함께 조직 면에서의 종파주의적 타격 정책도 동시에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 그릇된 로선은 시초부터 모택동 동지 및 백색 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의 옳바른 비판과 지적을 받았으며 또 실제 사업 과정에서 허다한 손실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1928년 초에 이르러서는 많은 지방들에서 이 《좌》경적 로선의 실사가 중지되었으며 그 해 4월 《좌》경적 로선이 시작되어서부터 반년도 못 되어)에 이르러서는 전국적으로 실제 사업에서 기본상 종식되었다.

1928년 7월에 소집되었던 당 제 6 차 전국 대표 회의의 로선은 기본적으로 정확한 것이었다. 이 회의는 중국 사회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라는 것을 옳게 긍정하고 현대 중국

혁명을 일으킨 기본 모순이 하나도 해결되지 못 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으며 따라서 현 단계의 중국 혁명이 의연히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을 확정한 동시에 민주주의 혁명의 10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 대회는 당시 정치 정세는 혁명의 두 고조 사이에 처하여 있다는 것, 혁명의 발전이 불균형하다는 것, 당시 당의 총임무는 진공을 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봉기를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 대중을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옳게 지적하였다. 이 대회는 두 전선의 투쟁을 전개하여 우적인 진독수주의와 《좌》적인 맹동주의를 비판하였으며 특히 대중과 리탈된 맹동주의와 군사적 모험주의 및 명령주의가 당내의 가장 주되는 위협한 경향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면에 있어서 제 6 차 대회는 결함과 오유도 있었다. 이 대회는 중간 계급의 양면성과 반동 세력의 내부 모순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와 정책이 결여하였으며 대혁명의 실패 후에 있어서 당에 필요하였던 전술 상의 질서 정연한 퇴각에 대하여서와 농촌 근거지의 중요성 및 민주주의 혁명의 장기성에 대하여서도 필요한 인식이 결여하였다. 비록 이러한 결함과 오유로 하여 《8.7 회의》 이래의 《좌》경적 사상을 근본적으로 숙청하지 못 하였고 또 그 후의 《좌》경적 사상에 의하여 그 결함과 오유가 일면적으로 발전되고 극도로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 하여 제 6 차 대회의 주요한 면인 그 정확성을 말살할 수는 없다. 이 대회 후의 한 시기에 있어서 당의 사업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다. 모택동 동지는 이 시기

에 실천적 면에서 제 6 차 대회 의 로선의 정확한 면을 발전시키고 이 대회에서 해결하지 못 하였거나 정확히 해결하지 못한 허다한 문제들을 정확히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면에 있어서도 중국 혁명의 방향에 더욱 구체적이고도 더욱 원만하게 맑스-레닌주의적인 과학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모택동 동지의 지도와 영향 하에서 홍군 운동은 점차 국내 정치에서의 중요한 요소로 발전되었다. 백색 지역에 있어서의 당의 조직 및 사업도 상당히 회복되었다.

그러나 1929년의 하반기부터 1930년의 상반기에 이르는 기간에 당내에 아직 잔존하고 있던 약간의 《좌》경적 사상 및 《좌》경적 정책은 또 어느 정도 발전되었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시국이 혁명에 유리하게 변동되자 그것은 제 2 차의 《좌》경 로선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930년 5월 장 개석과 풍 옥상, 엄 석산 간의 전쟁이 폭발된 후의 국내 정세의 자극 하에서 당 중앙 위원회 정치국은 리 립삼 동지의 령도 하에서 6월 11일에 《새로운 혁명 고조와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의 우선적 승리》라는 《좌》경적인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며 그리 하여 《좌》경 로선이 제차 중앙 지도 기관을 지배하게 되었다. 이 그릇된 로선(리 립삼 로선)을 낳게 된 원인은 리 립삼 동지 등이 혁명에는 조직된 주관적 력량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대중은 크게만 하려 하고 소조하게는 하려 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따라서 당시 끊임 없이 계속되고 있는 군벌 전쟁에다가 홍군 운동의 초보적인 발전 및 백색 지구에서의 공작의 초보적인 회복을 더

가산한다면 이미 전국적으로 《크게 할》(무장 봉기)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생각한 데 있으며, 그들이 중국 혁명의 불균형성을 인정하지 않고 혁명 위기가 전국 각지에서 똑같이 성장하고 있으므로 전국 각지에서는 즉시 봉기할 준비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심 도시들에서는 먼저 봉기하여 전국적 혁명 고조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동시에 또 장기간에 걸쳐 그 주요한 역량으로 농촌 근거지를 창설하고 농촌으로써 도시를 포위하며 근거지에 의거하여 전국 혁명의 양상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모택동 동지의 사상을 소위 《그릇된》 《농민 의식의 지방적 관념 및 보수적 관념》이라고 비방한 데 있으며, 그들이 세계 혁명의 불균형성을 부인하고 중국 혁명의 총폭발은 필연코 세계 혁명의 총폭발을 일으키게 되며 또 중국 혁명은 반드시 세계 혁명의 총폭발 중에서만 성공할 수 있다고 인정한 데 있으며, 그들이 중국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장기성을 부인하고 한 개 성 또는 수개성에서 혁명이 먼저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전환의 시작이라고 인정한 데 있다. 이로 인하여 때에 맞지 않는 약간의 《좌》경적인 정책을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 하에서 럽삼 로신의 지도자들은 전국의 중심 도시에서 무장 봉기를 조직하며 전국의 홍군을 집중하여 중심 도시를 진공하려는 모험적 계획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또 당, 청년단, 공회의 각급 지도 기관을 통합하여 무장 봉기를 준비하는 각급 행동 위원회로 만들어 모든 일상 사업을 정제상태에 빠뜨렸다. 이러한 그릇된 결정의 형성 및 집행 과정

에서 립삼 동지는 많은 동지들의 옳바른 비판과 제의를 접수하지 않은 동시에 당내에서 소위 《우경》을 반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경》을 반대한다는 구호 하에서 자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당내의 간부들에게 부당하게도 타격을 가한 데서 또 당내의 종파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리 하여 립삼 로선은 제 1 차 《좌》경 로선에 비하여 더욱 완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립삼 로선이 당내에서 지배한 기간은 역시 매우 짧았던 것이다(4 개월 미만이다). 왜냐 하면 립삼 로선을 집행한 지방에서는 어디서나 다 당과 혁명 력량이 손실을 입게 되어 광범한 간부와 당원들이 이 로선의 시정을 요구하여 나섰다. 특히 모택동 동지는 시종 일관 립삼 로선에 찬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최대의 인내성으로 홍군 제 1 방면군 내에서의 《좌》경적 오류를 시정하였다(4). 그렇기 때문에 강서 혁명 근거지의 홍군은 이 시기에 있어서 손실을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당시의 장 개석과 풍 옥상, 엄 석산 간의 전쟁에 의하여 조성된 유리한 정세를 리용하여 발전을 가져 왔으며 또 1930년 말부터 1931년 초에 걸쳐 적의 제 1 차 《포위 토벌》을 승리적으로 분쇄하였다. 기타 혁명 근거지의 홍군도 개별적 지구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같은 결과를 가져 왔다. 백색 지구에 있어서도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동지들이 당 조직을 통하여 립삼 로선을 반대하였다.

1930년 9월에 열린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3 차 전



원 회의(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와 그 후의 중앙은 립삼 로선의 집행을 중지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놀았다. 비록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의 문헌에 립삼 로선에 융화, 타협하는 정신이 그냥 표현되어 있었고(폐를 들면 그것이 로선 상의 오유라는 것을 부인하고 다만 《전술 상의 오유》일 따름이라고 한 등) 비록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가 조직적 면에서 종파주의의 오유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는 중국 혁명 정세에 대한 립삼 로선의 극좌적인 평가를 시정하였고 전국적 총봉기를 조직하며 전국의 홍군을 집결하여 중심 도시를 진공하려는 계획을 중지시켰으며 당, 청년단, 공회의 독립적 조직과 그 일상적 사업을 회복시켰으며 그리 하여 립삼 로선의 주요 특징으로 되는 그러한 오유들을 종말 지은 것이다. 립삼 동지 자신도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에서 지적된 오유를 승인하였으며 뒤'이어 중앙의 지도적 지위로부터 물러났다.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 후의 중앙은 또 그 해 11월의 보충 결정 및 12월의 제 96 호 통고문에서 립삼 동지 등의 로선 상의 오유와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의 융화적 오유를 가일층 지적하였다. 물론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나 그 후의 중앙이나를 막론하고 립삼 로선의 사상적 본질에 대하여서는 청산하지 못 하였으며 시정하지 못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1927년 《8.7 회의》 이래, 특히는 1929년 이래 그냥 당내에 계속 존재하여 오던 약간의 《좌》경적 사상 및 《좌》경적 정책은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와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 후에 있

어서도 여전히 농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 및 그 후의 중앙이 립삼 로선을 중지시키는 데 있어서 이상과 같은 적극적 역할을 놀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한 이상 당시 전 당 동지들은 이러한 조치들의 기초 위에서 계속 노력하여 《좌》경적 오류를 철저히 반대하여야 할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 혁명 투쟁의 실제 경험이 없는, 《좌》경 교조주의의 오류를 범한 당내의 일부 동지들은 진 소우(왕 명) 동지의 지도 하에서 도리어 《립삼 로선을 반대한다》, 《융화 로선을 반대한다》는 기치 하에 립삼 로선보다 더 심한 종파주의적 립장에 서서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 이후의 중앙에 반항하여 나섰다. 그들의 투쟁은 결코 당시의 중앙을 도와 립삼 로선의 사상적 본질 및 《8.7 회의》 이래, 특히는 1929년 이래 당내에 존재하여 있던, 아직 청산되지 못한 약간의 《좌》경적 사상 및 《좌》경적 정책을 철저히 청산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에 발표된 진 소우 동지의 《두 갈래 로선》 즉 《중국 공산당을 더욱 불쇄위크화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소책자에는 실제 상 새로운 형태 하에서 립삼 로선 및 기타의 《좌》경적 사상 및 《좌》경적 정책을 계속하며 회복 또는 발전시키는 새로운 정치 강령이 제기되었다. 이리 하여 《좌》경적 사상이 당내에서 새로 자라 나 새로운 《좌》경 로선으로 형성되었다.

진 소우 동지가 지도한 새로운 《좌》경 로선도 립삼 로선의 《좌》경적 오류와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의 융화적인

오유를 비판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특징은 주로 립삼 로선을 도리어 《우경》이라고 비판한 데 있으며 《립삼 로선의 일관적인 우경 기회주의적 이론 및 실천에 대하여 추호도 폭로하지 않았고 타격하지 않았다》고 제 6 기 제 3 차 전원회의를 비난한 데 있으며 《우경이 의연히 현하 당내의 주되는 위협이라는 것》을 간파하지 못 하였다고 제 96 호 통고문을 비난한 데 있다. 중국 사회의 성격과 계급 관계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좌》경 로선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자본주의의 비중을 과대시하며 현 단계의 중국 혁명에 있어서 부르주아지를 반대하는 투쟁, 부농을 반대하는 투쟁 및 소위 《사회주의 혁명의 요소》의 의의를 과대시하며 중간 진영과 제 3 파의 존재를 부인하였다. 혁명 정세 및 당의 임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로선은 전국적인 《혁명 고조》 및 전국적 범위에서의 당의 《진공 로선》을 계속 강조하면서 소위 《직접적인 혁명 정세》가 아주 급속히 중심 도시를 포함한 한 개 혹은 몇 개의 주요한 성들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동시에 이 로선은 《좌》경적인 견지로부터 당시 중국에는 아직 《진정한》 홍군 및 로동자, 농민, 병사 대표 회의의 정부가 없다고 중상하였으며 당시 당내의 주되는 위협은 소위 《우경 기회주의》와 《실지 사업에서의 기회주의》 및 《부농 로선》이라고 특히 강조하였다. 조직적 면에서 이 새로운 《좌》경 로선의 대표자들은 조직 규율을 위반하고 당이 맡기는 사업을 거부하며 옹지 못 하게 일부 동지들을 규합하여 반중앙적인 종파 활동을 진행하며 옹지 못 하게 당원들에게 립시적인 중앙

지도 기관을 수립할 것을 호소하며 이 로선을 《적극 지지하고 집행》하는 《투쟁 간부》들으로써 《각급 지도 기관을 개조하고 충실히 할 것》 등을 요구하였으며 그리 하여 당시 당내의 엄중한 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새로운 《좌》경 로선은 중심 도시에서 봉기를 조직할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한 시기는 홍군을 집중하여 중심 도시를 진공할 것을 주장하지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럽삼 로선의 《좌》경보다 더 건걸하며 더 《리론적》이며 그 기세가 더 거세며 그 형태도 더 완비된 것이었다.

1931년 1월에 당은 진 소우 동지를 비롯한 이런 《좌》경적인 교조주의, 종파주의 분자들이 각 방면으로부터 압력을 가하고 있는 정세 하에서, 또 당시 경험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던 중앙의 일부 동지들이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정세 하에서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의 소집은 하등의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도 놓지 못 하였으며 그 결과는 새로운 《좌》경 로선을 접수하여 그것이 중앙 지도 기관 내에서 승리를 얻게 하였으며 그리 하여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 《좌》경 로선이 세 번째로 당내를 지배하게 되었다.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는 새로운 《좌》경 로선의 호상 련관된 두 가지 그릇된 강령, 즉 소위 《현하 당내의 주되는 위협》인 《우경》을 반대한다는 것과 《각급 지도 기관을 개조하고 충실히 한다》는 것을 직접 실현시켰다.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가 형식 상으로는 럽삼 로선을 반대하고 《융화 로선》을 반대한다는 기치를 들고

나섰지만 그 주요한 정치 강령은 그 본질에 있어서 《우경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가 자기의 결정에서는 당시의 정치 정세를 분석하거나 당의 구체적인 정치적 과업을 규정하지 않고 그저 두루뭉실하게 소위 《우경》과 《실지 사업에서의 기회주의》를 반대하였지만 실제 상에서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는 당시 당내의 《좌》경적 사상을 대표하고 있던, 즉 당시에 있어서와 그 후 10여 년 간에 있어서 결론 《정확》하며 《강령적 역할》을 놀았다고 인정 받은 소우 동지의 소책자——《두 갈래 로선》 즉 《중국 공산당을 더욱 불쇄위크화하기 위한 투쟁》을 비준하였던 것이다. 이 소책자는 우에서도 분석한 바와 같이 기본 상에 있어서 완전히 그릇된, 《우경을 반대》하는 《좌》경 기회주의의 총강령인 것이다. 이 강령 하에서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및 그 후의 중앙은 그러한 《좌》경 교조주의 및 종파주의의 동지들을 중앙의 지도적 지위에 등용하는 한 편 립삼 로선의 오유를 범한 동지들에게 지나친 타격을 가하였고 구 추백 동지<sup>(5)</sup>를 비롯한 소위 《융화 로선의 오유》를 범한 동지들에게 부당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후에는 또 이어서 당시 소위 《우파》에 속하였던 절대 다수의 동지들에게 부당한 타격을 가하였다. 기실 당시 소위 《우파》라는 것은 주로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의 종파주의적인 《우경 반대》 투쟁의 소산이었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그 후 진짜 우파로 전락되고 또 반혁명으로 타락되어 영원히 출당 당한, 라 장룡을 비롯한 극소수의 분렬주의자도 있었다. 이들

에 대하여서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견결히 반대하여야 하였다. 그들이 제 2 당의 조직을 조작하고 전지한 것은 당 규율상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립 육남[6], 리구실[7], 하 맹용[8] 등 20여 명의 중요한 당 간부들은 당과 인민을 위하여 유익한 사업을 많이 하였고 대중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았으며 또 그 후 얼마 안 되어 적에게 체포된 후에도 적 앞에서 굴함 없이 완강히 싸우다가 영웅적으로 희생되었던 것이다. 소위 《융화 로선의 오유》를 범하였다는 구주백 동지는 당시 당내에서 위신이 있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는 타격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많은 유익한 일(주로 문화 방면에서)을 계속하다가 1935년 6월에 역시 적의 창검 하에서 영용하게 희생되었다. 이러한 동지들의 프로레타리아적인 영웅적 기개는 우리들이 영원토록 기념하여야 할 것이다. 중앙 기관에 대한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의 이러한 《개조》는 마찬가지로 각 혁명 근거지와 백색 지구의 지방 조직들에게도 널리 파급되었다.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후의 중앙은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 및 그 후의 중앙보다도 더 한층 강력하게, 더한층 계통적으로 전국 각지에다 중앙의 대표, 중앙의 대표 기관 혹은 새 지도 일'군을 파견하여 그 《우경 반대》 투쟁을 관철하였다.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이후 얼마 안 되어 1931년 5월 9일에 발표된 중앙의 결정은 새로운 《좌》경 로선이 이미 실제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운용,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후부터 중국에는 많은 중대한 사변들이 련속적으

로 일어났다. 강서 중앙구의 홍군은 모택동 동지의 올바른 령도와 전체 동지들의 적극적인 노력 하에서 그리고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이후의 중앙이 그 그릇된 로선을 미처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던 정형 하에서 적의 제 2 차 및 제 3 차의 《포위 토벌》을 분쇄한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기타 다수의 혁명 근거지와 홍군도 같은 시기와 같은 정형 하에서 역시 히다한 승리와 발전을 가져 왔다. 타방으로 1931년 《9. 18》에 시작된 일본 제국주의의 진공은 또 전국적인 민족 민주주의 운동의 새로운 양상을 일으켰다. 새 중앙은 이러한 사변들에 의하여 조성된 새로운 정세에 대하여 처음부터 전혀 그릇된 평가를 내리었다. 새 중앙은 당시에 있어서의 국민당 통치의 위기와 혁명 력량의 발전을 지나치게 과대시하였으며 《9. 18》 이후의 중 일 간의 민족적 모순의 상승과 중간 계급의 항일 민주주의 요구를 홀시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와 기타 제국주의가 일치하게 쓰련을 진공하리라는 것과 각 제국주의 및 중국의 각 반혁명적 파벌 심지어 중간 파벌까지도 일치하게 중국 혁명을 진공하리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동시에 소위 중국 혁명의 가장 위협한 적은 중간 파벌이라고 단정하였다. 이리 하여 새 중앙은 일체를 타도할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당시에 있어서의 《중국 정치 정세의 중심의 중심은 반혁명과 혁명과의 결사적 투쟁》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리 하여 새 중앙은 또 홍군이 중심 도시를 탈취함으로써 먼저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 승리를 쟁취하며 백색 지구에서는 로동자, 농민을 보편적으로 무장시키며 각 기업소들에서 총

파업을 단행하자는 등의 허다한 모험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1931년 9월 20일 중앙의 《로농 홍군에 의한 적의 세 3 차 〈포위 토벌〉의 격파와 혁명 위기의 점차적 성숙에 의하여 산생된 긴급한 임무에 관한 결정》에서 제일 먼저 표현되었으며 그 후 립시 중앙의, 또는 립시 중앙의 지도 하에서 작성된 《일본 제국주의의 만주 강점 사변에 관한 결정》(1931년 9월 22일), 《먼저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데 관한 결정》(1932년 1월 9일), 《1. 28 사변에 관한 결정》(1932년 2월 26일), 《먼저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 중국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에서의 중국 공산당 내의 기회주의적 동요》(1932년 4월 4일), 《제국주의의 쓰런 진공과 중국 분할을 반대하며 민족 혁명 전쟁을 확대하는 운동 주장을 명도하며 거기에 참가할 데 관한 중앙구 중앙국의 결정》(1932년 5월 11일), 《혁명 위기의 중대와 북방 당 조직의 파업》(1932년 6월 24일) 등등의 문헌들에서 그것이 계속되고 발휘되었다.

1931년 9월에 진 방헌(박고) 동지<sup>[9]</sup>를 비롯한 립시 중앙이 성립된 때로부터 1935년 1월 준의 회의에 이르기까지는 제 3 차 《좌》경 로선이 계속 발전된 시기였다. 이 기간에 립시 중앙은 백색 지구의 사업이 그릇된 로선의 지도 하에서 엄청난 손실을 받았기 때문에 1933년 초에 강서성 남부 근거지로 옮겼다. 이리 하여 그들의 그릇된 로선은 중앙이 자리 잡고 있는 근거지 및 부근의 여러 근거지들에서 가일층 판철 되게 되었다. 이에 앞서 1931년 11월에 열린 강서성 남부 근



거지 당 대표 대회와 1932년 8월에 열린 당 중앙의 녑도 회의는 《우경을 반대》하며 《각급 지도 기관을 개조》한다는 제 6기 제 4차 전원 회의의 그릇된 강령에 근거하여 과거 강서성 남부 및 복건성 서부 근거지에서 실시한 옳바른 로선을 《부농 로선》이요, 《극히 엄중한 일관적인 우경 기회주의적 오류》이요 하고 비방한 동시에 옳바른 당'적 지도와 군사 지도를 변경시켰다. 그러나 모택동 동지의 옳바른 전략적 방침이 홍군 내에서 심각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립시 중앙의 그릇된 로선이 아직 홍군 내에서 완전히 관철되기 전인 1933년 봄의 제 4차 반《포위 토벌》전쟁은 여전히 승리하였다. 그러나 1933년 말에 시작된 제 5차 반《포위 토벌》전쟁에 있어서는 극히 그릇된 전략이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기타 허다한 정책, 특히 복건 사변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도 《좌》경 로선의 오류가 완전히 관철되었다.

1934년 1월에 립시 중앙이 소집한 당 중앙 위원회 제 6기 제 5차 전원 회의(제 6기 제 5차 전원 회의)는 제 3차 《좌》경 로선의 발전에 있어서의 절정이었다. 제 6기 제 5차 전원 회의는 《좌》경 로선에 의하여 조성된 중국 혁명 운동의 좌절과 《9. 18》, 《1. 28》 이래 국민당 통치구 인민의 항일 민주주의 운동의 좌절을 고려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중국의 혁명 위기는 이미 새로운 침예한 단계에 도달하였다——직접적인 혁명 정세가 중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제 5차 반《포위 토벌》투쟁은 《곧 중국 혁명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투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투쟁은 중국의 《혁명

의 길과 식민지화의 길 간의 누가 누구를 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전원 회의는 또 립삼 로선의 전해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우리가 로농 민주주의 혁명을 중국의 중요한 지방들에 파급시키는 그 때에 가서는 사회주의 혁명을 실행하는 것이 공산당의 기본 임무로 될 것이며 오직 이 기초 위에서야 중국은 통일될 것이며 중국의 민중은 민족 해방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라느니 뭐니 하였다. 《주되는 위험인 우경 기회주의》를 반대하자,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융화적 태도를 반대하자》, 《량면과의 태도로써 실제 사업에서 당의 로선에 대하여 태업하는 것》을 반대하자는 등의 구호 하에서 이 전원 회의는 종파주의적인 파격한 투쟁과 타격 정책을 계속 발전시켰다.

제 3 차 《좌》경 로선이 혁명 근거지에 가져다 준 최대의 악과는 중앙 소재 지구에 있어서의 제 5 차 반 《포위 토벌》 전쟁을 실패하게 한 것과 중앙 소재 지구에서 홍군 주력이 철퇴하게 된 그것이다. 강서성에서의 철퇴와 장정의 군사적 행동 중에서 《좌》경 로선은 또 도망주의적 오류를 범하여 홍군에게 계속 손실을 가져다 주었다. 기타 절대 다수의 혁명 근거지(민절공구, 악예환구, 상악공구, 상공구, 상악 서구, 천섬구)와 광대한 백색 지구에서의 당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좌》경 로선의 지배로 하여 실패 당하였다. 악예환구와 천섬구를 지배하고 있던 장 국도 로선은 일반적인 《좌》경 로선 외에 또 특히 엄중한 균벌주의와 적의 진공 앞에서의 도망주의로 나타났다.

우에서 말한 것들이 제 3 차로 전 당을 지배한, 교조주의 분자인 진 소우, 진 방헌 두 동지를 비롯한 그릇된 《좌》경로선의 주요한 내용이다.

교조주의적 오류를 범한 동지들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걸치례를 하고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에 의하여 조성된 정치적 및 조직적 성세에 의거하여 제 3 차 《좌》경로선으로 하여금 당내에서 4 년 동안이나 지배하게 하였으며 또 그것을 사상적, 정치적, 군사적, 조직적 면에서 가장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표현되게 하여 전 당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따라서 그 해독도 가장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선적 오류를 범한 동지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도리어 소위 《중국 공산당의 가일층의 불쉐위크화》니, 《100%의 불쉐위크》니 하는 등의 독단적인 언사로 사실과는 상반되는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이래의 중앙의 령도 로선의 《정당성》 및 그 소위 《불후의 업적》을 극력 고취함으로써 당의 역사를 완전히 외곡하였던 것이다.

제 3 차 《좌》경로선 시기에 있어서 모택동 동지를 그 대표로 하는, 옳바른 로선을 주장한 동지들은 이 《좌》경로선과 완전히 대립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좌》경로선을 찬성하지 않았고 또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각지에 있어서의 그들의 옳바른 령도도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이래의 중앙 및 그가 파견한 조직 또는 일'군들에 의하여 뒤집혀지고 말았다. 그러나 실제 사업 가운데서의 《좌》경로선의 계속적인 실패와 특히 중앙 소재 지구의 제 5 차 반

《포위 토벌》에서의 계속적인 실패는 더욱 많은 지도 일'군과 당원 대중 앞에 이 로선의 오류를 드러내 놓아 그들의 의심과 불만을 일으키게 되었다. 중앙 소재 지구의 홍군이 장정을 시작한 후부터 이러한 의심과 불만은 더욱 커졌으며 한때 《좌》경적 오류를 범한 일이 있는 일부 동지들도 이 때에 와서는 각성하기 시작하여 《좌》경적 오류를 반대하는 립장에 서게 되었다. 이리 하여 《좌》경 로선을 반대하는 광범한 간부들과 당원들은 모두 모택동 동지의 령도 하에 단결되었으며 따라서 1935년 1월 귀주성 준의에서 모택동 동지의 령도 하에 열린 중앙 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승리적으로 당 중앙에서의 《좌》경 로선의 지배를 종결 짓고 가장 위급한 시각에 당을 만회할 수 있었다.

준의 회의가 당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던 군사상 및 조직상의 오류를 전력을 다하여 시정한 것은 완전히 옳았다. 이 회의를 계기로 하여 모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앙의 새로운 령도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중국 당내에 있어서 가장 력사적 의의가 있는 전환이었다. 바로 이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장정을 승리적으로 끝낼 수 있었고 장정의 극히 어려운 조건 하에서 당과 홍군의 골간을 보전하고 단련시킬 수 있었으며 퇴각과 도망을 고집하면서 제 2의 당을 조작한 장 국도 로선을 승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으며 《좌》경 로선에 의하여 조성된 섬서성 북부 혁명 근거지의 위기<sup>[10]</sup>를 만회할 수 있었으며 1935년의 《12. 9》 구국 운동을 정확하게 령도할 수 있었으며 1936년의 서안 사변

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며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을 조직할 수 있었으며 성스러운 항일 전쟁의 폭발을 추동할 수 있었다.

준의 회의 후 모택동 동지의 령도 하에서의 당 중앙의 정치 로선은 완전히 정확한 것이다. 《좌》경 로선은 정치, 군사, 조직 면에서 모두 점차 극복되었다. 1942년 이래 모택동 동지의 령도 하에서 전개된, 주관주의, 종파주의, 당팔고를 반대하는 전 당'적인 정풍 운동과 당사 학습은 당의 력사 상에서 무차 발생되었던 《좌》경 및 우경적 오류를 사상적 근원으로부터 가일층 시정하였다. 과거 《좌》경 및 우경적 오류를 범하였던 동지들은 장기간에 걸친 체험을 통하여 절대 다수가 커다란 진보를 가져 왔으며 당과 인민에게 유익한 사업들을 많이 하였다. 이러한 동지들은 기타의 광범한 동지들과 함께 공동한 정치적 인식에 기초하여 호상 단결되었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기쁘게 지적하는 바이다. 우리 당은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를 거쳐 마침내 모택동 동지의 령도 하에서 사상 상, 정치 상, 조직 상, 군사 상에서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고도의 강화와 통일을 달성하였다. 이는 멀지 않아 승리할 당이며 어떠한 힘으로도 격파할 수 없는 당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항일 시기에 있어서의 당내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하여서는 아직 항일 단계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한다.

## (4)

동지들에게 매차의 특히는 제 3 차의 《좌》경 로신의 오유를 더욱 잘 로해시킴으로써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게 하고》 앞으로의 사업에서 다시는 이러한 오유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정치, 군사, 조직, 사상적 면에 있어서 올바른 로선과 배치되는 그 주요한 내용들에 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적한다.

## (1) 정치적 면에서

쓰말린 동지가 지적하였고<sup>[11]</sup> 모택동 동지가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현 단계의 중국은 반식민지, 반봉건적 국가(《9. 18》 이후 부분적으로는 식민지로 되었다)이며 제 1 차 세계 대전 후부터 이 국가의 혁명은 국제 프로레타리아트가 이미 쓰련에서 승리하였고 중국 프로레타리아트가 정치적으로 각성한 시대에 처한 민족 민주주의 혁명으로 되었다. 이 점에서 현 단계의 중국 혁명의 성격은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로동자 농민을 주체로 하고 기타의 광범한 사회적 계층들이 참가하는 반제, 반봉건적 혁명이라는 것, 즉 구민주주의와도 구별되고 사회주의와도 구별되는 신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이 규정되었다. 현 단계의 중국은 강대하고도 그 내부가 서로 모순되고 있는 몇몇 제국주의 국가와 중국 봉건 세력의 동치 하에 있는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큰 나라로서 그 경제 및 정치의 발전이 극히 큰 불균형성과 불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서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발전은 극히 큰

불균형성을 가지고 있어 혁명이 전국적으로 승리하려면 장기적인 우여 고통의 투쟁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며 동시에 또 이 투쟁에서 적들의 모순을 광범히 리용하여 적의 통치가 비교적 약한 광대한 지역에서 우선 무장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고 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었다. 중국 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증시된, 중국 혁명의 상술한 기본적인 특성 및 기본적 법칙들은 일체 우경 로선들이 그것을 리해하지 못 하였고 그것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매차의 특히는 제 3차의 《좌》경 로선도 그것을 리해하지 못 하였고 그것을 위반하였다. 《좌》경 로선은 이 때문에 정치 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한 면의 오유를 범하였다.

첫째, 매차의 《좌》경 로선은 우선 혁명의 임무와 계급 관계 문제에서 오유를 범하였다. 쓰말린 동지와 마찬가지로 모택동 동지는 제 1차 대혁명 시기에 벌써 현 단계에 있어서의 중국 혁명의 임무는 반제, 반봉건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토지를 위한 농민의 투쟁은 중국에 있어서의 반제, 반봉건의 기본 내용이며 중국의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은 그 본질에 있어서 농민 혁명이며 따라서 농민 투쟁에 대한 정도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기본 임무라는 것을 지적하였다[12]. 토지 혁명 전쟁의 초기에 모택동 동지는 또 중국에서 필요한 것은 여전히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이며 《반드시 이러한 민권주의 혁명을 거침으로써만》 사회주의적 전망에 대하여 운운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13] 혁명이 도시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에

토지 혁명은 더 큰 의의가 있으며 《반식민지인 중국의 혁명은 오직 농민 투쟁이 로동자의 령도를 얻지 못 하여 실패할 수는 있어도 농민 투쟁이 로동자의 세력을 통가하였다 하여 혁명 자체에 불리하게 될 수는 없다》[14]고 지적하였으며 부르쵸아지가 혁명을 배반한 후에 있어서도 자유 부르쵸아지는 여전히 배판 부르쵸아지와 구별이 있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특히는 제국주의를 반대할 것을 요구하는 계층이 매우 광범하므로 각이한 중간 계급들을 옹호하게 대하고 가급적으로 그들과 연합하거나 그들을 중립시켜야 하며 농촌에 있어서는 중농과 부농을 옹호하여야 한다(《많은 데서 떼 내어 적은 데 보태 주며 살진 데서 떼 내어 여윈 데 보태 주며》 동시에 중농과 견결히 단결하며 부유 중농을 보호하며 부농에게 경제적 출로를 주고 일반 지주에게도 생활의 출로를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5].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신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이다. 그러나 《좌》경 로선은 이러한 사상을 리해하지 못 하며 이러한 사상을 반대하였다. 비록 매차의 《좌》경 로선이 규정한 혁명의 임무에는 민주주의적인 것도 많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것들은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간의 일정한 계선을 혼동한 동시에 주관적으로 조급하게도 민주주의 혁명을 뛰어 넘으려고 하였고 중국 혁명에 있어서의 농민의 반봉건적 투쟁이 노는 결정적 역할을 과소 평가하였으며 부르쵸아지 나아가서는 상층 소부르쵸아지까지도 모조리 반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 3 차 《좌》경 로선은 더 나아가 부르쵸아지를 반대하는 것과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봉건을



반대하는 것을 병렬시키고 중간 진영과 제 3 파의 존재를 부인하였으며 더우기 부농을 반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9. 18 사변이 일어난 후 중국의 계급 관계에는 뚜렷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제 3 차 《좌》경로선은 이 변화를 인식하지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당 반동 통치와의 모순이 있어서 당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중간파를 도리어 소위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단정하였다. 여기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즉 제 3 차 《좌》경로선의 대표자들도 농민을 령도하여 토지를 분여하였고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당시의 국민당 정부의 진공에 대하여 무력으로 반항하였다. 이러한 임무는 모두가 정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좌》경적인 인식으로 하여 그들은 옳지 못 하게도 당시의 홍군 운동이 프로레타리아트가 령도하는 농민 운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두려워 하였고 옳지 못 하게도 소위 《농민의 특수한 혁명성》, 《농민적 자본주의》 그리고 소위 《부농 로선》이라는 것을 반대하고 많은 초민주주의적인 소위 《계급 로선》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부농 경제의 청산 및 기타의 극좌적인 경제 정책, 로동 정책, 일체 착취자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는 정권 정책, 공산주의를 내용으로 할 것을 강조하는 국민 교육 정책, 지식인에 대한 극좌적인 정책, 병사만 상대하고 군관은 상대하지 않는 적군에 대한 공작과 극좌적인 반혁명 숙청 정책 등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혁명의 당면 과업을 외곡하고 혁명 세력을 고립시켰으며 홍군 운동을 좌절시켰다.

마찬가지로 또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즉 우리 당은 1927년에 혁명이 실패한 후 국민당 통치구에서 일관적으로 견결히 인민의 민족 민주주의 운동을 령도하였고 로동자와 기타 대중의 경제 투쟁과 혁명적 문화 운동을 령도하였고 민족의 리익을 팔아 먹으며 인민을 억압하는 당시의 국민당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였다. 특히 《9. 18》 이후 우리 당은 동북 항일 련군을 령도하였고 《1. 28》 전쟁 및 차할성 북부의 항일 동맹군을 원조하였고 복건 인민 정부와 더불어 항일적, 민주주의적 동맹을 결성하였고 세 가지 조건 하에서 홍군은 국민당 군대와 련합하여 항일하며<sup>[16]</sup> 여섯 가지 조건 하에서 각계 인민들과 민족 무장 자위 위원회를 수립하려 한다<sup>[17]</sup>는 것을 제기하였고 1935년 8월 1일에는 《항일 구국을 위하여 전체 동포들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하여 국방 정부와 항일 련군을 건립할 것 등을 호소하였다. 이 모든 것은 역시 정확한 것이었다. 그러나 매차의 특히 제 3 차의 《좌》경로선이 지배하던 시기에 있어서는 지도 정책의 오류로 하여 실제 상에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당시 국민당 통치구에서의 당 사업도 거두어야 할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거나 실패 당하게 되었다. 물론 항일 문제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아직 1935년의 화북 사변, 특히 1936년의 서안 사변 후에 중국의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의 주요 부분을 대표하는 국민당의 주요한 통치 집단에 일어 난 그러한 변화들에 대하여 예견할 수가 없었지만 중간 계층과 일부의 대지주, 대부르쥬아지의 지방 집단들에게는 이미 항일의 동맹자로 된

변화가 일어났으며 광범한 당원 및 인민들은 이미 이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 3 차 《좌》경 로선은 그것을 홀시 또는 부인함으로써 자체의 엄중한 관문주의를 조성하였으며 그 자신을 중국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멀리 뒤 떨어지게 만들었다. 이러한 관문주의적 오류에 의하여 조성된 고립과 낙후의 상태는 준의 회의 이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 매차의 《좌》경 로선은 혁명 전쟁과 혁명 근거지 문제에서도 역시 오류를 범하였다. 쓰말린 동지는 《중국에서는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혁명의 특수성의 하나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18)라고 말하였다. 쓰말린 동지와 마찬가지로 모택동 동지는 토지 혁명 전쟁의 초기에 벌써 반식민지, 반봉건적 중국은 민주주의와 공업이 결여한, 통일되지 못한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무장 투쟁과 농민을 주체로 하는 군대가 중국 혁명의 주되는 투쟁 형태이며 조직 형태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또 광범한 농민이 살고 있는 광대한 농촌은 중국 혁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지이며(혁명적 농촌은 도시를 포위할 수 있고 혁명적 도시는 농촌과 떨어질 수 없다) 중국은 무장한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여 전국적 승리(전국의 민주주의적 통일)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19). 1924~1927년 혁명 시기에 있어서는 국공이 합작하여 연합 정부를 수립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근거지는 일부의 대

도시를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 있어서도 프로레타리아트의 명도 하에서 농민을 주체로 하는 인민 군대를 창건하는 동시에 또 농촌에서의 토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거지의 기초를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는 강대한 반혁명 세력이 전국의 도시들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의 근거지는 주로 농민 유격 전쟁(진지전이 아니라)에 의거하여 반혁명의 통치가 약한 농촌(중심 도시가 아니라)에서 우선 창설되고 발전되고 공고화될 수 밖에 없었다. 모택동 동지는 이런 무장한 농촌 혁명 근거지가 중국에 존재할 수 있는 역사적 조건은 중국의 《지방적인 농업 경제(유일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가 아닌)와 그리고 세력권의 회분에 의하여 분열, 착취하는 제국주의의 정책》이며 또 여기로부터 오는 《백색 정권 간의 장기간에 걸친 분열과 전쟁》<sup>[20]</sup>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이러한 근거지가 중국 혁명에 대하여 가지는 역사적 의의는 《이렇게 함으로써만 쓰련이 전 세계에서 신뢰를 쟁취한 것처럼 우리도 전국적으로 혁명적 대중의 신뢰를 쟁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반동적 지배 계급에게 심대한 곤란을 조성하여 주고 그 근거를 뒤흔들어 그 내부의 와해를 촉진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 앞날의 대혁명의 주요한 무기로 될 홍군을 진정으로 창건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혁명의 양양을 촉진할 수 있다.》<sup>[21]</sup>고 지적하였다. 이 시기의 도시 군중 공작에 있어서는 백색 지구 공작에 있어서의 올바른 로선의 대표자인 류 소기 동지가 주장한 바와 같

이 방어를 주로 하고(진공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으로 합법적 기회를 리용하여 사업함으로써(합법성의 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당 조직이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고 장기적으로 은폐하고 력량을 축적하는 동시에 수시로 자기의 력량을 농촌에 보내어 농촌의 무장 투쟁 력량을 발전시키며 이로써 농촌 투쟁에 배합하여 혁명의 정세를 추진시키는 것을 그 주요한 방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 정세가 도시에서 다시금 민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게 될 때까지 중국 혁명 운동은 농촌 사업을 주로 하고 도시 사업을 보조로 삼아야 할 것이었다. 혁명이 농촌에서는 승리하고 도시에서는 당분간 승리할 수 없는 것, 농촌에서는 진공하고 도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방어에 처하는 것, 그리고 이 농촌에서는 승리하고 진공하며 저 농촌에서는 실패, 퇴각, 방어하는 것——이러한 것들은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전국의 혁명과 반혁명이 서로 교착된 한 폭의 그림을 이루었으며 또 그러한 정세 하에서 혁명이 실패로부터 승리에 도달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을 닦아 놓았다. 그러나 매차의 《좌》경 로선의 대표자들은 반식민지, 반봉건적 중국 사회의 특성을 리해하지 못 하며 중국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은 그 본질에 있어서 농민 혁명이라는 것을 리해하지 못 하며 중국 혁명의 불균형성과 우여곡절성 및 장기성을 리해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투쟁, 특히는 농민의 유격 전쟁과 농촌 근거지의 중요성을 파소 평가하였으며 소위 《총'자루주의》와 《농민 의식의 지방적 판념과 보수적 판념》이

라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리 하여 그들은 언제나 당시 도시에서의 로동자의 투쟁 및 기타의 군중 투쟁이 돌연히 적의 폭압을 돌파하여 일어 나며 그리 하여 중심 도시에서의 무장 봉기를 발동시켜 소위 《먼저 한 개 성 또는 수개 성에서의 승리》를 달성하며 그리 하여 소위 전국적인 혁명 고조와 전국적인 승리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고 몽상하였고 이러한 몽상을 중심으로 일체 사업을 포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 상으로는 1927년 혁명이 실패된 후 계급적 역량 관계가 변화된 전반 정세 하에서 이러한 몽상이 가져다 준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도시 사업 자체의 실패였다. 제 1 차 《좌》경 로선이 이렇게 실패하였는데도 제 2 차 《좌》경 로선은 여전히 동일한 오류를 계속하였다. 다른 점이라면 이때에 홍군이 이미 점차적으로 장성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홍군의 배합을 요구한 그것이다. 제 2 차가 실패하였는데도 제 3 차 《좌》경 로선은 여전히 대도시에서의 무장 봉기를 《진정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른 점이라면 이때에는 홍군이 더욱 강대하여졌고 도시 사업이 더욱 축소되었기 때문에 주로 홍군에게 대도시의 점령을 요구한 그것이다. 이와 같이 당시의 도시 사업을 농촌 사업에 복종시키지 않고 농촌 사업을 도시 사업에 복종시킨 결과 도시 사업에서 실패한 후 절대 대부분의 농촌 사업에서도 실패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1932년 이후 홍군이 중심 도시를 공략하지 못하거나 고수하지 못하게 되어, 특히는 국민당의 대대적 진공으로 하여 실제 상에서는 중심 도시를 탈취하는 행동이

이미 중지되었고 1933년 이후에는 또 도시 사업이 가일층 파괴를 당하여 임시 중앙까지도 도시를 떠나 농촌 근거지로 옮겨 오게 되는 데서 한 개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당시에 《좌》경 로선을 권고 있던 동지들에게 있어서는 의식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중국 혁명의 특성을 연구하여 정확한 결론을 얻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그릇된 도시 관점으로 홍군과 근거지의 제반 사업을 지도하여 이러한 사업들이 파괴 당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이 진지전을 주장하고 유격전 및 유격성을 띤 운동전을 반대하였으며 그릇되게 소위 《정규화》를 강조하고 홍군의 소위 《유격주의》를 반대하였으며 분산된 농촌과 장기적으로 적에 의하여 분할되어 있는 유격 전쟁에 적응시켜 근거지의 인력과 재력을 아껴 쓰거나 기타의 필요한 대책들을 취할 줄 몰랐으며 제 5 차 반 《포위 토벌》 가운데서 소위 《중국의 두 갈래 로선의 결전》이니 《근거지의 한 치의 땅도 포기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그릇된 구호를 제기한 것 등은 바로 그 명백한 증거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다음과 같이 치중하여 지적한다. 위에서 말한 그 시기에 있어서 농촌 사업에서는 추진시켜야 하였고 도시 사업에서는 기다려야 하였던 그러한 정세의 변화가 지금 이미 박두하고 있다. 오직 현시기에 있어서, 항일 전쟁의 최종 단계에 있어서, 우리 당이 령도하는 군대가 이미 강대하여졌고 또 가일층 강대하여지고 있는 이 때에 있어서 적 점령구에서의 도

시 사업을 해방구의 사업과 동등한 지위에 올려 놓고 모든 조건을 적극적으로 준비함으로써 내외가 호응하여 중심 도시로부터 일본 침략자를 소멸한 연후에 사업의 중심을 이러한 도시들에 옮기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1927년에 혁명이 실패된 이래 고생스럽게 사업의 중심을 농촌으로 옮긴 우리 당에 대하여 이 점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전환으로 될 것이다. 전 당의 동지들은 충분한 자각성으로 이 전환을 준비하여야 하며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도시로부터 농촌으로 옮기는 문제에 있어서 《좌》경 로선이 표현하였던 것처럼 처음에는 반대하고 항거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지 못 해 하고 할 수 없어 하며 비자각적으로 하는 그런 오류를 또다시 되풀이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당 통치 지역에 있어서는 사태가 다르다. 거기에 있어서의 우리의 현시기의 임무는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를 막론하고 대중을 대담하게 동원하여 내전과 분열을 전걸히 반대하며 평화와 단결을 극력 전취하는 것이고 매일 작전을 강화하며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적이 점령하고 있던 도시가 인민의 손에 의하여 해방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가 진정으로 실현되고 공고화되는 그 때가 바로 농촌 근거지의 역사적 임무가 완수되는 때일 것이다.

세째, 매차의 《좌》경 로선은 진공과 방어의 전술적 지도에 있어서도 오류를 범하였다. 정확한 전술적 지도는 쓰말린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계급적



력량 관계에 대한 평가와 운동의 만조기와 퇴조기에 대한 판단을 옳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오는 정확한 투쟁 형태와 조직 형태가 필요하며 정확하게 《적의 진영 내의 개개 균열을 리용하는 데 정통할 것, 자기의 동맹자들……을 발견하기에 정통할 것》<sup>[22]</sup>이 필요하다. 중국 혁명 운동에 대한 모택동 동지의 지도는 이 점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1927년에 혁명이 실패된 후 모택동 동지는 전국의 혁명 조류가 저락되고 전국적 범위에서 적이 우리보다 강대하므로 모험적 진공은 필연코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반동 정권 내부에 분열과 전쟁이 계속되고 인민의 혁명적 요구가 점차 회복, 상승되고 있는 일반적 조건 하에서와 대중이 제 1 차 대혁명의 투쟁을 경과하였고 또 상당한 력량을 가진 홍군과 정확한 정책을 가진 공산당이 존재하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백색 정권의 사면 포위 속에 한 개 또는 몇 개의 작은 홍색 정권 지역이 산생될》 수 있다<sup>[23]</sup>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또 지배 계급이 분열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 홍색 정권의 발전은 《비교적 모험적으로 진격하여도 좋으며 비교적 광대한 범위에서 군사적 방법으로 할거 지역을 발전시켜도 좋다》, 그러나 만약 지배 계급이 비교적 안정된 시기라면 이러한 발전은 《점차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시기에 군사 상에서는 병력을 분산시켜 모험적으로 진격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삼가야 하고 지방 사업 면(토지 분여, 정권 수립, 당의 발전, 지방 무장력의 조직)에 있어서는 중심 지구에 튼튼한 토대를 닦는

데 주력하지 않고 인력을 분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삼가야 한다.》(24)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있어서도 적의 강약이 부동하므로 우리의 전술도 달라져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호남-강서 접경의 할거 지구는 《통치 세력이 비교적 강한 호남성에 대하여서는 수세를 취하고 통치 세력이 비교적 약한 강서성에 대하여서는 공세를 취하여야》(25) 한다고 지적하였다. 호남-강서 접경 지대의 홍군이 그 후 복건-강서 접경 지대에 들어 가자 또 《강서성을 탈취하며 동시에 복건성 서부와 절강성 서부에까지 손을 펼치자》(26)는 계획을 제기하였다. 혁명에 대한 상이한 적들의 상이한 이해 관계는 상이한 전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그러므로 모택동 동지는 시종 일관 《반혁명 내부의 매개의 충돌을 리용하여 적극적 면에서 그들 내부의 파멸을 확대시키며》(27) 《교섭 정책을 반대하고 가능한 모든 동맹자의 쟁취를 인정할 것》(28)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모순을 리용하고 다수를 쟁취하고 소수를 반대하고 각개 격파하는》(29) 이 전술적 원칙의 적용은 그가 령도한 매차의 반 《포위 토벌》 전쟁에서, 특히는 준의 회의 후의 장정과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사업에서 빛나는 발전을 가져 왔다. 백색 지구 사업에 있어서의 류 소기 동지의 전술 사상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모범이다. 류 소기 동지는 1927년에 혁명이 실패된 후 백색 지구, 특히 도시에 있어서의 적아 간 력량의 현저한 차이를 옳게 평가하였기 때문에 계통적인 퇴각과 방어를 조직하여 《정세와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할 때에는 적과의 결전을 잠시 피함》으로써 《앞으로의 혁명의 진공과 결전

을 준비할 것》<sup>[30]</sup>을 주장하였으며 또 1924~1927년 혁명 시기에 공개적이었던 당의 조직을 계획적으로 엄밀히 비밀 조직으로 전환시키며 군중 공작에 있어서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가급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당의 비밀 조직으로 하여금 이러한 군중 공작 중에서 장기적으로 자기의 력량을 엄폐할 수 있게 하며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서 《대중의 력량을 축적하고 강화하며 대중의 각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할 것》<sup>[31]</sup>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군중 투쟁을 령도함에 있어서 류 소기 동지는 《그 때 그 지방의 환경과 조건에 근거하여, 대중의 각성 정도에 근거하여 대중이 접수할 수 있는 부분의 구조, 요구 및 투쟁 방식들을 제기하여 군중 투쟁을 발동시키는 동시에 투쟁 과정에서의 각종 조건들의 변화에 근거하여 군중 투쟁을 점차 더욱 높은 단계어로 제고하거나 〈적당한 정도에서 멈추는〉 식으로 전투를 당분간 종결시킴으로써 다음 번의 더 높은 단계와 더 큰 범위에서의 전투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적의 내부 모순을 리용하며 일시적 동맹자를 쟁취하는 문제에 있어서 류 소기 동지는 《이러한 모순들의 폭발을 추동하며 적 진영 내부의 우리와 합작할 수 있는 요소 혹은 오늘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의 주요한 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자들과 일시적으로 동맹을 맺고 주요한 적을 반대》하여야 하며 《우리과 합작하려는 동맹자들에 대하여서는 필요한 양보를 하여 그들이 우리와 련합하고 공동의 행동에 참가하도록 한 다음 그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의 하부 군중을 쟁취》<sup>[32]</sup>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12.9 운동의

성공은 백색 지구 사업에 있어서의 이러한 전술적 원칙이 정확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정확한 전술적 지도와는 반대로 매차의 《좌》경 로선을 취한 동지들은 적아 간의 역량 관계를 객관적으로 고찰할 줄 모르고 이에 상응한 투쟁 형태와 조직 형태를 취할 줄 모르며 적 내부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어하여야 할 경우에 맹목적인 소위 《진공 로선》을 실시하여 실패 당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정말 진공하여야 할 경우에도 승리적인 진공을 조직할 줄 몰라 실패 당하였다. 그들의 《정세 평가》 방법은 자기들의 견해에 유리한 일부의 개별적, 맹아적, 간접적, 일면적 및 표면적인 현상들을 대량적, 엄중한, 직접적, 전면적, 본질적인 것으로 과대시하며 자기들의 견해에 합치되지 않는 모든 실제(예를 들면 적이 강대하고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 우리가 약소하고 일시적으로 실패한 것, 대중의 각성 정도가 부족한 것, 적의 내부 모순, 중간파의 진보적 면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시인하기를 두려워 하거나 본 체 만 체 하여 버리는 것이다. 그들은 있을 수 있는 가장 곤란하고 가장 복잡한 정형에 대하여서는 종래로 예상하지 않고 오로지 있을 수 없는 가장 순조롭고 가장 단순한 정형만을 꿈 꾸는 것이었다. 홍군 운동 면에 있어서 그들은 혁명 근거지를 포위하고 있는 적을 언제나 《심한 동요》, 《극도의 공황》, 《퇴후의 멸망》, 《가속적인 붕괴》, 《총붕괴》 등으로 묘사하였다. 제 3 차 《좌》경 로선의 대표자들은 심지어 홍군이 자기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국민당 군대 전체보다도 더 우세하다고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늘 홍군에게 무조건적으로, 심지어는 간단 없이 모험적으로 진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제 3 차 《좌》경 로선의 대표자들은 1924~1927년 혁명에 의하여 조성된 남방과 북방에서의 혁명 발전의 불균형성(이러한 정황은 항일 전쟁 기간에 이르러서야 상반되는 변화를 일으켰다)을 부인하고 옳지 못 하게 소위 《북방 략후론》을 반대하면서 북방의 농촌들에서 보편적으로 홍색 정권을 수립할 것과 북방에 있는 백색 군대 내부에서 보편적으로 반란을 조직하여 그들을 홍군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또 근거지의 중심 지구와 변연 지구와의 불균형성을 부인하고 옳지 못 하게 소위 《라 명 로선》<sup>[33]</sup>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홍군을 진공하는 각 군벌들 간의 모순을 리용할 것을 거부하였으며 홍군에 대한 진공을 중지하려는 군대와 다협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백색 지구 사업에 있어서 그들은 혁명이 이미 퇴조기로 넘어 가고 반혁명적 통치 력량이 극히 강대하여진 도시에서 필요한 퇴각과 방어 조치를 취할 것을 거부하고 리용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수단을 거부하고 당시의 정형 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진공 형태를 계속 취하여 아무런 엄호도 없는 방대한 당 기관 및 광범한 대중과 리탈된 제 2 당식의 각종 적색 군중 단체라는 것을 조직하였으며 정치 파업, 동맹 파업, 동맹 휴학, 철시, 군사 훈련의 거부, 보초 근무의 거부, 시위 행진, 얼른 모였다가 얼른 흩어지는 비행 집회, 나아가서는 무장 폭동 등 대중의 참가와 지지를 받기 어렵거나 또는 받을 수 없는 행동을 일상적으로 무조건하고 호소 또는 조직하였고 이

러한 모든 행동의 실패를 《승리》로 꼭해하였다. 한 마디로 말하면 매차의, 특히는 제 3 차의 《좌》경 로선을 걸은 동지들은 오직 관문주의와 모험주의 밖에 몰랐으며 그들은 《투쟁은 일체를 초월하며 모든 것은 투쟁을 위하여》야 하고《투쟁을 부단히 확대, 제고》하여야 한다고 맹목적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실패를 계속 당하였던 것이다.

## (2) 군사적 면에서

중국 혁명의 현 단계에 있어서 군사 투쟁은 정치 투쟁의 주요한 형태이다.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 이 문제는 당 로선에 있어서의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되고 있었다. 모택동 동지는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하여 중국 혁명의 정확한 정치 로선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 혁명 전쟁 시기로부터 맑스-레닌주의를 적용하여 이 정치 로선에 복종하는 정확한 군사 로선도 규정하였다. 모택동 동지의 군사 로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관점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첫째로는, 우리의 군대는 다른 어떠한 형태의 군대가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군대일 수도 없으며 그것은 프로레타리아 사상의 정도에 복종하며 인민의 투쟁과 근거지 건설에 복무하는 도구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우리의 전쟁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전쟁이 아니고 또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전쟁일 수도 없으며 그것은 적이 강대하고 우리가 약하며 적이 크고 우리가 작다는 것을 시인하는 조건 하에서 적의 약점과 우리의 우점을 충분히 리용하며 인민 대중의 력

량에 충분히 의거함으로써 생존과 승리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홍군(지금은 팔로군, 신사군 및 기타의 인민 군대)은 당의 로선, 강령 및 정책을 위하여, 즉 전국 인민들의 각 방면의 리익을 위하여 일심 정력으로 투쟁하여야 하며 이와 상반되는 모든 군벌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홍군은 군사를 정치에 복종시키지 않거나 군사으로써 정치를 지휘하려는 단순한 군사 관점과 류구 사상을 반대하여야 하며 홍군은 전투와 군중 공작과 자금 조달(지금은 생산)의 삼위 일체의 임무를 동시에 담당하여야 한다. 군중 공작을 한다는 것은 당과 인민 정권의 선전자로, 조직자로 되어야 한다는 말이며 지방의 인민 대중을 도와 토지를 분여하며(지금은 소작료 인하와 리자 인하) 무장력을 조직하며 정권을 수립하며 나아가서는 당 조직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홍군은 군대와 정부 간의 관계, 군대와 인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인민의 정권 기관과 군중 단체를 엄격히 존중하며 그들의 위신을 공고화하며 《3대 규률》과 《8항 주의》<sup>(34)</sup>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군대 내부에 있어서는 군판과 병사와의 정확한 관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일정한 민주주의적 생활과 자각에 기초한 권위 있는 군사 규률이 있어야 한다. 적군에 대한 공작에 있어서는 적군을 와해시키며 포로를 쟁취하는 정확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둘째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홍군은 유격전과 유격성을 띤 운동전이 토지 혁명 전쟁 시기의 주요한 전쟁 형태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하며 오직 주력 병단

과 지방 병단이 결합되고 정규군과 유격대, 민병이 결합되며 무장한 대중과 무장하지 않은 대중이 결합된 인민 전쟁이라야만 자기보다 몇 배나 더 강대한 적을 타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홍군은 전략적 속결전과 전역적 지구전을 반대하고 전략적 지구전과 전역적 속결전을 견지하여야 하며 전역과 전술에서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타승하려는 것을 반대하고 전역과 전술에서 많은 병력으로 적은 적을 타승하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홍군은 《병력을 분산하여 군중을 발동시키고 병력을 집중하여 적을 대항하며》, 《적이 진공하면 우리는 퇴각하고 적이 주둔하면 우리는 교란하고 적이 피로하면 우리는 공격하고 적이 퇴각하면 우리는 추격하며》, 《고정 구역의 할거에 있어서는 파상식 추진 정책을 쓰며 강한 적이 뒤를 따를 때에는 선회식 전환 정책을 쓰며》[35],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며》[36], 《우세한 병력을 집중하여 적의 약점을 골라 운동전 과정에서 자신 있게 적의 일부 또는 그 대부분을 소멸함으로써 적을 각개 격파한다》[37]는 등의 전략 전술 원칙을 실시하여야 한다. 매차의 《좌》경 로선은 군사 상에 있어서 모두가 모택동 동지와 정반대되는 면에서 있었다. 제 1 차 《좌》경 로선의 맹동주의는 홍군으로 하여금 인민 대중과 리탈되게 하였고 제 2 차 《좌》경 로선은 홍군으로 하여금 모험적인 진공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두 차례의 《좌》경 로선은 군사 상에서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 하였다. 완전한 체계를 갖춘 것은 제 3 차였다. 제 3 차 《좌》경 로선은 군대 건설 문제에



있어서 홍군의 세 가지 임무를 단순히 전투 한 가지만으로 축소시키고 군대와 인민, 군대와 정부, 군관과 병사 간의 정확한 관계에 대한 교양을 소홀히 하였으며 부당한 정규화를 요구하면서 당시에 있어서의 홍군의 정당한 유격성을 소위 《유격주의》로 간주하고 이를 반대하였으며 또 정치 사업에서의 형식주의를 발전시켰다. 작전 문제에 있어서 이 로선은 적이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전제를 부인하고 진지전과 단순히 주력군에만 의존하는 소위 《정규》전을 요구하였으며 전략적 속결전과 전역적 지구전을 요구하였으며 《전 전선에 걸쳐 출격하며》 《두 주먹으로 칠 것》을 요구하였으며 적을 깊이 유인하여 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필요한 이동을 《퇴각 도망주의》로 간주하였으며 고정적인 작전선과 절대적 집중 지휘 등을 요구하였다. 한 마디로 말하면 유격전과 유격성을 띤 운동전을 부정하였으며 정확한 인민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 5 차 반 《포위 도벌》 작전에 있어서 그들은 처음에는 진공에 있어서의 모험주의를 실시하여 《적을 국경 밖에서 막을 것》을 주장하였고 그 다음에는 방어에 있어서의 보수주의를 실시하여 병력을 분산하여 방어할 것, 《단축한 돌격》을 할 것, 적과 《소모를 겨룰》 것을 주장하였으며 마지막에 강서 근거지를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또 진짜 도망주의를 실시하는 데로 넘어 갔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진지전으로써 유격전 및 운동전을 대체하며 소위 《정규》 전쟁으로써 정확한 인민 전쟁을 대체하려고 시도한 결과이다.

함일 전쟁의 전략적 퇴각과 전략적 대치 단계에 있어서는 적아 간의 강약의 차이가 더욱 심하기 때문에 팔로군과 신사군의 정확한 방침은 《기본적인 것은 유격전이지만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운동전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운동전을 억지로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앞으로 닥쳐 올 전략적 반공 단계에 가서는 바로 전 당의 사업 중심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옮겨 가야 하듯이 우리 군대가 신식 장비를 획득하게 되는 조건 하에서 전략 상에 있어서도 유격전을 주로 하던 데로부터 운동전과 진지전을 주로 하는 데로 전환하여야 한다. 앞으로 곧 닥쳐 올 이 전환에 대하여서도 전 당은 충분한 자각성을 가지고 준비하여야 한다.

### (3) 조직적 면에서

모택동 동지가 말한 바와 같이 정확한 정치 로선은 《대중 속으로부터 나와 다시 대중 속으로 들어 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 로선을 진정으로 대중 속으로부터 나오게 하려면, 특히는 진정으로 대중 속으로 들어 가게 하려면 당이 당외의 대중(계급 및 인민)과 긴밀히 연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지도 기관이 당내의 대중(간부 및 당원)과 긴밀히 연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조직 로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택동 동지는 당의 매개 시기에 있어서 인민 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는 정치 로선을 규정 한 동시에 이 정치 로선에 복무하는, 당내 당외의 대중과 연계하는 조직 로선도 규정하였던 것이다. 이 사업은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도 중대한 발전을 가져 왔다. 그 집중

적 표현은 1929년의 홍군 제 4 군 당 제 9 차 대표 대회의 결정<sup>[38]</sup>이다. 이 결정은 일방으로는 당의 건설을 사상적 원칙과 정치적 원칙의 높이에까지 올려 놓고 프로레타리아 사상의 명도를 견지하면서 단순한 군사 관점, 주관주의, 개인주의, 평균주의, 류구 사상, 맹동주의 등의 경향들을 반대하는 투쟁들을 옮겨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경향들의 근원, 해독 및 그 시정 방법들을 지적하였고 타방으로는 또 엄격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견지하여 민주주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반대하였거니와 중앙 집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도 반대하였다. 모택동 동지는 또 전 당'적 단결의 리익에서 출발하여 국부는 전체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을 견지하였으며 동시에 중국 혁명의 구체적 특성에 근거하여 새 간부와 로간부, 외지에서 온 간부와 당지의 간부, 군대 간부와 지방 간부 및 상이한 부문, 상이한 지구의 간부들 간에 있어서의 올바른 관계를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모택동 동지는 진리를 견지하는 원칙성과 조직에 복종하는 규율성을 호상 결합하는 데 있어서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며 당내 투쟁을 옮겨 진행하며 당내 단결을 옮겨 유지하는 데 있어서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이와 반대로 모든 그릇된 정치 로선이 지배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릇된 조직 로선도 동시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그릇된 정치 로선의 지배 기간이 오래면 오렐수록 그 그릇된 조직 로선이 주는 해독도 더 심하였다. 그리 하여 토지 혁명 전쟁 시기의 백차의 《좌》경 로선은 비단 모택동 동지의 정치 로선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택동 동지의

조직 로선도 반대하였으며 당외의 대중들과 리탈되는 종파주의(당을 인민 대중의 리익의 대표자로, 인민 대중의 의지의 집중적 표현자로 보지 않는)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내의 대중과 리탈되는 종파주의(당내의 일부 사람들의 국부적 리익을 전 당'적 리익에 복종시키지 않으며 당의 지도 기관을 전 당'적 의지의 집중적 표현자로 보지 않는)도 형성하였다. 특히 제 3 차 《좌》경 로선의 대표자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릇된 로선을 실행하여 낼 수 없기 때문에 그 로선을 회의하고 찬동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건결히 집행하지 않는 당내의 모든 동지들에 대하여 그 정형의 여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옳지 못하게 《우경 기회주의》니 《부농 로선》이니 《라 명 로선》이니 《융화적 로선》이니 《량면파》니 하는 등의 큰 감투를 씌우고 《가혹한 투쟁》과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심지어는 범죄자나 적에 대하여 취하는 투쟁 방식으로써 이러한 《당내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그릇된 당내 투쟁은 《좌》경 로선을 명도하거나 집행하는 동지들이 자기들의 위신을 높이며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하며 당원 간부들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되고 있었다. 그것은 당내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고 당내의 비판과 자기 비판의 민주주의적 정신을 말살하여 당내의 규률을 기계적인 규률로 되게 하였으며 당내에서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부화 퇴동하는 경향을 발전시켰으며 따라서 당내에서의 생기 발랄한 창조적인 맑스주의의 발전은 타격과 저애를 받았다. 이러한 그릇된 당내 투쟁과

결합된 것은 종파주의적인 간부 정책이었다. 종파주의자들은 로간부를 당의 귀중한 자본으로 간주하지 않고,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으며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거나 부화 퇴동하지 않는, 사업 경험이 있고 대중과 연계하는 모든 중앙 및 지방의 로간부들을 대량적으로 타격하며 차별하며 철적시켰다. 그들은 새 간부들에 대하여서도 올바른 교양을 주지 않았으며 새 간부(특히 로동자 출신의 간부)를 등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엄숙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기들과 뜻이 맞고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부화 퇴동할 줄 밖에 모르는, 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대중과의 연계가 없는 새 간부와 외지에서 온 간부들을 경솔하게 등용하여 중앙과 지방의 로간부들을 대체시켰다. 이리 하여 그들은 로간부들을 타격하였을 뿐 아니라 신간부들도 해치었다. 많은 지구들에서는 더구나 그릇된 반혁명 숙청 정책과 간부 정책에 있어서의 종파주의가 한데 뒤엉킨 데서 많은 우수한 동지들이 그릇된 처리 하에 억울하게 희생되었으며 이리 하여 당은 침통한 손실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종파주의적 오류는 당내에서 상하가 리탈되는 현상과 기타 많은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조성하였으며 당을 극도로 약화시켰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여기서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그릇된 로선에 의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은 모든 동지들에 대하여서는 그 정형에 근거하여 그러한 차별을 취소하거나 그 그릇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릇된 처리로 하여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이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모든 동지들에 대하여서는 그 루명을 벗겨 주고 당적을 회복시켜 주는 동시에 동지적 추모를 하여야 한다.

#### (4) 사상적 면에서

모든 정치 로선, 군사 로선 및 조직 로선이 옳고 그른 것은 그 사상 근원이 맑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서 출발하였는가 어떤가, 중국 혁명의 객관적 현실 및 중국 인민의 객관적 수요로부터 출발하였는가 어떤가에 있다. 모택동 동지는 중국의 혁명 사업에 종사한 첫날부터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적용하여 중국 사회의 실정을 조사 연구하는 데 치중하였으며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는 특히 《조사가 없이는 발언권이 없다》는 진리를 재삼 강조하였고 교조주의와 주관주의의 해독을 재삼 반대하였다. 모택동 동지가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규정한 정치 로선, 군사 로선 및 조직 로선은 바로 그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에 근거하고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에 근거하여 당시의 국내외 및 당내외의 현실적 정형과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동시에 중국 혁명의 역사적 경험, 특히는 1924~1927년 혁명의 역사적 경험을 구체적으로 총화한 찬란한 성과인 것이다.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투쟁하고 있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학습하는 것은 모택동 동지가 한 것처럼 그것으로써 중국 혁명의 제반 실제 문제들을 연구하며 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좌》경적 오유를 범한 모든 동지들은 물론 그 당시에 있어서 모택동 동지의 이러한 방법

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접수할 수도 없었으며 제 3 차 《좌》경 로선의 대표자들은 모택동 동지를 《협애한 경험주의자》라고 중상까지 하였다. 이것은 그들의 사상적 근원이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이며 제 3 차 《좌》경 로선이 지배하던 시기에 있어서는 그것이 특히 교조주의로 뚜렷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교조주의의 특징은 실제 정형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있는 개별적 어'구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교조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립장과 방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진지하게 연구하며 중국 혁명의 실제 경험을 진지하게 연구하여 결론을 얻어 내고 그 결론을 중국 혁명의 행동 지침으로 삼는 동시에 다시 대중의 실천 과정에서 이러한 결론의 정확 여부를 검증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이와는 반대로 맑스-레닌주의의 본질을 내 버리고 맑스-레닌주의의 서적에 있는 몇 마디의 개별적인 어'구들을 중국에 옮겨다가 교조로 삼으며 그러한 구절들이 중국 현시의 실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는 조금도 연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의 《리론》이 실제와 리탈되며 그들의 지도가 대중과 리탈되며 그들이 실사 구시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자고자대하고 말만 그럴듯 하게 하며 정확한 비판과 자기 비판을 두려워 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교조주의가 지배하던 시기에 그것과 합작하고 또 그 조수로 되고 있던 경험주의 사상도 역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의 표현 형태의 하나이다. 경험주의가 교조주의와 구별되는

점은 그것이 서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험애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데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치중하여 지적하여야 하겠다. 실제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가장 광범한 동지들의 모든 유익한 경험들은 극히 귀중한 재산이다. 이러한 경험들을 과학적으로 총화하여 그것을 금후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은 결코 경험주의인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인 것이다. 그것은 마치 맑스-레닌주의의 명제와 원칙을 교조로 삼지 않고 혁명적 행동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결코 교조주의인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인 것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로서 누구를 물론하고 만약 자기의 국부적인 경험에 만족하거나 지어는 그것에만 만족하여 그것을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교조로 인정하는 나머지 <혁명적 이론이 없이는 혁명적 운동도 있을 수 없다>〔39〕, <지도하기 위해서는 예견하여야 한다>〔40〕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 하고 또 그것을 시인하려 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계 혁명의 경험을 총화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학습을 경시하는 동시에 험애하고도 무원칙한 소위 실제주의와 아무런 생각도 전망도 없는 사무주의에 도취되어 지휘대에 올라 앉아서 맹목적으로 영웅인 체 하고 경력이 오래다는 자세만 부리며 동지들의 비판을 귀 담아 듣지 않고 자기 비판을 전개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경험주의자로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경험주의와 교조주의의 출발점은 다르지만 사상 방법의 본질 면에서는 량자가 일치한 것이다. 이 량자는 모두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중국 혁명



의 구체적 실천을 분리시키며 모두가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위반하여 일면적, 상대적인 진리를 보편적, 절대적인 진리로 과장하며 그 사상은 모두가 객관적, 전면적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국 사회와 중국 혁명에 대하여 많은 공통한 그릇된 인식들(예를 들면 도시를 중심으로 보는 그릇된 관점, 백색 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보는 그릇된 관점, 실제 정형과 리탈된 그릇된 《정규》전의 관점 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 두 부분의 동지들이 서로 합작할 수 있는 사상적 근원이다. 경험주의자의 경험은 국부적이고 힙애하며 그들 가운데의 다수는 전면성을 띤 문제에 대하여 흔히 독자적이고 명확하고 완전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조주의자와 결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후자의 부속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당의 역사가 증명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교조주의자는 경험주의자와의 합작이 없이는 《해독을 전 당에 퍼뜨리기》 어려우며 교조주의가 극복된 후에는 경험주의가 더욱 당내에 있어서의 맑스-레닌주의 발전의 주되는 장애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관주의적인 교조주의를 극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주의적인 경험주의도 극복하여야 한다. 교조주의와 경험주의 사상을 철저히 극복하여야만 맑스-레닌주의의 사상, 로선 및 작품이 전 당에 보급, 침투될 수 있다.

상술한 정치, 군사, 조직 및 사상 등 네 개 면에서의 오류야 말로 매차의, 특히는 제 3 차의 《좌》경 로선의 기본 오류이다. 그런데 일체 정치적, 군사적, 조직적 면에서의 오류

는 모두 사상적 면에서 맑스-레닌주의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을 위반한 데서 온 것이며 주관주의와 형식주의, 교조주의와 경험주의에서 온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우리가 매차의 《좌》경 로선의 오류를 반대함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나 분석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일체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sup>[41]</sup>고 한 모택동 동지의 지시를 동시에 명기하고 그것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리고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이러한 오류를 범한 동지들의 견해도 그 전부가 다 그릇된 것은 아니며 반제, 반봉건, 토지 혁명 그리고 장 개석을 반대하는 전쟁 등 문제에 있어서의 그들의 약간의 견해는 올바른 로선을 주장한 동지들의 견해와 여전히 일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지적하여야 할 것은 제 3 차 《좌》경 로선이 지배한 기간이 특히 길었고 당과 혁명에 준 손실이 특히 컸지만 이 시기에 있어서도 당은 광범한 간부와 당원 대중, 광범한 군대와 인민 대중이 한 덩어리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업하고 영용하게 투쟁하였기 때문에 많은 지구와 많은 부문의 실제 사업에서 여전히 커다란 성과(폐물 들면 전쟁에서, 군사 건설에서, 전쟁 동원에서, 정권 건설에서, 백색 지구 공작에서)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적의 진공을 반대하는 전쟁을 수 년 동안이나 지탱하여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릇된 로선의 지배로 하여 이러한 성과는 마침내 파괴 당하고 말았다. 당의 기타 모든 역사적 시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배차의 그릇된 로선이 지배하던 시기에 있어서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장렬하게 희생된 당내, 당외의 모든 수령, 지도자, 간부, 당원 및 인민 대중들은 영원히 당과 인민들의 존경을 받을 것이다.

### (5)

《좌》경 로선의 상술한 네 개 면의 오류가 산생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깊은 사회적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 동지에 의하여 대표되는 올바른 로선이 중국 프롤레타리아트의 선진 분자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경 로선은 중국 소부르조아 민주주의파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중국은 소부르조아지가 아주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 당은 당외적으로만 이 광범한 계층의 포위 속에 처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당내적으로도 10월 혁명 후 맑스-레닌주의가 세계적인 위대한 승리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중국의 현시기의 사회 정치 상황, 특히는 국공 량당의 역사적 발전에 의하여 중국에 강대한 소부르조아 정당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소부르조아지의 혁명적 민주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렬에서 자기들의 출로를 찾게 됨으로써 당내에서 소부르조아 출신의 분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밖에 노동자 대중과 노동자 출신의 당원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조건 하에서는 소부르조아적인 색채에 물 들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 당내에 소부르조아 사상이 늘 이러저러하게

반영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외의 소부르조아 대중으로 말하면 농민이 중국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주요한 역량으로 되고 있는 외 중국에서는 대다수의 도시 소부르조아 대중도 역시 갖은 압박을 받으며 늘 급속하게 대량적으로 빈곤과 파산 및 실업 상태에 빠지고 있어 경제적 및 정치적 면에서의 그들의 민주주의적 요구가 매우 절박하기 때문에 현 단계의 혁명에 있어서 도시 소부르조아지 역시 혁명의 동력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러나 소부르조아지는 과도적인 계급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 그 좋은 면, 혁명적인 면을 두고 말한다면 소부르조아 대중의 대다수는 정치적 및 조직적으로 나아가서는 사상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영향을 받아 들일 수 있고 현시에 있어서 민주주의 혁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 혁명을 위하여 단합하여 투쟁할 수 있으며 장래에도 프로레타리아트와 함께 사회주의에로 나아가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나쁜 면, 낙후한 면을 두고 말한다면 프로레타리아트와 다른 여러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도를 잃게 되면 왕왕 자유 부르조아지 또는 대부르조아지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와 그 선진 부대인 중국 공산당은 당외의 소부르조아 대중에 대하여 견결하고도 광범하게 연합하는 기초 위에서 일방으로는 그들을 반대하게 대우하며 적에 대한 투쟁과 공동의 사회 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그들의 자유주의적 사상과 작풍의 존재를 허용하여야 하고 타방으로는 그들에게 적당

한 교양을 줌으로써 그들과의 연합을 공고화하여야 한다.

소부르조아 출신으로서 자진하여 자기의 본래의 입장을 버리고 프로레타리아 당에 가입한 사람은 그 정형이 전연 다르다. 당은 그들에 대하여 당외의 소부르조아 대중에 대하는 것과는 원칙적으로 다른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그들은 원래 프로레타리아트와 접근되어 있었고 또 자진하여 프로레타리아 당에 가입하였으므로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교양과 균중적 혁명 투쟁의 실제 단련을 통하여 사상적으로 점차 프로레타리아화할 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대렬에 커다란 리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 우리 당에 가입한 소부르조아 출신의 압도적 다수는 당과 인민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 있거나 영용하게 희생하였으며 그들의 사상은 진보하였고 많은 사람들은 맑스-레닌주의자로 되었다. 그러나 치중하여 지적하여야 할 것은 프로레타리아화하지 못한 일체 소부르조아 분자의 혁명성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성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는 흔히 적대적인 상태에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소부르조아적 혁명성을 가지고 있는 당원은 비록 조직적으로는 입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상적으로는 입당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입당하지는 않았으며 그들은 흔히 맑스-레닌주의자의 면모로 나타나는 자유주의자, 개량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불랑끼주의(42)자 등등인 것이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는 그들이 중국의 장래의 공산주의 운동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오늘의 신민주주의 운

동도 승리에로 인도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프로레타리아트의 선진 분자가 맑스-에닌주의 사상으로써 이러한 소부르쵸아 출신의 당원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낡은 사상과 계선을 건결히 가르치지 않고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적절하고 참을성 있게 교양과 투쟁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부르쵸아 사상이 극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연코 그들 자신의 본래의 면모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선진 부대로서의 당의 면모를 대체시키며 당을 찬탈하려고 극력 시도함으로써 당과 인민의 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될 것이다. 당 외에 소부르쵸아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 내에 소부르쵸아 출신의 당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은 더욱더 프로레타리아트의 선진 부대로서의 자기의 순결성을 엄격히 보전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당에 대한 소부르쵸아 사상의 진공은 필연코 더욱 맹렬하여 질 것이며 당이 받는 손실도 필연코 더욱 커질 것이다. 우리 당의 역사 상 매차의 그릇된 로선과 옳바른 로선 간의 투쟁은 그 본질로 보아 당외의 계급 투쟁이 당내에 반영된 것이며 상술한 정치적, 군사적, 조직적, 사상적 면에서의 <좌>경로선의 소유도 이러한 소부르쵸아 사상이 당내에 반영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세 개 면으로부터 분석할 수 있다.

첫째로, 사상 방법 면에서. 소부르쵸아지의 사상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제 관찰에 있어서의 주관성과 일면성으로 표현된다. 즉 계급적 역량 관계의 객관적, 전면적인 정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념원, 감상 및 공담을 실제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일면적인 것을 전면적인 것

으로, 국부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나무를 숲으로 간주한다. 실제 생산 과정으로부터 리탈된 소부르쥬아 지식인들은 책에서 얻은 지식만 있고 감성적 지식이 결여하기 때문에 그 사상 방법은 우리가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교조주의로 표현되기가 비교적 쉽다. 생산과 연결되어 있는 소부르쥬아 분자는 일정한 정도의 감성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소생산자적 협애성, 산만성, 고립성 및 보수성의 제약으로 인하여 그 사상 방법은 우리가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그러한 경험주의로 표현되기가 비교적 쉽다.

둘째로, 정치적 경향 면에서. 소부르쥬아지의 정치적 경향은 그들의 생활 양식 및 거기서 오는 사상 방법 상에서의 주관성, 일면성으로 하여 일반적으로는 좌우로 동요하는 것으로 표현되기 쉽다. 소부르쥬아 혁명가의 많은 대표적 인물들은 혁명이 당장 승리하여 자기들의 오늘의 지위가 근본적으로 개변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장기적으로 혁명에 노력하려는 인내성이 결여하고 《좌》경적인 혁명 언사나 구호에 대하여 매우 큰 흥미를 느끼며 관문주의나 모험주의적인 기분과 행동으로 흐르기 쉽다. 소부르쥬아지의 이러한 경향이 당내에 반영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혁명의 입부 문제, 혁명 근거지 문제, 전술적 지도 문제 및 군사 로선 문제 등에 있어서의 《좌》경 로선의 각종 오류들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소부르쥬아 혁명가가 이와 다른 정형 하에서는, 혹은 다른 일부분의 소부르쥬아 혁명가들은 비판 실망

하며 부르조아지의 뒤를 따르는 우경적 기분과 우경적 관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1924~1927년 혁명 후기에 있어서의 진독수주의, 토지 혁명 후기에 있어서의 장국도주의와 장정 초기에 있어서의 도망주의는 모두가 소부르조아지의 이러한 우경적 사상의 당내에서의 반영이다. 항일 시기에 있어서도 또 투항주의 사상이 발생된 일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결렬되어 있는 시기에 있어서는 《좌》경적 오유가 발생되기 비교적 쉽고(례를 들면 토지 혁명 시기에 《좌》경 로선이 당의 지도 기관을 세 차례나 지배하였다)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가 연합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서는 우경적 오유가 발생되기 비교적 쉽다(례를 들면 1924~1927년 혁명의 후기와 항일 전쟁 초기에 있어서). 그런데 《좌》경이거나 우경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혁명에 불리하고 반혁명에게만 리로운 것이다. 여러 가지 정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좌우에로의 동요, 극단으로 나아가기를 좋아 하는 것, 허울은 좋으나 실'속이 없는 것, 투기적으로 요행을 노리는 것 등은 소부르조아 사상의 나쁜 일면의 특징이다. 이것은 경제적 면에서의 소부르조아지의 불안정한 지위가 사상적 면에 반영된 것이다.

세째로, 조직 생활 면에서. 소부르조아지 일반의 생활양식과 사상 방법의 제약으로 하여, 특히는 락후하고 분산적인 중국의 가부장제적 사회 및 민간 결사나 길드적 사회 환경으로 하여 조직 생활 면에 있어서의 소부르조아지의 경향은 대중과 리탈된 개인주의와 종파주의로 표현되기 쉽다. 이



러한 경향이 당내에 반영되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좌》경 로선의 그릇된 조직 로선을 조성하게 된다. 당이 장기적으로 분산된 농촌 유격 전쟁의 환경에 처하여 있는 정황은 이러한 경향의 발전에 더 유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당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당과 인민의 력량을 리용하며 당과 인민의 리익을 파괴함으로써 개인과 종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대중과 연계하는 당의 원칙, 당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및 당의 규율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항상 관료주의, 가부장제, 징벌주의, 명령주의, 개인 영웅주의, 반무정부주의, 자유주의, 극단적 민주주의, 독립성을 부리는 것, 길드주의, 산두주의, 동향 및 동창 관념, 파벌적 분규, 불량배적인 수단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여 당과 인민 대 중간의 연계 및 당내의 단결을 파괴한다.

이러한 것들이 곧 소부르쥬아 사상의 세 개 면이다. 우리 당내에서 여러 번 발생된 사상적 면에서의 주관주의, 정치적 면에서의 《좌》경 또는 우경, 조직적 면에서의 종파주의 등의 현상은 그것이 로선으로 형성되었건 안 되었건, 령도권을 장악하였건 못 하였건 간에 모두가 소부르쥬아 사상의 반맑스-레닌주의적, 반프로레타리아적인 표현인 것은 분명하다. 당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교양의 방법으로 당내에 존재하는 소부르쥬아 사상을 분석하고 극복함으로써 그들의 프로레타리아화를 촉진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 (6)

우에서 말한 바에 의하여 전 당을 지배한 개차의, 특히는 제 3 차의 《좌》경 로선은 우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일정한 사회 역사적 조건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릇된 《좌》경 사상 또는 우경 사상을 극복함에 있어서 경솔히 하여서도 안 되거니와 성급히 하여서도 안 되며 맑스-레닌주의적 교양을 침투시켜 프로레타리아 사상과 소부르쵸아 사상에 대한 전 당의 식별 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당내에서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하며 꾸준한 설복 사업과 교양 사업을 진행하여 오유의 내용과 그 해독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오유의 역사적 및 사상적 근원과 그 시정 방법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자가 당내의 오유를 극복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태도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이번 전 당'적 정풍 및 당 력사 학습 과정에서 모택동 동지가 취한 방침, 즉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며》 《사상을 구명하는 동시에 동지들과 단결한다》<sup>[43]</sup>는 방침은 맑스-레닌주의자가 당내의 오유를 극복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의 모범이며 또한 이로 인하여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 면에서 전 당을 제고하고 단결시키는 위대한 성과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한다. 당의 역사 상에 진독수주의와 리림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투쟁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 이러한 투쟁들의 결함은 이 투쟁을 당내에 엄중하게 존재하고 있던 소부르쥬아 사상을 개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삼아 의식적으로 진행하지 못 하였으며 따라서 오유의 본질과 근원을 사상적으로 철저히 구명하지 못 하였고 적절한 시정 대책을 내세우지도 못 하여 오유를 재차 범하기 쉽게 만든 데 있으며 이와 동시에 개인의 책임 추구에 너무 치중하여 오유를 범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타격을 가하고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데 있다.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이래의 오유들을 검토한 후 당은 금후 당내의 일체 사상 투쟁을 진행할 때 이러한 결함들을 피하고 모택동 동지의 방침을 견결히 집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과거에 오유를 범한 그 어떠한 동지든지 그가 이미 자기의 오유를 깨닫고 그것을 시정하기 시작하였다면 선입견을 버리고 그를 환영하여야 하며 그와 단결함으로써 그가 당을 위하여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사 아직 자기의 오유를 잘 깨닫지 못 하고 잘 시정하지 못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자기의 오유를 고집하지 않는 동지에 대하여서는 역시 오유를 깨닫고 시정하도록 친절한 동지적 태도로써 그를 도와 주어야 한다. 지금 전 당은 과거의 그릇된 로선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미 일치되었으며 전 당은 이미 모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결속되었다. 그러므로 금후 전 당의 임무는 사상을 구명하며 원칙을 견지하는 기초

우에서 단결을 강화하는 데 있다. 즉 본 결정서 제 2 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 당의 동지들을 하나의 화목한 가정처럼, 한 덩어리의 굳은 강철처럼 단합하여 항일 전쟁의 철저한 승리와 중국 인민의 완전한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는》 데 있다. 당내의 력사 문제에 관한 우리 당의 일체의 분석, 비판, 론쟁은 단결로부터 출발하고 또 단결에 도달하여야 한다. 만일 이 원칙을 위반하였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 소부르쵸아 사상의 사회적 근원이 존재하며 그리고 당이 장기적으로 분산적인 농촌 유격 전쟁의 환경에 처하여 있는 정황에 비추어, 또 교조주의와 경험주의 사상의 잔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경험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직도 불충분하다는 점에 비추어, 또 당내의 엄중한 종파주의는 비록 기본적으로 극복되었지만 여전히 종파주의적 경향인 산두주의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등의 사실에 비추어 당내의 사상을 맑스-레닌주의에 완전히 통일시키려면 아직도 오랜 기간에 걸쳐 그릇된 사상을 계속 극복하는 투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 당은 명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 당'적으로 반드시 맑스-레닌주의적 사상 교양을 강화하며 중국 혁명의 실천과의 련계에 치중함으로써 옳바른 당풍을 가일층 양성하며 교조주의, 경험주의, 종파주의, 산두주의 등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7)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모택동 동지를 대표로 하는 우리 당과 광범한 전국 인민의 투쟁 방향은 전'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이 24 년 간에 걸친 중국 혁명의 실천에 의하여 증명되었으며 또 계속 증명되고 있다는 것을 치중하여 지적한다. 오늘날 우리 당이 항일 전쟁 과정에서 이미 달성한 위대한 승리와 우리 당이 늘고 있는 결정적 역할은 이 로신의 정확성에 대한 생동한 증명이다. 24 년 간에 걸쳐 우리 당의 령도 하에서 눈부시게 발전되었고 위대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을 취득한 중국의 혁명 위업 전체에 비추어 본다면 당이 개별적인 시기에 범한 《좌》경 또는 우경적 오류는 부분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당이 아직 충분한 경험과 충분한 자각성을 가지지 못하였던 시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그리고 당은 바로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는 투쟁 과정에서 더 한층 굳세어졌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전 당이 전례 없이 일치하게 모택동 동지의 로신의 정확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전례 없이 자각적으로 모택동의 기치 밑에 결속되었다. 모택동 동지에 의하여 대표되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보다 보편적으로, 보다 깊이 간부와 당원 및 인민 대중을 장악하게 된 결과는 필연적으로 당과 중국 혁명에 위대한 진보와 불패의 힘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7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북벌 전쟁, 토지 혁명 전쟁, 항일 전쟁 등 세 차례의 혁명 투쟁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모택동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중앙 위원회의 옳바른 령도 하에서 반드시 중국 혁명을 철저한 승리로 인도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 주 해

[1]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주해 4를 참조하라.

[2] 마 장통은 중국 공산당의 초기의 당원이었으나 그 후에 중국 혁명의 반역자로 되었다. 1931년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 전후에 마 장통은 중국 혁명의 진도에 대하여 비판 실망하고 트로츠키-진 독수파의 반혁명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지지하였으며 당 제 6 차 전국 대표 대회의 토선을 반대하였으며 홍군과 공색 근거지에 대하여 육설을 퍼부었으며 동시에 피라돌살 포하는 방식으로 당의 간부 명단을 장 개석 도당에게 밀고하였다. 마 장통은 당이 명도하는 혁명 투쟁을 파괴하기 위하여 소위 《중앙 비상 위원회》, 《제 2 성당 위원회》, 《제 2 구당 위원회》, 《제 2 공회 당조》 등 조직을 조직하여 당을 분열시키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마 장통은 1931년 1월에 출당 당하였다.

[3] 본 선집 제 1 권의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주해 21과 주해 22를 참조하라.

[4] 1930년 9월에 홍군 제 1 방면군은 제 2 차로 장사를 진공하였다. 당시 적군은 도끼가를 구축하고 사수하였으며 또 비행기와 군함의 원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홍군은 오래 동안 공격하였으나 공략하지 못 하였고 적의 원군이 날로 집중되어 형세가 홍군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모택동 동지는 홍군 제 1 방면군 내의 간부들을 설복하여 장사를 포위 공격하면 부대를 설득하게 하였으며 이어서 또 간부들을 설복하여 중심 도시인 구강을 탈취하며 기타의 대도시를 공격하려는 의지를 버리고 방침을 고쳐 병력을 나누어 다봉, 유현, 평동, 평향, 길안 등지를 공략하게 함으로써 홍군 제 1 방면군으로 하여금 커다란 발전을 가져 오게 하였다.

[5] 구 추백 동지는 중국 공산당의 초창기의 당원이며 지도자의 한 사람이다. 1923년부터 192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 공산당의 제 3 차부터 제 6 차까지의 전국 대표 대회에서 계속 중앙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제 1 차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있어서 구 추백 동지는 국민당 우파의 반공, 반인민적인 《대계도주의》와 중국 공산당 내의 진 독수물 대표자로 하는 우경 기회주의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1927년에 국민당이 혁명을 배반한 후 그는 8월 7일의 당 중앙 긴급 회의물 책임 지고 소집하여 당내에서의 진독수주의의 지배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1927년 겨울부터 1928년 봄에 걸쳐 그가 중앙의 지도 사업을 담임하였을 때 《좌》적인 맹동주의의 오류를 범하였다. 1930년 9월에 구 추백 동지는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3 차 전원 회의물 책임 지고 소집하여 당을 해치는 탈삼 로신의 집행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1931년 1월의 당 중앙 위원회 제 6 기 제 4 차 전원 회의에서 그는 《좌》경 교조주의, 중파주의 분자들의 타격을 받아 중앙의 지도 기관 밖으로 배척 당하였다. 이때로부터 1933년에 이르는 기간에 그는 상해에서 로신과 손을 잡고 혁명적 문화 운동에 종사하였다. 1933년에는 강서 홍색 근거지에 가서 로농 민주 중앙 정부 인민 교육 위원으로 있었다. 홍군 주력이 장정을 할 때 그는 강서 근거지에 남게 되었다. 1935년 3월에 구 추백 동지는 복건 유격 지구에서 장 개석 도당에게 체포되어 6월 18일에 복건성 장정에서 희생되었다.

[6] 립 옥남 동지는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서 중국 노동 운동의 초기에 있어서의 지도자 및 조직자의 한 사람이었다. 일찍 중국 노동 조합 시기부 무한분부 주임, 중화 전국 총공회 집행 위원 겸 비서장으로 있었다. 1931년 상해에서 장 개석 도당에게 체포되어 통화에서 희생되었다.

[7] 리 구실 동지는 중국 공산당 당원이다. 1928년 남시에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중앙 위원 겸 단 중앙 선전부장, 단 중앙 기관지 《중국 청년》의 주필로 있었다. 1931년 당 중앙 선전부에서 사업하고 있을 때 상해에서 장 개석 도당에게 체포되어 통화에서 희생되었다.

[8] 하 맹웅 동지는 중국 공산당 당원으로서 중국 북방 노동 운동의 초기에 있어서의 조직자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수선 철도 공회물 창설하였다. 1927년에 국민당이 혁명을 배반한 후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 강소성 위원회 위원, 성 위원회 농민부 비서 등 직책을 담임하였다. 1931년에 장 개석 도당에게 체포되어 통화에서 희생되었다.

[9] 진 방현 동지는 별명이 박고이며 중국 공산당 당원이다. 1931년 9월부터 1935년 1월까지 전후하여 당의 상해 임시 중앙국과 홍색 구역 중앙국의

지도자로 있었다. 이 기간에 그는 엄중한 《좌》경 로선의 오류를 범하였다. 합일 전쟁 초기에는 당 중앙 남방국에서 사업하였다. 1941년 이후에는 모택동 동지의 명도 하에 연안에서 《좌방 일보》와 신화 통신사를 창설하고 그 책임자로 있었다. 1945년에 열린 당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계속 중앙 위원으로 피선되었다. 1946년 2월에 중경에 가서 국민당과의 담판에 참가하였다. 4월에 연안으로 돌아 오는 도중 비행기 사고로 조난 당하였다.

[10] 《좌》경적 오류를 범한 주 리치 동지는 1935년 가을에 중앙 대표의 명의로 섬서성 북부 혁명 근거지(섬서-감숙 변계와 섬서성 북부를 포함한)에 간 후 거기에서 《좌》경적 오류를 범하고 있던 좌 홍도 동지와 결합하여 《좌》경 기회주의 로선을 정치, 군사, 조직 등 제 방면의 사업에 침투시킨 동시에 올바른 로선을 집행하는, 섬서성 북부의 홍군 및 혁명 근거지를 창설한 류 지단 동지 등을 배척하였다. 이어서 또 반혁명을 숙청하는 사업 가운데서 그는 올바른 로선을 집행하고 있던 간부들을 대량적으로 체포하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하여 섬서성 북부 혁명 근거지의 엄중한 위기를 조성하였다. 11월에 당 중앙이 장정을 거쳐 섬서성 북부에 도착하자 이 《좌》경적 오류를 시정하고 류 지단 동지 등을 감옥으로부터 석방시킴으로써 섬서성 북부 혁명 근거지의 위협한 국면은 만회되었다.

[11] 쓰말린의 《중국 혁명의 제 문제에 대하여》, 《중국 혁명과 코민테른의 제 과업》의 제 2 부분과 《중국 혁명의 전망에 관하여》에 있다.

[12] 본 선집 제 1 권의 《호남 농민 운동 시찰 보고》에 있다.

[13] 본 선집 제 1 권의 《정강산 투쟁》의 《혁명의 성격 문제》라는 부분에 있다.

[14] 1929년 4월 《중앙에 보내는 정강산 전적 위원회의 서한》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서한은 본 선집 제 1 권의 《한 점의 불꽃도 토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에 인용되어 있다.

[15]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의 홍색 정권은 어찌서 존재할 수 있는가?》, 《정강산 투쟁》 등에 있다.

[16] 1933년 1월에 중국 공산당은 혁명 근거지와 홍군을 진공하는 일체의 국민당 군대에게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정진 협정을 체결하고 연합하여 항일할 것을 제의하는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세 가지 조건이란 (1) 혁명 근거지와 홍군에 대한 진공을 중지할 것, (2) 인민에게 자유 권리를 줄 것, (3) 인민을 무장시킨 것 등이다.

[17] 본 선집 제 1 권의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 주해



15를 참조하라.

[18] 쓰말린의 《중국 혁명의 전망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19]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의 홍색 정권은 어째서 존재할 수 있는가?》, 《한 점의 불꽃도 모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에 있다.

[20] 본 선집 제 1 권에 수록된 《중국의 홍색 정권은 어째서 존재할 수 있는가?》에서 인용한 것이다.

[21] 본 선집 제 1 권에 수록된 《한 점의 불꽃도 모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에서 인용한 것이다.

[22] 쓰말린의 《메닌주의 기본에 대하여》의 제 7 부분 《전략과 전술》 및 《시사 단평》 제 2 부분의 《중국에 관하여》에 있다. 여기의 인용어는 《시사 단평》에서 인용한 것이다.

[23] 본 선집 제 1 권에 수록된 《정강산 투쟁》에서 인용한 것이다.

[24] 본 선집 제 1 권에 수록된 《정강산 투쟁》에서 인용한 것이다.

[25] 본 선집 제 1 권에 수록된 《정강산 투쟁》에서 인용한 것이다.

[26] 1929년 4월 《중앙에 보내는 정강산 전적 위원회의 서한》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서한은 본 선집 제 1 권의 《한 점의 불꽃도 모원의 불'길로 타 오른다》에 인용되어 있다.

[27] 《적의 제 5 차 <모위 토벌>을 반대한 데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총결정》(준의 회의의 결정)에서 인용한 것이다.

[28] 본 선집 제 1 권에 수록된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의 제 3 장에서 인용한 것이다.

[29] 본 선집 제 2 권의 《정세에 대하여》를 보라.

[30] 류 소기 동지의 저작 《관문주의와 모험주의를 숙청하자》에서 인용한 것이다.

[31] 류 소기 동지의 《과거의 백색 지구 사업에 관하여 중앙에 보내는 서한》에서 인용한 것이다.

[32] 류 소기 동지의 저작 《관문주의와 모험주의를 숙청하자》에서 인용한 것이다.

[33] 라 명은 일찍 중국 공산당의 당원이었으며 1933년 당시에 중앙 홍색 근거지 복건성당 위원회 서기 대리로 있었다. 라 명은 복건성 서부의 상항, 영정 등 변역 지구에 있어서 당이 처하고 있는 조건은 비교적 곤란하므로 이 지방에서의 당의 정책은 근거지의 공고한 지구와 달라야 한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좌》경 분자의 타격을 받았다. 《좌》경 분자들은 옹지 못 하기도 라 명의 의견

은 《혁명에 대하여 비판 실망하는, 기회주의적이며 청산주의적인 도망 퇴각 로선》이라고 과장하였으며 또 조직적으로 소위 《라 명 로선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34] 《3대 규율》과 《8항 주의》는 모태동 동지가 토지 혁명 전쟁 시기에 제정된 중국 노동 농군의 규율로서 그 후 팔로군, 신사군의 규율로 되었고 지금은 중국 인민 해방군의 규율로 되어 있다. 이러한 규율의 내용이 각 지방, 각 부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1947년 10월 중국 인민 해방군 총사령부에서는 그것을 통일적으로 다시 규정하였다. 《3대 규율》이란 (1) 모든 행동은 지휘에 복종할 것, (2) 대중의 바늘 하나, 실 한 오리라도 가지지 말 것, (3) 모든 로획물은 조직에 바칠 것 등이다. 《8항 주의》란 (1) 만은 친절하게 할 것, (2) 때에는 공명하게 할 것, (3) 빌어 온 물신은 돌려 줄 것, (4) 파손한 물건은 배상할 것, (5)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지 말 것, (6) 농작물을 해치지 말 것, (7) 너자를 희롱하지 말 것, (8) 모로물 학대하지 말 것 등이다.

[35] 1929년 4월 《중앙에 보내는 징강산 전적 위원회의 서한》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서한은 본 선집 제 1 권의 《한 점의 불꽃도 보원의 불'길로 타오른다》에 인용되어 있다.

[36] 본 선집 제 1 권의 《중국 혁명 전쟁의 전략 문제》 제 5 장에 있다.

[37] 1935년 2월의 《제 5차 <모위 토벌>을 격파한 데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총화》에서 인용한 것이다.

[38] 즉 본 선집 제 1 권에 수록된 《당내의 그릇된 사상을 시정할 데 대하여》이다.

[39]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의 제 1 장 제 4 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40] 1928년 4월 13일 전 연맹 공산당(분쇄위크) 모스크바 당 단서 일일자 회의에서 한 쓰말린의 보고 《중앙 위원회 및 중앙 동계 위원회 4월 심논 전일 회의의 사업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41] 본 선집에 수록된 《학습과 시국》에서 인용한 것이다.

[42] 불망끼주의란 프랑스의 불망끼(1805~1881년)를 그 대표자로 하는 일종의 혁명적 모험주의 사상을 가리킨다. 불망끼주의는 계급 투쟁을 부인하면서 프로메테리아트의 계급 투쟁을 의거하지 않고 극소수의 지식인의 음모 활동으로 인류를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에서 벗어 나게 할 수 있다고 망상하였다.

[43] 본 선집에 수록된 《학습과 시국》에서 인용한 것이다.

##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자\*

(1944년 9월 8일)

우리 공산당과 공산당이 령도하는 반로군, 신사군은 혁명 부대이다. 우리의 이 부대는 진'적으로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부대이며 이디까지나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사업하는 부대이다. 장 사덕 동지<sup>[1]</sup>는 우리의 이 부대의 한 동지이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죽음의 의의는 같지 않다. 중국 고대의 문학가인 사마 천은 《사람은 결국 한 번 죽는다. 그러나 죽음에는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도 있고 홍모보다 가벼운 죽음도 있다.》<sup>[2]</sup>고 하였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죽음이요, 과쑤를 위하여 일하다가 죽거나 인민을 착취하고 인민을 압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죽는다면 그것은 홍모보다 더 가벼운 죽음이다. 장 사덕 동지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죽었으므로 그의 죽음은 태산보다 더 무겁다.

우리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

\* 이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기관에서 장 사덕 동지를 추도하기 위하여 소집한 회의에서 한 모 태농 동지의 연설이다.

에게 걸힘이 있을 때 남이 비판 지적하여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람이나 우리의 걸힘을 지적할 수 있다. 그 사람의 말이 옳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 대로 시정한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인민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대로 한다. 《정병 간정》에 관한 의견은 당외 인사인 리징명 선생<sup>[3]</sup>이 제기한 것이다. 그가 제기한 의견이 옳았고 또 인민에게 유익한 것이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채택하였다. 우리가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좋은 것을 견지하고 또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그릇된 것을 시정하여 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이 부대는 반드시 흥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의 혁명 목표를 위하여 전국 각지로 부더 모여 왔다. 우리는 또 전국의 대다수 인민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미 9,100만의 인구를 가진 근거지<sup>[4]</sup>를 령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더 키저야 전 민족의 해방을 진취할 수 있다. 우리 동지들은 끈난한 시기에 우리의 성과를 볼 줄 알고 광명을 내다 볼 줄 알아야 하며 용기를 북돋우어야 한다. 중국 인민은 지금 고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힘 써 분투하여야 한다. 분투하자면 희생이 있게 되며 사람이 죽는 일이 늘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민의 리익을 생각하고 대다수 인민의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민을 위하여 죽는 것은 옳은 죽은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불필요한 희생을 적게 내야 한다. 우리의 간부들은 매개 전사들을 관심하여야 하며

혁명 대렬 내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관심하고 서로 애호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근후 우리의 대렬 내에서 누가 죽건, 그가 취사원이건 전사이건 조금이라도 유익한 일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의 장사를 지내 주고 추도회를 열어야 한다. 이것을 제도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이 방법은 또 민간에도 소개되어야 한다. 이리 하여 마을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에는 추도회를 열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애도의 뜻을 표하며 전체 인민들을 단결시켜야 한다.

## 주 해

[1] 장 사며 동지는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경위단의 전사였다. 1933년에 혁명에 참가하여 장정을 거쳤고 부상 당한 일이 있으며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한 공산당원이다. 1944년 9월 5일 섬서성 북부 안세현 산중에서 숲을 습다가 솟가마가 무너져 희생되었다.

[2] 사마 천은 기원 전 2 세기 사립으로 중국의 저명한 문인이며 역사가이다. 그의 저서로는 《사기》 130 편이 있다. 여기서 인용한 구절은 그의 《입소경에게 보내는 글월》에 있다.

[3] 리 정명은 섬서성 북부의 개명 신사로서 섬감녕 빈구 정부의 부주석으로 피선된 일이 있다.

[4] 이것은 당시 섬감녕 변구와 좌북, 좌중, 좌남의 각 해방구의 인구 총수를 가리킨 것이다.



## 장 개석의 쌍10절 연설을 평함\*

(1944년 10월 11일)

아무런 내용도 없으며 인민들이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단 한 가지의 회답도 주지 못한 것이 장 개석의 쌍10절 연설의 특색의 하나이다. 장 개석은 대후방에 아직 광대한 땅이 남아 있으므로 적을 두려워 할 것 없다고 하였다. 과두 독재의 국민당 지도자들에게서는 아직까지도 적을 항격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어떤 정치적 개혁을 실시할 의도나 능력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들은 《땅》이라는 이 기성적 자본만으로 적을 막아 내며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올바른 정책과 사람의 노력이 없다면 단지 이 자본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며 일본 제국주의는 남아 있는 이 땅'덩어리를 매일과 같이 위협하고 있다. 장 개석은 아마 적의 이러한 위협을 심히 느끼고 있는 모양이다. 인민들에게 거듭거듭 위협이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내가 황포에서 군대를 창건한 이래의 20년 간에 있어서 혁명의 정세가 오늘처럼 이렇게 풍고하여 본 일은 없다》고까지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신화사를 위하여 쓴 평론이다.

말한 것은 바로 그가 이러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반영이다. 그가 또 《우리의 자신심을 잃지》 말라고 거듭 말한 것은 국민당 대털 내에서, 국민당 통치구 내의 사회 인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심을 잃고 있다는 반영이다. 장 개석은 이러한 신심을 다시 분발시킬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분야의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 면에서 분발시키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충고를 거부하며 잘못을 엄폐하는 방법을 찾아 내었다. 그는 《국제 관찰가》들은 모두가 《영문을 모르는》 자들이며 《외국 여론계에서 우리의 군사, 정치에 대하여 의론이 분분한 것》은 모두가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날조한 요언》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루즈벨트와 같은 외국 사람까지도 송 경평과 같은 국민당원들, 국민 참정회의 많은 참정원들, 망심 있는 모든 중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장 개석 및 그 심복들의 듣기 좋은 변명을 믿어 듣지 않고 《우리의 군사, 정치에 대하여 의론이 분분한 것》이다. 장 개석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골치를 앓아 왔으나 지금까지 자기가 보기에 도 당당하다고 인정되는 논거를 찾아 내지 못 하고 있다. 금년 쌍10절에 와서야 비로소 그 논거를 찾아 내었는데 그것은 즉 그들이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날조한 요언》을 믿어 듣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 하여 장 개석은 자기의 연설에서 매우 긴 편폭으로 소위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날조한 요언》에 대하여 실컷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이렇게 욕설을 퍼부으면 모든 중국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나의 군사, 정치에 대하여 누구든지 또다시 《의론이 분분하다》면 그는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날조한 요언》을 곧이 듣는 자이다! 우리는 장 개석의 이러한 비난은 가소롭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국민당의 과두 독재, 항전에서의 무성의, 부패 무능에 대하여 그리고 국민당 정부의 파쇼주의적인 정령 및 패배주의적인 군령에 대하여 적과 민족 반역자들은 종래로 비판을 가한 일이 없었으며 도리어 전'적으로 환영하여 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한결같은 불만을 일으킨 장 개석의 저서 《중국의 운명》에 대하여 일본 제국주의는 여러 차례 충심으로 되는 칭찬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국민 정부와 그 통수부의 재조직 문제에 대하여서도 적과 민족 반역자들은 일언반구도 말한 적이 없다. 그것은 매일 같이 인민을 억압하며 매일 같이 패전하는 지금의 정부와 통수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로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바라는 바이기 때문이다. 장 개석과 그 도당들은 줄곧 일본 제국주의의 투항 권유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일본 제국주의가 본래 제기하였던 《반공》, 《멸당》이라는 두 구호 중에서 《멸당》이라는 구호는 벌써 포기되었고 《반공》이라는 구호 하나만 남아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일본 제국주의자는 지금까지도 국민당 정부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본과 국민당 정부와의 사이에는 아직 전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상해, 남경, Ning과 일대에 있는 국민당 요인들의 재산은 아직까지도 적과

민족 반역자들에 의하여 그 대로 보존되고 있다. 적의 두목하다 순로꾸는 자기 대표를 봉화에 파견하여 장 개석의 선포에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장 개석의 심복들은 압압리에 사절을 파견하여 상해 등지에서 거의 일상적으로 일본 침략자와 련계를 유지하며 비밀 담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일본 침략자의 진공이 심할 때이면 이러한 련계와 담판이 더욱 빈번하여진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인가? 이로 보아 장 개석 및 그 도당들의 군사, 정치에 대하여 《의론이 분분한》 사람들은 구경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문을 아는 사람들인가? 이 《영문》의 출처는 구경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날조한 요언》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장 개석 자신 및 그 도당들에게 있는가?

장 개석의 연설에는 또 중국에 내전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성명이 들어 있다. 그러나 그는 또 《왕 정위 따위들이 한 것과 같은 행위 즉 민족을 배반하며 항전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감행하는 자가 다시는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 개석은 여기서 내전을 일으킬 근거를 찾고 있으며 또한 이미 찾아 내었다. 기억력이 있는 중국 사람이라면 1941년에 바로 중국을 팔아 먹는 자들이 신사군의 해산을 선포하였고 중국 인민들이 내전의 위기를 제지하려고 꾀기하였을 때 장 개석이 자기의 연설에서 앞으로는 결코 《공산당을 토벌하는》 전쟁이 없을 것이며 만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역자들을 토벌하는 전쟁일 것이라고 말하였던 것을 잊어 버리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운명》이라는 책을

읽이 본 사람이라면 장 개석이 그 책에서 중국 공산당은 1927년의 무한 정부 시기에 왕 정위와 《결탁》한 일이 있다고 썼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1943년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의 결정서에서는 또 중국 공산당에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죄명을 덮어 씌웠던 것이다. 지금 또 장 개석의 이 연설을 읽고 난 사람들은 내전의 위험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지는 몰라도 장 개석은 소위 《반역자》에 대한 토벌령을 내릴 것이며 그때의 죄명은 《민국을 배반하였다》느니 《항전을 파괴한다》느니 《왕 정위 따위들이 한 것과 같은 행위》를 한다느니 하는 것이리라는 것을 중국 인민은 지금부터 명기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장 개석은 이 점에서 솜씨가 능란한 자이다. 그는 방 병훈, 손 량성, 진 효강[1] 따위들을 반역자로 선포하는 데나 또 그 자들을 토벌하는 데는 솜씨가 없지만 화중의 신사군과 산서성의 결사대[2]를 《반역자》로 선포하는 데는 솜씨가 능란하며 또 그들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는 솜씨가 극히 능란하다. 중국 인민은 장 개석이 내전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한 편 이미 77만 5,000 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전문적으로 팔로군, 신사군 및 화남 인민 유격대를 포위 혹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장 개석의 연설은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아무런 내용도 없으며 항일 전선의 개선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열망에 대하

여 아무런 대답도 주지 못 하고 있다.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이 언설은 위협성으로 충만되어 있다. 장 개석의 태도는 갈수록 더 반상적으로 되고 있으며 정치를 개혁하자는 인민의 요구를 전격히 반대하고 중국 공산당을 극도로 적대시키고 있으며 그가 준비하고 있는 반공 내전의 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장 개석의 이 모든 기도는 성공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자기의 방법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가 방법을 고칠 것을 중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왜냐 하면 그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법은 절대로 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언론 자유의 범위를 확대한다》<sup>[3]</sup>고 선포한 이상 《적과 민족 반역자들이 날조한 요언》을 곧이 듣는다는 그러한 모욕적인 언사로서 《의론이 분분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그 입을 틀어 막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훈정 시기를 단축시킨다》고 선포한 이상 정부와 통수부를 재조직하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는 《정치적 방법으로써 공산당 문제를 해결한다》고 선포한 이상 내전을 준비할 구실을 찾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주 해

[1] 방 병춘, 손 량성, 진 효강은 선후하여 일본 침략자에게 공개적으로 투항한 국민당의 장령들이다.

[2] 산서성의 군사대관 함일 전쟁 초기에 공산당의 병도와 그 영향 하에서 반전된 산서성 인민들의 항일 무장력이었다. 본 선집 제 2 권의 《모든 함일 력

망을 단합하여 반공 완고파를 반대하자》주해 3을 참조하라.

[3] 1944년 이래 국민당의 독재적 통치를 폐지하며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는 요구는 국민당 통치구 인민들의 보편적인 목소리로 되고 있었다. 국민당은 인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막기 위하여 1944년 4월에 소위 《언론 자유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선포하였으며 5월에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2 차 전원 회의는 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이 하지 못 해 한 이러한 표시들은 그 후 조금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인민들의 언론을 억압하는 조치는 인민 민주주의의 운동이 양양됨에 따라 간단 없이 계속 실현되었다.



## 문화 사업에 있어서의 통일 전선\*

(1944년 10월 30일)

우리의 모든 사업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곧 멸망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계속 더 노력하여야만 종국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소멸할 수 있다. 우리의 사업은 무엇보다 먼저 전쟁이며 다음은 생산이고 그 다음은 문화이다. 문화가 없는 군대는 우매한 군대이며 우매한 군대는 적을 타승할 수 없는 것이다.

해방구의 문화에는 이미 그의 진보적인 면이 있으나 아직 낙후한 면도 있다. 해방구에는 이미 인민의 신문화가 있으나 또 봉건적 잔재도 광범히 존재하고 있다. 1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섬감녕 번구 내에는 아직도 100여만 명의 문맹이 있고 2,000 명의 무당이 있으며 아직 미신 사상이 광범한 대중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대중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적이다. 우리는 대중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적을 반대함에 있어서 흔히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섬감녕 번구의 문화, 교육 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이다.

하기보다 더 많은 곤난에 부딪치게 된다. 우리는 대중들에게 그들 자신이 일어나 자신의 문맹, 미신 및 비위생적인 습관과 투쟁하도록 일깨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투쟁을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통일 전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구가 희소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본래의 문화 수준이 매우 낮은 섬감녕 번구 같은 이런 지방에서는 더구나 전쟁 기간에 있어서는 이러한 통일 전선이 더욱 광범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사업 면에서는 집중적이고 정규적인 소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산적이고 비정규적인 농촌 학교, 독보조, 문맹 퇴치반도 있어야 한다. 신식 학교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식 서당도 개조하여 리용하여야 한다. 예술 사업 면에서는 연극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강[1]과 양걸춤도 있어야 한다. 비단 새로운 진강과 새로운 양걸춤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극단도, 양걸대 총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양걸대도 리용하여야 하며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의료 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섬감녕 번구에는 사람과 가축의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많은 사람들이 아적도 무당을 믿고 있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단지 신의에만 의거하여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신의가 구의보다 고명한 것은 물론이지만 신의가 만일 인민들의 고통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 인민을 위하여 의사를 양성하지 않으며 현재 번구에 있는 1,000여 명의 구의 및 구식 수의물련 합하지 않거나 그들을 진보하도록 도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 무당을 도와 주는 것으로 되며 많은 사람과



가축이 죽는 것을 그 대로 보고만 있는 것으로 된다. 통일 전선의 원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즉 하나는 단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 교양, 개조하는 것이다. 통일 전선에 있어서 투항주의도 옳지 못 하거니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경멸하는 태도를 취하는 종파주의도 역시 옳지 못 하다. 우리의 임무는 유용한 모든 구지식인, 구예술인, 구의들을 련합하고 그들을 도와 주며 감화시키며 개조하는 데 있다. 그들을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그들과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가 적절하게만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방조를 환영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는 인민의 문화이다. 문화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드높은 열정이 있어야 하며 대중과 련계를 맺어야 하며 대중을 리탈하지 말아야 한다. 대중과 련계를 맺으려면 대중의 수요와 자원에 의거하여야 한다. 대중을 위한 모든 사업은 어떤 선량한 개인적 념원으로부더 출발할 것이 아니라 대중의 수요로부더 출발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중에게 객관적으로는 이러저러한 개혁의 필요성이 있지만 그들이 주판 상에서는 아직 그러한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결심이 없으며 그러한 개혁을 원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근기 있게 기다려야 하며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대중의 대다수가 각성하고 결심을 내렸고 자원적으로 개혁하려 할 때에 가서 이러한 개혁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대중과 리탈될 것이다. 무릇 대중이 참가하여야 할 사업에 있어서 만일 대중이 자각적이 못 되고 자원적이 못 된다면 쓸 데 없는 형식에만 흘러 실패하고 말게

된다. 《일을 너무 급히 하려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 한다》〔2〕는 이 말은 빨리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인 것이 아니라 맹동주의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다. 맹동주의로 나가서는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어떤 사업에 있어서나 다 이렇하지만 대중의 사상을 개조하는 문화 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더구나 이렇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 그 하나는 우리의 머리 속에서 환상하여 낸 필요성이 아니라 대중의 실제적인 필요성이며 다른 하나는 대중의 자원, 즉 우리가 대중을 대신하여 결심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대중 자신이 결심을 내리게 하는 것이다.

## 주 해

〔1〕 진강(秦腔)이란 섬서성의 구석 창극의 하나이다. 섬서성은 고대에 진나라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강이라고 부른다.

〔2〕 《일을 너무 급히 하려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 한다》는 말은 공자가 한 말인데 《론어》의 《자로》편에 있다.

## 경제 사업을 배워야 한다\*

(1945년 1월 10일)

로력 영웅 여러분! 모범 일'군 여러분!

여러 분은 회의를 열고 경험을 총화하였다. 사람들은 여러 분을 환영하며 존경하고 있다. 여러 분은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세 가지 역할을 놀았다. 첫째는 출신적 역할이다. 그것은 즉 여러 분이 각별한 노력으로 많은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여러 분의 사업이 일반 사람들의 본보기로 되었고 사업 기준을 높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분을 따라 배우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골간적 역할이다. 여러 분들 중 대다수는 아직 간부는 아니지만 여러 분은 이미 대중 속에서 골간으로 되었고 핵심으로 되었는데 여러 분이 있음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시키기 쉽게 되었다. 장차 여러 분은 간부로 될 수 있으며 지금은 간부의 후비군이다. 셋째는 교량적 역할이다. 여러 분은 상부의 지도 일'군들과 하부의 광범한 대중들 간의 교량이다. 대중의 의견은 여러 분을 통하여 상부에 전달되며 상부의 의견은 여러 분을 통하여 하

---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심감녕 번구 로력 영웅 및 모범 일'군 회의에서 한 연설이다.

부에 전달된다.

여러 분에게는 장점이 많으며 공로도 아주 크다. 그러나 교만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특히 명심하여야 한다. 여러 분이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또 이 때문에 교만하기 쉽다. 만일 여러 분이 교만하여져서 허심하지 못 하고 계속 노력하지 않으며 남을 존중하지 않으며 간부를 존중하지 않으며 대중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여러 분은 영웅으로 될 수 없으며 모범으로 될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 분은 그러한 사람들을 본 받지 말기를 바란다.

여러 분의 경험은 이번 회의에서 총화되었다. 이 총화문의 내용은 아주 훌륭한 것으로서 이 지방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는 더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우리의 경제 사업에 대하여 약간 말하려 한다.

최근 수년 간 우리는 경제 사업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며 경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첫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2~3 년 내에 설감녕 변구와 적후 각 해방구에서 량곡 및 공업 제품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자급하는 동시에 또 여유가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농업, 공업, 상업 등 세 분야에서 지금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때에 가서야 더 많이 배웠고 더 잘 배웠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어느 한 지방의 군대와 인민들의 생활이 개선되지 못 하고 반공격을 위하여 준

비한 물질적 기초가 튼튼하지 못 하고 농업, 공업, 상업 면에서 해마다 장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거나 지어는 하강된다면 그것은 그 지방의 당 조직, 정권 기관 및 군대의 일'군들이 아직도 경제 사업을 배우지 못 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며 그런 지방은 막대한 곤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여러 분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즉 우리의 사상이 우리가 처하여 있는 지금의 환경에 적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농촌이라는 이 점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농촌 환경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기실 그렇지도 않다. 우리의 많은 동지들은 매일 농촌에서 살고 있으며 지어는 농촌을 알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지만 사실은 농촌을 알지 못 하고 있거나 적어도 깊이 알지 못 하고 있다. 그들은 개인 경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적에게 분할 당하여 있는, 따라서 또 유격 전쟁을 하고 있는 농촌 환경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문제, 군사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당 사업 문제, 노동 운동, 농민 운동, 청년 운동, 여성 운동 등 제 문제에 있어서 그 처리가 흔히 적절하지 못 하거나 그다지 적절하지 못 하다. 그들은 도시 관점을 가지고 농촌 문제를 처리하며 주관적으로 많은 부적당한 계획들을 작성하여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늘 실패를 당하게 된다. 최근 수년간에 정풍 운동도 거치고 사업 과정에서 실패도 당하여 보는데서 우리 동지들은 많은 진보를 가져 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상을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경에 완전히 적응되도록 하는 데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여야만 우리의 모든 사업이 다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또 효과를 신속히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처하고 있는 환경이 개인 경리의 기초 위에 세워진, 적에게 분할 당하여 있는, 따라서 또 유격 전쟁을 하고 있는 농촌 근거지라는 점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이 다 이 점에서 출발한다면 일론 보기에는 효과가 매우 더딘 것 같고 또 기세가 맹렬하지 못한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이 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다른 점에서 출발한 것에 비하여, 레를 들면 도시 관점으로부터 출발한 것에 비하여 그 사업 효과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결코 매우 더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빠른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후자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의 실정과 리탈하게 된다면 그것은 사업 능률이 빠르고 더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실패하게 되고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레를 들면 우리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군민 생산 운동을 창도하여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그 뚜렷한 증거인 것이다.

우리는 일본 침략자를 타격하여야 하며 또 도시에 쳐 들어 가며 잃었던 국토를 수복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 경리의, 분할된, 유격 전쟁의 농촌 환경에 처하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국민당처럼 자기 힘을 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외국 사람에게

게만 의존하며 지어 변포와 같은 일용품까지도 외국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력 개생을 주장한다. 우리는 외국의 원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신의 노력에 의거하며 전체 군인과 인민들의 창조력에 의거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책들이 있는가? 우리에게서는 군대와 인민 쌍방이 동시에 대규모적 생산 운동을 전개한다는 이러한 방책이 있다.

농촌에 처하여 있고 인력과 물력이 모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령도하고 분산적으로 경영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농촌에 처하여 있고 농민들은 모두가 분산적인 개인 영농자이며 낙후한 생산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토지가 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어 농민들이 소작료에 의한 봉건적 착취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농민들의 생산 의욕과 농업 노동의 생산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하고 로력 호조를 조직하는 두 가지 방침을 취하고 있다. 소작료의 인하는 농민의 생산 의욕을 높였으며 로력 호조는 농업 노동의 생산 능률을 제고하였다. 나는 화북, 화중 각 지방의 자료들을 입수하였는데 이 자료들은 소작료를 인하한 후 농민들은 생산 의욕이 크게 높아졌고 우리의 이 지방에 있는 빈공대와 같은 호조 단체를 즐겨 조직하며 그리 하여 세 사람이 네 사람의 노동 능률을 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만일 이렇다면 9,000만 명이 1억 2,000만 명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능률을 내

는 데도 있다.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일을 너무 급히 하려는 방침을 취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설복하며 전형으로 모범을 보여 주는 방침을 취한다면 수년 내로 대다수의 농민들을 농업 생산 및 수공업 생산의 호조 단체어로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산 단체가 일단 습관화되기만 한다면 생산량이 훨씬 증가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창조도 생기고 정치도 진보되고 문화도 제고되고 위생에도 주의하게 되며 진달들도 개조되고 풍속도 개변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생산 도구도 개량되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가서는 우리의 농촌 사회가 점차 새로운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일'군들이 이 사업을 주의 깊게 연구하며 최대의 정력을 기울여 농촌 인민의 생산 운동을 돕는다면 수년 내로 농촌에 풍족한 량곡과 일용품이 있게 되어 전투를 지속해 낼 수 있고 흉년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래에 쓰기 위한 대량의 량곡 및 일용품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농민의 생산을 조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대 및 기관도 같이 생산하도록 조직하여야 한다.

농촌, 항상 적에게 유린 당하고 있는 농촌, 장기적인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농촌에 있기 때문에 부대와 기관은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분산적인 유격 전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와 기관도 생산을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 섬감녕 변구에서는 부대 및 기관의 인원 수가 변구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체로서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밥을 굶게 될 것이며 또 인민들에게서 지



나치게 많이 받아 온다면 인민들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 인민들도 밥을 굶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규모적인 생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섬감녕 번구를 두고 말한다면 부대 및 기관에서 매년 좁쌀 7,800만 근이 필요하는데 그 중 인민들에게서 가져 오는 것이 4,800만 근을 차지하고 자체로 생산하는 것이 3,000만 근을 차지한다. 만일 자체로 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군대와 인민 쌍방 중 어느 일방은 밥을 굶게 될 것이다. 생산 운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밥을 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와 인민 쌍방이 다 배불리 먹고 있다.

우리 번구의 기관들은 식량과 피복의 두 가지를 제외한 기타의 비용은 그 대부분을 자급하고 있으며 일부의 단위들에서는 그 전부를 자급하고 있다. 이 밖에 많은 단위들에서는 일부의 식량과 일부의 피복까지 자급하고 있다.

번구의 부대들은 공로가 더욱 크다. 많은 부대들은 식량, 피복 및 기타 일체를 전부 자급하고 있다. 즉 정부로부터 아무 것도 공급 받지 않고 100%로 자급하고 있다. 이것은 최고의 표준이며 첫째의 표준으로서 수년 간에 걸쳐 점차 달성된 것이다.

전방에서는 전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표준을 취할 수 없다. 전방에서는 둘째, 세째의 표준을 설정할 수 있다. 둘째 표준은 식량과 피복을 정부로부터 공급 받는 외 기타의 것들, 예를 들면 기름(매인 당 매일 닷 돈중), 소금(매인 당 매일 닷 돈중), 채소(매인 당 매일 1 근 내지 1 근 반), 육

류(매인 당 매월 1 근 내지 2 근), 신탄비, 사무비, 잡비, 교육비, 보전비, 총 닦는 데 소요되는 비용, 업초, 신발, 버선, 장갑, 세수'수건, 치솔 같은 것은 전부 생산으로 자급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체 경비의 약 50%를 차지하는데 2~3년 내에 점차 실현하면 된다. 어떤 곳에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다. 공고화된 지구에서는 이 표준을 실시할 수 있다.

세째 표준은 변연 지구 및 유격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50%를 자급할 수는 없으나 15% 내지 25%는 자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도 매우 좋은 일이다.

요컨대 특수한 정형을 제외하고 모든 부대와 기관들은 전투, 훈련 및 사업의 여가를 타서 일들로 생산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대 및 기관들은 전투, 훈련 및 사업의 여가를 타서 집단적으로 생산에 참가하는 외에 또 전'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일'군을 따로 조직하여 농장, 채전, 목장, 작업소, 소형 공장, 운수대, 합작사를 설치하거나 농민들과 합작하여 량곡 또는 채소를 심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의 조건 하에서는 곤난을 이겨 내기 위하여 어떠한 기관, 부대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체의 살림을 꾸려야 한다. 살림을 꾸리려 하지 않는 그러한 진달'군의 습성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또 절에 쫓아 등급을 정하고 수익을 개인에게 분배하는 제도를 세워 직접 생산에 종사하는 일'군들이 리익 분배를 받게 함으로써 생산의 발전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또 지도자가 책임을 지고 손수 생산에 참가하여 지도 물건과 광범한 내증을 결합시키며 일반적인 호소와 구체적인 지도를 결합시키

는 방법을 실시하여야만 생산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

부대가 생산에 종사하면 전투와 훈련을 할 수 없으며 기관이 생산에 종사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최근 수년 간 우리 변구의 부대들은 대량적인 생산에 종사하여 의식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군사 훈련도 진행하고 정치, 문화 학습도 진행하여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고 군대 내부의 단결 및 군대와 인민 간의 단결도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 전방에 있어서는 작년 1년 동안에 대규모적 생산 운동을 진행하였지만 전투에 있어서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보편적으로 군사 기술 런마 운동을 시작하였다. 기관들에서 생산을 하였기 때문에 기관 일'군들의 생활이 개선되었고 사업에 더욱 안착하게 되었으며 능률이 더욱 올라 갔다. 변구에서나 전방에서나 모두 이러하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농촌 유격 전쟁의 환경에 처하여 있는 기관과 부대들에서 생산 자급 운동을 전개한다면 그들은 전투와 훈련 및 사업에서 더욱더 힘이 나게 되고 활기를 띠게 되며 그들의 규률과 그들의 내부적 및 외부적 단결도 더 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중국에서의 장기적 유격 전쟁의 산물이며 우리의 영광이다. 이러한 점을 배운다면 어떠한 물질적 곤란이라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더 생기를 띠게 되고 정력이 생기게 되며 싸우면 싸울수록 더 강하여져 우리가 적을 압도할 수 있을 뿐

이고 적에게 우리가 압도될 녀려는 결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또 전방에 있는 우리 동지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점이 하나 있다. 우리의 일부 지구는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으며 또 생활이 상당히 유족하다. 그러나 이런 지방의 일'군들은 유족한 것만 믿고 절약을 하려 하지 않으며 생산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좋지 못한 것이며 장차 반드시 곤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어떠한 지방에서나 인력과 물력을 극력 아껴야 할 것이며 결코 한때만 생각하여 람용, 랑비하여서는 안 된다. 어떠한 지방에서나 사업을 시작하는 첫해부터 여러 해 앞의 일을 타산하여야 하며 장기간 전쟁을 견지할 데 대하여 타산하여야 하며 반공격을 타산하여야 하며 적을 구축한 후에 있을 건설을 타산하여야 한다. 절대 람용, 랑비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힘 써 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과거에 일부 지방들에서는 장기적인 타산이 부족하여 인력과 물력의 절약에도 주의를 돌리지 않았거니와 생산의 발전에도 주의를 돌리지 않아 큰 손실을 보았다. 이러한 교훈을 살려 이제부터 반드시 이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공업 제품에 대하여 섬감녕 변구에서는 2 년 내에 면화, 면사, 면포, 철, 종이 및 기타의 많은 일용품들을 완전히 자체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본래는 전혀 없었거나 또는 매우 적게 생산되던 것도 전혀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모두 자체로 심고 자체로 만들고 자체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 모든 것은 공영, 사영 및 합작사 경영의 세 방면에서 완수하여야 할 임

무이다. 모든 제품은 그 량을 증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오래 입을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질을 높여야 한다. 변구 정부, 팔로군 연합 방위 사령부, 당 중앙 위원회 서북국은 이러한 점들을 잘 틀어 잡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일이다. 전방 각지에서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허다한 지방들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의 변구 및 전체 해방구는 아직 2~3년 동안 더 노력하여야만 전반 경제 사업을 다 배울 수 있다. 우리가 식량 및 공업 제품의 전부 또는 그 대부분을 자체로 심고 자체로 만들고 자체로 공급하게 되는 동시에 또 여유가 있게 되는 날이 곧 우리가 농촌에서 경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완전히 다 배운 날일 것이다. 장차 도시에서 적을 구축한 후에는 또 새로운 경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우리 손으로 건설하여야 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 유격구에서도 생산을 할 수 있다\*

(1945년 1월 31일)

우리가 적후 해방구의 비교적 풍고한 근거지들에서 군대와 인민의 생산 운동을 발동시킬 수 있으며 또 발동시켜야 한다는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으며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격구에서도, 적후의 적후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과거 많은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실증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증거가 있게 되었다. 1월 28일 부 《해방일보》지에 게재된, 진찰기 유격대의 생산 운동에 관한 장 평개 동지의 보도에 의하면 진찰기 번구의 많은 유격구들에서는 이미 1944년에 대규모적인 생산을 진행하였으며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장 평개 동지의 보도에 제기된 지역과 부대로는 하북성 중부의 제 6 분구, 제 2 분구의 제 4 구대, 제 4 분구의 제 8 구대, 서정 지대, 보만 지대, 운포 지대, 산서성의 대현과 광현의 부대들이 있다. 이 지역들의 환경은 대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의 《해방일보》를 위하여 쓴 사실이다.

단히 악렬하다. 《적군 및 괴뢰군의 거점과 또치까가 가득히 늘어서 있으며 봉쇄 도랑과 토담 및 신작로가 그물코처럼 얽혀 있다. 적들은 자기들의 군사 상의 우세와 편리한 교통 조건을 리용하여 항상 우리를 습격, 포위, 〈소탕〉하고 있다. 유격대는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흔히 하루에도 몇 곳씩 자리를 옮긴다》. 그러나 그들은 의연히 전쟁의 틈을 다서 생산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급양이 개선되어 매일 당 매일 기름 닛 돈중, 소금 닛 돈중, 채소 한 근, 매월 육류 근반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몇 해 동안 써보지도 못 하던 치솔, 치분과 공책까지도 갖추게 되었다》. 보라, 누가 유격구에서는 생산할 수 없다던가!

많은 사람들은 인구가 조밀한 지방에는 토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토지가 없는가? 진찰기 변구를 보라. 《우선 농업을 위주로 하는 방침 하에서 토지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들에게는 도합 아홉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봉쇄 도랑과 토담을 메우고 허물며 둘째, 적들에게 리용될 수 있는 자동차'길을 파괴하고 그 량편에 곡식을 심으며 셋째, 작은 면적의 황무지를 리용하며 넷째, 민병을 협조하여 무력의 엄호 하에서 달'밤에 적들의 또치까 밑에 있는 토지에다 파종하며 다섯째, 로력이 부족한 농민과 공동으로 경작하며 여섯째, 부대가 변장하여 반공개적인 형태로 적들의 거점과 또치까 부근의 토지를 경작하며 일곱째, 하천 기슭을 리용하여 제방을 쌓고 모래톱을 밭으로 만들며 여덟째, 농민을 협조하여 한전에 물을 대며 아홉째, 자기가 활동하는 촌락들에서



농민을 도와 경작한다》.

농업 생산은 할 수도 있으나 수공업과 기타 생산은 불가능할 것이 아닌가? 정말 불가능한가? 진찰기 번구를 보라. 《봉쇄 도랑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대의 생산은 농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고화된 지역들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공업과 운수업도 전개하고 있다. 제 4 구대에서는 전모자 제조소 하나, 착유소 하나, 제분소 하나를 개설하여 7개월 동안에 50만 원을 벌었다. 이리 하여 자체의 곤난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격구 주민들의 수요도 해결하여 주었다. 털내복, 털양말 등은 전사들이 전부 자급할 수 있게 되었다》.

유격구에서는 전투가 그렇게 빈번한데 군대가 생산에 종사한다면 전투에 영향이 미칠 것이 아닌가? 과연 그럴 것인가? 진찰기 번구를 보라. 《로동과 작전을 결합시키는 원칙을 실시하고 전투 임무와 생산 임무를 똑 같이 중시하였다.》 《제 2 분구 제 4 구대를 케로 들어 보자. 춘경이 시작될 때에 일부 부대를 떼 내어 전문으로 적을 타격하게 하였으며 동시에 강력한 정치적 공세를 전개하였다. 바로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군사 행동도 적극화되고 부대의 전투력도 제고되었다. 이 소부대는 2월부터 9월 초까지 전후 71 차례의 전투를 하여 주동사, 상장, 야장, 불가채, 애두 등 거점을 탈환하고 적군과 괴뢰군 165 명을 살상하였으며 괴뢰군 91 명을 포로하였으며 경기관총 3 문과 보총, 권총 101 자루를 로획하였다.》 《군사 행동과 대생산 운동의 선전을 배합시켜 즉시 정치적 공세를

전개하였다. 즉 <대생산 운동을 파괴하는 자에게는 곧 타격을 가한다>고 선전하였다. 대련, 박현 등 현 소재지의 적들이 백성들에게 <어째서 팔로군이 근일에 와서 이렇게 사나와졌는가?> 하고 물으면 백성들은 <당신들이 변구의 대생산 운동을 파괴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괴뢰군의 하층에서는 <그 사람들이 대생산 운동을 하고 있으니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의론이 분분하였다.

유격구의 인민 대중도 생산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가? 거기서는 아직 소작료 인하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것이 철저히 할 수 없을 터인데 그래도 농민들이 생산을 증가하려는 의욕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하여서도 진찰기 변구는 긍정적인 대답을 주고 있다. <봉쇄 도랑 밖에 있는 부대의 생산 운동은 또 당지의 대중에게 직접적인 방조를 주었다. 그들은 대중의 생산을 무력으로 엄호하는 한 편 보편적으로 로력적 방조를 주었다. 어떤 부대들은 농번기에는 자기 령량의 50%를 떼 내어 대중의 생산을 무상으로 방조하기로 규정하였다. 이리 하여 대중의 생산 의욕이 크게 제고되고 군대와 인민의 관계가 더한층 융합되었으며 대중은 모두 먹을 것이 있게 되었다. 풍산당과 팔로군에 대한 유격구 대중의 공명파 옹호는 이로부터 한층 더 높아졌다>.

유격구에서도 군대와 인민의 대규모적 생산 운동을 진행할 수 있으며 또 진행하여야 한다는 이 점에 대하여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우리는 해방구의 일체 당 조직, 정권 기관, 군대의 일'군들, 특히는 유격구의 일'군들이 사상적으

로 이 점을 완전히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이 《할 수 있다》는 것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생산 운동을 보편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 진찰기 번구도 바로 이 점으로부터 출발하였던 것이다. 즉 《봉쇄 도랑 밖에 있는 부대의 생산 운동에 있어서는 간부의 사상이 전변되어 생산을 중시하며 로동과 작전의 호상 결합을 중시하며 대중 속에서의 영웅과 모범(초보적인 총화에 의하면 66 명의 영웅과 모범이 배출되었다)을 양성하였기 때문에 불과 5 개월 동안에 봉쇄 도랑 밖에 있는 우리 부대는 생산 임무를 제때에 계획 대로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실사 구시적인 많은 새로운 창조를 하였다》.

1945년에는 전 태방구가 일치하게 과거보다 더욱 큰 규모의 군대와 인민의 생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금년 겨울에 가서 각 지구의 성적을 비교하여 보자.

전쟁이란, 군사적, 정치적 경쟁일 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 경쟁인 것이다. 우리는 일본 침략자를 타승하려면 다른 모든 것을 제한 외에 경제 사업에도 노력하여야 하며 2~3 년 내에 그것을 완전히 배워 내야 한다. 그리고 금년—1945년에는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이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가 전 태방구의 전체 일'군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절실히 바라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이 계획이 완수되기를 바란다.



## 중국의 두 운명\*

(1945년 4월 23일)

동지들! 중국 공산당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는 오늘 개막되었다.

우리의 이 대회는 어떤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이 번 대회는 전 중국 4억 5천만 인민의 운명에 관계되는 대회라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의 운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어떤 사람이 책으로 써 낸 것<sup>(1)</sup>이다. 우리의 이 대회는 중국의 다른 한 가지의 운명을 대표하는 것인데 우리도 그것에 대하여 책을 써 내려 한다<sup>(2)</sup>. 우리의 이 대회는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전 중국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회는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며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회이며 전 중국 인민을 단결시키고 전 세계 인민과 단결하여 종국적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대회이다.

오늘의 정세는 매우 좋다. 구라파에 있어서 히틀러는 오래지 않아 타도될 것이다. 세계 반파쇼 전쟁의 주요한 일부

---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한 개회사이다.

분은 서방에 있는데 서방에서의 전쟁은 곧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쓰런 붉은 군대의 노력의 결과이다. 지금 베를린에서는 이미 붉은 군대의 포성이 들리고 있으며 아마 불원간에 함락될 것이다. 동방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전쟁도 승리의 날이 가까와 오고 있다. 우리의 이 대회는 반파쇼 전쟁의 종국적 승리의 전야에 처하여 있다.

중국 인민들 앞에는 두 가지 길, 즉 광명의 길과 암흑의 길 이 가로놓여 있다. 중국에는 두 가지 운명, 즉 광명한 운명과 암흑한 운명이 있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는 아직 격멸당하지 않았다. 일본 제국주의를 격멸하였다 하더라도 의연히 이런 두 가지 전도가 있게 된다. 독립, 자유, 민주, 통일, 부강한 중국, 다시 말하면 광명한 중국, 중국 인민이 해방된 새 중국으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하나의 중국,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분열된 빈약한 중국, 다시 말하면 낡은 중국 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새 중국인가 그렇지 않으면 낡은 중국인가 하는 두 가지 전도는 여전히 중국 인민 앞에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앞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 번 대표 대회 앞에 존재하고 있다.

일본이 아직 격멸되지 않았고 또 일본이 격멸된 후에도 여전히 두 가지 전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할 것인가? 우리의 과업은 무엇인가? 우리의 과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중을 대담하게 발동시키고 인민의 력량을 장성시키며 단결할 수 있는 전국의 모든 력량과 단결하여 우리 당의 명도 하에서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고 광명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독립, 자유, 민주, 통일,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다.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하여 광명한 전도와 광명한 운명을 쟁취하여야 하며, 다른 하나의 전도와 운명, 암흑한 전도와 암흑한 운명을 반대하여야 한다. 우리의 과업은 이 한 가지 뿐이다! 이것이 우리 대회의 과업이며 이것이 우리 전당의 과업이며 이것이 전 중국 인민의 과업이다.

우리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는가? 우리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경험이 풍부하며 121만의 당원을 집결시킨 강대한 중국 공산당이 있다.

둘째, 9,550만의 인구, 91만의 군대, 220만의 민병을 포괄한 강대한 해방구가 있다.

셋째, 전국의 광범한 인민들의 원조가 있다.

네째, 전 세계 각국 인민들의 원조, 특히는 소련의 원조가 있다.

강대한 중국 공산당, 강대한 해방구, 전국 인민들의 원조, 세계 인민의 원조——이러한 조건 하에서 우리의 희망이 실현될 수 없겠는가? 우리는 실현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금까지 중국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여러 해 전부터 약간의 조건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완비되지는 못 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처럼 이렇게 강대

한 적이 없었으며 혁명 근거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인구와 많은 군대를 가져 본 적이 없었으며 일본 점령구와 국민당 통치구의 인민들 가운데서 중국 공산당의 위신도 지금이 가장 높으며 쓰련 및 각국 인민들의 혁명 역량도 지금이 가장 강대하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침략자를 격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다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의 기본점은 대중을 대담하게 발동시키고 인민의 역량을 장성시켜 우리 당의 령도 하에서 침략자를 격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된 이래 이미 24 년이 되었다. 그 동안에 북벌 전쟁, 토지 혁명 전쟁, 항일 전쟁 등 이러한 영웅적 투쟁의 세 개 역사적 시기를 거쳤으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지금에 와서 우리 당은 이미 중국 인민의 항일 구국의 중심으로 되었으며 중국 인민을 해방하는 중심으로 되었으며 침략자를 격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는 중심으로 되었다. 중국의 중심은 그 어떤 다른 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측에 있다.

우리는 겸손하고 근신하며 교만성과 조급성을 삼가면서 일심 정력으로 중국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현시에 있어서는 전국 인민들과 단결하여 일본 침략자를 타승하고 장래에 있어서는 전국 인민들과 단결하여 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정확한 정책이 있기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이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의 과업은 반드시 완수될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

중국 인민의 해방 만세!

중국 공산당 만세!

중국 공산당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 만세!

## 주 해

[ 1 ] 1943년에 장 개석이 발표한 《중국의 운명》이라는 책을 가리킨다.

[ 2 ] 이 대회에서 모택동 동지가 진술하기로 된 보고 《연합 정부에 대하여》를 가리킨다.



## 연합 정부에 대하여\*

(1945년 4월 24일)

### 1. 중국 인민의 기본적 요구

우리의 대회는 중국 인민이 일본 침략자에 대하여 근 8년 동안이나 견결하고도 영용한 불요불굴의 투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수한 간난 신고와 자기 희생을 겪고 난 후 이러한 새로운 국면이 나타난 정형 하에서 열리게 된 것이다. 즉 전 세계적으로 파쇼 침략자를 반대하는 성스러운 정의의 전쟁이 이미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승리를 얻었고 중국 인민이 동맹국과 배합하여 일본 침략자를 격멸할 날이 멀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여전히 단결되지 못 하고 있으며 중국에는 여전히 엄중한 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추호도 의심할 바 없이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여 목전의 위기를 타개하며 전 중국의 항일 력량을 동원하고 통일시켜 동맹국과 강유력하게 배합 작전함으로써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고 중국 인민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제 7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한 정치 보고이다.

을 일본 침략자의 수중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중국은 각 당 각파 및 무소속의 대표적 인물들을 단결시켜 민주주의적 립시 연합 정부를 수립할 것이 급선무로 나서고 있다. 그런 후에 광범한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국민 대표 대회를 소집하여 더한층 광범한 범위의 각당 각파 및 무소속의 대표적 인물들을 망라하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합의 성격을 띤 민주주의적인 정식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해방된 전국 인민을 령도하여 독립, 자유, 민주, 통일, 부강한 새 나라를 건설할 것이 요구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단결 및 민주주의의 로선을 통하여 침략자를 격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이렇게 하는 것만이 중국 인민의 기본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나의 보고는 주로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토론하게 된다. 중국에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중국 인민과 동맹국의 민주주의적 여론계에서 매우 관심하는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보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려 한다.

중국 공산당은 8년 간에 걸친 항일 전쟁 과정에 자기의 사업에서 허다한 곤난을 극복하였으며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 정세 하에서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아직도 엄중한 곤난이 가로놓여 있다. 현 시국은 우리 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긴급하고도 더욱 절실한 사업에 종사하며 곤난을 계속 극복하면서 중국 인민의 기본적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

하여 분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 국제 정세와 국내 정세

중국 인민은 우리가 위에서 제기한 그러한 기본적인 요구들을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중국 인민들의 각성, 단결 및 노력의 정도 여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현하의 국제, 국내 정세는 중국 인민에게 극히 유리한 조건들을 지어 주고 있다. 만일 중국 인민이 이러한 조건들을 잘 리용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히, 그리고 계속 꾸준히 분투한다면 침략자를 타승하고 새 중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은 추호도 의심할 바 없다. 중국 인민은 배가의 노력으로 자기의 성스러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분투하여야 한다.

현하의 국제 정세는 어떠한가?

현하의 군사 정세를 보면 쓰련 군대가 이미 베를린을 공격하고 있으며 영국-미국-프랑스 연합군도 이에 배합하여 히틀러의 잔존 부대에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인민은 봉기를 일으켰다. 이 모든 것은 히틀러를 종국적으로 소멸하게 될 것이다. 히틀러가 소멸된 후에는 일본 침략자도 멀지 않아 격멸될 것이다. 국내외 반동파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파쇼 침략 세력은 반드시 타도될 것이며 인민 민주주의 세력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세계는 진보적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결코 반동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물론 경각성을 충분히 높임으로써 력사적인, 약간의 일시적인 심

지어는 엄청난 우여 곡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허다한 국가들에는 자국 인민과 외국 인민이 단결하고 진보하고 해방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반동 세력이 아직도 강대하다는 것을 예견하여야 한다. 누가 만일 이런 점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력사의 총적 추세는 이미 확정되었으며 그것을 변경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정형은 단지 파시스트들과 사실 상 파시스트를 방조하고 있는 각국의 반동들에게만 불리한 것이고 모든 나라의 인민과 그들의 조직된 민주주의 세력에 대하여서는 모두가 복음으로 된다. 인민, 오직 인민만이 세계의 력사를 창조하는 동력이다. 소련 인민은 강대한 력량을 창조하여 파쇼를 타도하는 주력군으로 되었다. 소련 인민의 노력과 기타 반파쇼 동맹국 인민들의 노력은 파쇼를 타도할 가능성을 주고 있다. 전쟁은 인민들에게 교육을 주었는바 인민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평화를 전취할 것이며 진보를 전취할 것이다.

이 새로운 정세는 제 1 차 세계 대전 당시의 정세와 크게 다르다. 당시에는 아직 소련이 없었으며 또 허다한 국가의 인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각성도 없었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대를 보여 준다.

파쇼 침략 국가가 격멸되고 제 2 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국제적 평화가 실현된 후이면 투쟁이 없어진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광범히 산포되어 있는 파쇼 잔존 세력은 틀림 없

이 계속 발악할 것이다. 파쇼 침략 전쟁을 반대하는 진영 내에는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타민족을 억압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각국 인민과 각 식민지, 반식민지들을 억압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평화가 실현된 후에도 파쇼를 반대하는 인민 대중과 파쇼 잔존 세력 간의 투쟁,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간의 투쟁, 민족 해방과 민족 억압 간의 투쟁이 여전히 전 세계의 대부분 지방들에 충만할 것이다. 오직 장기적인 노력을 거쳐 파쇼 잔존 세력, 반민주주의 세력 및 일체 제국주의 세력을 제압함으로써만 비로소 가장 광범한 인민의 승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날이 결코 그렇게 급속히 용이하게 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반파쇼적 제 2 차 세계 대전의 승리는 이 전후의 인민 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 준다. 또 오직 이 후자의 투쟁이 승리하여야만 공고한, 항구한 평화가 보장될 수 있다.

천하의 국내 정세는 어떠한가?

중국의 장기적 전쟁은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막대한 희생을 내게 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또 바로 이 전쟁은 중국 인민을 단련시켰다. 이 전쟁이 중국 인민의 각성과 단결을 촉진시킨 정도는 최근 100 년 이래 중국 인민의 그 어떤 위대한 투쟁도 이에 대비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인민 앞에는 강대한 민족의 원수가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민족의 원수를 방조하고 있는 강대한 국내 반동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한 면이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 중국 인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각성 정도가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강대한 중국 해방구를 가지고 있으며 날로 양양되는 전국적인 민주주의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유리한 국내 조건이다. 최근 100 년간의 중국 인민들의 모든 투쟁이 다 실패 또는 좌절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약간의 필요한 국제, 국내 조건들이 결여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이 번에는 과거의 그 어느 때와도 달라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다. 실패를 면하고 승리를 전취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전국 인민을 단합하여 힘 써 분투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단결하여 침략자를 격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려는 중국 인민의 신념은 어느 때보다도 크게 증강되었다. 중국 인민이 모든 곤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그 기본적 요구를 실현할 시기는 이미 닥쳐 왔다. 이 점에 대하여 아직도 의문이 있는가? 나는 의문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현하의 국제적 및 국내적 일반 정세이다.

### 3. 항일 전쟁에서의 두 로선

#### 중국 문제의 판건

국내 정세에 언급하자면 우리는 또 중국 항일 전쟁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을 반파쇼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전 세계 5 대국 중의 하나이며 아세아 대륙에서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주요한 나라이다. 중국 인민은 항일 전쟁에서 거대한 역할을 놀았을 뿐만 아니라 전후의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거대한 역할을 놀 것이며 동방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 역할을 놀 것이다. 중국은 8 년 동안의 항일 전쟁에서 자신을 해방하기 위하여 또 여러 동맹국들을 원조하기 위하여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중국 인민 측에서 한 것이다. 중국 군대의 광범한 장비들은 전선에서 피 흘려 싸웠으며 중국의 로동자, 농민, 지식층, 산업계는 후방에서 사업에 노력하였으며 해외의 화교들은 돈을 보내어 항전을 원조하였으며 반인민적인 분자들을 제외한 모든 항일 정당들은 전쟁을 위하여 자기의 있는 힘을 다 바치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중국 인민은 자기의 피와 땀으로 일본 침략자와 8 년 동안이나 영웅하게 투쟁하였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중국의 반동 분자들은 요언을 날조하고 여론을 속임으로써 항일 전쟁에서 중국 인민들이 논 역할의 진상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못 하게 하였다. 동시에 8 년 간에 걸친 중국 항일 전쟁의 제반 경험에 대하여 아직 아무도 전면적인 총화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회는 이러한 경험들에 대하여 적당한 총화를 함으로써 인민을 교양하며 또 당 정책 결정의 근거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의 총화를 제기하게 되면 중국에는 상이한 두 지도로선, 즉 일본 침략자를 격멸할 수 있는 로선과 일본 침략자

를 격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 말한다면 사실상 일본 침략자를 방조하여 항일 전쟁에 해를 주는 로선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국민당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작전하는 정책 및 대내로 인민을 발판적으로 유린하는 반동적 정책은 전쟁의 좌절, 대부분 국토의 상실, 재정 경제의 위기, 인민의 피압박 상태, 인민 생활의 고통, 민족 단결의 파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반동적 정책은 전쟁의 성과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중국 인민 항일 력량의 동원과 통일을 방해하였으며 중국 인민의 각성과 단결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중국 인민의 각성과 단결을 위한 운동은 결코 중지되지 않았으며 그것은 일본 침략자와 국민당 정부의 이중 압박 하에서 우여곡절의 길을 걸으면서 발전하고 있다. 두 로선, 즉 중국 인민을 억압하고 소극적으로 항전하는 국민당 정부의 로선과 각성, 단결하여 인민 전쟁을 진행하는 중국 인민의 로선은 오래 전부터 분명하게 중국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중국 문제의 관건으로 된다.

### 우여 곡절의 길을 걸어 온 력사

어째서 이 두 로선 문제가 모든 중국 문제의 관건으로 되는가를 모든 사람에게 똑똑히 리해시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항일 전쟁의 력사를 회고하여 보아야 한다.

중국 인민의 항일 전쟁은 우여 곡절의 길을 걸어 발전하

여 왔다. 이 전쟁은 1931년에 벌써 시작되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 침략자는 심양을 점령한 후 몇 달 사이에 동3성을 점령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무저항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동3성의 인민들과 동3성의 일부 애국적 군대는 중국 공산당의 령도 또는 협조 하에 국민당 정부의 의사를 위반하고 동3성의 항일 의용군과 항일 련군을 조직하여 영웅한 유격 전쟁을 진행하였다. 이 영웅한 유격 전쟁은 한때 매우 큰 규모에 까지 발전되었으며 그 후 허다한 곤난과 좌절을 거치었으나 끝까지 적에게 소멸 당하지 않았다. 1932년에 일본 침략자가 상해를 진공하자 국민당 내부의 애국 분자의 일파가 또 한번 국민당 정부의 의사를 위반하고 19 로군을 령솔하여 일본 침략자의 진공에 저항하였다. 1933년에 일본 침략자가 열하성과 차할성을 진공하자 또 국민당 내부의 애국 분자의 다른 일파가 제 3 차로 국민당 정부의 의사를 위반하고 공산당과 합작하여 항일 동맹군을 조직하여 가지고 저항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항일 전쟁에 대하여 중국 인민, 중국 공산당, 기타의 민주주의파 및 해외의 애국적 화교들이 원조를 주었을 뿐 무저항 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민당 정부는 아무런 원조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상해, 차할에서의 두 차례의 항일 행동은 국민당 정부에 의하여 파괴 당하고 말았다. 1933년에 19 로군이 복건에서 수립한 인민 정부도 국민당 정부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당시의 국민당 정부는 어째서 무저항 정책을 취하였는가? 그 주되는 원인은 국민당이 1927년에 국공 량당의 합작

을 파괴하였고 중국 인민의 단결을 파괴한 데 있다.

1924년에 손 중산 선생은 중국 공산당의 제의를 접수하고 공산당원들이 참가한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를 소집하여 로씨야와 련합하며 공산당과 련합하며 로농을 부조하는 3대 정책을 제정하였고 황포 군관 학교를 창립하였으며 국공 량당과 각계 인민의 민족 통일 전선을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1924년부터 1925년까지는 광동의 반동 세력을 소탕하였고 1926년부터 1927년까지는 승리적인 북벌 전쟁을 진행하여 장강 류역과 황하 류역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북양 군벌 정부를 격파하여 중국 력사 상 미증유의 광범한 인민 해방 투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러나 1927년의 늦은 봄과 초'여름 사이에 이르러 바로 북벌 전쟁이 앞으로 발전하고 있는 긴요한 고비에 중국 인민 해방 사업을 대표하는, 국공 량당과 각계 인민의 민족 통일 전선 및 그의 모든 혁명적 정책은 국민당 당국의 반역적 및 반인민적 《청당》 정책과 학살 정책에 의하여 파괴되고 말았다. 어제의 동맹자——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원수로 간주되었으며 어제의 원수——제국주의자와 봉건주의자는 동맹자로 간주되었다. 국민당은 이와 같이 배신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돌연히 습격하였으며 이리하여 생기 발랄하던 중국의 대혁명은 실패 당하고 말았다. 이 때로부터 내전이 단결을 대체하였고 독재가 민주주의를 대체하였으며 암흑한 중국이 광명한 중국을 대체하였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은 결코 이에 절첩하지 않았고 정복 당하지 않았으며 절멸 당하지 않았다. 그들은 땅'바닥

에서 다시 일어 나 몸에 묻은 피를 씻어 버리고 동무들의 시체를 묻은 후 또다시 전투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큰 가치를 높이 추켜 들고 무력적 저항을 단행하였으며 중국의 광활한 지역에서 인민의 정권을 조직하고 토지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고 인민의 군대——중국 홍군을 창건하였으며 중국 인민의 혁명력을 보전하고 발전시켰다. 국민당 반동 분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 삼민주의는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 및 기타의 민주주의자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일본 침략자가 동3성에 쳐 들어 온 후 1933년에 중국 공산당은 혁명 근거지와 홍군을 진공하는 모든 국민당 군대에 향하여 진공을 중지하며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며 인민을 무장시키는 등 세 가지 조건 하에서 정전 협정을 체결하고 일치 항일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국민당 당국은 이 제의를 거부하였다.

이 때로부터 일방에서는 국민당 정부의 내전 정책이 더욱더 창궐하여졌고 타방에서는 내전을 중지하고 일치 항일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 인민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졌다. 인민들의 각종 애국적 단체가 상해와 기타의 허다한 지방들에서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1934년부터 1936년에 이르기까지에 장강 남북 각지의 홍군 주력은 우리 당 중앙의 령도 하에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서북 지방으로 이동하였으며 서북 홍군과 회합하였다. 이 2년 동안에 중국 공산당은 새로운 정세에 적응하여 단결하여 항일할 것과 신민주주의 공화국의 수립을 분투 목표로 하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이라는 새롭고도 완전

한 정치 로선을 결정하였으며 집행하였다. 1935년 12월 9일 북평의 학생 대중은 우리 당의 명도 하에서 영용한 애국 운동을 일으켜 중화 민족 해방 선봉대<sup>(1)</sup>를 조직한 동시에 이 애국 운동을 전국 각 대도시에 파급시켰다. 1936년 12월 12일 국민당 내부에서 항일을 주장하는 두 파의 애국 분자들——동북군과 17 로군은 연합하여 국민당 당국의 대일 타협 및 대내 학살의 반동 정책을 용감히 반대하여 유명한 서안 사변을 일으켰다. 동시에 국민당 내부의 다른 애국 분자들도 국민당 당국의 당시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국민당 당국은 마지 못 하여 내전 정책을 포기하고 인민의 요구를 승인하였던 것이다. 서안 사변의 평화적 해결은 시국의 전환점으로 되었다. 즉 새로운 정세 하에서 국내의 합작이 형성되었으며 전국적인 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로구교 사변의 전야, 즉 1937년 5월에 우리 당은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전국 대표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당중앙의 1935년 이래의 새로운 정치 로선을 비준하였다.

1937년 7월 7일의 로구교 사변으로부터 1938년 10월 무한이 함락되기까지의 기간에 국민당 정부는 대일 작전에 비교적 노력하였다. 이 기간에 일본 침략자의 대거 진공과 전국 인민의 민족적 의분의 앙양으로 하여 국민당 정부는 그래도 자기의 정책의 중점을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데 두고 있었다. 이리 하여 전국의 군대와 인민들의 항일 전쟁의 고조가 보다 순조롭게 형성되어 한때 생기 발란한 새로운 기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당시 전국 인민들과 우리 공산당원들

및 기타의 민주 정당들은 모두 국민당 정부에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었다. 즉 그가 민족이 위기에 처하여 있고 민심이 분발된 시기를 타서 민주 개혁을 적극 실시하여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 삼민주의를 실시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수포로 돌아 가고 말았다. 이 2년 동안에 국민당 당국은 일방으로 비교적 적극적으로 항전하였으나 타방으로는 광범한 인민 대중이 참가하는 인민 전쟁을 발동하는 것을 여전히 반대하였으며 인민이 자발적으로 단결하여 항일과 민주주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여전히 제한하였다. 국민당 정부는 일방으로 중국 공산당과 기타의 항일 정당들에 대한 태도가 과거에 비하여 약간 개변되었으나 타방으로는 여전히 제정당에 평등한 지위를 주지 않았으며 그 활동을 다방면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허다한 애국적 정치범들을 석방하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요한 것은 국민당 정부가 1927년에 내전을 일으킨 이래의 과두 독재 제도를 그냥 지속함으로써 기국 일치의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를 수립할 수 없게 한 그 점이다.

이 시기의 시초부터 우리 공산당원들은 벌써 중국 항일 전쟁의 두 로선, 즉 인민적인 전면적 전쟁이나——이렇게 하면 승리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인민을 억압하는 일면적 전쟁이나——이렇게 하면 실패할 것이다——를 지적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또 전쟁은 장기적인 것이며 필연코 허다한 간난 신고에 봉착할 것이지만 중국 인민의 노력에 의하여 종국적 승리는 반드시 중국 인민에게 돌아 오리라는 것을 지적하였었다.

## 인민 전쟁

이 시기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이 병도하는 부대 중에서 서북 지방으로 이동한 중국 홍군 주력은 중국 국민 혁명군 제 8 로군으로 재편성되고 장강 남북 각지에 남아 있던 중국 홍군 유격 부대는 중국 국민 혁명군 신편 제 4 군으로 재편성되어 각각 화북과 화중으로 가서 싸우게 되었다. 내전 시기의 중국 홍군은 북벌 시기의 황포 군관 학교 및 국민 혁명군의 민주주의적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켰으며 한때 수십만 명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남방 각 근거지에 대한 국민당 정부의 혹독한 파괴와 만리 장정에서의 홍군의 소모 및 기타의 원인들로 인하여 항일 전쟁이 시작될 무렵에는 그 수효가 감소되어 몇 만 명 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군대를 알보고 항일은 주로 국민당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감정인이다. 그들은 팔로군, 신사군이 당시에 있어서 수'적으로는 적지만 질적으로는 매우 높으며 오직 이 군대만이 진정한 인민 전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이 군대가 일단 항일 전선에 진출하여 그 곳에 있는 광범한 인민들과 결합하게 되면 그 전망은 무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민의 견해는 정확하였다. 내가 여기에서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군대는 이미 91만 명으로 발전되었으며 생산을 리탈하지 않은 농촌의 민병은 220만 명 이상으로 발전되었



다. 지금 우리의 정규 군대가 국민당의 현존하는 군대(중앙계 및 지방계를 포함하여)에 비하여 수'적으로는 꽤 적다 하지만 그가 항격하고 있는 일본군 및 괴뢰군의 수효와 그가 담당하고 있는 전장의 크기를 두고 말하거나 그 전투력을 두고 말하거나 광범한 인민과의 배합 작전을 두고 말하거나 그 정치적 질과 그 내부의 통일 단결을 두고 말하거나 그는 이미 중국 항일 전쟁의 주력군으로 되어 있다.

이 군대가 강유력한 까닭은 이 군대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자각적으로 규률을 지키고 있으며 소수의 사람들 또는 협애한 집단의 사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전 민족의 이익을 위하여 결합되었으며 전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과 한 길에 튼튼히 서며 일심 정력으로 중국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 이것이 이 군대의 유일한 취지이다.

이 취지 하에서 이 군대는 용왕매진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일체의 적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며 결코 적에게 굴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떤 간난 신고 앞에서도 난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전투를 계속할 것이다.

이 취지 하에서 이 군대는 내부적 및 외부적으로 훌륭히 단결되어 있다. 내부적으로——군관과 병사 간, 상급계 하급 간, 군사 일'군과 정치 일'군과 후방 사업 일'군 간에 일치 단결되어 있으며 외부적으로——군대와 인민 간, 군대와 정권 기관 간, 아군과 우군 간에 일치 단결되어 있다. 단결을 방해하는 일체 현상은 퇴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취지 하에서 이 군대는 적군의 장병을 생취하며 포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적측으로부터 투항하여 오거나 의거하여 오거나 또는 무기를 놓은 후 공동의 적을 반대하는 사업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일률적으로 환영하며 동시에 그들에게 적당한 교양을 준다. 일체의 포로에 대하여 살해하거나 학대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취지 하에서 이 군대는 인민 전쟁에 필요한 일련의 전략 전술을 확립하였다. 이 군대는 변화되고 있는 구체적 조건들에 따라 기동적이며 링활성이 있는 유격 전쟁을 하는 데 능하며 또 운동전에도 능하다.

이 취지 하에서 이 군대는 인민 전쟁에 필요한 일련의 정치 사업을 확립하였다. 그 임무는 아군을 단결시키며 우군과 단결하며 인민과 단결하며 적군을 와해시키며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이 취지 하에서 전체 군대는 유격 전쟁의 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할 수 있으며 또 이미 하고 있다. 즉 전투와 훈련의 여가를 리용하여 량곡과 일용 필수품 생산에 종사함으로써 군대의 자급, 반자급 또는 부분적 자급을 달성하며 이리 하여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고 군대의 생활을 개선하며 인민의 부담을 감소시킨다. 각 군사 근거지들에서는 또한 온갖 가능성을 리용하여 허다한 소규모적 군수 공업을 건설하였다.

이 군대가 강유력한 까닭은 또 인민 자위군 및 민병과

같은 광범한 대중적 무장 조직이 이 군대와 함께 배합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방구에서는 모든 청장년 남녀들이 다 자원적이고 민주주의적이며 생산을 리탈하지 않는 원칙 하에서 항일 인민 자위군에 조직되어 있다. 자위군 내의 정수 분자들로서 군대와 유격대에 가입한 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민병 대오에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대중적 무장력의 배합이 없이는 적을 타승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군대가 강유리한 까닭은 또 그 자체를 주력 병단과 지방 병단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이다. 전자는 아무 때나 초지방적인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후자의 임무는 민병, 자위군과 협동하여 지방을 보위하며 당지의 적을 공격하는 면에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회분은 인민들의 진심으로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정확한 회분이 없다면, 폐를 들어 단지 주력 병단의 역할에만 주의를 돌리고 지방 병단의 역할을 혼시한다면 중국 해방구의 조건 하에서도 역시 적을 타승할 수 없는 것이다. 지방 병단은 훌륭한 훈련을 거친, 군사, 정치, 민중 운동 등 제반 사업 면에서 비교적 건전한 많은 무장 공작대를 조직하여 적후의 적후에 깊이 들어가 적에게 타격을 가하고 민중의 항일 투쟁을 발동시킴으로써 각 해방구의 정면 전선의 작전에 배합하도록 하였으며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 해방구에서는 민주 정부의 명도 하에서 모든 항일 인민들에게 로동자 단체, 농민 단체, 청년 단체, 여성 단체, 문화 단체 및 기타 직업 단체, 사업 단체 등에 조직되어 여

리 가지의 군대 원호 사업에 열렬히 종사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는 인민을 동원하여 군대에 참가시키며 군대에 식량을 운반하여 주며 항일 군인의 가족을 우대하며 군대의 물질적 곤란을 해결하여 주는 등의 일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유격대, 민병 및 자위군을 동원하여 습격 운동과 폭파 운동을 전개하며 적정을 징찰하며 간첩을 숙청하며 부상병을 호송하고 '보호하며 군대의 작전을 직접 돕는 등의 일도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전 해방구의 인민들은 또 정치, 경제, 문화, 위생 등 제반 건설 사업에 열렬히 종사하고 있다. 이 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인민을 동원하여 량곡 및 인용품 생산에 종사하게 하는 동시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자를 제외한 일체 기관, 학교들에서 일률적으로 사업 또는 학습의 여가분 타서 생산 자급에 종사하여 인민 및 군대의 생산 자급에 배합하게 하며 열의 높은 위대한 생산 운동을 형성함으로써 장기적 항일 전쟁을 지탱하게 한 집이다. 중국 해방구에 있어서 적들의 파괴는 극히 엄중하였으며 수재, 한재, 충재도 늘 발생되었다. 그러나 해방구의 민주 정부는 전체 인민을 령도하여 각종 곤란들을 조직적으로 극복하였거나 극복하고 있으며 누리 퇴치, 치수, 재해 극복 등의 위대한 대중적 운동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어 항일 전쟁을 장기적으로 견지할 수 있게 하였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일체는 전신을 위하여, 일체는 일본 침략자를 타도하고 중국 인민을 해방하기 위하여라는 이것이 중국 해방구의 전체 군민의 총적 구호이며 총적 방침이다.

이것이 진정한 인민 전쟁이다. 오직 이러한 인민 전쟁으로써만 민족의 원수를 타승할 수 있다. 국민당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한사코 인민 전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방구의 군대가 일단 신식 무기로 장비하게 되면 더한층 강대하여질 것이며 종국적으로 일본 침략자를 격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두 전장

중국의 항일 전쟁은 처음부터 두 전장으로, 즉 국민당의 전장과 해방구의 전장으로 나뉘어졌다.

1938년 10월에 무한이 함락된 후 일본 침략자는 국민당 전장에 대한 전략적 진공을 중지하고 점차적으로 그 주요 군사력을 해방구 전장으로 이동시켰다. 이와 동시에 국민당 정부의 패배주의적 기분에 비추어 일본 침략자들은 국민당 정부와 타협적 화의를 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고 성명하였으며 또 매국 역적 왕 정위를 중경으로부터 피여 내어 남경에다 피뢰 정부를 수립하고 민족적 기만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때로부터 국민당 정부는 정책을 변경하기 시작하여 그 중점을 항일로부터 점차 반공산당, 반인민의 방향으로 옮기었다. 이것은 우선 군사적 면에서 표현되었다. 국민당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작전하는 정책을 취하여 자기의 군사적 실력을 보전하는 한편 작전의 무거운 짐을 해방구의 전장에 넘겨 일본 침략자로 하여금 해방구를 대대적으로 진공하게 하고

그 자신은 《산마루에 앉아서 법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었다.

1939년에 국민당 정부는 반동적인 소위 《이당 활동 제한법》을 실시하여 항전 초기에 인민들과 각 항일 정당들이 전취하였던 약간의 권리마저 몽땅 취소하여 버렸다. 이 때로부터 국민당 통치구 내에서 국민당 정부는 모든 민주 정당, 우선 그리고 주로는 중국 공산당을 지하어로 몰아 넣었다. 국민당 통치구의 각 성에 있는 감옥과 수용소에는 공산주의자, 애국 청년 및 기타의 민주주의 투사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1939년부터 1943년 가을까지의 5년 동안에 국민당 정부는 3차나 대규모적인 《반공 고조》[2]를 일으켜 국내의 단결을 결렬시키고 엄중한 내전의 위기를 조성하였다. 신사군을 《해산》시키고 안휘성 남부의 신사군 부대 9,000여 명을 섬멸하여 국내외를 진동시킨 사변은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 그 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해방구의 군대에 대한 국민당 군대의 진공 사건은 아직 중지되지 않고 있으며 또 그것을 중지하려는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형편에서 국민당 반동 분자들의 입에서는 벌벌 증상과 모욕적 언사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간당》이니 《간군》이니 《간구》이니 그리고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느니 하는 등등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해방구를 증상하는 칭호와 언사는 모두가 이 반동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1939년 7월 7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자기의 선언에서 당시의 위기에 대처하여 《항전을 견지하고 투항을 반대하자, 단결을 견지하고 분열을 반대하자, 진보를 견지하고 퇴보를 반대하자》

는 구호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적시적인 구호에 좇아 우리 당은 5년 동안에 3차에 걸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반공고조》를 강력하게 격퇴하고 당시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이 수년 간에 국민당의 전장에는 사실 중대한 전쟁이 없었다. 일본 침략자의 총부리는 주로 해방구에 향하고 있었다. 1943년에 이르러서는 중국 침략 일본군의 64%와 괴뢰군의 95%를 해방구의 군대와 인민이 항격하였으며 국민당의 전장이 담당한 것은 일본군의 36%와 괴뢰군의 5%에 불과하였다.

1944년에 일본 침략자는 대륙의 교통선을 련결시키기 위한 작전을 진행하였다. 국민당 군대는 이에 대하여 속수 무책이었으며 저항 능력이 조금도 없었다. 그리 하여 수개월 내에 하남, 호남, 광서, 광둥 등 여러 성의 광대한 지역들이 적의 손에 들어 갔다. 오직 이 때만은 두 전장이 분담한 항적 비례에 다소 변화가 일어 났다. 그러나 내가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지금에는 중국 침략 일본군(만주에 있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음) 40개 사단, 58만 명 중에서 해방구 전장이 항격하고 있는 것이 22개 사단 반, 32만 명으로서 56%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당 전장이 항격하고 있는 것은 불과 17개 사단 반, 26만 명으로서 44%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괴뢰군을 항격하고 있는 정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

또 지적하여야 할 것은 80만 명 이상에 달하는 괴뢰군(괴뢰 정규군과 괴뢰 지방 무장력을 포함한)의 대부분은 국민당의 장령들이 부대를 거느리고 투항한 것이거나 또는 투항하여 넘어 간 국민당의 군관들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

민당 반동 분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괴뢰군들에게 소위 《폭선 구국》이라는 애국적인 황당한 이론을 제공하여 주었으며 사후에는 또 정신적 및 조직적으로 그들을 지지하여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일본 침략자와 배합하여 중국 인민의 해방구를 반대하게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량의 군대를 동원하여 섬감녕 변구와 각 해방구를 봉쇄, 공격하고 있는데 그 수효는 79만 7,000 명에 달하고 있다. 국민당 정부의 소식 봉쇄 정책으로 하여 많은 중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은 이런 엄중한 정형을 모르고 있다.

### 중국 해방구

중국 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 해방구는 지금 9,55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 지역으로 말하면 북쪽은 내몽고로부터 남쪽은 해남도에 이르고 있으며 적이 강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팔로군, 신사군 또는 기타의 인민 군대가 활동하고 있다. 이 광대한 중국 해방구에는 19 개의 큰 해방구가 망라 되어 있으며 그 지역으로는 료녕, 열하, 차할, 수원, 섬서, 감숙, 녕하, 산서, 하북, 하남, 산둥, 강소, 절강, 안휘, 강서, 호북, 호남, 광둥, 복건 등 성의 대부분 또는 소부분이 포괄되어 있다. 연안은 모든 해방구의 지도 중심이다. 이 광대한 해방구들 중 인구가 150만 밖에 안 되는 황하 이서의 섬감녕 변구는 19 개 해방구 중의 하나로서 절강성 동부와 경애 지구를 제외하고는 그 인구로 보아 가장 작은 해방구이



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정형을 잘 모르고 중국 해방구라는 것은 주로 섬감녕 번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당 정부의 봉쇄 정책에 의하여 조성된 오해이다. 이 모든 해방구들에서는 항일 민족 통일 전선에 필요한 제반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인민들의 선거에 의한, 공산당원과 각 항일 정당 및 무소속 대표 인물들이 합작하는 정부, 즉 지방적 성격을 띤 연합 정부를 수립하였거나 또는 수립하고 있다. 해방구 내의 전체 인민들의 력량은 모두 동원되었다. 이 모든 것으로 하여 중국 해방구는 강대한 적의 압박 하에서도, 국민당 군대의 봉쇄와 진공 하에서도, 외부의 원조가 전혀 없는 정형 하에서도 동요 없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날이 발전되어 적의 점령구를 축소시키고 자기의 지역을 확대시키면서 민주주의적 중국의 축도로 되고 있으며 동맹국과 배합 작전하여 일본 침략자를 구축하고 중국 인민을 해방하는 주요한 력량으로 되고 있다. 중국 해방구의 군대——판로군, 신사군 및 기타의 인민 군대는 대일 전쟁의 작전에서 영웅한 모범적 역할을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제반 민주주의적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모범적인 역할을 놓고 있다. 1937년 9월 22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손 중산 선생의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는 것을 승인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이 중국 해방구에서는 완전히 실천되었다.

## 국민당 통치구

국민당 내의 주요한 통치 집단은 독재 통치를 견지하고 소극적인 항일 정책과 반인민적인 국내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국민당의 군대는 절반 이상이나 축소되고 대부분이 전투력을 거의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들 자신과 광범한 인민들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조성된 동시에 인민의 생활이 피폐하여지고 인민의 원성이 비등하고 인민 봉기가 도처에서 일어나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항일 전쟁에서의 그 자체의 역할이 극도로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의 모든 항일 력량을 동원하고 통일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물로 되었다.

어째서 이런 엄중한 상태가 국민당 내의 주요한 통치 집단의 령도 하에 생기게 되는가? 그것은 이 집단이 대표하고 있는 리익은 중국의 대지주, 대은행가, 대매관 계층의 리익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극소수의 사람들로 형성된 반동적 계층이 국민당 정부의 관할 하에 있는 군사,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중요한 기구들을 독점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 소수인의 리익을 보전하는 것을 제 1 위에 두고 항일은 제 2 위에 두고 있다. 그들도 역시 《민족 지상》이니 무엇이니 하고 운운하고는 있지만 그들의 행위는 민족 중 대다수 인민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들은 또 《국가 지상》이니 무엇이니 하고 운운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국가는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 국가인 것이 아니라 대지주, 대은행가, 대매관 계층의 봉건적 파쇼적 독재의 국가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민의 쫓겨나기를 두려워 하며 민주주의 운동을 두려워 하며 전 민족이 진정으로 동원되는 항일 전쟁을 두려워 한다. 이것이 곧 그들의 일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작전하는 정책과 반인민, 반민주주의, 반공산당적인 반동적 대내 정책의 총근원인 것이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이러한 양면 정책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면으로는 항일을 하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소극적으로 작전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동시에 또 늘 일본 침략자의 투항 권유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일면으로는 입으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운운하고 있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사실 상 관료 자본, 즉 대지주, 대은행가, 대매관의 자본을 축적하며 중국의 주요한 경제 명맥을 독점하고 가혹하게 농민을 억압하며 노동자를 억압하며 소부르조아지 및 자유 부르조아지를 억압하고 있다. 일면으로는 입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정권을 인민에게 돌려 준다》고 운운하고 있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사실 상 인민의 민주주의 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하며 추호의 민주주의적 개혁도 실시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일면으로는 입으로 《공산당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니 정치적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운운하면서도 다른 일면으로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혹독하게 압박하며 공산당을 자기들의 소위 《첫째의 적》으로 간주하고 일본 침략자를 《둘째의 적》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매일과 같이 적극적으로 내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

산당을 소멸할 생각만 하고 있다. 일면으로는 입으로 《근대적 국가》를 세우겠다고 운운하고 있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사실 상 한사코 대지주, 대은행가, 대매관의 봉건적 파쇼적 독재 통치를 고수하고 있다. 일면으로는 쓰련과 형식 상으로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사실 상 쓰련을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면으로는 미국의 고립파와 더불어 《아세아를 먼저, 구라파는 나중에》라는 주장을 합창함으로써 파쇼 독일의 수명, 다시 말하면 모든 파쇼의 수명을 연장시키려 하며 중국 인민에 대한 자기들의 파쇼 통치의 수명을 연장시키려 하고 있지만 다른 일면으로는 또 외교상에서 교활하게 기회를 엿보아 자기를 반파쇼의 영웅으로 분장하고 있다. 자체 모순에 빠지고 있는 이러한 가지가지의 양면 정책은 어디서 온 것인가? 모두가 대지주, 대은행가, 대매관적 사회 계층이라는 이 총적 근원에서 온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은 복잡한 정당이다. 이 정당은 비록 대지주, 대은행가, 대매관 계층을 대표하는 반동적 집단에 의하여 지배되고 령도되고 있지만 그 전체가 다 이 반동적 집단인 것은 아니다. 그 일부의 지도적 인물들은 이 집단에 속하지 않으며 또 이 집단의 타격, 배척 또는 경시를 받고 있다. 국민당 내의 적지 않은 간부와 당원 대중 및 삼민주의 청년단의 단원 대중들은 이 집단의 령도를 좋아 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는 그 령도에 반대하고 있다. 이 반동적 집단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는 국민당의 군대, 국민당의 정권 기관, 국민당의 경제 기관 및 국민당의 문화 기관 내에는 모두 이러

한 정형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군대와 기관 내에는 민주주의자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 반동적 집단은 엄밀한 통일체인 것이 아니라 그 내부가 또 몇 개 파벌로 갈라져 서로 싸우고 있다. 국민당을 모두 꼭 같은 반동파로 보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매우 부당한 견해이다.

## 대 비

중국 인민은 중국 해방구와 국민당 통치구에서 뚜렷한 대비를 보았다.

두 로선, 인민 전쟁의 로선과 인민 전쟁을 반대하는 소극적 항일의 로선이 가져 오게 될 결과가 그래 아직도 뚜렷하지 않단 말인가? 그 하나는 중국 해방구와 같은 이런 악렬한 환경과 외부적 원조가 전연 없는 처지에 처하여 있기는 하지만 승리하게 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당 통치구와 같은 그런 극히 유리한 조건과 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처지에 처하여 있기는 하지만 패배하게 될 것이다.

국민당 정부는 자기들의 패배의 원인을 무기의 부족에다 돌리고 있다. 그런데 무기가 부족한 것은 국민당의 군대인가, 그렇지 않으면 해방구의 군대인가? 중국 해방구의 군대는 중국 군대 가운데서도 무기가 가장 부족한 군대이며 그들은 오직 적의 수중으로부터 무기를 탈취하거나 가장 악렬한 조건 하에서 자기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 쓸 수 밖에 없다.

국민당 중앙계 군대의 무기는 지방계 군대에 비하여 훨

선 좋지 않은가? 그러나 그 전투력을 대비하여 보면 중앙계의 군대는 그 다수가 지방계의 군대보다 못 하다.

국민당은 광범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 그릇된 병역 정책 때문에 인력 보충이 도리어 극히 곤란하다. 중국 해방구는 적에게 분할되어 있고 또 전투가 빈번한 정형 하에 있지만 인민들의 요구에 적응되는 민병 및 자위군 제도를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인적 자원에 대한 탐용과 랑비를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

국민당은 량곡이 풍족한 광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고 인민들이 매년 국민당에게 70억 근 내지 100억 근의 량곡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은 중간 취급자들에게 잘리어 국민당 군대는 군량이 언제나 부족하며 병사들은 굶주림에 시달리어 형편 없이 어위고 있다. 중국 해방구의 주요 부분은 적후에 떨어져 있고 또한 모조리 불 사르고, 모조리 죽이고, 모조리 약탈하는 적의 《삼광》 정책의 유린을 받고 있으며 그 중의 일부는 섬서성 북부와 같은 이런 척박한 지역이지만 자기들의 손으로 농업 생산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써 식량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국민당 지구의 경제 공황은 극히 엄중하여 공업은 대부분이 파산 당하고 피륙 등속과 같은 일용품까지도 미국으로부터 가져 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해방구는 공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써 피륙과 기타 일용품의 수요를 자체로 해결하고 있다.

국민당 지구에서는 노동자, 농민, 점원, 공무원, 지식인,

문화 일'군들의 생활난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해방구의 전체 인민들은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일'자리 걱정이 없다.

항전을 리용하여 국난을 기회로 횡재를 하며 관리가 장사'군질을 하며 탐오 행위가 성행하고 련치라곤 찾아 볼 수조차 없는 것이 국민당 지구의 특색의 하나이다. 간고 분투하며 이신자척하며 말은 사업 외에 또 생산에 종사하며 련결을 장려하며 탐오가 근절된 것이 중국 해방구의 특색의 하나이다.

국민당 지구에서는 인민들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해방구 내에서는 인민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있다.

국민당 통치자들은 자기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에 대하여 누구를 탓할 것인가? 남을 탓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탓할 것인가? 외국의 원조가 부족한 것을 탓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당 정부의 독재 통치와 부패 무능을 탓할 것인가? 그래 이것이 명백하지 않단 말인가?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사실 중국 인민의 항전을 파괴하고 중국 인민의 국가를 위태롭게 한 자는 바로 국민당 정부가 아니란 말인가? 이 정

부는 일심 정력으로 만 10년 동안 내전을 진행하여 총'부리를 동포들에게 돌리고 일체 국방 사업은 돌보지 않았으며 또 무저항 정책으로 동북 4성을 남에게 내주어 버렸다. 일본 침략자가 산해관을 쳐 들어 오게 되자 황급하게 응전한 끝에 로구교로부터 귀주성에까지 퇴각하고 말았다. 그러면서도 국민당 인사들은 도리어 《공산당이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1943년 9월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차 전원 회의 결의안에서)고 말하고 있다. 그 유일한 증거라면 공산당이 각계 인민들과 연합하여 영웅하게 항일하는 중국 해방구를 창설하였다는 그것이다. 국민당 인사들의 이러한 논리가 중국 인민들의 논리와 이렇게도 다르니 만큼 기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합치되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결국 무슨 원인으로 하여 국민당 정부는 흑룡강에서 로구교까지 또 로구교에서 귀주성까지의 이처럼 광대한 국토와 이처럼 많은 인민들을 포기하게 되었는가? 그래 이것이 국민당 정부가 취한 무저항 정책, 소극적 항일 정책 및 반인민적인 국내 정책에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인가?

둘째, 결국 무슨 원인으로 하여 중국 해방구는 적군 및 괴뢰군의 장기간에 걸친 잔혹한 진공을 타승하고 민족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처럼 광대한 국토를 회복하고 이처럼 많은 인민들을 해방하게 되었는가? 그래 이것이 인민 전쟁의 올바른 로선에서 온 것이 아니란 말인가?



## 소위 《정령, 군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

국민당 정부는 또 항상 《정령, 군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다. 다행히도 중국 공산당원들은 아직 중국 인민으로서의 보통 상식을 그 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중국 인민들이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일본 침략자의 수중으로부터 탈환하여 온 중국 해방구를 사실 상 다시 일본 침략자에게 돌려 주려는 그러한 소위 《정령, 군령》들에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39년의 소위 《이당 활동 제한법》, 1941년의 소위 《신사군의 해산》과 《구황하 이복으로의 철퇴》, 1943년의 소위 《중국 공산당의 해산》, 1944년의 소위 《10 개사 이외의 부대 전부를 기한부로 해산시킬 것》, 그리고 최근의 담판에서 제기된 소위 군대와 지방 정권을 국민당에 넘기고 그 교환 조건으로서는 련합 정부는 성립하지 않고 단지 몇 명의 공산당원이 국민당 독재 정부에 들어가서 벼슬을 하게 하며 동시에 또 이러한 조치들을 국민당 정부의 《양보》라고 말하는 것 등등이 그것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중국 인민을 위하여 일부의 깨끗한 국토를 보전하였으며 영용하게 항일하는 군대를 보전하였다. 그래 중국 인민이 이 《복종하지 않은 것》을 축하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그래 국민당 정부는 자기의 파쇼주의적 정령과 패배주의적 군령으로써 흑룡강에서 귀주성까지의 광

대한 지역과 광범한 인민을 일본 침략자에게 넘겨 주고도 아직 부족하단 말인가? 일본 침략자와 반동들이 이러한 《정령, 균형》을 환영하는 외에 그래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중국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형식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파쇼 독재가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련합 정부가 없는데도 중국 공산당원들이 해방된 중국 해방구와 항일에 공로가 있는 인민 군대를 패배주의적이며 파쇼주의적인 국민당 파쇼 독재 정부에 제 마음 대로 넘겨 주는 것을 중국 인민이 허용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단 말인가? 가령 중국 해방구와 그 군대가 없었다면 중국 인민의 항일 사업에 오늘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 민족의 전도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 내전의 위험성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당 내의 주요한 통치 집단은 독재 및 내전의 반동적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여러 가지의 형적들은 그들이 어느 한 동맹국의 군대가 중국 대륙에서 일본 침략자를 어느 정도까지 몰아 내어 주면 그 때에는 곧 내전을 일으키려고 벌써부터 준비하였으며 최근에 와서는 그것을 더욱더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또한 어느 동맹국의 장령들이 마치 영국의 스코비 장군(3)이 회랍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그러한 직무를 중국에서도 수행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들은 스코비와 회랍 반동 정부의 학

살 행동에 대하여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들은 중국을 1927년부터 1937년까지의 그러한 국내 전쟁의 큰 바다에 다시 몰아 넣으려 하고 있다. 지금 국민당 내의 주요 통치 집단은 소위 《국민 대회의 소집》과 《정치적 해결》이라는 연막 속에서 내전 준비를 몰래 진행하고 있다. 만일 우리 나라 인민들이 점에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그 음모를 폭로하지 않고 그 준비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내전의 포성을 듣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 답 관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은 기타 민주주의파의 동의를 얻은 후 1944년 9월에 열린 국민 참정회에서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즉시 폐지하고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를 수립하자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의심할 것 없이 이 요구는 적시적인 것이었는바 수개월 내에 광범한 인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여하히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연합 정부를 수립하며 필요한 민주 개혁을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당 정부와 여러 번 담판하였으나 우리의 모든 제의는 전부 국민당 정부에 의하여 거부 당하였다. 국민당은 일당 독재를 폐지하려 하지 않고 연합 정부를 수립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박히 요구되는 민주 개혁들, 예를 들면 특무 기관의 폐지, 인민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동적 법령의 폐지, 정치범

의 석방, 각 정당의 합법적 지위의 인정, 해방구의 인정, 해방구를 봉쇄하며 공격하는 군대의 철수 등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도 실시하려 하지 않는다. 이리 하여 중국의 정치적 관계는 비상히 엄중한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 두 가지 전도

전반적 정세에서 보아, 위에서 분석한 모든 국제, 국내적 실정에서 보아 나는 우리의 모든 사업이 다 순조롭게, 그리고 훌륭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고 나쁜 두 가지 가능성, 좋고 나쁜 두 가지 전도가 다 존재하고 있다. 파쇼 독재의 통치가 계속되고 민주 개혁이 허용되지 않으며 중점이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면에 놓여지지 않고 인민을 반대하는 면에 놓여지며 또 실사 일본 침략자가 격멸된 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내전이 일어나 중국을 독립하지 못하고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가 없고 통일되지 못하고 부강하지 못한 그러한 고통 속에 싸여 있는 원래 상태로 끌고 갈 수 있다. 이것이 한 가지 가능성이며 한 가지 전도이다. 이 가능성과 전도는 의연히 존재한다. 그것은 결코 국제 정세가 호전되고 국내 인민의 각성 정도가 높아지고 조직된 인민의 력량이 장성된다고 하여 없어지거나 자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이 가능성과 이 전도가 중국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는 중국에 있어서는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이며, 외국

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반동 분자들이다. 이것이 한 면이며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 될 한 면이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전반적 정세로 보아, 우에서 분석한 모든 국내의 정세로 보아 우리는 둘째 가능성, 둘째 전도를 전취할 더욱 큰 자신심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곧 모든 곤난을 극복하며 전국 인민을 단결시키고 국민당의 파쇼 독재 통치를 폐지하며 민주 개혁을 실시하며 항일 령량을 강화, 확대하며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격멸하고 중국을 독립, 자유, 민주, 통일, 부강한 새 나라로 건설하는 것이다. 이 가능성과 전도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자는 중국에 있어서는 광범한 인민과 중국 공산당 및 기타 민주주의파이며 외국에 있어서는 평등한 지위로써 우리를 대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진보 분자 및 인민 대중이다.

우리와 중국 인민 앞에는 아직도 매우 큰 곤난이 있고 매우 많은 장애물이 있으므로 아직도 우여 곡절의 길을 많이 걸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곤난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 인민과 함께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고 중국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첫째 가능성을 반대하고 둘째 가능성을 전취하며 첫째 전도를 반대하고 둘째 전도를 전취하는 것은 우리와 전국 인민의 위대한 임무이다. 국제, 국내 정세의 주요 측면은 우리와 전국 인민에게 유리하다. 이 점에 대하여 나는 우에서 똑똑히 말하였다. 우리는 국민당 당국이 세계 대세의 추향에 비추어

그리고 중국의 민심의 동향에 비추어 그 그릇된 현행 정책을 단연히 개변하고 항일 전쟁을 승리하게 하며 중국 인민의 고통을 덜어 주며 새 중국이 하루 속히 탄생되게 하기를 바란다. 여하한 우여 곡절의 길을 걷든지 간에 중국 인민의 독립 해방의 임무는 꼭 완수되고야 말 것이며 또 그러한 시기가 이미 닥쳐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00여 년 때 무수한 선렬들이 품고 있던 크나큰 포부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의하여 실현될 것이며 그것은 아무도 막아 낼래야 막아 낼 수 없는 것이다.

#### 4. 중국 공산당의 정책

우에서 나는 중국 항일 전쟁에 있어서의 두 로선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왜냐 하면 광범한 중국 사람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 항일 전쟁의 구체적 정형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당 통치구와 국외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눈이 국민당 정부의 봉쇄 정책으로 하여 가리어져 있다. 1944년에 내외 신문 기자 참관단이 중국 해방구에 오기 전까지는 외부의 많은 사람들이 해방구에 대하여 거의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는 해방구의 실정이 무설되어 나가는 것을 아주 겁 내고 있기 때문에 1944년에 신문 기자단이 한 번 다녀 간 후에는 즉시 대문을 닫아 걸고 다시는 신문 기자 한 사람도 해방구에 오지 못 하게 하였다. 국민당 지구의 진상

에 대하여서도 국민당 정부는 마찬가지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지구》의 진상을 될 수 있는 한 사람들에게 알릴 책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의 전반적 정형을 똑똑히 안 후에야 중국에서 가장 큰 두 정당——중국 공산당과 중국 국민당의 정책이 어째서 이렇게도 다른가, 그리고 어째서 이런 두 로선의 투쟁이 있게 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직 이렇게 하여야만 양당 간의 논쟁이 결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중요하지 않은, 지어는 감정적인 논쟁인 것이 아니라 수억만 인민들의 사활 문제에 관계되는 원칙적인 논쟁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리해시킬 수 있다.

현하 중국 시국의 엄중한 정세 하에서 중국 인민과 중국의 모든 민주 정당 및 민주주의자, 중국의 시국을 관심하고 있는 모든 외국 인민들은 다 중국의 분열된 국면이 다시 단결에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중국에서 민주 개혁이 실시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당면한 많은 중대한 문제들의 해결에 대하여 중국 공산당이 취하고 있는 정책을 알고 싶어 하고 있다. 우리 당원들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물론 더 큰 관심을 돌리고 있다.

우리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은 종래로 명확한 것이었으며 8년 간의 전쟁은 이 정책들을 검열하였다. 우리의 대회는 이 점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 금후 투쟁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 나는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에서의 우리 당의 몇 가지 확정적인 결론을 설명하려 한다.

### 우리의 일반적 강령

중국 인민의 모든 항일 력량을 동원, 통일하여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소멸하고 독립, 자유, 민주, 통일, 부강한 새 중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 및 모든 항일 민주 정당들에게는 서로 합의를 본 공동 강령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 강령은 일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강령에 대하여 말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강령에 대하여 말하기로 하자.

중국의 현 단계에 있어서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소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한다는 대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점에서 중국 인구 중 최대 다수의 사람들과 일치되고 있다. 즉 첫째로, 중국의 국가 제도는 대지주, 대부르조아지가 독재하는 봉건적, 파쇼적, 반인민적인 국가 제도여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이러한 반인민적 제도는 이미 국민당 주요 통치 집단의 18년 간의 통치에 의하여 완전히 파산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 중국에서는 순수한 민족 부르조아지의 낡은 형태의 민주주의 독재의 국가를 수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을 수립하려 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중국에 있어서 일방으로는 민족 부르조아지가 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타방으로는



중국의 정치 무대에서 강대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고 또 광범한 농민 계급, 도시 소부르조아지, 지식인 및 기타의 민주주의자들을 평도하고 있는 각성된 중국 프롤레타리아트 및 그의 수령인 중국 공산당이라는 새로운 조건이 중국에 벌써 생겼기 때문이다. 세째로, 중국의 현 단계에 있어서 중국 인민의 파업이 여전히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을 반대하는 것이고 중국에 사회 경제적 필요 조건들이 아직 구비되지 못하고 있는 한 중국 인민은 또한 사회주의 국가 제도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장은 무엇인가? 우리의 주장은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격멸한 후에 전국의 절대 다수 인민을 기초로 하고, 노동 계급의 평도 하에 있는 통일 전선의 민주주의적 동맹의 국가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제도를 신민주주의 국가 제도라고 한다.

이것은 진정으로 중국 인구의 압도적 다수의 요구에 부합되는 국가 제도이다. 왜냐 하면 첫째로, 그것은 수백만의 산업 노동자와 수천만의 수공업 노동자 및 고용농의 찬동을 얻었고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 중국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즉 4억 5,000만 인구 중에서 3억 6,000만을 차지하는 농민 계급의 찬동도 얻었고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세째로, 광범한 도시 소부르조아지, 민족 부르조아지, 개명신사들 및 기타 애국 분자들의 찬동도 얻었고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계급들 사이에는 여전히 모순이 있다. 예를

들면 로자 간의 모순이 그 현저한 일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계급들에게는 각기 다소의 각이한 요구들이 있다. 이러한 모순을 말살하거나 이러한 각이한 요구를 말살하는 것은 허위적인 것이며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과 각이한 요구들은 전반 신민주주의 단계를 통하여 공동의 요구를 초월하는 데까지는 발전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렇게 발전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순과 각이한 요구들은 조절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절을 통하여 이런 계급들은 신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제반 건설을 공동으로 완수할 수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신민주주의 정치란 외래의 민족적 억압을 뒤집어 엮고 국내의 봉건주의적 및 파쇼주의적 억압을 폐지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것들을 뒤집어 엮고 폐지한 후에는 구민주주의적 정치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주 계급들을 연합하는 통일 전선의 정치 제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주장은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다. 손 중산 선생은 자기가 집필한 《중국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근세 각국의 소위 민권 제도는 왕왕 부르조아지에게 독점되어 평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일반 평민이 공유로 하는 것이고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손 중산 선생의 위대한 정치적 지시이다. 중국 인민과 중국 공산당 및 기타 모든 민주주의자들은 이 지시를 존중하고 이것을 전철히 실시하여야

하는 동시에 이 지시를 위반하고 반대하는 어떠한 사람들이나 어떠한 집단에 대하여서든지 전결히 투쟁함으로써 완전히 정확한 이 신민주주의 정치 원칙을 고수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신민주주의의 정권 조직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취하여 각급 인민 대표 대회에서 주요한 방침 정책을 결정하며 정부를 선거하여야 한다. 그것은 민주주의적인 동시에 또 중앙 집권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중앙 집권이며 중앙 집권에 의하여 지도되는 민주주의인 것이다. 이러한 제도만이 광범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어 각급 인민 대표 대회에 고도의 권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 또 나라 일을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각급 정부로 하여금 각급 인민 대표 대회로부터 위임 받은 일체 사업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인민들의 모든 필요한 민주주의적 활동을 보장하도록 할 수 있다.

군대와 기타의 무장력은 신민주주의적 국가 권력 기관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것이 없이는 국가를 보위할 수 없다. 신민주주의 국가의 일체 무장력은 기타의 권력 기관과 마찬가지로 인민에게 속하고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며 소수인에게 속하여 인민을 억압하는 일체 구식 군대나 구식 경찰 등등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가 주장하는 신민주주의적 경제도 손 선생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다. 토지 문제에 있어서 손 선생은 《토지는 밭 같이하는 자에게》라고 주장하였다. 상공업 문제에 있어서 손 선생은 우에서 말한 선언에서 《무릇 본국인 및 외국인의 기

업체로서 독점적 성격을 띠었거나 혹은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폐컨대 은행, 철도, 항공 등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고 사유 자본 제도로 하여금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 하게 한다. 이것이 곧 자본을 절제하는 요지이다.》라고 말하였다. 현 단계에 있어서 경제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손 선생의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개성의 발전에 찬성하지 않으며 사자본주의의 발전에 찬성하지 않으며 사유 재산의 보호에 찬성하지 않지 않는다고 회의하고 있는데 기실 그것은 옳지 않다.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은 가혹하게 중국 인민의 개성의 발전을 촉박하고 있으며 사자본주의의 발전을 촉박하고 있으며 광범한 인민들의 재산을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신민주주의 제도의 임무는 바로 이러한 촉박을 없애고 이러한 파괴를 중지시키며 광범한 인민들이 공동 생활 중에서 자기의 개성을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며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계에 유익한 사자본주의적 경제를 자유롭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며 모든 정당한 사유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손 선생의 원칙과 중국 혁명의 경험에 의하면 현 단계에 있어서 중국의 경제는 국가 경영, 개인 경영 및 합작사 경영의 세 가지로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국가 경영이라는 그 이른바 국가는 결코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국가가 아니라 반드시 프롤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의, 《일반 평민이 공유로 하는》 신민주주의적 국가여야 한다.

신민주주의적 문화도 마찬가지로 결코 《소수인이 사유로 하는》 문화여서 안 되며 《일반 평민이 공유로 하는》 즉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인 문화여야 한다.

우에서 말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공산당원들이 현 단계에 있어서,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의 전 단계를 통하여 주장하는 일반 강령 또는 기본 강령이다. 우리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제도의 장래의 강령 또는 최고 강령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최저 강령이다. 이 강령을 실시하면 중국을 현재의 국가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 한 걸음 더 추진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식민지, 반식민지 및 반봉건적인 국가 상태와 사회 상태에서 신민주주의적 국가와 사회로 추진시킬 수 있다.

이 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치적 면에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의 국영 경제 및 합작사 경제는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그러나 이 강령을 실시한다 하여 중국이 곧 사회주의 사회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언제나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의 장래의 강령 또는 최고 강령은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로 추진시키는 것이며 이것은 확정적이고 또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우리 당의 명칭과 우리의 맑스주의적 세계관이 이 장래의, 무한히 광명한, 무한히 아름다운 최고 리상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매개 공산당원들은 입당할 때부터 자기들의 마음 속에 지금은 신민주주의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고 장래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겠다는 이 두 가지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의 원수들의 무지하고도 비렬한 적대시, 중상, 욕설 또는 조소 등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원수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단호히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선의적인 회의자들에 대하여서는 배격할 것이 아니라 선의적으로 꾸준히 해설하여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정적이며 추호도 애매한 점이 없다.

그러나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과 중국의 모든 공산주의 동정자들은 현 단계의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며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을 반대하기 위하여, 중국 인민을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비참한 운명으로부터 벗어 나게 하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령도 하에서의 농민 해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즉 손 중산 선생의 혁명적 삼민주주의의 성격을 띤 독립, 자유, 민주, 통일, 부강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여 왔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광범한 중국 인민들과 함께 이것을 위하여 24 년 동안이나 영웅히 투쟁하여 왔다.

공산당원 및 그 동정자로서 만일 이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는다면, 만일 이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을 알보고 이에 조금이라도 해이하고 조금이라도 태공하며 조금이라도 충실하지 않고 열정적이 아닌 표현이 있거나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치려 하지 않고 빈 말로 사회주의이니 공산주의이니 하고 떠들어 대다면 그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또는 맑건 적건 간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며

자각적이고 충실한 공산주의자가 못 된다. 민주주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에 도달할 수 없다. 이는 맑스주의의 철칙이다. 중국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장기적인 것이다. 신민주주의적인 연합되고 통일된 국가가 없이, 신민주주의적 국가 경제의 발전이 없이, 사자본주의적 경제와 합작사 경제의 발전이 없이, 민족적이며 과학적이며 대중적인 문화 즉 신민주주의 문화의 발전이 없이, 수억만 인민의 개성의 해방과 개성의 발전이 없이, 한 마디로 말하여 공산당이 영도하는 신형의 부르조아적 성격을 띤 철저한 민주주의 혁명이 없이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의 폐허 우에다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순전한 공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이 어찌서 자본주의를 무서워하지 않을뿐더러 도리어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 발전을 창도하고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간단하다. 자본주의의 어느 정도의 발전으로써 외래 제국주의 및 자국 봉건주의의 억압을 대체한다는 것은 하나의 진보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것은 부르조아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프로레타리아트에게도 유리한 것이며 혹은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의 중국에 있어서 불필요한 것은 외래 제국주의와 자국의 봉건주의이지 자국의 자본주의가 아니다. 우리의 자본주의는 오히려 너무나 미약하다. 이상스럽게도 일부 중국 부르조아지의 대변인들은 자본주의를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감히 정면으로는 내놓지 못하고 빙빙 돌려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밖에 또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중국에서 자본주의를 일정한 정도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한 마디로 부인하여 버리고 단번에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느니 삼민주의와 사회주의를 《단꺼번에 다 완수한다》느니 하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 중 그 일부는 중국 민족 부르주아지의 연약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일부는 대지주, 대부르주아지들이 민중을 기만하는 수단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자기들의 맑스주의적 인식에 근거하여 중국의 조건 하에서는, 신민주주의 국가 제도 하에서는 국가 자체의 경제, 근로 인민의 개인 경제 및 합작사 경제 외에 또 국민의 생계를 좌우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사자본주의적 경제에 발전할 수 있는 편의를 주어야만 사회의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다. 중국 공산당원들은 어떠한 공담과 기만 앞에서 결코 자기의 명석한 두뇌를 미혹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이 《삼민주의는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는 것을 승인한 데 대하여 그것이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닌듯이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손 중산 선생이 1924년 《중국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해석을 가하였고 우리도 인정한 삼민주의의 기본 원칙이 우리 당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강령, 즉 최저 강령 내의 약간의 기본 원칙과 서로 일치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손 선생의 이러한 삼민주



의가 우리 당의 현 단계에 있어서의 강령과 단지 약간의 기본 원칙에서만 일치되는 것이고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것이다. 우리 당의 신민주주의 강령은 손 선생의 강령에 비하여 물론 훨씬 완비되어 있으며 특히 손 선생이 서거한 후에 있어서의 이 20년 간의 중국 혁명의 발전으로 하여 우리 당의 신민주주의적 이론과 강령 및 그 실천은 극히 큰 발전을 가져 오게 되었으며 금후에는 더 큰 발전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손 선생의 이러한 삼민주의는 그 기본 성격으로 보아 그전의 구삼민주의와 구별되는 신민주주의적 강령이므로 물론 그것은 《오늘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며 물론 《우리 당은 그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 중국 공산당원에게 있어서는 우리 당의 최저 강령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과 손 선생의 혁명적 삼민주의, 즉 신삼민주의를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 결코 두 가지 일인 것이 아니라 기본 상에 있어서(모든 면에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원들은 혁명적 삼민주의의 가장 충실하고 가장 철저한 실천자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계속 입증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이 득세한 후에는 로씨야를 모방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와 일당 제도를 실시하지나 않을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렇다. 즉 몇 개의 민주주의적 계급의 동맹으로 된 신민주주의 국가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와 원칙적인 구별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이 신민주주의 제도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

도 하에서, 공산당의 령도 하에서 수립된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의심할 바 없지만 중국은 신민주주의 제도의 전 기간을 통하여 한 계급이 독재하거나 한 당이 정부 기구를 독점하는 제도를 수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또 수립하여서는 안 된다. 공산당 이외의 기타 여하한 정당이나 여하한 사회적 집단 또는 개인이든지 그들이 공산당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합작하는 태도를 취하는 한 우리는 그들과 합작하지 않을 아무런 리유도 없다. 로씨야의 력사는 로씨야의 제도를 형성시켰다. 로씨야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사회 제도가 폐절되고 가장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적 정치, 경제, 문화 제도가 실현되었으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일체 정당은 인민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인민들은 오직 볼셰위크당만을 지지하게 되었으므로 로씨야의 그러한 국면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 전'적으로 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볼셰위크당 외에 기타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 하에 있기는 하지만 로씨야의 정권 기관 내에서는 로동 계급이거나 볼셰위크당원만이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로동자, 농민, 지식인간의 동맹, 또는 당원과 비당원 간의 동맹이라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중국의 현 단계의 력사는 중국의 현 단계의 제도를 형성시킬 것이며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하며 전'적으로 합리적인 동시에 또 로씨야의 제도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형태, 즉 몇 개의 민주주의적 계급의 동맹으로 된 신민주주의적 국가 형태와 정권 형태가 산생될 것이다.

## 우리의 구체적 강령

우에서 말한 일반적 강령에 근거하여 우리 당은 매개 시기에 또 구체적인 강령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통하여, 즉 수십 년 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민주주의의 일반적 강령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큰 단계 내의 매개의 작은 단계에 있어서는 정형이 변화되었으며 또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체적 강령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 들면 북벌 전쟁 시기와 토지 혁명 전쟁 시기와 항일 전쟁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신민주주의의 일반적 강령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구체적 강령은 세 시기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이 세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적군과 우군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현하 중국 인민은 이러한 정형에 처하여 있다. (1) 일본 침략자가 아직 격멸되지 않았으며, (2) 중국 인민에게는 단결하여 민주주의적 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이룩하고 모든 항일 력량을 신속히 동원, 통일하며 동맹국과 배합하여 일본 침략자를 격멸할 것이 절박히 요구되고 있으며, (3) 국민당 정부가 민족적 단결을 파괴하고 이러한 민주주의적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의 우리의 구체적 강령, 즉 현하 중국 인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는 적절하며 동시에 최저 한도의 것이라고 인정한다.

일체 령량을 동원하고 동맹국과 배합하여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격멸하며 국제적 평화를 확립할 것,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와 연합 통수부를 수립할 것, 민족적 단결을 파괴하며 인민을 반대하는 친일 분자, 파쑈주의 분자, 패배주의 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민족적 단결을 이룩할 것, 내전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반동 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국내의 평화를 보장할 것, 민족 반역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적에게 투항한 군관들을 토벌하고 일본 간첩들을 엄벌에 처할 것, 인민을 탄압하는 온갖 반동적인 특무 기관과 특무 활동을 폐지하고 수용소를 폐지할 것,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신앙 및 인신 등의 자유를 억압하는 온갖 반동적 법령을 폐지하고 인민들에게 충분한 자유 권리를 줄 것, 모든 민주 정당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 모든 애국적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 중국 해방구를 포위 공격하는 일체 군대를 철퇴시키고 그 군대를 항일 전선에 사용할 것, 중국 해방구의 모든 항일 군대와 인민이 선거한 정부를 인정할 것, 해방구 및 그 군대를 강화, 확대하며 잃었던 모든 국토를 수복할 것, 피점령구의 인민들을 도와 지하군을 조직하여 무장 봉기를 준비할 것, 중국 인민들이 자원적으로 무장하여 자기의 향토와 국가를 보위하는 것을 허락할 것, 항상 패전하고 항상 인민을 억압하고 항상 다른 계통의 군대를 배치하는 국민당 통수부의 직접 병도에 있는 그런 군대를 정치, 군사적으로 개조할 것과 패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장령들을 엄벌에 처할 것, 병역 제도

를 개선하고 장병의 생활을 개선할 것, 항일 군인의 가족들을 우대하여 전선에 있는 장병들이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할 것, 순국한 전사들의 유가족을 우대하며 전상으로 인하여 불구자가 된 군인들을 우대하며 제대 군인들을 도와 그들의 생활 문제와 취직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 작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공업을 발전시킬 것, 동맹국에서 받는 무기 및 재정 상의 원조를 항전하는 각 군대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 탐관 오리들을 엄벌에 처하고 령결한 정치를 실시할 것, 중급 및 하급 공무원들의 대우를 개선할 것, 중국 인민에게 민주주의적 권리를 줄 것, 인민을 억압하는 보갑 제도〔4〕를 폐지할 것, 전재민을 구제하고 리재민을 구제할 것, 구제 기금을 다량으로 준비하여 두었다가 국토를 수복한 후 피점령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인민들을 광범히 구제할 것, 가렴 잡세를 폐지하고 단일 무진세를 실시할 것, 농촌에서의 개혁을 실시하여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하고 소작권을 적당히 보장하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저리 대부를 주며 농민을 조직하여 농업 생산의 발전에 유리하도록 할 것, 관료 자본을 취체할 것,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제 통제 정책을 폐지할 것, 무제한한 통화 팽창과 무제한한 물가 등귀를 제지시킬 것, 민간 공업을 부조하며 민간 공업에 자금을 대여하여 주며 원료 구입과 생산품 판매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것, 노동자의 생활을 개선하고 실업 노동자를 구제하며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공업 생산의 발전에 유리하도록 할 것, 국민당의 당화 교육〔5〕을 폐지하고 민족적, 과학적, 대중적 문화 교육

을 발전시킬 것, 교직원의 생활과 학술의 자유를 보장할 것, 청년, 여성, 아동들의 리익을 보호하며 실학한 청년들을 구제하며 또 청년과 여성들이 조직되어 항일 전쟁과 사회의 진보에 유익한 여러 가지 사업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가하도록 하며 혼인 자유와 남녀 평등을 실시하며 청년과 아동들이 유익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여 줄 것, 국내 소수 민족의 대우를 개선하고 각 소수 민족들에게 민족 자치의 권리를 허용할 것, 화교들의 리익을 보호하며 귀국한 화교들을 도와 줄 것, 일본 침략자의 억압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여 온 외국 인민들을 보호하며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그들의 투쟁을 원조하여 줄 것, 중 소 간의 국교를 개선할 것 등등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모든 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모든 항일 정당 및 무소속의 대표적 인물들이 망라된 거국 일치의 민주주의적이고 연합적인 임시 중앙 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적 조건이 없이 전국적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국민당이 통치하는 지역 내에서 다소라도 진정한 개혁을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 모든 요구는 광범한 중국 인민들의 목소리이며 또 각 동맹국의 광범한 민주주의적 여론계의 목소리이다.

항일하는 각 민주 정당들이 다 찬동하는 최저 한도의 구체적 강령을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말한 강령을 기초로 하여 그들과 협상할 예정이다. 각 정당들에게는 각이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정

당들 간에 하나의 공동 강령이 협정되어야 한다.

국민당 통치구에 있어서는 이 강령이 당분간은 그 실시를 요구하는 강령이고 피점령 지구에 있어서는 지하군을 조직하여 무장 봉기를 준비한다는 조항 외에는 그 지구가 수복된 후에야 실시될 수 있는 강령이며 해방구에 있어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또 계속 실시하여야 할 강령이다.

상술한 중국 인민의 당면한 요구 또는 구체적 강령 가운데는 아래에서 설명을 가하여야 할 전시 및 전후에 있어서의 많은 중대한 문제들이 포괄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국민당의 주요 통치 집단의 그릇된 견해들을 비판하려 하며 동시에 기타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약간의 의문들에 대하여서도 대답하려 한다.

#### 첫째, 중도에서 타협하지 말고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소멸할 것

까히라 회의(6)가 일본 침략자를 무조건 항복시켜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일본 침략자는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타협적인 화의를 얻으려고 기도하고 있고 국민당 정부 내의 친일 분자들도 남경 괴뢰 정부를 통하여 일본의 밀사와 숙덕공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중도에서 타협할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까히라 회의는 또 동북 4성과 대만 및 팽호 열도를 중국에 돌려 주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의 현행 정책에 근거하여 볼 때 국민당 정부에 의거하여 압록강변까지

쳐 나아가 잃었던 모든 국토를 수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중국 인민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중국 인민은 중도에서 타협하지 말고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소멸할 것을 국민당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타협하려는 모든 음모 활동을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은 국민당 정부에 현재의 소극적 항일 정책을 개편하고 그의 모든 군사력을 적극적인 대일 작전에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은 절대로 단순히 국민당에만 의거하지 말고 자기의 군대——팔로군, 신사군 및 기타의 인민 군대를 확대하는 동시에 적이 활동하고 있는 일체 지방에서 항일 무장력을 광범히 자원적으로 발전시켜 직접 동맹국에 배합하여 작전함으로써 잃었던 모든 국토를 수복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신성한 권리이다. 반동 분자들이 중국 인민의 이 신성한 권리를 박탈하려 하며 중국 인민의 항일 활동을 탄압하려 하며 중국 인민의 항일 령량을 파괴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그들에게 권고하여 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자위적인 립장에서서 그들에게 견결한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민족적 리익에 배치되는 중국 반동 분자들의 이러한 반동적 행동은 전'적으로 일본 침략자를 도와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를 수립할 것**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소멸하기 위하여서는 전국적 범위



에서 민주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를 수립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소위 국민당의 일당 독재라는 것은 사실 상 국민당 내에 있는 반인민적 집단의 독재인바 그것은 중국 민족 단결의 파괴자이며 국민당의 항일 전장에서 패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물건이며 중국 인민의 항일 령량의 동원,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물이다. 8년에 걸친 항일 전쟁의 침통한 경험에서 중국 인민은 그 독재가 최악이라는 것을 심각히 인식하였으므로 그것을 즉시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반인민적 독재는 또 내전의 화근이기도 하다. 만일 그것을 즉시 폐지하지 않는다면 내전의 참화가 또다시 닥쳐 오게 될 것이다.

이 반인민적인 독재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 인민의 목소리는 그야 말로 보편적이고도 강력하여 국민당 당국 자신도 《예정보다 일찌기 훈정을 종결 짓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점에서만 보더라도 소위 《훈정》이나 《일당 독재》라는 것이 얼마나 민심을 잃었고 위신이 여지 없이 떨어졌는가를 가히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훈정》 또는 《일당 독재》가 좋다거나 그것을 폐지 또는 《종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현 시국의 일대 변화이다.

《종결》 지어야 한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며 추호도의 심할 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하히 종결 지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하여서는 의견 상이가 있다. 한 가지 의견은 그것을 즉시 종결 짓고 민주주의적 임시 연합 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의견은 좀더 기다렸다가 종결 지으며 <국민 대회>를 소집하여 <정권을 인민에게 돌려> 중앙정 연합 정부에는 돌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진정인가 거짓인가 하는 두 가지 태도의 표현인 것이다.

첫째, 진정인 것. 이것은 즉시 국민당의 일당 독재의 폐지를 선포하고 국민당, 공산당, 민주 동맹 및 무소속 인사들의 대표 인물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임시 중앙 정부를 수립하여 우리가 위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그러한 중국 인민들의 당면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시정 강령을 발표함으로써 민족적 단결을 회복하고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토의하기 위하여 제 정당 및 무소속 대표 인물들의 원탁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를 달성함으로써 실천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단결의 방침이며 중국 인민은 이 방침을 전격히 지지한다.

둘째, 거짓인 것. 광범한 인민들과 모든 민주 정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이 독판 치는 소위 <국민 대회>를 독단적으로 소집하여 이 대회에서 실시는 독재를 그냥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소위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단지 몇 십 명의 국민당원들에 의하여 사사로이 위임된, 전혀 인민의 의사에 기초하지 않은, 인민에게 강요한,

비합법적인 소위 국민 정부에 합법적이란 겉옷을 입혀 《정권을 인민에게 돌려 주는》듯이 가장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에게 《정권을 돌려 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통일》을 파괴하는 자라 하여 그에 대한 토벌령을 내릴 수 있는 《리유》가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렬의 방침인바 중국 인민은 이 방침을 전격히 반대한다.

우리의 반인민적 영웅들이 이러한 분렬의 방침에 근거하여 취하려 하는 조치는 그들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 넣을 위험성이 있다. 그들은 굶은 바'줄을 자기들의 목에 매어 놓으며 또 그 바'줄을 영원히 풀리지 않게 하려 하고 있다. 이 바'줄의 이름은 《국민 대회》라는 것이다. 그들의 본래의 생각은 소위 《국민 대회》라는 것을 보배처럼 받들어 첫째로는 연합 정부를 견제하고 둘째로는 독재 통치를 유지하고 세째로는 내전 도발의 리유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료리는 그들이 생각한 바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그들은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까게 될 것이다》. 왜냐 하면 지금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국민당 통치구에서는 인민에게 자유가 없고 일본 침략자의 점령 지구에 있어서는 인민들이 선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유가 있는 중국 해방구에 대하여서는 국민당 정부가 그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국민 대표가 어디서 온단 말인가? 또 《국민 대회》가 어디서 생긴단 말인가? 지금 열겠다고 떠드는 《국민 대회》란 일찍 내전 시기에, 즉

8년 전에 국민당 독재 정부가 단독적으로 조작한 그 소위 국민 대회인 것이다. 만일 이 대회가 소집된다면 필연코 전국 인민이 쫓겨하여 반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반인민적 영웅들은 이 궁경에서 어떻게 벗어날 작정인가? 요컨대 만일 위조한 국민 대회를 열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을 막다른 길로 몰아 넣게 될 뿐이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종결시키기 위한 두 절차를 제기한다. 첫째 절차는 현시기에 각당 각파와 무당 무파의 대표 인물들의 협의를 거쳐 임시적인 연합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며 둘째 절차는 앞으로 자유롭고 구속이 없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 대회를 소집하고 정식 연합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다. 요컨대 이 두 절차는 모두가 연합 정부를 세우는 것이며 이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모든 계급 및 정당의 대표들과 함께 단결하여 민주주의적 공동 강령 하에서 현재의 항일과 장래의 진국을 위하여 분투하자는 것이다.

국민당 또는 기타 어느 정당, 집단 및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또 그들이 좋아 하건 싫어 하건, 자각 하든 못 하든 간에 중국은 오직 이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이것은 력사의 법칙이며 필연적이고 불가피한 추세인바 어떠한 힘으로도 그것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와 기타의 민주 개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공산당원들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국민당 당국이 지금 아무리 그릇된 정책을 고집하고 있고 또 아무리 담판이라는 명목을 빌어 시일을 지연시키며 여론을 틀어 막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그릇된 정책을 버리고 민주 개혁에 찬동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의 담판을 재개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담판은 반드시 항일, 단결, 민주주의의 총방침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일체 이러한 총방침을 떠난 소위 방법, 방안 또는 기타의 공담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찬동할 수 없는 것이다.

### 새째, 인민의 자유

련하 중국 인민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목표는 우선 그리고 주로 일본 침략자에게 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는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지 못 하도록 인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민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국적 범위에서 모든 항일 력량을 동원하며 통일시킬 수 없다. 우리가 강령에서 일당 독재를 폐지하며, 련합 정부를 수립하며, 특무를 없애며, 자유를 억압하는 법령들을 폐지하며, 민족 반역자와 간첩과 친일 분자와 파쇼 분자 및 탐관 오리배들을 징벌하며, 정치범을 석방하며, 각 민주 정당들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해방구를 포위 공격하고 있는 군대를 철퇴시키며, 해방구를 인정하며, 보갑 제도를 폐지할 것과 기타 허다한 경제적, 문화적 요구와 민중 운동에 관한 요구들을 제기한 것은 인민의 몸을 결박하고 있는 바'줄을 풀어 인민에게 항일, 단결, 민주주의의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자유는 어느 사람이 은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전취

하는 것이다. 중국 해방구의 인민들은 이미 자유를 전취하였으며 기타 지방의 인민들도 이러한 자유를 전취할 수 있으며 또 전취하여야 한다. 중국 인민이 전취한 자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직된 민주주의적 력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일적이며 임시적인 연합 정부의 수립이 더한층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연합 정부가 일단 수립되면 그 때에는 그것이 인민들에게 충분한 자유를 줌으로써 연합 정부의 기초를 튼튼히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일본 침략자가 타도된 후 전국에서 자유롭고 구속이 없는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주의적 국민 대회를 소집하고 통일적인 정식 연합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인민의 자유가 없이는 진정으로 인민들이 선거한 국민 대회가 있을 수 없으며 진정으로 인민들이 선거한 정부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아직도 명백하지 않단 말인가?

인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신앙 및 인신 등 몇 가지 자유는 가장 중요한 자유이다. 중국 경내에 있어서는 오직 해방구에서만 이것이 철저히 실현되고 있다.

1925년 손 중산 선생은 자기의 립종 유촉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국민 혁명에 40년 동안 힘써 온 그 목적은 중국의 자유와 평등을 찾으려는 데 있었다. 40년 동안 쌓은 경험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민중을 불러 일으키며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는 세계의 여러 민족들과 연합하여 공동으로 분투하여야 한다는 것을 깊이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손 선생을 배반한 볼초 자손들은 민중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억압하고 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신앙 및 인신 등의 자유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고 있으며 민중을 진정으로 불러 일으키고 민중의 자유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있는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및 해방구에 대하여 《간당》, 《간군》, 《간구》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는 시비가 전도된 이러한 시대가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란다. 시비가 전도된 이러한 시대를 더 지속시키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참지 못할 것이다.

### 네째, 인민의 통일

일본 침략자를 소멸하기 위하여서는, 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분열된 중국을 통일된 중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중국 인민의 역사적 과업이다.

그러나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독재자의 전제적 통일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민의 민주주의적 통일인가? 원 세개 때부터 북양 군벌은 전제적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하였던가? 이 군벌들이 바라던 결과는 반대로 얻은 것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이었으며 마지막에는 그들 자신이 나뉘어지고 말았다.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은 원 세개가 걸은 옛길을 걸으면서 전제적 통일을 추구하여 만 10년 동안이나 내전을 진행하였으나 그 결과는 일본 침략자가 침입하였고 그 자신도 아미산<sup>[7]</sup> 골짜기에 움츠러들고 말았다. 지금 또 산'골짜기에서 전제적 통일론을 떠벌리고 있는데 그것은 누구더러 들으라는 소리인가? 애국적이며 량심 있

는 중국 사람으로서 그 소리를 들으려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16년 간의 북양 군벌의 통치와 18년 간의 국민당의 독재 통치를 겪어 온 인민들은 이미 경험이 충분하게 되었고 눈이 밝아졌다. 그들은 독재자의 전제적 통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 대중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1935년에 벌써 항일 민족 통일 전선의 방침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이것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1939년에 국민당이 그의 반동적인 《이당 활동 제한법》을 실시하여 투항, 분별, 퇴보의 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당원들이 전제적 통일론을 떠들어 대고 있을 때 우리는 또 투항으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항전으로 통일하며 분별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단결으로 통일하며 퇴보로 통일할 것이 아니라 진보로 통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직 후자의 통일만이 진짜 통일이며 기타의 것은 모두가 가짜 통일이다(8). 그 후 또 6년이 지났으나 문제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인민의 자유가 없이, 인민의 민주 정치가 없이 통일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즉시 통일될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와 연합 정부를 전취하기 위한 중국 인민의 운동은 동시에 통일을 전취하기 위한 운동이다. 우리가 구체적 강령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취하기 위한 많은 요구들을 제기하였고 연합 정부에 관한 요구를 제기한 것은 동시에 또 이 목적을 위하여서이다.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의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 연합 정부를 수립하지 않는다면 국민당 통치구 내에서 여하한 민주주의적 개혁도 실시할 수



없고 또 거기에 있는 전체 군대와 인민을 일본 침략자를 타도하는 데로 동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전의 참화를 빚어 내게까지 될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다. 무슨 까닭으로 국민당 내의 많은 민주주의자들까지 망라한 유당 유파 및 무당 무파의 많은 민주주의자들이 련합 정부를 수립할 것을 일치하게 요구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시국의 위기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단결하여 적에 대처하며 단결하여 나라를 건설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다섯째, 인민의 군대

중국 인민이 자유를 전취하며 통일을 달성하며 련합 정부를 수립하며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타도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려면 인민의 립장에 선 군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철저히 인민의 립장에 선 군대로는 현재 해방구에 그다지 수요가 많지 못한 팔로군과 신사군이 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은 도리어 해방구의 이 군대를 파괴하며 소멸하려고 몹시 애를 쓰고 있다. 1944년에 국민당 정부는 소위 《제시안》이라는 것을 제출하여 공산당에게 해방구 군대의 5분의 4를 《기한부로 없애 버리라》고 하였다. 1945년, 즉 최근의 담판에서는 또 공산당더러 해방구의 군대 전부를 내바치라 하였으며 그렇게 하면 공산당에 《합법적 지위》를 주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공산당원들에게 내가 군대를 바치면 나는 자유를 주겠다고 한다. 이 학설에 의하면 군대가 없는 정당에는 자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24년부터 1927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아주 적은 군대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나 국민당 정부의 《청당》 정책과 학살 정책이 실시되자 자유도 몽땅 없어지고 말았다. 현재의 중국 민주 동맹과 중국 국민당 내의 민주주의자들에게는 군대도 없거니와 동시에 또 자유도 없다. 18년 간에 걸쳐 국민당 정부의 통치 하에 있는 로동자, 농민, 학생 및 진보를 요구하는 모든 문화계, 교육계, 산업계의 사람들은 다 군대도 없었거니와 또 자유도 없었다. 우에서 말한 그러한 민주 정당들과 인민이 군대를 조직하였거나 《봉건적 할거》를 실시하였거나 《간구》를 설치하였거나 《정령, 군령》을 위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았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와는 정반대로 그들이 바로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대는 국가의 것이다》—— 매우 지당한 말이다. 세상에 국가의 것이 아닌 군대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국가인가? 대지주, 대은행가, 대매판들의 봉건적 파쇼적 독재의 국가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민 대중의 신민주주의적 국가인가? 중국에서는 오직 신민주주의적 국가를 수립하고 이 기초 위에서 신민주주의적 연합 정부를 수립하여야 하며 중국의 일체 군대는 이 국가의 이 정부에 속함으로써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외국 침략자를 성과적으로 반대하여야 한다. 어느 때이건 중국에 신민주주의적 연합 정부가 출현되면

중국 해방구의 군대는 즉시 그 정부에 넘길 것이다. 그러나 국민당의 일체 군대도 동시에 그 정부에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

1924년에 손 중산 선생은 《이제부터는 국민 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들어 서야 한다.……그 제 1 보로는 무력을 국민과 결합시키며 제 2 보로는 무력을 국민의 무력으로 되게 한다.》<sup>(9)</sup>라고 하였다. 팔로군, 신사군은 바로 이러한 방침을 실시하여 《국민의 무력》으로, 다시 말하면 인민의 군대로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국민당 군대는 북벌 전쟁의 전기에 있어서는 손 선생이 말한 《제 1 보》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북벌 전쟁의 후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에는 《제 1 보》마저 버리고 반인민적 립장에서 있기 때문에 나날이 부패하고 타락되어 《내전에는 능수》이지만 《외국과의 전쟁》에는 《문외한》으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국민당 군대 내에 있는 모든 애국적이며 량심적인 군관들은 응당 쫓기하여 손 선생의 정신을 회복하고 자기의 군대를 개조하여야 할 것이다.

낡은 군대를 개조하는 사업에 있어서 교양할 수 있는 모든 군관들에게 적당한 교양을 줌으로써 그들이 올바른 관점을 배워 낡은 관점을 버리고 인민의 군대를 위하여 계속 복무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중국 인민의 군대를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은 전국 인민의 책임이다. 인민의 군대가 없이는 인민에게 아무 것도 있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하여 공담만 하여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중국 군대의 개혁 사업을 창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 팔로군, 신사군은 인민과 단결하며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고 중국 해방구를 반대하지 않는 모든 군대를 자기의 우군으로 간주하고 적당한 협조를 주어야 한다.

### 여섯째, 토지 문제

일본 침략자를 소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실시하고 농민을 해방하여야 한다. 손 중산 선생의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주장은 현하 부르쵸아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혁명 시기에 있어서의 정확한 주장이다.

어째서 현시기의 혁명을 《부르쵸아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혁명》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이 혁명의 대상이 부르쵸아지 일반이 아니고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이며 이 혁명의 조치는 일반적으로 사유 재산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이 혁명의 결과는 로동 계급이 력량을 집결하여 중국을 사회주의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이끌 수 있게 하는 것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여전히 자본주의가 적당한 발전을 가져 오게 되기 때문이다.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것은 토지를 봉건적 착취자의 수중으로부터 농민의 수중으로 넘겨 주며 봉건 지주의 사유 재산을 농민의 사유 재산으로 되게 하며 농민들을 봉건적 토지 관계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그리 하여 농업국을 공업국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주장은 프로레타리아 사회주의적 성격을 띤 주장이 아니라 부르쥬아 민주주의적 성격을 띤 주장이며 또 우리 공산당원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일체 혁명적 민주주의파의 주장이다. 다른 점이라면 중국의 조건 하에서는 우리 공산당원들만이 이 주장을 특히 진실하게 대하여 입으로 주장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천하고 있다는 그것이다. 어떠한 사람들이 혁명적 민주주의파인가? 가장 철저한 혁명적 민주주의파인 프로레타리아트를 제외하고는 농민이 가장 큰 혁명적인 민주주의파이다. 농민의 절대 다수는, 다시 말하면 봉건 꼬리가 달려 있는 부농을 제외하고는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 돌릴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자가 없다. 도시 소부르쥬아지도 혁명적 민주주의파이다.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주장이 실현되어 농업 생산력이 발전되면 그들에게도 유리한 것이다. 민족 부르쥬아지는 동요하고 있는 계급이다. 그들은 시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들도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주장을 찬동한다. 그러나 또 그들의 대부분이 토지와 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은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주장을 두려워 한다. 손 중산은 중국에서의 최초의 혁명적 민주주의파이다. 그는 민족 부르쥬아지 내의 혁명과 도시 소부르쥬아지 및 농촌의 농민을 대표하여 무장 혁명을 일으켰으며 《토지 소유권을 고르게 하자》는 것과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시기에 주동적으로

토지 제도의 개혁을 실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국민당의 반인민적 집단이 정권을 장악하면서부터는 손 중산의 주장을 완전히 배반하고 말았다. 지금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주장을 견결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는 바로 이 반인민적 집단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대지주, 대은행가, 대매판층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단독적으로 농민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으며 또 민족 부르주아지의 정당은 견결한 토지 강령이 없다. 그러므로 견결한 토지 강령을 제정하고 집행하며 농민의 이익을 위하여 진정하게 투쟁하며 그리 하여 가장 광범한 농민 대중을 자기의 위대한 동맹군으로 쟁취한 중국 공산당만이 농민 및 일체 혁명적 민주주의파의 영도자로 되었다.

1927년부터 1936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토지 제도를 철저히 개혁하는 방책을 취하여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손 선생의 주장을 실현하였다. 이 '발을 응둥그러 물고 나서서 악독하게도 10년 동안의 반인민적 전쟁, 즉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를 반대하는 전쟁을 진행한 자는 바로 손 중산의 모든 불초 자손들을 집결한 단체——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이다.

항일 기간에 중국 공산당은 일대 양보를 하여 《토지는 발갈이하는 자에게》라는 정책을 소작료 인하, 리자 인하의 정책으로 고쳤다. 이 양보는 옳은 것으로서 국민당을 항일에 참가하도록 추동하였으며 또 우리가 농민을 항일어로 동원하는 데 대한 해방구 내의 지주들의 저애를 감소시켰다. 이 정

책이 만일 특별한 저애를 받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 후에도 이 정책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우선 전국적 범위에서 소작료 인하와 리자 인하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 절차 있게 《토지는 발같이하는 자에게》라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손 선생을 배반한 자들은 《토지는 발같이하는 자에게》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소작료 인하와 리자 인하까지도 반대하고 있다. 국민당 정부는 자신이 반포한 《소작료를 25% 인하한다》는 것과 같은 법령조차 실시하지 않았고 우리만이 그것을 해방구에서 실시하였다. 바로 그것이 죄상으로 되어 《간구》라고 불리우게 되었던 것이다.

항일 기간에 소위 민족 혁명 단계와 민주, 민생 혁명 단계라는 두 단계론이 출현되었는데 이것은 그릇된 것이다.

대적을 앞에만 두고서는 민주, 민생 개혁 문제들 제기하지 말아야 하며 일본 사람을 쫓아 낸 후에 그것을 다시 제기하여야 한다——이것은 국민당 반인민적 집단의 허망한 논조로서 그 목적은 항일 전쟁의 철저한 승리를 얻지 못 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일부 사람들은 의외에도 이런 소리에 부화 되동하여 이러한 허망한 논조의 꼬리를 따르고 있다.

대적을 앞에만 두고서 민주,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항일 근거지를 창설하여 일본의 진공에 저항할 수가 없는 것이다——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주장으로서 이미 이렇게 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항일 기간에 있어서 소작료 인하와 리자 인하 및 기타 일

체의 민주 개혁은 항일을 위한 것이다. 항일에 대한 지주들의 저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작료 인하와 리자 인하를 실시하였을 뿐이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취소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또 지주들의 재산을 공업 방면으로 옮기도록 장려하였으며 개명 신사들을 기타 인민의 대표들과 함께 항일을 위한 사회 사업 및 정부 사업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부농에 대하여서는 그 생산의 발전을 장려하였다. 이 모든 것은 농촌에서 민주 개혁을 철저히 실시하는 로선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전'적으로 필요한 일들이다.

여기에는 두 개의 로선이 있다. 즉 중국 농민의 민주, 민생 문제의 해결을 건결히 반대함으로써 자기를 부패 무능하게 하고 항일할 힘이 없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중국 농민의 민주, 민생 문제의 해결을 건결히 찬조함으로써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가장 위대한 동맹군을 자기 편에 쟁취하여 강대한 전투력을 조직하는가 하는 것이다. 전자는 국민당 정부의 로선이고 후자는 중국 해방구의 로선이다.

이 량자 사이에서 동요하며 입으로는 농민을 찬조한다고 하지만 소작료 인하와 리자 인하, 농민의 무장화, 농촌 민주 정권의 수립을 건결히 실시하지 않는 이것은 기회주의자의 로선이다.

국민당의 반인민적 집단은 모든 력량을 동원하여 가지고 중국 공산당에 대하여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 류혈적 또는 비류혈적인 온갖 독기 있는 화살을 다 쏘고 있다. 량당 간의 론쟁은 그 사회적 성격에서 볼 때 본질



적으로는 농촌을 대하는 문제에 있다. 우리는 결국 어느 점에서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의 노임을 샀는가? 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서가 아니란 말인가?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이 일본 침략자에게 환영과 고무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서 일본 침략자에게 큰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인가? 소위 《공산당이 항전을 파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느니 《간당》, 《간군》, 《간구》이니 또 《정령, 군령에 복종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것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민족적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을 진실하게 진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란 말인가?

농민——이는 중국 노동자의 전신이다. 앞으로도 수천만의 농민들이 도시로 들어 가고 공장으로 들어 가게 될 것이다. 만일 중국에 강대한 민족 공업을 건설하고 많은 근대적 대도시들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농촌 인구를 도시 인구로 전변시키기 위한 긴 과정이 있어야 한다.

농민——이는 중국 공업 시장의 주체이다. 오직 그들이 가장 풍부한 량곡과 원료를 공급하며 또 가장 대량적인 공업 제품을 소화할 수 있다.

농민——이는 중국 군대의 원천이다. 병사는 군복을 입은 농민이며 일본 침략자의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농민——이는 현 단계의 중국 민주 정치의 주요 력량이다. 중국의 민주주의자들이 3억 6,000만 농민 대중의 원조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해 내지 못 할 것이다.

농민——이는 현 단계의 중국 문화 운동의 주요 대상이

다. 문맹 퇴치니 교육의 보급이니 대중적 문학 예술이니 국민 위생이니 하는 것들도 3억 6,000만의 농민을 떠난다면 그때반이 공담이 되고 말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물론 약 9,000만을 차지하는 기타 인민들의 정치 상, 경제 상, 문화 상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며 특히는 정치적으로 가장 각성되었고 따라서 전반 혁명 운동을 령도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로동 계급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국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일체 민주주의파들에게 있어서도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토지 제도가 개혁되면, 지어는 초보적인 개혁, 벼를 들면 소작토 인하와 리자 인하만 되어도 농민의 생산 의욕은 높아질 것이다. 그 다음 농민들을 도와 자원성의 원칙 하에서 그들을 점차 농업 생산 합작사 및 기타 합작사으로 조직한다면 생산력은 발전될 것이다. 이러한 농업 생산 합작사는 현시기에 있어서 아직 농민의 개인 경리의 기초 우에(농민의 사유 재산의 기초 우에) 수립된 집단적 로력 호조 조직, 벼를 들면 변공대, 호조조, 품앗이반과 같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 및 생산량의 증대는 놀랄 정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중국의 해방구에서 대대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바 금후 가능한 한 널리 보급시켜야 할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여 두어야 할 것은 변공대와 같은 유형의 합작 조직은 본래부터 농민들 가운데 있던 것이지만 그것은

농민들이 자기들의 비참한 생활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 방법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지금 중국 해방구의 변공대는 그 형태와 내용이 달라졌으며 그것은 농민 대중이 자기들의 생산을 발전시켜 부유한 생활을 개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되고 있다.

중국의 모든 정당들의 정책과 중국 인민들 속에서 표현되는 그 실천의 역할이 좋은가 나쁜가, 또는 큰가 작은가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중국 인민들의 생산력 발전에 도움을 주는가 못 주는가, 또는 그 도움이 큰가 작은가 하는 데서 결정되며 생산력을 구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생산력을 해방시키는가 하는 데서 결정된다. 일본 침략자를 소멸하며, 토지 개혁을 실시하며, 농민을 해방하며, 현대 공업을 발전시키며, 독립, 자유, 민주, 통일, 부강한 새 중국을 건설하는 등 이 모든 것만이 중국 사회의 생산력을 해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 인민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지적하여야 할 것은 도시로부터 농촌에 와서 사업하는 지식인들이 지금은 농촌이 아직 분산적이며 낙후한 개인 경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이러한 특성과 해방구에 있어서는 이 밖에 당분간은 적에게 분할되어 있고 유격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이라는 이러한 특성이 첨부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들을 이해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들은 흔히 부당하게도 도시에서 생활 또는 사업하던 견해를 가지고 농촌 문제를 고찰하고 농촌 사업을 처리하며 따라서 농촌의 실정과 리탈하게 되

고 농민들과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양을 주는 방법으로 극복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의 광범한 혁명적 지식인들은 자신을 농민과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을 자각하여야 한다. 농민들은 그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들의 원조를 기다리고 있다. 지식인들은 만강의 열정으로 농촌에 가서 학생복을 벗어 버리고 무명옷을 바꾸어 입고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꺼리지 않고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농민들의 요구를 이해하며 농민들이 각성되고 조직되도록 방조함으로써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서 극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농촌의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일본 침략자가 소멸된 후에는 일본 침략자와 중요한 민족 반역자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적은 농민에게 분여하여야 한다.

#### 일곱째, 공업 문제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국민당 정부의 통치 하에서는 모든 것이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재정 경제 정책은 인민의 모든 경제 생활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당 통치구 내의 얼마 되지 않는 소규모의 공업마저 그 대부분이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가 개혁되지 않고서는 모든 생산력이 다 파괴의 운명에 봉착하게 된다. 농업이 그러하거니와 공업도 그러하다.

전반적으로 말하면 독립, 자유, 민주 및 통일적인 중국이 없이는 공업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일본 침략자를 소멸한다는 이것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이고 통일된 연합 정부를 수립하며 전국의 군대를 인민의 무장력으로 되게 하며 토지 개혁을 실시하여 농민을 해방하는 것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와 통일이 없이는 진정으로 대규모적인 공업을 건설할 수가 없다. 공업이 없이는 공고한 국방이 있을 수 없으며 인민의 복리가 있을 수 없으며 국가의 부강이 있을 수 없다. 1840년의 아편 전쟁 이래의 105년 간의 역사, 특히 국민당이 집정한 이래의 18년 간의 역사는 중국 인민에게 이 중요한 점을 똑똑히 알려 주고 있다. 빈약한 것이 아니라 부강한 중국은 식민지, 반식민지적이 아니라 독립적인, 반봉건적이 아니라 자유롭고 민주주의적인, 분열된 것이 아니라 통일된 그러한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 여러 해 동안 많은 사람들은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분열된 중국에서 공업을 발전시키며 국방을 건설하며 인민의 복리와 국가의 부강을 도모하려고 꿈 꾸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가 환멸로 돌아 갔다. 많은 선의적인 교육가, 과학자 및 학생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의 사업이나 학습에만 몰두하면서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국가를 위하여 복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결국 그것도 꿈으로 되었으며 모두가 환멸로 돌아 갔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러한 유치한 꿈이 환멸로 된 것은 바로 중국의 부강을 위한

출발점으로 된다. 중국 인민은 항일 전쟁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일본 침략자가 격멸된 후에는 신민주주의적인 독립, 자유, 민주, 통일, 부강한 중국을 건설하여야 할 필요성,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은 호상 련관되어 있으며 어느 한 가지라도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이렇게만 되면 중국은 희망이 있다. 중국 인민의 생산력을 해방시키며 그것에 충분한 발전의 가능성을 주려면 우선 신민주주의의 정치적 조건이 전 중국 경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이 점을 리해하는 사람은 날로 늘어 가고 있다.

신민주주의의 정치적 조건을 이룩한 후 중국 인민과 그 정부는 절실한 절차를 취하여 몇 년 내에 점차적으로 중공업과 경공업을 건설함으로써 중국을 농업국으로부터 공업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민주주의적 국가로서 만일 공고한 경제를 그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만일 지금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발전된 농업을 가지지 못 한다면, 만일 전국 경제의 비중에 있어서 극히 큰 우세를 차지하는 대규모의 공업과 이에 적응되는 교통, 무역, 금융 등의 사업을 그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공고화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공산당원들은 전국의 각 민주 정당, 각 분야의 산업계와 함께 상술한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려 한다. 중국 로동 계급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역할을 늘 것이다.

중국의 로동 계급은 제 1 차 세계 대전 때부터 자각적인 자세로 중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기 시작하였다.

1921년에는 그 선봉대——중국 공산당이 창건되었으며 이 때로부터 중국의 해방 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 서게 되었다. 북벌 전쟁, 토지 혁명 전쟁 및 항일 전쟁의 세 시기에 있어서 중국 노동 계급과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해방 사업에 대하여 극히 큰 노력과 매우 값 있는 공헌을 하였다. 일본 침략자를 종국적으로 격멸하는 투쟁에 있어서, 특히는 대도시 및 교통 요로를 탈환하는 투쟁에 있어서 중국 노동 계급은 극히 큰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항일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중국 노동 계급의 노력과 공헌이 더욱 크리라는 것을 예언할 수 있다. 중국 노동 계급의 임무는 신민주주의 국가를 창건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공업화와 농업의 근대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다.

신민주주의의 국가 제도 하에서는 로자 간의 이해 관계를 조절하는 정책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일방으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각이한 정황에 근거하여 8 시간 내지 10 시간 노동제 및 적당한 실업 구제와 사회 보험을 실시하고 공회의 권리를 보장하며 타방으로는 합리적인 경영에 의한 국가 기업소, 개인 기업소 및 합작사 기업소의 정당한 리윤을 보장하며 공사 쌍방 및 로자 쌍방이 공동으로 공업 생산을 발전 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할 것이다.

일본 침략자가 격멸된 후 일본 침략자와 중요한 민족 반역자들의 기업소 및 재산은 몰수하여 정부에 맡겨 처리하여야 한다.

## 여덟째, 문화, 교육 및 지식인 문제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이 중국 인민에게 가져다 준 재난 가운데는 민족 문화의 재난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진보적 의의를 가지는 문화 사업과 교육 사업, 진보적인 문화인과 교육가들이 받은 재난이 더욱 심하였다.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을 제거하고 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의 교육가와 교원, 인민의 과학자, 기사, 기수, 의사, 신문 보도 일'군, 저술가, 문학가, 예술가 및 일반적 문화 일'군들이 대량적으로 필요하다. 그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신을 가지고 간고한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어떠한 지식인이든지 그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업에서 확실히 성과를 내기만 한다면 존중을 받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귀중한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상국은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에 의하여 문화가 락후하게 된 국가이고 중국의 인민 해방 투쟁은 지식인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인 문제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또한 과거 반세기에 걸친 인민 해방 투쟁, 특히 5.4 운동 이래의 투쟁과 8년 간의 항일 전쟁 과정에 광범한 혁명적 지식인들이 중국 인민 해방 사업에서 큰 역할을 매우 큰 것이었다. 금후의 투쟁에서 그들은 더욱 큰 역할을 놀 것이다. 그러므로 금후 인민의 정부는 광범한 인민들 속에서 각종 유형의 지식인 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현유의 모든 유용한 지식인들을 단결, 교양하는 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문맹을 퇴치하는 것은 새 중국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일체 노예적, 봉건주의적 및 파쇼주의적 문화와 교육은 적절하고도 견결한 조치를 취하여 일소하여 버려야 한다.

적극적으로 인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며 인민의 의료 및 위생 사업을 보급시켜야 한다.

구문화 일'군, 구교육 일'군 및 구의사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교양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법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게 한다.

중국의 국민 문화와 국민 교육의 기본 정신은 신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은 민족적, 과학적, 인민 대중적인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교육을 건설하여야 한다.

외국 문화에 대하여 배타주의적 방침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므로 진보적인 외국 문화를 가능한 한 섭취하여 중국의 신문화를 발전시킴에 있어서의 거울로 삼아야 한다. 맹목적으로 옮겨다 쓰는 방침도 옳지 못한 것이므로 중국 인민의 실제적 수요를 기초로 하여 비판적으로 외국 문화를 섭취하여야 한다. 쓰련이 창조한 새로운 문화는 우리가 인민 문화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본보기로 되어야 한다. 중국의 고대 문화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일률적으로 배척하여도 안 되거니와 또 그것을 맹목적으로 옮겨다 써도 안 되며 그것을 비판적으로 받아 들여 중국의 새로운 문화를 추진함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한다.

## 아홉째, 소수 민족 문제

국민당 내의 반인민적 집단은 중국에 여러 민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한족 이외의 각 소수 민족들을 《종족》<sup>[10]</sup>이라고 부르고 있다. 각 소수 민족에 대하여 그들은 전'적으로 청조 정부와 북양 군벌 정부의 반동 정책을 계승하여 갖은 억압과 착취를 다하고 있다. 1943년의 이호쑤맹 몽고족 인민들에 대한 학살 사건, 194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신강 소수 민족에 대한 무력적 탄압 사건 그리고 최근 수년 간의 감숙성 회족 인민에 대한 학살 사건이 바로 그 증거이다. 이것은 대한족주의의 그릇된 민족 사상과 그릇된 민족 정책이다.

1924년에 손 중산 선생은 자기가 집필한 《중국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국민당의 민족주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즉 그 하나는 중국 민족 자신이 해방을 쟁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 경내의 각 민족이 일물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중국 경내의 여러 민족들의 자결권을 인정하며 제국주의와 군벌을 반대하는 혁명이 승리를 얻은 후에는 자유 통일의(각 민족이 자유로 연합한) 중화 민국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정중하게 선언한다.》라고 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상술한 손 선생의 민족 정책에 전'적으로 찬동한다. 공산당원들은 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분투하도록 각 소수 민족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하며 자기들의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의 해방과 발전을 전취하는 동시에 대중의 리익을 수호하는 소수 민족 자신의 군대를 세우도록 대중과 련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도적 인물들도 망라한 각 소수 민족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도와 주어야 한다. 그들의 언어, 문'자, 풍속, 습관 및 종교 신앙은 존중을 받아야 한다.

다년간 섬감녕 변구 및 화북 각 해방구에서 몽고족과 회족에 대하여 취한 태도는 정확하였으며 그 사업에는 성과가 있었다.

#### 열째, 외교 문제

중국 공산당은 대서양 헌장 및 모스크바, 까히라, 테헤란, 크림 등 국제 회의<sup>[11]</sup>의 결정들에 찬동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국제 회의의 결정들은 모두가 파쇼 침략자를 격멸하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의 외교 정책의 기본 원칙은 일본 침략자를 철저히 타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국가의 독립과 평등한 지위를 호상 존중하며 국가와 인민들 간의 리익 및 친선 관계를 호상 증진시키는 기초 위에서 각국과 국교를 설정, 공고화하며 배합 작전, 평화 회의, 통상, 투자 등등과 같은 모든 호상 관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전쟁 후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기구를 수립할 데 대한 덤바튼 오크스 회의의 제의와 이 문제에 대한 크림 회의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중국 공산당

은 산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를 환영한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미 자기의 대표를 중국 대표단에 참가시켜 산프란시스코 회의에 출석하게 하였다[12].

우리는 국민당 정부가 쓰련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버리고 중 쓰 간의 국교를 신속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쓰련은 제일 먼저 불평등 조약을 폐기하고 중국과 평등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 나라이다. 1924년에 손 중산 선생이 소집한 국민당 제 1 차 전국 대표 대회 기간과 그 후에 진행된 북벌 전쟁 기간에 쓰련은 당시 중국의 해방 전쟁을 원조하여 준 유일한 나라이다. 쓰련은 또 1937년에 항일 전쟁이 시작된 후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중국을 제일 먼저 원조하여 준 나라이다. 중국 인민은 쓰련 정부와 쓰련 인민의 이러한 원조에 대하여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우리는 테평양 문제의 중국적인 철저한 해결은 쓰련의 참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각 동맹국들의 정부, 우선 미 영 량국 정부가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들의 목소리에 충분한 주의를 돌려 줄 것과 중국 인민의 의사에 배치됨으로써 중국 인민과의 친선을 손상시키는 외교 정책을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어떠한 외국 정부든지 중국의 반동 분자를 원조하고 중국 인민의 민주주의 사업을 반대한다면 극히 큰 오유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한다.

중국 인민은 많은 외국 정부들이 중국에 대한 불평등 조

약의 폐기를 선포하고 중국과 새로운 평등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평등 조약의 체결이 곧 중국이 실제 상의 진정한 평등적 지위를 취득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한다. 이러한 실제 상의 진정한 평등적 지위는 결코 단지 외국 정부의 은사에 의존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는 중국 인민의 자체의 노력에 의하여 전취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노력의 길은 바로 중국을 정치, 경제, 문화 면에서 신민주주의 국가로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독립과 평등이 있게 될 뿐이고 실제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국민당 정부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정책에 의거하여서는 도저히 중국의 진정한 독립과 평등을 가져 올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 침략자가 격멸되고 무조건 항복을 한 후에는 일본의 파쇼주의와 군국주의 및 그것을 산생시킨 정치, 경제, 사회적 근원을 철저히 근절시키기 위하여 일본 인민의 일체 민주주의적 력량을 도와 일본 인민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한다. 일본 인민의 민주주의 제도가 없이는 일본 파쇼주의와 군국주의를 철저히 근절시킬 수 없으며 태평양의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우리는 조선 독립에 관한 까히라 회의의 결정이 옳은 것이라고 인정한다. 중국 인민은 조선 인민의 해방을 방조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도가 독립되기를 희망한다. 왜냐 하면 독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인도는 인도 인민들에게 필요할 뿐만 아

나라 세계 평화물 위하여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양의 여러 나라들——버마, 말라이,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하여도 우리는 이 나라들의 인민이 일본 침략자가 패망한 후 독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국가 제도를 수립할 권리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타이에 대하여서는 구라파의 파쇼 추종국들을 취급하는 방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

구체적 강령에 대한 설명은 주로 이상과 같다.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거국 일치의 민주주의적인 연합정부가 없이는 이 모든 구체적 강령이 전 중국적으로 순조롭게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해방 사업을 위하여 투쟁하여 온 24 년 동안에 다음과 같은 지위를 확립하였다. 어떠한 정당, 사회 집단이거나를 막론하고 또 중국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를 막론하고 중국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만일 그들이 중국 공산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것은 엄중한 오류이며 또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들의 견해만 고집하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으며 실패하고 만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 가장 광범한 중국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가장 충직한 대변인이다. 누구든지 중국 공산당

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실제에 있어서 가장 광범한 중국 인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반드시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 중국 국민당 통치구에서의 임무

우리 당의 일반적 강령과 구체적 강령에 관하여 나는 이미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이 강령들은 전 중국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전반 국제적, 국내적 정세는 중국 인민들에게 이러한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 통치구, 피점령구, 해방구——이 세 가지 지구의 상이한 현 정세 하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을 수 없다. 상이한 정세 하에서는 상이한 임무가 제기된다. 그 중 어떤 것들은 내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고 어떤 것들은 아래에서 더 보충할 필요가 있다.

국민당 통치구에서는 인민들이 애국 활동을 할 자유가 없으며 민주주의 운동은 비합법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나 허다한 계층과 민주 정당 및 민주주의자들을 망라한 그런 적극적인 활동은 발전되고 있다. 중국 민주 동맹은 금년 1월에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종말 짓고 연합 정부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성질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국민당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령도 기관의 정책에 대하여 날로 더 의심과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며 날로 더 자기들의 당이 광범한 인민 가운데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위험성을 느끼고 시기

에 알맞는 민주주의적 개혁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중경 등지의 로동자, 농민, 문화계, 학생계, 교육계, 여성계, 상공업계, 공무원 및 일부 군인들의 민주주의 운동은 지금 발전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일체 억압 당하고 있는 계층들의 민주주의 운동이 점차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합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현하 운동의 약점은 사회 기층의 사람들이 아직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생활이 몹시 고통스러운 농민, 로동자, 병사, 하급 공무원 및 교원들이 아직 조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현하 운동의 또 하나의 약점은 운동에 참가한 민주주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투쟁을 일으킴으로써 시국의 전변을 가져 오게 한다는 이 기본 방침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인식과 단호히 집행할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점이다. 그러나 객관적 정세는 일체 억압 당하고 있는 계층, 정당 및 사회 집단들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각성, 단결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국민당 정부가 제 아무리 탄압한다 하여도 이 운동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당 통치구에서 억압 당하는 모든 계층, 정당 및 집단의 민주주의 운동을 더 광범히 발전시키고 또 분산된 력량을 점차 통일시켜 민족적 단결을 실현하며 연합 정부를 수립하며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중국 공산당과 해방구 인민들은 그들에게 가능한 온갖 원조를 주어야 한다.

국민당 통치구에 있어서 공산당원들은 광범한 항일 민족



통일 진선 정책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건, 어제까지 우리를 반대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 우리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와 합작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 중국 피점령구에서의 임무

피점령구에 있어서 공산당원들은 항일하는 모든 인민들에게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본 받아 각종 단체들을 조직하며 지하군을 조직하며 무장 봉기를 준비하였다가 시기가 성숙되기만 하면 외부로부터 진공하는 군대와 더불어 내외 호응하여 일본 침략자를 소멸할 것을 호소하여야 한다. 피점령구 내의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일본 침략자와 그들의 충실한 주구들의 박해, 약탈, 간음, 모욕은 전체 중국 사람들의 불 같은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 원쑤를 갚고 치욕을 씻을 날은 멀지 않았다. 피점령구 인민들은 구라파 전장에서의 승리와 팔로군, 신사군의 승리에 고무되어 항일 기세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하루 속히 해방을 얻기 위하여 자신을 조직할 것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점령구에서의 사업을 해방구에서의 사업과 동등하게 중요한 자리에 올려 놓아야 한다. 많은 일'군들이 피점령구에 가서 사업하여야 한다. 피점령구 인민들 속에서 열성 분자를 대량적으로 훈련하고 등용하여 그 지방의 사업에 참가시켜야 한다. 피점령구 중에서도 동북 4 성은 점령 당한 지가 가장 오

때며 또 일본 침략자의 산업 중심지 및 군대 주둔의 요지이므로 우리는 그 곳에서의 지하 공작을 강화하여야 한다. 관내에 들어 와 있는 동북 인민들에 대하여서는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잃었던 국토를 수복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일체 피점령구에 있어서 공산당원들은 가장 광범한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책을 집행하여야 한다. 어떤 사람이든 그가 일본 침략자 및 그의 충실한 주구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그와 손을 잡고 공동의 원수를 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적을 방조하고 동포를 반대하는 온갖 괴뢰 군경 및 기타의 인원들에 대하여서는, 자기들의 죄악적인 행위를 시급히 인식하고 제때에 돌아 서서 동포를 방조하여 원수들을 반대하는 것으로써 자기 죄악을 씻어야 할 것이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수들이 봉괴되는 그 날에 가서 민족의 규물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공산당원들은 군중을 가지고 있는 온갖 괴뢰 조직들에 대하여 쟁취하기 위한 설복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만 당한 군중을 민족의 원수들을 반대하는 전선에 서게 하여야 한다. 동시에 큰 죄를 지고도 뉘우치려 하지 않는 극악한 민족 반역자들에 대한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다가 국토가 수복된 후에 그들을 법에 의하여 징벌하여야 한다.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 반역자들을 조직하여 중국 인민, 중국 공산당, 팔로군, 신사군 및 기타의 인민 군대를 반대하는 국민당 내의 반동 분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어 하루 속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하여야 한다. 만일 그

들이 뒤우치지 않는다면 국토가 수복된 후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고 민족 반역자와 동일하게 치죄할 것이다.

### 중국 해방구에서의 임무

해방구에서는 우리 당의 전반 신민주주의 강령이 이미 실시되었으며 또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고 기대한 항일 력량을 집결시켰다. 금후에는 각 방면에서 이 력량을 발전시키며 공고화하여야 한다.

현 조건 하에서 해방구의 군대는 적과 괴뢰군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지방들 중의 탈환할 수 있는 모든 지방에 대하여 광범한 진공을 개시함으로써 해방구를 확장하고 피점령구를 축소시켜야 한다.

그러나 적은 아직도 힘이 있으며 또 해방구를 진공하여 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동시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해방구의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적의 진공을 분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며 해방구를 공고화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해방구의 군대, 유격대, 민병 및 자위군을 확대하며 정비와 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침략자를 종국적으로 격멸하기 위하여 충분한 력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해방구에 있어서 일방으로는 군대가 용정 애민 사업을 진행하고 다방으로는 민주 정부가 인민들을 령도하여 용군 우항 사업을 진행하여 군대와 인민 간의 관계를 가일층 개선하여

야 한다.

지방적 성격을 띤 연합 정부의 사업에 있어서나 사회 사업에 있어서 공산당원들은 모든 항일적 민주주의자들과 신민주주의 강령의 기초 위에서 계속 잘 합작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군사 사업에서도 공산당원들은 우리와 합작하려는 모든 항일적 민주주의자들과 더불어 해방구 군대의 내부에서와 외부에서 잘 합작하여야 한다.

항일과 생산에서의 로동 근로 대중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소작료와 리자를 인하하고 로동자, 사무원의 대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충분히 집행하여야 한다. 해방구의 일'군들은 경제 사업을 배우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일체의 가능한 력량을 동원하여 해방구의 농업, 공업 및 상업을 대규 모적으로 발전시켜 군대와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로동 경쟁을 실시하고 로력 영웅과 모범 일'군들을 표창하여야 한다. 도시에서 일본 침략자를 구축한 후 우리의 일'군들은 도시 경제 사업을 재빨리 배워야 한다.

해방구의 인민 대중, 무엇보다도 광범한 로동자, 농민, 병사 대중의 각성 정도를 제고하고 간부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서는 해방구의 문화 교육 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해방구의 문화 일'군과 교육 일'군들은 자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하 농촌의 특성에 근거하여, 농촌 인민의 요구와 자원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해방구의 제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지의 인력과

물력을 극력 아껴야 하며 어떠한 지방에서든지 장기적인 타산을 함으로써 탐용하거나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해방구의 세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지의 사람들이 당지의 사업을 관리하도록 도와 주는 데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하며 당지 인민 중의 우수한 분자들 속에서 당지의 사업을 할 간부를 대량적으로 양성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일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당지의 사람들과 한 덩어리가 되지 않는다면, 만강의 열정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또 정황에 알맞게 당지 출신의 간부를 도와 주지 않거나 자기의 형제 자매처럼 그들을 아끼지 않는다면 농촌에서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 위대한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팔로군, 신사군 및 기타의 인민 군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즉시 당지의 인민을 도와 당지 인민의 간부가 령도하는 민병과 자위군을 조직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당지 인민의 간부가 령도하는 지방 부대와 지방 병단을 조직하여야 한다. 그런 후이면 당지의 사람이 지도하는 주력 부대와 주력 병단이 산생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임무이다.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 한다면 공고한 항일 근거지를 창설할 수 없으며 인민의 군대를 발전시킬 수도 없다.

물론 당지의 모든 사람들은 외지에서 온 혁명 일'군과 인민 군대를 열렬히 환영하고 도와 주어야 한다.

숨어 있는 민족 파괴 분자에 대처하는 문계에 있어서 여

러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 하면 공개적인 원수, 공개적인 민족 파괴 분자는 식별하기 쉽고 처치하기도 쉽지만 숨어 있는 원수, 숨어 있는 민족 파괴 분자는 식별하기 어려우며 처치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후자에 대하여는 엄숙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처리할 때에는 또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종교 신앙 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중국 해방구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가 존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기독교거나 천주교거나 이슬람교거나 불교거나 기타의 종교거나를 막론하고 교도들이 인민 정부의 법률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인민 정부는 그들을 보호한다.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거나 다 각자의 자유이므로 강박하거나 차별시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 대회는 각 해방구의 행동을 통일하며 각 해방구에서의 항일 사업을 강화하며 국민당 통치구 인민들의 항일 민주주의 운동을 원조하며 피점령구 인민들의 지하군 운동을 원조하며 전국 인민의 단결과 연합 정부의 수립을 촉진하는 등 문제를 토론허기 위하여 가능한 한 속히 연안에서 중국 해방구 인민 대표 회의를 소집할 것을 각 해방구 인민들에게 제의하여야 한다[13]. 중국 해방구는 이미 전국의 광범한 인민의 항일 구국의 중심으로 되었고 전국의 광범한 인민들은 자기들의 희망을 우리에게 의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책임이 있다. 중국 해방구 인민 대표 회의의 소집은 중국 인민의 민족 해방 사업에 대하여 거대한 주동적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 5. 전 당은 단결하여 당의 임무의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자

동지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임무와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업 태도로 이러한 정책들을 집행하며 이러한 임무들을 완수할 것인가?

국제, 국내의 현 정세는 우리와 중국 인민에게 광명한 전망을 보여 주고 있으며 또 과거에 없던 유리한 조건들을 제공하여 주고 있다. 이 점은 아주 뚜렷하며 추호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대단히 곤란한 조건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누구를 물론하고 광명한 면만을 보고 곤란한 면을 보지 못 한다면 당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 투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중국 인민과 함께 당의 24년 간의 전반 역사를 통하여서나 8년 간의 항일 전쟁에서나를 막론하고 중국 인민을 위하여 거대한 력량을 창조하였다. 우리의 사업 성과는 아주 뚜렷하며 추호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사업에는 여전히 결함이 존재하고 있다. 누구나 성과 면만을 보고 결함 면을 보지 못 하는 사람은 당의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잘 투쟁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된 이래 24년 간의 역사를 통하여 세 차례의 위대한 투쟁 즉 북벌 전쟁, 토지 혁명 전

쟁 및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항일 전쟁을 거치었다. 우리 당은 첫 시초부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기초로 삼은 당이다. 그것은 이 주의가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정확하며 가장 혁명적인 과학적 사상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가 일단 중국 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합되자 중국 혁명의 면모는 일신되어 신민주주의의 전 력사적 단계가 산생되었다.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사상으로 무장된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 속에서 새로운 사업 작품을 수립하였다. 그것은 주로 리론과 실천을 결합하는 작품, 인민 대중과 밀접한 련계를 맺는 작품 및 자기 비판의 작품이다.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실천적 투쟁을 반영한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는 중국 프로레타리아트 및 광범한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의 구체적 실천과 결합될 때 중국 인민의 백전 백승의 무기로 된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렇게 하였다. 우리 당의 발전과 진보는 이 진리에 배치되는 온갖 교조주의 및 경험주의와의 견결한 투쟁 과정에서 가져 온 발전이며 진보이다. 교조주의는 구체적 실천과 리탈되고 경험주의는 국부적 경험을 보편적 진리로 잘못 인식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기회주의적 사상은 모두 맑스주의에 배치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자기의 24 년 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이러한 그릇된 사상을 극복하였으며 또 극복하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 당은 사상적으로 아주 공고화되었다. 우리 당은 지금 121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의 압도적 다수는 항일 시기에 입당하였으며 그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불순정한



사상이 존재하고 있다. 항일 이전에 입당한 당원 가운데도 이러한 정형이 있다. 지난 수년 간의 정풍 사업은 거대한 성과를 거두어 이러한 불순정한 사상이 많이 시정되었다. 금후에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하여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한다》는 정신으로 당내에서 사상 교양을 가일층 전개하여야 한다. 당의 각급 지도적 골간들로 하여금 리론과 실천을 이렇게 밀접히 결합하는 것은 우리 공산당원이 다른 모든 정당들의 성원과 구별되는 뚜렷한 표식의 하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사상 교양을 틀어 쥐는 것은 전 당을 단합하여 위대한 정치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심 고리로 된다. 이 임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당의 어떤 정치적 임무도 완수할 수 없다.

우리 공산당원이 다른 모든 정당들의 성원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표식은 가장 광범한 인민 대중과 가장 밀접한 련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성심 성의로 복무하고 잠시라도 대중과 리탈되지 않는 것, 개인이나 협소한 그루뵤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는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인민 앞에 책임 지는 것과 당의 지도 기관 앞에 책임 지는 것과의 일치성——이것이 바로 우리의 출발점이다. 진리는 어떠한 진리임을 막론하고 모두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산당원은 어느 때나 진리를 전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오유는 어떤 오유임을 막론하고 모두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공산당원은 어느 때나 오유를 시정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

다. 24년 동안의 경험은 우리에게 올바른 임무, 정책 및 사업 작품은 모두가 그 때 그 지방의 대중의 요구에 맞고 대중과 련계되는 것이며 그릇된 임무, 정책 및 사업 작품은 모두가 그 때 그 지방의 대중의 요구에 맞지 않으며 대중과 리탈되는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교조주의, 경험주의, 명령주의, 추미주의, 종파주의, 판료주의, 교오 자만하는 사업 태도 등 이러한 폐단이 확실히 나쁘고 반드시 버려야 하며 또 이런 폐단을 가지고 있으면 꼭 시정하여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대중과 리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표 대회는 경각성을 높일 것을 전 당에 호소하여 매개 사업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매개 동지들이 대중과 리탈하지 않도록 주의를 돌리게 하여야 한다. 매개 동지에게 교양을 주어 그들이 인민 대중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의 깊게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지방 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며 대중의 우에 올라 서는 것이 아니라 대중 속에 깊이 들어 가게 하며, 대중의 각성 정도에 근거하여 대중의 각성을 계발, 제고하며 대중이 진심으로 자원하는 원칙 하에서 대중을 점차 조직되도록 도와 주며 그 때 그 지방의 안팎 환경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모든 필요한 투쟁을 점차적으로 전개하게 하여야 한다. 일체 사업에 있어서 명령주의는 그릇된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대중의 각성 정도를 초월하여 대중의 자원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조급중에 걸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지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광범한 대중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대중이 이미 리해하였는가, 또 행동에 옮기려 하는가 하는 것은 대중 속에 들어 가 고찰하여 보아야만 알게 된다. 이렇게 한다면 명령주의를 피할 수 있다. 일체 사업에 있어서 추미주의도 역시 그릇된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대중의 각성 정도에 뒤떨어져 대중을 한 걸음 더 전진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만성병에 걸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동지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은 대중도 다 모르리라고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많은 경우에 광범한 대중은 우리보다 앞섰고 또 한 걸음 더 전진할 것을 절박히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동지들은 광범한 대중의 령도자로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일부 락후 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락후 분자들의 의견을 광범한 대중의 의견으로 잘못 인식하고 락후 분자의 뒤꼬리를 따라 가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공산당원의 모든 언론과 행동은 가장 광범한 인민 대중의 최대 리익에 부합되며 가장 광범한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을 최고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매개 동지들에게 리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인민에 의지하고 인민 대중의 창조력이 무궁 무진하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따라서 인민을 신임하고 인민과 한 덩어리가 되기만 한다면 어떠한 곤난이나 다 극복할 수 있으며 여하한 적도 우리를 압도할 수 없고 우리에게 압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매개 동지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참다운 자기 비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역시 우리와 기타 정당이 구별되는 뚜렷한 표식의 하나이다. 일찍 말

한 적이 있지만 방은 소제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먼지가 가득 쌓이게 되므로 항상 소제하여야 하며 얼굴도 씻지 않고 내버려 두면 때가 가득 끼게 되므로 항상 씻어야 한다. 우리 동지들의 사상과 우리 당의 사업에도 먼지가 앉을 수 있으므로 역시 털어 내고 씻어 내야 한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리는 좀 먹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들이 끊임 없는 운동 중에서 미생물 또는 기타 생물의 침식에 저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일상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며 그 검토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작풍을 발양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아는 것은 다 말하고 할 말은 끝까지 한다》, 《말한 사람은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은 삼가야 한다》,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더욱 노력한다》는 등의 이러한 중국 인민의 유익한 격언들을 실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 상의 먼지와 정치 상의 미생물이 우리 동지들의 사상과 우리 당의 피부를 침식하지 못 하도록 저항하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과거를 징계하여 금후를 삼가게 하며 병을 치료하여 사람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풍 운동이 매우 큰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운동 과정에서 외폭적인 것이 아니라 올바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다운 비판과 자기 비판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가장 광범한 인민의 최대 리익을 자기의 출발점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원들은 자기의 사업이 전'적으로 정의의 사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자기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서슴지 않으며 우리의 사업을 위하여서는 언제나 자기의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 인민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사상, 관점, 의견, 방법을 버리기 아까와 하겠는가? 그래 우리의 깨끗한 얼굴을 더럽히며 우리의 건전한 피부를 침식하는 정치적 먼지나 정치적 미생물들을 환잉한단 말인가? 무수한 혁명 선렬들은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다. 살아 있는 우리들은 그들을 회상하기만 하여도 마음이 괴로와지는데 우리에게 또 그 무슨 회생할 수 없는 개인 이익과 버리지 못할 오유가 있겠는가?

동지들, 우리는 이 대회가 끝난 후 즉시 싸움터로 나가 대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일본 침략자를 종국적으로 격파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국 인민과 단결하여야 한다. 다시한 번 말하거니와 어떠한 계급이건, 어떠한 정당이건, 어떠한 사회적 집단 또는 개인이건 오직 그가 일본 침략자를 격파하고 새 중국을 건설하는 것을 찬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연합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조직 원칙과 규율 원칙 하에서 우리당의 모든 력량을 굳게 단합시켜야 한다. 어떤 동지임을 막론하고 오직 그가 당 강령, 당 규약 및 당 결정에 복종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와 단결하여야 한다. 북벌 전쟁 시기에는 우리 당의 당원이 6만 명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대부분은 후에 와서 당시 적의 타격에 의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토지혁명 전쟁 시기에는 당원이 30만 명 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역시 대부분은 후에 와서 당시 적의 타격에 의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지금 우리는 120여만 당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적의 타격에 의하여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오직 우리가 세 시기의 경험을 십취하여 겸허한 태도를 취하고 교만한 태도를 방지하며 당내에 있어서는 전체 동지들과 더 잘 단결하고 당외에 있어서는 전국 인민과 더 잘 단결하기만 한다면 적의 타격에 의하여 흩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반드시 일본 침략자와 그의 충실한 앞잡이들을 견결히, 철저히, 깨끗이, 전부 소멸할 수 있으며 또 그들을 소멸한 후에 신민주주의 중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차례에 걸친 혁명의 경험, 특히 항일 전쟁의 경험은 우리와 중국 인민에게 중국 공산당의 노력이 없이는, 또 중국 공산당원들이 중국 인민의 건강한 중건으로 되지 않고서는 중국의 독립과 해방이 불가능하며 중국의 공업화와 농업 근대화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였다.

동지들, 세 차례에 걸친 혁명의 경험을 쌓은 중국 공산당이 있는 한 우리의 위대한 정치적 임무를 능히 완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수천 수만의 선렬들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우리의 선두에 서서 영용하게 희생되었다. 우리는 그들의 기'발을 높이 추켜 들고 그들의 피어린 발'자국을 밟으며 전진하자!

신민주주의 중국은 멀지 않아 탄생될 것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날을 맞이하자!

## 주 해

[1] 중화 민족 해방 선봉대——《민선대》라 약칭한다——는 12.9 운동에 참가한 선진적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의 명도 하에서 1936년 9월에 조직한 혁명적 청년 단체이다. 항일 전쟁이 폭발된 후 많은 민선대 내원들은 전쟁과 직후 근거지 창설 사업에 참가하였다. 국민당 동치구의 민선대 조직은 1938년에 장 개석 정부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 당하였다. 해방구 민선대 조직은 후에 더욱 광범한 청년 단체인 청년 구국회에 합병되었다.

[2] 본 선집의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제 11 차 전원 회의와 국민 참정회 제 3 기 제 2 차 회의록 평합》이라는 글에서 멀거한, 장 개석이 3 차나 반공 고조를 일으킨 사실을 참조하라.

[3] 스코비는 회람에 파견되어 주둔하고 있던 영 제국주의 침략군의 사령관이다. 1944년 10월에 독일 침략자가 구라파 대륙에서 패배 당하여 퇴각하게 되자 스코비는 영국 군대를 명송하고 또 먼연에 망명하고 있던 회람 반동 정부를 데리고 회람에 들어 갔다. 그는 회람 반동 정부를 사속, 협조하여 오래 동안 영용하게 독일 침략자에 저항하고 있던 회람 인민 해방군을 공격하고 회람의 애국적 인민을 학살하여 회람을 공포의 피바다 속에 몰아 넣었다.

[4] 보갑 제도란 국민당 반동파가 파쇼 통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운 의하층 정치 제도이다. 1932년 8월 1일에 장 개석은 하남, 호북, 안휘 등 세 개성에서 《각 현 보갑 호구 편성 조사 조례》를 반포하였다. 거기에서 《보갑의 편성은 호를 단위로 하고 호에는 호장을 두며 10 호를 한 갑으로 하고 갑에는 갑장을 두며 10 갑을 한 보로 하고 보에는 보장을 둔다》고 규정하였으며 그리 하여 각 호가 서로 감시하고 또 서로 고발하도록 하기 위한 면파법과 각종의 반혁명적 강제 노동법을 실시하였다. 1934년 11월 7일에 국민당 정부는 자기가 통치하는 각 성, 시들에서 일률적으로 이러한 파쇼 통치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5] 국민당 정부가 실시한 봉건적이며 매관적인 파쇼 교육을 가리킨다.

[6] 까히라 회의란 1943년 11월에 중, 미, 영 3 개국이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연 국제 회의이다. 이 회의는 중, 미, 영 3 개국의 까히라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는 내란 및 기타를 중국에 반환한다는 것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1950년 6월에 미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권을 박탈할 목적

으로 이 협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해군을 파견하여 대만을 자기들의 지배 하에 넣었다.

[7] 아미산은 사천성 서남부에 있는 명산이다. 모택동 동지는 여기서 장 개석 동치 집단이 항일 전쟁 중 최후의 소굴로 삼았던 사천성의 산지대들을 가 리키고 있다.

[8] 본 선집 제 2 권의 《반동파를 반드시 제재하여야 한다》, 《모든 항일 력량을 단합하여 반공 완고파를 반대하자》, 《국민당에 대한 열 가지 요구》 등 을 보라.

[9] 1924년 11월 10일의 손 중산의 《북상 선언》에서 인용한 것이다.

[10] 이것은 장 개석이 자기의 반혁명적인 소재자 《중국의 운명》 가운데서 함부로 떠들어 낸 말을 가리킨다.

[11] 대서양 헌장이란 1941년 8월에 미국과 영국이 대서양 회의물 끝 내고 공동으로 발표한 문헌이다. 모스크바 회의란 1943년 10월에 소, 미, 영 3 개국 의상이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회의이다. 테헤란 회의란 1943년 11~12월에 소, 미, 영 3 개국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한 회의이다. 크림 회의란 1945년 2월에 소, 미, 영 3 개국이 소련 남부 크림 반도의 알따에서 진행한 회의이다. 당시 이 모든 국제 회의들은 공동의 력량으로 파쇼 독일과 일본을 격파하는 동시 에 전쟁 후에 있어서의 심략 세력과 파쇼 잔재의 재기를 방지하며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독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각국 인민의 념원을 찬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전쟁 후 미, 영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협정을 배반하고 파괴하였다.

[12] 1944년 8~10월에 소, 미, 영, 중 4 개국 대표는 모스크바 회의와 테 헤란 회의의 결정에 좇아 미국의 덤바튼 오크스에서 회의물 열고 국제 연합 기 구의 조직 초안을 작성하였다. 1945년 4~6월에 미국의 산프란시스코에서 50 개 국가의 대표가 참가한 연합국 회의물 소집하였다. 당시 중국 해방구에서도 동 림부 동지들 대표로 파견하여 이 회의에 참가시켰다.

[13] 중국 공산당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 후 연안에서 《중국 해방구 인민 대표 회의 준비 위원회》가 성립되었으며 동시에 각 해방구 대표들이 모여 공동 으로 준비 위원회 성립 대회물 열었다. 일본이 항복한 후 시국의 변화로 인하 여 중국 해방구 인민 대표 회의는 열리지 못 하였다.



## 우공이 산을 옮겼다\*

(1945년 6월 11일)

우리의 이번 대회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세 가지 일을 하였다. 첫째는 당의 로선을 결정한 것이다. 이 로선은 즉 대담하게 대중을 발동하고 인민의 력량을 장성시켜 우리 당의 령도 하에 일본 침략자를 격파하고 전국 인민을 해방하며 신민주주의 중국을 창건하는 것이다. 둘째는 당의 새 규약을 채택한 것이다. 셋째는 당의 지도 기관——중앙 위원회를 선거한 것이다. 금후의 임무는 전 당을 령도하여 당의 로선을 실현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번 대회는 승리의 대회이며 단결의 대회이다. 대표들은 세 보고(1)에 대하여 대단히 좋은 의견들을 발표하였다. 많은 동지들은 자기 비판을 하였으며 단결의 목적에서 출발하여 자기 비판을 거쳐 단결에 도달하였다. 이번 대회는 단결의 모범이며 자기 비판의 모범이며 당내 민주주의의 모범이다.

대회가 끝나면 많은 동지들은 자기의 일터로 돌아 갈 것이며 각기 자기의 싸움터로 가게 될 것이다. 동지들은 여

---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중국 공산당 제 7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한 회사이다.

러 지방에 가서 대회의 로선을 선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전체 당원 동지들을 통하여 인민들에게 광범한 해실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회의 로선을 선전하는 것은 전 당과 전국 인민에게 하나의 신념, 즉 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다. 우선 선봉대를 각성시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난을 물리치고 승리를 전취할 결심을 내리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 또 전국의 광범한 인민 대중을 각성시켜 자원적으로 우리와 함께 싸워 승리를 전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 인민에게 중국은 반동파의 것이 아니라 중국 인민의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옛날 중국에는 《우공이 산을 옮겼다》는 우화가 있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하다. 옛날 화북 지방에 복산 우공이라는 로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집 남쪽에는 큰 산들이 있어서 드나드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하나는 태항산이라는 산이고 또 하나는 왕옥산이라는 산이었다. 우공은 자기의 아들들을 데리고 팽이로 이 두 큰 산을 파 없애려고 결심하였다. 지수라고 부르는 한 로인이 이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당신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을 하고 있다, 당신들 부자 몇이 이렇게 큰 산 두 개를 파 없애려는 것은 전혀 되지 않을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우공은 내가 죽은 후에는 아들들이 있고 아들들이 죽으면 또 손자들이 있다, 이렇게 자자손손이 끝이 없는 것이다, 이 두 산이 높기는 하지만 이 이상 더 높아질 리는 없다, 파 내면 파 낸 것 만큼 줄

어질 것이니 어찌서 과 없애지 못 한단 말인가고 대답하였다. 우풍은 지수의 그릇된 생각을 반박하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매일 쉬지 않고 산을 뺐다. 이 일은 하느님을 감동시키게 되어 하느님은 두 신선을 인간 세상에 내려 보내어 두 산을 다른 데로 옮겨 가게 하였다[2]. 지금 중국 인민의 머리 우에는 역시 두 개의 큰 산이 짓누르고 있다. 그 하나는 제국주의라는 산이고 또 하나는 봉건주의라는 산이다. 중국 공산당은 벌써부터 이 두 산을 과 없앨 결심을 하였다. 우리는 반드시 견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계속 부단히 사업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을 감동시키게 될 것이다. 이 하느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전 중국의 인민 대중이다. 전국의 인민 대중이 일제히 쫓기하여 우리와 함께 이 두 산을 파 낸다면 과 없애지 못 할 리가 있겠는가?

어제 미국으로 돌아 가려는 두 미국 사람을 만난 일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미국 정부는 우리를 파괴하려 하는데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장 개석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대한다, 그러나 우리는 첫째로, 미국 인민들과 그들의 정부를 구별할 것이며 둘째로, 미국 정부 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과 하부의 일반 인원들을 구별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이 두 미국 사람에게 당신들 미국 정부 내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전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즉 우리 해방구에서는 당신들이 오는 것을 금지한다. 그것은 당신들의 정책이 장 개석을 지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들이 일본을 치기 위하여 해방구에 온다면 와도 좋다. 그러나 조약을 맺어야 한다. 만약 당신들이 몰래 이리저리 함부로 돌아 다닌다면 그것은 허용할 수 없다. 헐리는 이미 중국 공산당과 합작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3).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또 우리 해방구에 와서 함부로 돌아 다니려 하는가?

장 개석을 지지하며 공산당을 반대하는 미국 정부의 정책은 미국 반동파의 창궐성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인민의 승리를 가로막으려는 일체 국내외 반동들의 기도는 결정적으로 실패하고야 말 것이다. 오늘 세계의 조류는 민주주의가 주류이고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동은 한 줄기의 역류에 불과하다. 오늘날 반동적 역류는 민족 독립과 인민 민주주의의 주류를 압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반동적 역류는 어디까지나 주류로 될 수 없는 것이다.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쓰말린의 오래 전에 만찬 바와 같이 낡은 세계에는 3대 모순이 있다. 즉 첫째는 제국주의 국가 내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간의 모순이며, 둘째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이며, 셋째는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와 제국주의 종주국 간의 모순이다(4). 이 세 가지 모순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더욱 첨예하여졌으며 더욱 확대되었다. 반쏘, 반공, 반민주주의적 역류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세 가지 모순의 존재와 발전으로 하여 이러한 반동적 역류는 반드시 극복되고야 말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두 개의 대회가 열리고 있다. 하나는

국민당의 제 6 차 대표 대회이고 하나는 공산당의 제 7 차 대표 대회이다. 이 두 대회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공산당과 중국의 민주 세력을 소멸하고 중국을 압축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인 중국의 봉건 세력을 타도하고 신민주주의 중국을 건설하여 중국을 광명으로 이끌어 가려는 것이다. 이 두 길래의 로선은 서로 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인민이 중국 공산당의 링도 하에, 중국 공산당 제 7 차 대회의 로선의 링도 하에 완전한 승리를 달성하게 되리라는 것과 국민당의 반혁명적 로선은 필연적으로 실패 당하고 말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 주 해

[1] 중국 공산당 제 7 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한 모택동 동지의 정치 보고, 주 덕 동지의 군사 보고, 류 소기 농지의 당 규약 개정예 관한 보고를 가리킨다.

[2] 우봉이 산을 옮겼다는 이야기는 《별자·탕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태항, 왕옥 두 산은 수위가 700 리이고 높이가 만여 길이나 된다. 본래 이 산은 기주 이남, 하양 이북에 있었다. 북산 우봉이란 사람은 나이가 90이 되도록 산을 앞에 두고 살고 있었다. 산 북쪽이 통로를 가로막아 출입할 때마다 멀리 돌아 다니는 데 심증이 난 그는 가족을 모아 놓고 상의하였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견력을 다하여 이 산을 허물어 예남과 한음까지 통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하고 그는 물었다. 가족들은 이구 동성으로 이 말에 동의하였다. 그의 안해만은 의심을 품고 당신의 힘으로는 기보 같은 언덕조차 파 헤치지 못 하겠는데 하물며 태항, 왕옥 두 산을 어떻게 파 헤친다는 말이요? 그리고 그 흙과 돌은 어디다가 처리하려 하시요? 하고 반문하였다. 모두들 흙과 돌을 팔해'가와 은토 북쪽에 버리자고 말하였다. 그리 하여 우봉은 일순 할 수

있는 아들과 손자 등 셋을 데리고 돌을 쫓고 흙을 파서 키와 명구력에 담아가지고 발해'가에 날라 갔다. 이곳에 사는 경성씨라는 파부의 아들은 이제 겨우 이물 간 어린아이였으나 뛰어나와 조력하였다. 그들은 겨울과 여름이 바뀌어 서야 겨우 한 번 왕복할 수가 있었다. 하목의 지수라는 사람은 이것을 보고 비웃으면서 그만 두라고 말했다. 그는 말하기를 <그대는 너무도 어리석소. 산의 일초일목도 꺾기 어려운 늙은 기운에 어떻게 흙과 돌을 다 파 내버리고 그러시오?> 하고 말하였다. 부산 우풍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하기를 <그대의 생각은 말할 수 없이 완고하여 파부네 집 어린아이 만도 못 하오. 내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또 손자를 낳고 그 손자가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또 손자가 있을 것이니 자자손손이 무궁하나 산은 더 높아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 어찌서 산을 허물 수 없겠소?> 하였다. 하목의 지수는 이에 대답하지 못했다. 뱀을 관리하고 있는 신이 이 소문을 듣고 매우 두려워서 하느님에게 아뢰었다. 하느님은 부산 우풍의 지성에 감동되어 파아씨의 두 아들에게 명령하여 두 산을 등에 져서 하나는 삭주의 동쪽에 옮겨 놓고 하나는 용주의 남쪽에 옮겨 놓게 하였다. 이 때로부터 기주의 남쪽과 한음에는 높고 험한 산이 없게 되었다》.

[3] 헐리는 미국 공화당의 반동 정계의 한 사람이다. 그는 1944년 말에 국민당 정부 주재 미국 대사로 취임하였으나 장 개석의 반공산당 정책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중국 인민의 견결한 반대를 받아 1945년 11월에 사퇴할 선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헐리가 중국 공산당과 활착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였다는 것은 1945년 4월 2일 그가 워싱턴 국무성의 기자 회견 식상에서 발표한 담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상세한 것은 본 신집에 수록된 《헐리와 장 개석의 맞장구는 이미 파산되었다》에 있다.

[4] 쓰딸린의 《레닌주의 기본에 대하여》의 제 1 부분 《레닌주의의 역사적 근거》에 있다.

## 군대에서의 생산 자급에 대하여서와 정품 및 생산 2대 운동의 중요성에 대하여\*

(1945년 4월 27일)

우리의 군대가 극심한 물질적 곤란을 받고 있는 오늘의 형편에서 그리고 분산되어 작전하고 있는 오늘의 형편에서는 모든 물자 공급을 전'적으로 상부 지도 기관에 책임 지워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광범한 하부 일'군들의 수족을 묶어 놓게 되며 또 하부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지들, 전체의 힘으로 곤란을 극복하자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상부에서 과업을 잘 제기하여 주고 대담하게 하부에서 자력 갱생하도록 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 만일 상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상 짊어 질 수 없는 모든 짐을 언제나 자기가 짊어 지고 대담히 하급에 맡기지 못하며 광범한 대중의 자력 갱생의 적극성을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면 상부에서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 이것은 모택동 동지가 연안의 《해방 일보》를 위하여 쓴 사설이다.

상부와 하부가 다 고생하게 될 것이며 현하의 조건 하에서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수년 간의 경험은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통일적으로 병도하고 분산적으로 경영하는》 원칙은 현하의 조건 하에서 우리 해방구의 모든 경제 생활을 조직하는 정확한 원칙이라는 것이 이미 실증되고 있다.

해방구의 군대는 이미 90여만에 달하고 있다. 일본 침략자를 격멸하기 위하여서는 군대를 90만의 몇 배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서는 아직도 외부의 원조가 없다. 장차 외부의 원조가 있게 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생활 자로는 역시 우리들 자신이 공급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추호의 주관주의도 있어서는 안 된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는 필요한 병단을 집중하여 지금 분산되어 작전하던 지구를 떠나 일정한 공격 목표에 가서 작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행동하는 대병단은 생산 자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후방으로부터의 대량적인 물자 공급을 요하게 된다. 그리고 남아 있는 지방 부대 및 지방 병단(그 수요는 여전히 많을 것이다)만이 그전과 같이 일면으로 싸우면서 일면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의 전체 군대가 당면한 시기를 리용하여 전투와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조건 하에서 일률적으로 부분적인 생산 자급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아직도 의문이 있단 말인가?

우리의 조건 하에서 군대의 생산 자급은 형식적으로는



락후하고 퇴보적인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진보적이며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형식 상으로 볼 때 우리는 분업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조건 하에서, 즉 나라가 빈곤하고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며(이런 것은 모두가 국민당 내의 주요 통치 집단이 조성하여 놓은 최악적인 결과이다) 그리고 분산적이고 장기적인 인민 유격 전쟁을 하고 있는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진보적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민당 군대는 얼굴이 노랗고 몹시 여위었으나 해방구의 군대는 신체가 건강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들 자신이 생산 자급을 하지 않을 때에 있어서는 얼마나 곤란하였으며 일단 생산 자급을 하게 된 후부터는 얼마나 유족하여졌는가! 가령 우리의 두 부대, 예를 들면 두 련더러 두 가지 방법 즉 상부에서 생활 자료 전부를 공급하여 주는 방법과 상부에서 생활 자료를 공급하여 주지 않거나 혹은 조금만 공급하고 그 전부, 대부분, 절반 또는 그 일부분을 생산 자급하는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게 한다면 어느 방법의 결과가 좋을 것인가? 그들은 어느 방법을 접수하려고 할 것인가? 진실하게 1년 동안 생산 자급을 해 본 후에 있어서는 반드시 후자의 결과가 좋다고 인정하고 그 방법을 접수하려 할 것이며 전자의 결과는 나쁘다고 인정하고 그 방법을 접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것은 후자는 우리 부대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을 개선시킬 수 있으나 전자는 물질적으로 곤란한 현하의 조건 하에서 상부로부터 아무리 공급하여 준다 하더라도 역시 그들의 요구를 만

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표면 상으로는 《락후》하고 《퇴보적》인듯 한 이러한 방법을 취하면 우리의 군대는 생활 자료의 곤난을 극복하고 생활을 개선하여 개개인의 신체가 튼튼하여지게 되며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 곤난 중에 처하여 있는 인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리 하여 인민의 지지를 받아 상기적인 전쟁을 지탱하는 동시에 군대를 확대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또 해방구를 확대하고 피점령구를 축소시켜 침략자를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전 중국을 해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래 이러한 역사적 의의가 위대하지 않단 말인가?

군대의 생산 자급은 생활을 개선하고 인민들의 부담을 덜며 따라서 군대를 확대할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즉시로 많은 부산물들을 가져 왔다. 이러한 부산물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군관과 병사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군관과 병사들은 생산 로동을 같이 하면서 형제와 같이 친밀하여지게 되었다. (2) 로동 관념이 증강되었다.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낡은 식의 고용병제도 아니거니와 징병제도 아닌 제 3 종의 병역제, 즉 동원제이다. 이 동원제는 고용병제보다는 나아서 그렇게 많은 건달들을 만들어 내게 되지는 않지만 징병제보다는 좀 못하다. 우리의 현 조건 하에서는 아직 동원제를 채용하는 것만이 허락될 뿐이고 징병제는 채용할 수 없다. 동원되어 온 병사들이 오래 동안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로동 관념이 약화되며 따라서 또 건달'군이 생기며 군벌 군대의 일부 나쁜 습성에 물 들게 된다. 생

산 자급을 하게 된 이래 로동 관념이 강화되었으며 진달'군 습성이 개조되었다. (3) 규률성이 강화되었다. 생산 과정에서 로동 규률을 지키는 것은 전투 규률 및 군인의 생활 규률을 약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강화하게 된다. (4) 군대와 인민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부대가 자체로 살림을 꾸리게 되자 인민들의 재물을 침해하는 일이 적어졌거나 완전히 없어졌다. 생산 과정에서 군대와 인민이 로력을 교환하여 호상 협조하는 데서 그들 간의 친선 관계가 일층 강화되었다. (5) 군대가 정부를 원망하는 일이 적어지게 되었으며 군대와 정부 간의 관계도 좋아졌다. (6) 인민의 대생산 운동이 추진되었다. 군대가 생산을 하는 데서 기관에서 생산할 필요성이 더욱 뚜렷하여지고 열정이 더욱 높아졌으며 전체 인민의 보편적인 증산 운동도 자연히 그 필요성이 더욱 뚜렷하여지고 열정이 더욱 높아졌다.

1942년과 1943년의 2년 간에 선후하여 시작된 보편적 정풍 운동과 생산 운동은 정신 생활 면에서와 물질 생활 면에서 각각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으며 또 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개의 고리를 적절한 시기에 틀어 쥐지 않는다면 혁명의 련쇄 전체를 틀어 쥘 수 없게 되며 우리의 투쟁도 계속하여 전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7년 이전에 입당한 당원으로서 남아 있는 사람은 수만 명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 우리의 당원은 120여만에 달한다. 그들 중의 대다수는 농민 및 기타의 소부르주아 출신이며 그들은 매우 귀중한 혁명적 적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맑스주의적 훈련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맑스주의에 부합되지 않는 혹은 잘 부합되지 않는 원래의 사상을 가지고 입당하였다. 이러한 정형은 1937년 이전에 입당한 당원들 중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극히 엄중한 모순이며 극히 큰 곤란이다. 이러한 정형 하에서 보편적인 맑스주의적 교양 운동, 즉 정풍 운동을 전개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순조롭게 전진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간부들 가운데서 이 모순——당내의 프로레타리아 사상과 비프로레타리아 사상(그 가운데는 소부르쥬아 사상, 부르쥬아 사상, 심지어는 지주 계급의 사상까지 있으나 주되는 것은 소부르쥬아 사상이다) 간의 모순, 즉 맑스주의 사상과 비맑스주의 사상 간의 모순을 해결하였으며 또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 면에서 전례 없이 통일적으로(완전히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 거족적으로 그러면서도 온당하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은 더욱 큰 발전을 가져 오게 될 것이며 또 가져 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맑스주의 사상의 원칙 하에서 미래의 발전을 더욱 잘 장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고리는 생산 운동이다. 항전을 시작한 지 8년이 되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래도 먹을 것도 있었고 입을 것도 있었다. 그 후 점점 더 곤란하여지게 되어 식량이 부족하고 소금과 기름이 부족하고 피복이 부족하고 경비가 부족한 등 큰 곤란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것은 1940~1943년의

적의 대거 진공과 국민당 정부가 일으킨 3 차에 걸친 대규모의 반인민적 투쟁(소위 《반공 고조》)에 따라 발생한 아주 큰 곤난이며 아주 큰 모순이다. 이 곤난을 해결하지 않고 이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이 고리를 틀어 쥐지 않고 우리의 항일 투쟁이 전진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하는 것을 배웠으며 또 배우고 있다. 이리 하여 우리는 또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생기 발랄하게 되었다. 몇 해만 더 지나면 우리는 여하한 적도 두렵지 않게 될 것이며 일체의 적들을 압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다고 볼 때 정풍 및 생산의 2대 운동이 그 어떤 역사적 중요성을 띠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한 것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2대 운동을 보편적으로 널리 전개함으로써 기타 여러 가지 전투 임무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중국 인민의 칠저한 해방은 확신성이 있게 된다.

지금은 바로 춘경 시절이다. 모든 해방구의 지도자들, 기관 일'군들, 인민 대중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생산의 고리를 틀어 쥐고 작년보다 더 큰 성과를 달성하기를 바란다. 특히 아직 생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지구에서는 금년에 더욱더 노력하여야 한다.



## 헐리와 장 개석의 맞장구는 이미 파산되었다\*

(1945년 7월 10일)

장 개석의 독재 통치를 엄폐할 목적으로 소집된 제 4 기 국민 참정회가 7월 7일에 중경에서 열리었다. 이 번 제 1 차 회의에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참정회에서 볼 수 없던 정도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중국 공산당 측에서 한 사람도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측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정원 290 명의 참정원 중에서 출석한 사람은 겨우 180 명이다. 개회 때 장 개석은 일장 연설을 하였다. 장 개석은 이렇게 말하였다. 즉 《정부는 국민 대회의 소집에 관련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분들이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구체적 방안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 정부는 가장 성근하고도 솔직한 태도로 이 문제들에 대한 여러 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소위 금년 11월 12일에 가서 국민 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안건은 아마 이로써 결말을 짓게 된 모양이다. 이 안건은

---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신화사를 위하여 쓴 평문이다.

또 제국주의자인 헐리와 판계를 가지고 있다. 원래는 이 제국주의자가 장 개석에게 그런 수작을 부리라고 극력 충동하여 왔던 것이다. 그래서 장 개석의 배'심은 금년의 신년 연설[1]에서 약간 든든하여졌고 3월 1일의 연설[2]에서는 썩 든든하여져서 11월 12일에 반드시 <정권을 인민에게 돌려 준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장 개석은 3월 1일에 발표한 자기의 연설에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의 공통한 의사를 대표하여 제기한, 제 정당 회의를 소집하며 연합 정부를 수립하는 주장에 대하여 천리 밖에 차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미국 사람이 참가한 3인 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중국 공산당의 군대를 <정비 재편성>한다는 데 대하여는 신이 나서 떠벌려 대었다. 장 개석은 중국 공산당이 먼저 군대를 자기에게 넘겨 주어야만 중국 공산당에 <합법적 지위>를 베풀어 주겠노라고까지 말하였다. 이 모든 점에 있어서 헐리나 리념의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놀았다. 헐리는 4월 2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자기의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지위를 말살하며 중국 공산당의 활동을 비방하며 중국 공산당과 합작하지 않겠다는 등의 제국주의적인 허튼소리를 늘어 놓은 외에 또 장 개석의 <국민 대회>와 같은 추문들을 극력 추켜 올렸다. 이와 같이 중국 인민을 희생물로 삼으려는 공통한 목표 하에 미국의 헐리와 중국의 장 개석이 주거니 받거니 하며 치는 맞장구는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기세가 꺾이는 운명에 봉착한듯 하다. 그것을 반대하여 나선 자는 중국 사람들 가운데서나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나, 국민



당의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유당파 인사들 가운데서나 무당파 인사들 가운데서나물 막론하고 어디에나 다 있으며 그 수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원인은 단 하나 뿐이다. 즉 헐리와 장 개석의 이러한 것은 그들이 제 아무리 그럴듯하게 떠벌려댄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 인민의 리익을 희생시키며 중국 인민의 단결을 더욱더 파괴하며 중국의 대규모적인 내전을 위한 지뢰를 매설하려는 것이며 그리 하여 미국 인민과 기타의 동맹국 인민들의 반파쇼 전쟁 및 전쟁 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공동의 리익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에 와서 헐리는 무엇에 바빠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당분간 숨어 버린 것 같고 그 대신 장 개석만 혼자 참정회 석상에 나서서 횡설수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월 1일에 장 개석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나라의 정형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국민 대회를 소집하기 전에는 인민을 대표할 수 있는, 정부가 인민의 의사를 문의할 수 있는 그러한 책임적인 단체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위원장은 어째서 또 참정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위원장의 론법 대로 한다면 중국 경내에는 《인민의 의사를 문의할 수 있는 책임적인 단체》가 하나도 없고 참정회는 밥이나 먹는 《단체》에 불과하므로 오늘의 《청취》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참정회가 그 위조한 《국민》 대회의 소집의 중지를 선언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비록 3월 1일의 성지를 위반하는 것이고 왕법을 범하였다는 말은 들겠지만 그래도 좋은 일을 하나 한 것으로 되

며 공덕을 쌓은 것으로 될 것이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 참정회를 평하는 것은 좀 시기 상조이다. 왜냐 하면 참정회가 결국 어떠한 것을 위원장에게 《청취》하게 할 것인지는 아직 며칠을 더 두고 보아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점만은 확실하다. 즉 중국 인민이 한결같이 원기하여 《국민대회》를 반대한 후부터는 《립헌 군주제》를 일렬히 주장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군주님을 위하여 근심하면서 돼지 새끼들의 국회라고 욕 먹는 그런 국회에 목을 매이지 말 것과 황제 노릇을 하려다가 죽은 원 새개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을 그에게 충고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군주님이 움츠러들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군주님과 그의 측근자들은 결코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권리라도 손쉽게 줌으로써 자기들이 털끝 만큼이라도 손실을 보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가까운 증거는 바로 이 군주님이 인민의 합리적인 비판을 《방종하게 공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에 의하면 《전쟁 상태 하에서 피점령 지역에서는 여하한 보편적 선거도 도저히 실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2년 전에 국민당 중앙 집행 위원회 전원 회의는 전쟁이 끝난 후 1년 이내에 국민대회를 소집하고 헌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일부 측에서는 방종하게 공격하였으며》 늦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가 연장될 수도 있고 설사 또 전쟁이 끝난 후라 하더라도 각 지방의 질서가 단기간 내에 회복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전쟁 국면이 안정되는 때에 즉시 국민대회를 소집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의외에도 일부 사람들은 또 《방종하게 공격》하였다는 것이다. 이리 하여 우리의 군주님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 인민은 장 개석과 그 도당들을 다음과 같이 혼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인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모든 기만책에 대하여는——그대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절대 용허할 수 없다. 중국 인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즉시 민주 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폐를 들면 정치법을 석방하며 특무를 없애 버리며 인민에게 자유를 주며 각 정당에 합법적 지위를 주는 것 등이다. 그대들은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는 한 가지도 실시하지 않으면서 소위 《국민 대회》를 소집하는 시간 문제에 있어서 재주를 부리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세 살 먹은 아이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참다운 그리고 최저 한도의 민주 개혁이 없이는 그 어떤 대회거나 소회거나를 물론하고 동'구덩이 속이나 던져지고 말 것들이다. 《방종하게 공격》한다고 하건 말건 하여튼 이런 종류의 기만책은 건걸히, 칠저히, 깨끗이, 전부 공격하여 버려야 하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보류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기만책이기 때문이다. 국민 대회를 여느냐 마느냐 하는 것과 최저 한도의 민주 개혁을 실시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전자는 당분간 없어도 좋으나 후자는 즉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장 개석과 그 도당들은 《더 일찍》 《정권을 인민에게 돌려 주려 한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최저 한도의 민주 개혁은 약간이라도 《더 일찍》 실시하려 하지

않는가? 국민당의 선생들이여! 나의 이 글의 마지막 몇 줄까지 보고서 그대들은 중국 공산당원들이 결코 그대들을 《방종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을 뿐이라는 것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 이것조차 안 된단 말인가? 그대들은 이것마저 대답하지 않고 그 대로 내버려둘 작정인가? 그대들은 어째서 《정권을 인민에게 돌려 주려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 개혁은 실시하려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주 해

[1] 이것은 1945년 1월 1일에 한 장 개석의 방종 연설을 가리킨다. 그는 이 연설에서 과거 1년 동안에 일본 침략자의 진공 앞에서 국민당 군대가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도리어 인민을 함부로 모욕하며 전국 인민과 각 항일 정당들이 지지하는,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연합 정부 및 연합 동수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을 반대하였다. 그러면서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견지하며 전국 인민에게 버림 받은 국민당의 어용 기관인 소위 《국민 대회》의 소집을 준비한다는 것으로써 인민을 반대하는 방패로 삼았다.

[2] 이것은 1945년 3월 1일 중경 헌정 실시 협진회에서 한 장 개석의 연설을 가리킨다. 장 개석은 그가 《신년 연설》에서 한 반동적인 주장을 고집하는 외에 또 미국의 대표가 참가한 3인 위원회를 조직하여 팔로군과 신사군을 《정비 재편성》할 것을 제기하였으며 미 제국주의자에게 중국 내정을 간섭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

## 헐리 정책의 위험성에 대하여\*

(1945년 7월 12일)

중국 주재 미국 대사 헐리를 대표자로 하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갈수록 더 명백하게 중국에서의 내전의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반동 정책을 고집하는 국민당 정부는 18년 전에 성립되던 그 날부터 내전에 의하여 살아 왔다. 그러다가 1936년의 서안 사변과 1937년에 일본이 중국 본부를 침입한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만은 마지 못 하여 일시적으로 전국적 규모의 내전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39년부터는 또 국부적인 내전을 다시 일으켰으며 그것을 중지한 적이 없었다. 국민당 정부의 내부적 동원 구조는 《반공산당을 첫자리에》라는 것이고 항일은 부차적인 자리에 놓여 있다. 지금 국민당 정부의 모든 군사적 배치의 중심은 일본 침략자를 반대하는 데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해방구로부터 《잃은 땅을 도로 찾는 데》와 중국 공산당을 소멸하는 데 두고 있다. 항일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서나 전쟁 후의 평화적 건설을 위하여서나 이를 막론하고 이러한 정형들을 충분히 예측하지 않으면 안

\* 이것은 모 태동 동지가 신화사를 위하여 쓴 평론이다.

된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살아 있을 때 이 점을 예측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리익을 위하여 그는 무력으로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도록 국민당을 돕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었다. 1944년 11월에 헐리가 루즈벨트 개인 대표의 자격으로 연안에 왔을 때 그는 중국 공산당 측이 제출한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폐지하고 민주주의적인 연합 정부를 수립하자는 계획에 찬동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그는 변심하였으며 연안에서 한 자기의 말을 배반하였다. 이러한 변심은 4월 2일에 워싱턴에서 발표된 헐리의 성명에서 로골적으로 표현되었다. 같은 한 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이 성명에서는 장 개석을 대표자로 하는 국민당 정부가 미인으로 되어 버리고 중국 공산당은 마귀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헐리는 솔직하게 미국은 장 개석과만 합작하고 중국 공산당과는 합작하지 않겠다고 언명하였다. 물론 이것은 헐리 개인의 의견만이 아니고 미국 정부 내의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지만 이것은 그릇된 그리고 또 위험한 의견인 것이다. 바로 이 때에 루즈벨트가 서거하였다. 그러자 헐리도 의기 양양하여 중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돌아 왔다. 헐리를 대표자로 하는 미국의 이 대 중국 정책의 위험성은 그것이 국민당 정부의 반동을 조장하며 중국 내전의 위기를 증대시킨 점에 있다. 헐리의 정책이 그 대로 계속된다면 미국 정부는 중국 반동들의 구린내 나는 깊은 똥'구덩이에 빠져 기여 나오지 못 하게 될 것이며 이미 각성하였으며 또 각성하고 있는 수억만 중국 인민의 적대 측에 서서 지금에 있어서는 항일 전쟁을 방해하고 장래에 있어

서는 세계의 평화를 방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연적인 추세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단 말인가? 중국의 전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독립과 자유와 통일을 요구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저지할 수 없는 세력이 반드시 민족적 억압과 봉건적 억압을 물리치고 일어 서리라는 것을 똑똑히 간파한 미국의 일부 여론계에서는 헐리식의 위험한 대 중국 정책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결국 변경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리고 어느 때에 가서야 변경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직 어떻다고 말할 수 없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반인민적 세력을 창조하며 이처럼 광범한 중국 인민을 적으로 삼는 헐리식의 이 정책이 그냥 변함 없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와 미국 인민에게 매우 무거운 부담과 끝 없는 재화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미국 인민들이 똑똑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포스터 동지에게 보내는 전보

(1945년 7월 29일)

포스터 동지 및 미국 공산당 중앙 위원회 앞

미국 공산주의 정치 협회 특별 회의가 브라우더의 수정주의적인, 즉 투항주의적인 로선<sup>[1]</sup>을 포기하고 맑스주의적인 지도부를 재확립하기로 결정한 동시에 미국 공산당을 이미 재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 하는 바이다. 우리는 미국의 로동 계급과 맑스주의 운동의 이 위대한 승리에 대하여 삼가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 브라우더의 수정주의——투항주의 로선(이 로선은 브라우더가 쓴 《데헤란》이란 책에서 충분히 표현되었다)은 총적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미국의 로동 운동에 대한 미국의 반동적 자본가 집단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반동적 자본가 집단은 지금 또 중국에 있어서의 그 영향을 극력 확대하며 하고 있으며 중국 국민당 내의 반동 집단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그릇된 정책을 찬조함으로써 중국 인민들로 하여금 엄중한 내전의 위기에 직면하게 하고 있으며 중 미 량대국 인민의 리익을 해치고 있다. 미국 로동 계급과 그 선봉대인 미국 공산당이 브라우더의 수정주의——투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한 승리는 중 미 량국 인

민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반일 전쟁 및 전쟁 후의 평화와 민주주의적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사업에 대하여 의심할 바 없이 중대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 주 해

[1] 브라우더는 1930년부터 1944년까지 미국 공산당의 총비서로 있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기간에 미국 공산당 내에는 브라우더를 그 대표자로 하는 우경 사상이 반맑스주의적인 수정주의——투합주의 로선을 형성하고 있었다. 브라우더는 1943년 12월부터 자기의 많은 연설과 논문들에서 이러한 수정주의——투합주의적 주장을 고취하였으며 또 1944년 4월에는 그의 우경 기회주의적 강령으로 되는 《해례관》이란 책을 출판하였다. 브라우더는 제국주의만 독점적이며, 부패하며, 사멸하면서 있는 자본주의라는 케닌주의의 기본 이론을 《수정》하였으며 미국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고 그것은 아직 《참소한 자본주의 제도의 일부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미국의 프로메타리아트와 대부르조아지 간에는 《공통한 이해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트레스트 제도의 보호를 주장하였으며 《계급 조화》를 통하여 미국 자본주의의 불가피적인 위기를 모면할 것을 몽상하였다. 브라우더는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황당 무계한 평가로부터 출발하여 그리고 독점 자본에 대한 계급 협조라는 투합주의적인 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1944년 5월에 미국 프로메타리아트의 정당인 미국 공산당을 해산시키고 따로 비당적인 미국 공산주의 정치 협회들 조직하였다. 브라우더의 이 그릇된 로선은 그 시초부터 포스터 동지들 수반으로 하는 많은 미국 공산당원들의 반대를 받았다. 1945년 6월에 미국 공산주의 정치 협회는 포스터 동지의 명도 하에 브라우더 로선을 비판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동년 7월에는 또 미국 공산주의 정치 협회 특별 전국 대표자 회의들 소집하고 브라우더 로선을 철저히 시정하는 동시에 미국 공산당을 재건하기로 결정하였다. 브라우더는 그 후에도 여전히 프로메타리아트를 배반하는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트루먼 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또 반당적인 분파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1946년 2월에 출당 당하였다.

## 일본 침략자에 대한 최후의 일전

(1945년 8월 9일)

8월 8일 소련 정부는 일본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 인민은 열렬한 환영을 표시하는 바이다. 소련의 이 행동에 의하여 대일 전쟁의 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이다. 대일 전쟁은 이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으며 일본 침략자 및 그 일체의 주구들을 종국적으로 타승할 때는 닥쳐 왔다. 이러한 정세 하에서 중국 인민의 모든 항일 력량은 전국적 규모의 반공격을 진행하여 소련 및 기타 동맹국들과 긴밀하고도 성과적으로 배합하여 작전하여야 한다. 팔로군, 신사군 및 기타의 인민 군대는 투항하지 않으려는 일체의 침략자 및 그 앞잡이들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광범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적들의 력량을 섬멸하고 그 무기와 기자재를 탈취하며 맹렬한 기세로 해방구를 확대하며 피점령구를 축소시켜야 한다. 무장 공작대를 대대적으로 조직하여 몇 백, 몇 천의 무장 공작대를 적후의 적후에 깊이 들여 보내어 인민들을 조직하고 적의 교통선을 습격 파괴하며 정규군과 배합 작전하게 하여야 한다. 피점령구의 천 백만 대중을 대담하게 발동시켜 즉시 지하군을 조직함으로

써 무장 봉기를 준비하며 외부로부터 진공하는 부대와 배합하여 적을 소멸하여야 한다. 해방구를 공고화하는 사업에도 여전히 주의를 들며야 한다. 금년 겨울과 명년 봄에 걸쳐 현재의 1억만 인민과 모든 신해방구의 인민들 속에서 보편적으로 소작료 인하와 리자 인하를 실시하며 생산을 발전시키며 인민 정권과 인민의 무장력을 조직하며 민병 사업을 강화하며 군대의 규율을 강화하며 각계 인민들의 통일 전선을 견지하며 인력과 물력의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일들은 적에 대한 아군의 공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 인민은 내전의 위협을 방지하는 데 류의하며 민주주의 연합 정부의 수립을 촉진하기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 민족 해방 전쟁의 새로운 단계는 닥쳐 왔다. 전국 인민들은 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종국적 승리를 전취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이 책은 본사에서 1965년 11월에 출판한 《모택동선집》 제 3권 조선문판 제 2판에 근거하여 재판한 것이다.

本書根據我社 1965年11月出版的《毛澤東選集》第三卷朝鮮文版第2版重印。

## 모택동선집

제 3 권

•

민족 출판사 출판  
신화 서점 북경 발행소 발행  
각지 신화 서점 판매

•

1967년 2월 북경 제 2차 인쇄  
보급판 정가 44원

# 毛泽东选集

## 第三卷

(朝鲜文)

民族出版社出版

(北京安定门外和平东路)

北京市书刊出版业营业许可证出字第047号

北京市印刷四厂印刷

新华书店北京发行所发行

各地新华书店经售

787 × 1092毫米 1/32 · 印张，15 1/2 · 插页，2

根据1965年11月北京第2版重印

1967年2月北京第2次印刷

统一书号，M1049(6)123 普及本定价，0.44元

